

회병집(晦屏集)

신체인(申體仁)

2022-11-11

鵝洲申氏 시조바로세우기 協議會

申有植(신유식)

회병집(晦屏集) 신체인(申體仁)

형태서지

권수제	회병선생문집(晦屏先生文集)
판심제	회병집(晦屏集)
간종	목판본(활자보각본)
간행년	간행 연도 미상
권책	12 권 6 책
행자	10 행 21 자
규격	21.5×16.1(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석주 D1-A1016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93

저자

명	신체인(申體仁)
생년	1731 년(영조 7)
몰년	1812 년(순조 12)
자	자장(子長)
호	회병(晦屏)
본관	아주(鵝洲)
특기사항	임필대(任必大), 김낙행(金樂行), 이상정(李象靖)의 문인. 이종수(李宗洙), 김종덕(金宗德), 유장원(柳長源), 조술도(趙述道)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영조	7	1731	신해	雍正	9	1	4월 25일, 義城縣 龜尾里에서 태어나다.
영조	14	1738	무오	乾隆	3	8	3월, 모친상을 당하다.
영조	18	1742	임술	乾隆	7	12	11월, 계모 李氏의 상을 당하다.
영조	26	1750	경오	乾隆	15	20	豊山柳氏 柳後元의 딸과 혼인하다.
영조	30	1754	갑술	乾隆	19	24	順菴 安鼎福을 찾아 뵙고, 「東史綱目」 草本의 十數條를 논하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26	5월, 부친상을 당하다. ○ 6월, 부인 풍산유씨의 상을 당하다.
영조	35	1759	기묘	乾隆	24	29	順天張氏 張大龍의 딸과 혼인하다.
영조	37	1761	신사	乾隆	26	31	鄉解에 1등으로 합격하다.
영조	40	1764	갑신	乾隆	29	34	大山 李象靖에게 나아가 수업하다.
영조	50	1774	갑오	乾隆	39	44	任必大를 곡하다.
영조	52	1776	병신	乾隆	41	46	趙述道, 鄭宗魯 등이 내방하다.
정조	5	1781	신축	乾隆	46	51	이상정을 곡하다.
정조	6	1782	임인	乾隆	47	52	구미리 錦山에 主敬齋, 集義齋를 짓고 전 영역을 錦淵精舍라고 하다. 이후 ‘晦屏’으로 자호하다.
정조	7	1783	계묘	乾隆	48	53	大山書堂에 모여 이상정의 遺集을 교정하다.
정조	8	1784	갑진	乾隆	49	54	4월, 부인 순천장씨의 상을 당하다.
정조	10	1786	병오	乾隆	51	56	의성 氷溪書院의 洞主가 되다. ○ 구미 東洛書院에서 「太極問辨」을 교정하다.
정조	12	1788	무신	乾隆	53	58	심한 眼疾을 앓다.
정조	13	1789	기유	乾隆	54	59	6대조 申之梯의 「梧峯集」 別集을 간행하다.
정조	22	1798	무오	嘉慶	3	68	8월, 큰아들 申鼎辰을 곡하다.
정조	23	1799	기미	嘉慶	4	69	2월, 계모 영양남씨의 상을 당하다.
~	-	~	~	~	-	~	의성 현감 金相任이 經術과 文章으로 천거하다.
순조	8	1808	무진	嘉慶	13	78	경상도 관찰사 尹光顔이 천거하다.
순조	9	1809	기사	嘉慶	14	79	경상도 관찰사 鄭東觀이 천거하다.
순조	12	1812	임신	嘉慶	17	82	4월 3일, 금연정사에서 졸하다. ○ 6월, 涑洞에 장사 지내다.
순조	34	1834	갑오	道光	14	—	4월, 아들 申瀾辰의 부탁으로 李秉遠이 행장을 짓다.

편찬및간행

저자는 梧峯 申之梯와 孤松 申弘望의 후손으로 벼슬은 하지 않은 채 산림에서 李象靖, 金樂行의 문인으로 활동하였는데 文才와 學德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자의 저서로는 시문 외에 聖賢들의 '敬'에 대한 요지를 편찬한 「崇敬錄」 2책이 남아 있다.

저자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族子인 申鼎周(1764~1827)가 지은 遺事(申鼎周 著, 陶窩集 卷4), 그리고 이를 가지고 저자의 아들 申灑辰(1779~1834)이 所菴 李秉遠(1774~1840)에게 부탁하여 1834년에 받은 행장 뿐이지만,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에 의해 저자의 유적과 유문이 수습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편찬 간행에 대해서는 序跋文이나 다른 기록이 없어 문집의 정확한 간행 연도를 알 수가 없다. 다만 본집의 목록을 보면 권1~11까지의 내용만 있고 권12의 부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권12 전체(9판)가 활자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행장이 작성된 1834년 이전에 판각이 이루어졌고, 뒤에 활자로 보판하면서 행장을 추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목판 초간본의 현전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후 문집 사이사이에 활자를 補板하여 간행한 본이 있는데, 보판된 부분은 목록의 제5~6, 25~26판, 권1의 제9~14, 17~18판, 권2의 제1~2, 5~8, 25~26판, 권3의 제1~2, 25~26, 39~40, 47~50판, 권4의 제2~3, 12~13, 24~25판, 권5의 제1~2, 9~10, 13~14, 27~30, 35~38, 41~42판, 권6의 제3~4, 11~12, 15~16, 30~31판, 권7의 제35~36판, 권8의 제25~26판, 권9의 제11~12, 17~18판, 권10의 제1~2, 9~10, 23~24, 29~30판, 권11의 제7~8, 21, 23, 37~38, 41~42판, 권12의 제1~9판 등으로, 다시 인쇄하면서 마모가 심한 판목 대신에 활자를 이용 보판하여 후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집은 저자의 아들 신익진이 유고를 수집 정리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것을 바탕으로 1834년 이후 부록과 원집의 일부를 활자로 보판하여 인행한 후쇄본이다. 《후쇄본》 이 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석주D1-A1016),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898), 장서각(K4-6689),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688)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저자의 저서인 「崇敬錄」 4권 2책을 후손들이 1974년에 石板으로 간행하였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간행 경위를 알 수 없는 목판본의 후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1의 제18판과 권6의 제3판은 卷次가 '三'으로 오기되어 있고, 권5의 제2판은 板次가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권3의 제17·38·52판, 권5의 제1판, 권7의 제11판, 권9의 제33판은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본인 국립중앙도서관장본으로 대체하였다.

行狀(李秉遠 撰), 西山集(金興洛), 本集內容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12권 6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 서문은 없고 목록이 있다.

권1은 詩(186題)이다. 시는 詩體 구분 없이 저작 연도별로 편차되어 있으며, 1750년부터 1811년까

지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장문의 并說, 并序, 後識 등을 붙여 시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弟兄 趙進道の 형제들과 증유하며 수창한 시 및 장편시가 여러 편 있다. 백종형 申重仁, 任必大, 洪虎吉 등에 대한 41제의 만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백종형 신중인에 대해서는 11수의 연작으로 지어 깊은 슬픔을 표현하였다. 이 가운데 <送金氏妹述懷六十韻>은 金百能의 처가 된 누이동생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읊은 것이고, <敬松齋>는 부친이 龜湖에 지은 小齋에 대해 읊은 것이고, <龜窩詩>는 丹溪에 있는 재종질 申鼎梅의 小屋에 勸戒의 말을 붙이고 3수를 읊은 것이다. <錦山六詠>, <錦淵十詠>, <錦里四詠>, <平錦二詠>, <晦屏二詠> 등은 금산에 지은 금연정사와 주변의 풍광을 읊은 것이다. <病中聞利林形勝喜甚略述>부터 <總述>까지 6수는 1788년에 안질로 고생할 때, 영남 제일의 洞天 '安義三洞'의 절경을 전해 듣고 지은 것이다.

권2~5는 書(161)이다. 전체 분량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대상 인물별로 묶어 연도순으로 편차하였는데 대체로 師友, 門人, 親戚 순으로 되어 있다. 권2는 스승 李象靖, 金樂行, 任必大 및 蔡濟恭, 李秉模, 李弘源, 柳澧, 李宜泰, 李命天, 柳聖霖, 申光翼 등에게 쓴 것이다. 이 가운데 이상정에게 1764년에 보낸 것은 「朱書講錄刊補」의 교정에 참여하는 선생을 따라 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쓴 것이고, 1781년에 쓴 것은 '敬兼中和圖'에 대한 의혹을 질정한 것이다. 신광익에게는 별지로 '祧主旁題改不改', '庶子所生母題主稱謂' 등 喪禮, 祭禮의 禮疑에 답한 것들이다. 권3은 權正鄰, 宗장 申龍起, 宗형 申觀模, 姜必勉, 趙宜陽, 趙運道, 李宗洙, 金宗德·金宗敬 형제 등에게 쓴 것이다. 이 가운데 이종수에게 1786년에 쓴 편지는 「주서강록간보」의 刊役이 마무리되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追改할 곳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김종덕·김종경 형제에게 쓴 편지가 많은 편으로 이들과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致曲」, 「心經講錄刊補」를 논한 장문의 편지 등이 있다. 권4는 柳長源, 李師靖, 黃啓熙, 趙進道, 趙述道, 李德中, 金道行, 金宗道, 金崇默, 柳泰春, 鄭履寅, 李萬運, 任輔, 李經祿, 金始全, 任軫, 都尙郁, 姜世文, 李堉, 金垞, 李垞 등에게 보낸 것이다. 이 가운데 1781년 이덕중에게 쓴 편지는 별지를 붙여 文章은 道義를 준칙으로 삼아 실용적이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우에게는 1806년에 莊獻世子の 변무를 위한 상소를 올리는 데 앞장섰다가 완도의 古島로 유배된 것을 위로하며 쓴 것이 있다. 이완에게는 1783년에 이상정의 문집에 대한 교정사항을 적어 보낸 것이 있다. 권5는 金宗發, 安鼎德, 申光孝, 申宅明, 金勉儒, 柳象經, 趙友愿, 金宗駿, 權得仁, 張泰殷, 金良鍵, 鄭台攝, 李東發, 宗인 申冕朝·申冕周 형제, 宋國秉, 趙星復, 朴在淳, 金就礪, 趙居信·趙居讓 형제, 李垞·李垞 형제, 金宗夏, 재종숙 申道一, 족제 申立仁, 재종질 申鼎梅, 종질 申鼎沃·申鼎五·申鼎凝, 족질 申鼎周, 아들 申鼎辰과 申鼎輝 등에게 쓴 것이다. 이 가운데 1808년 정태섭에게 쓴 것은 鄭萬陽과 鄭葵陽 형제의 「墳簾兩先生語錄」을 刪校한 뒤에 보낸 것이다. 족질 신정주에게는 별지로 喪服 등에 대해 답한 것이 있다. <寄辰兒別紙>는 1775년 아들 신정진이 지은 잡저를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일일이 제시한 것이다.

권6은 雜著(10)이다. 이 가운데 <宗孫祖應字詞>는 종손에게 자를 '幼承'이라 지어 주고 그 의미를 서술한 것이고, <臆銘集句圖>는 1785년 錦淵精舍에서 지낼 때 詩에서 集句하는 방식대로 前賢들의 箴贊名言에서 뽑은 16구를 도식하고 설명한 것이고, <天學宗旨圖辨>은 安鼎福, 李獻慶, 趙述道 3인의 천주교 辨斥 글을 읽고 그 글에 실려 있던 '천학종지도'가 私慾을 내세웠으므로 천주학이 이단임을 증명하고, 세 사람의 설을 보완하기 위해 1791년에 쓴 것이고, <中何嘗不在裏面辨>은 南軒 張栻이 주장한 '已發之後 中何嘗不在裏面' 설을 펴는 선배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朱子の 정론

을 들어 후학을 경계한 것이고, <父卒三年內爲母服說>은 「儀禮」와 「通典」에 근거해 해석한 선유들의 주장을 싣고 뒤에 저자의 견해를 덧붙여 변설한 것이다. <蔡覺軒動箴說疑義>는 중국의 蔡模가 해석한 程子の 四勿箴 중 '動箴'에 대한 의문점을 적은 것이다. <書贈柳學士士鉉>은 柳台佐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며 지어 준 4언시 형식의 箴言이다. <留揭氷溪院壁文>은 빙계서원에 있을 때 洞神壇에서 해마다 벌이는 巫樂의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을 써서 부친 것이다. <讀書謬錄>은 독서하는 중에 「大學」, 「家禮」, 「心經」, 「孟子」 등 경서 및 전현들의 글에서 발견한 오류를 지적하고 저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이다.

권7은 序(9), 記(12)이다. 서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의 일을 기록한 由由軒 南磔의 「亂離日記」, 종백형 申重仁의 「龜洞逸稿」, 현감 徐命敏이 藏待書院에서 講會를 연 후 지은 詩와 論에 대한 後序, 재종질 申鼎梅의 <龜園贈別帖>과 「龜窩遺稿」, 孫有慶의 字 '積汝'에 대한 것, 편저인 「崇敬錄」 등에 대한 것이다. 기는 三守軒, 樂素齋, 龍岡草廬, 李師靖의 新樂堂, 李述靖의 四友堂, 洪天休의 金鑑軒, 錦山の 形勝을 기록한 것, 금산에 세운 錦淵精舍, 棣華堂, 白石亭, 申光翼의 嵩南精舍, 三一齋 重修 등에 대한 것이다.

권8은 識跋(12), 箴銘(4), 上樑文(4), 哀誄(6), 祝文(2)이다. 지발은 達山 張補之의 實蹟에 대한 것, 李輔의 「南溪實紀」, 「杏堂稿」, 「戊申日錄」, 6대조 申之梯의 「梧峯集」 別集, 선조 申之孝의 「鷹巖血書拾錄」, 洪彦博의 「陽坡實紀」, 「龜巖實紀」 등에 대한 것이다. 상량문은 先廟의 移建, 錦淵精舍, 梧溪里社 廟宇, 西山精舍에 대한 것이다. 애리는 李學靖, 趙錫愚, 崔恒鎮, 都吉模, 姜必勉, 金宗燮에 대한 것이다. 축문은 梧溪里社 奉安文과 常享祝文, 무谷의 世德祠 奉安文과 상향축문이다.

권9는 祭文(21), 墓表(2)이다. 제문은 종백형 신중인, 鄭僑, 외왕모 務安朴氏, 김낙행, 임필대, 장인 柳後元, 이상정, 종질 申鼎沃, 김종경, 황계희, 김송묵, 조진도, 申光翼, 柳聖霖, 李垸, 李命天, 이종수, 김종덕 등을 애도한 것이다. 묘표는 종백형 신중인, 종질 申鼎沃에 대한 것이다.

권10은 墓誌(12), 墓碣銘(3), 碑文(2)이다. 묘지는 李軫, 尹重邦, 李夢靖, 金謹信, 부친 申道萬, 모친 義城金氏, 조부 申賁龜, 증조부 申叔範, 종조 申震龜, 백부 申道三, 중부 申道九, 아들 申鼎辰에 대한 것이고, 묘갈명은 申宅誠, 金蕃, 張宇遠에 대한 것이다. 비문은 金燁·金煜·金燦 三烈士를 기린 제단비, 李景曾에 대한 묘비이다.

권11은 行狀(9), 傳(1)이다. 행장은 朴文淹, 金震護, 權應生, 權炆, 鄭葵陽, 孫守曾, 李臨厚, 이상정, 申祐에 대한 것이다. 전은 麗末鮮初 때 사람 白巖 金齊海에 대한 것이다.

권12는 附錄이다. 李秉遠이 1834년에 지은 행장이 실려 있다.

晦屏先生文集卷之一

詩

雨坐 庚午

東湖水清淺。雙雙浴鳧妍。湖渚多青蒲。湖中多碧蓮。依依細烟合。嫋嫋香風牽。幽人在此間。日夕自盤旋。興來湖間釣。倦歸湖齋眠。啓戶青嶂雨。捲簾夕陽天。覺來讀古書。古書復千編。此意良悠哉。何必雲間仙。

看小學有感

偶取小學書。耽玩無終歇。千秋紫陽翁。能使昏蒙發。於是百行具。細大無遺泄。吾知聖賢語。總爲後來說。平生愧自棄。放曠憚檢律。今來尚有爲。對此忘寒熱。

送從弟季眞 好仁 往東都

花山七月後。客馬復南州。地闊安江野。天清金谷秋。出門君去去。把酒我悠悠。落日雞林國。獨登何處樓。

哭伯從兄 重仁○十一首

吾家寶樹玉爲枝。長帶清風好自持。大廈十年成棟柱。梧松餘韻尚纒纒。

積痼燒骨禍燒肝。卅載生無一日歡。自是孝慈天性出。宜家高行幾欽歎。

天理元從壬戌迷。匣琴餘怨不勝悽。那知舊日摧樑恨。更作西江杜宇啼。

丰姿秀骨出塵氛。清韻泠泠筆下聞。最是難忘眉宇氣。詩情醉態藹生醞。

從今誰守舊瓊青。痛哭呼天天杳冥。死去倘思門戶事。祇應無面拜先靈。

常棣花零洛水隈。孤舟空載惠連迴。入門鶴髮牽衣哭。爾伯何歸爾獨來。

碧海珠沈不復歸。龜山埋玉怨何采。應隨泉下雙冤魄。卻勝人間淚滿衣。

驢背詩筒伴櫬歸。青絲金鎖摠無輝。忍看丹旆商山路。依舊收來滿腹詩。

碧溪東畔竹林西。蔓草荒壇恨轉迷。浮世百年棲息計。滿林斜日鳥空啼。

平生心計到今非。何處愚蒙更與歸。浮世一朝歡事去。峩洋從此斷瑤徽。

不忍重逢鄭氏郎。香爐春約已茫茫。龜湖倘記西州哭。醉裏傷心夢裏忙。香爐屏山花藏巖山名。公歿年十月。鵝溪鄭姑叔來留旬餘。相與賦詩。公曰。同志相聚。塵世所難。明春須復來。龜湖桃花水可汎舟。又可入山中賦詩。吾曰。花藏山可往。公與叔曰諾。公既歿。吾夢見公曰。曩與鄭叔有花藏約。今已矣。他日姑叔復來。或與作湖上遊則必相與思兄而泣。未幾夢覺。

病中友來求詩

青草柴門臥病時。故人來我求我詩。勸君回首春塘曲。詩在春塘楊柳枝。

看魚

花發江臯鳥亂啼。暖沙青草白鷗低。東風緩步看魚去。拂面春光柳不齊。

六月十六夜

中宵坐高閣。六月多清風。野闊烟雲斂。月出青山空。澄明不可極。是時心凝融。不必酒杯飲。何須詩律工。靜中有所生。要看一氣通。

商山病懷

江館清秋客未還。西風空臥病軀寒。淒零霜露悲佳節。蕭瑟松篁憶故山。孤鳥晚雲秋野闊。亂山紅樹夕陽殘。明朝欲向聞韶去。岸葦江楓拂馬鞍。

月出 壬申

芳湖月出水如藍。紅燭清樽客興酣。夜半酒醒霜氣重。碧天星斗掛蕭森。

送金氏妹述懷六十韻 并小序○癸酉

余少喪母。姊妹有三人而二姊次第出適。小妹六歲離家。十五年畜於外氏。去年始歸。經痘於家。成人爲光山金氏婦。未幾。又還外氏省王母。將歸。余竊悲其幼久離骨肉。長又遠嫁。乃賦述懷六十韻以

遺之。且附二姊及家室。使知余喪母戀妹。

我生二四歲。慈母忽焉亡。平生積怨慕。鬱鬱回中腸。姊妹有三人。少小相依將。女子則有行。伯仲適殊方。鵲鴿別羣隊。寒影獨悵悵。娶婦沙伐國。母祀且延長。傷汝獨單子。六歲別家鄉。瘦骨纏疾病。短髮雜瘡瘍。芳花正脆^P弱。瘁憊經風霜。他鄉滯十載。朝夕白雲望。每寄書札來。開紙字萬行。苦語說戀家。涕淚痕滂滂。時策匹馬往。見我頗驚狂。淒涼動悲思。不語淚滿眶。合沓歲月徂。芳齡四五昌。嚴君命我行。取汝還梓桑。去年十月冬。輜輿始歸裝。粉黛飾芳華。香珮雜蘭璜。蒼茫動曉駕。谷巖杳低昂。依依望鄉邑。喜劇心遑忙。入門且嗚咽。感激傷萱堂。揮涕拜嚴君。恍惚情無央。柔情動容態。見者稱恭良。宗親萃滿堂。顏容總已忘。焉能識閭巷。猶自記園塘。明朝入母廟。再拜薦蕉黃。相視涕覆臉。精靈降皇皇。懽悅弟兄俱。談笑喜欲翔。所悲二姊遠。不得同翩跹。乾坤烈火^P圍。毒疹如網張。歲暮荒山谷。避命同憂惶。寒風號古木。日夕愁虎狼。危警逼肘腋。望家復遑遑。歸泊知詎幾。叫痛遂滿房。踰^躅躅八口臥。死生終未量。汝命絕還蘇。吾家幸終臧。新年疾憂霽。固足稱慶觴。春山花鳥悅。日月增輝煌。良辰鳴鴉雛。爲汝迎吉郎。春糒映新旭。繡服橫鴛鴦。新壻斐如玉。佳氣動門牆。回首意惻愴。撫汝思亡孀。所喜汝心淑。容態頗清揚。幽閨明月上。春園花露瀼。開筵邀弟兄。要我誦詩章。外家有大母。崇年七十強。愛汝新結褵。欲觀雲鬢香。春風草木華。渺然送征轡。遂將歸見姑。臨發且彷徨。嗚泣不得語。淚下霑雙璫。征馬風翩^P翩。江水浩洋洋。依稀出門巷。春容過林篁。家室失懽笑。愁腸若沸湯。爲汝誦範史。尚冀學姒姜。吾觀古哲婦。不獨事粉粧。舅姑必敬孝。夫壻必輔匡。慈母有德範。可以嗣休光。登堂問寒燠。入廚供椒薑。組紉莫非職。夙夜敢怠荒。景福祝螽斯。百年歌鳳凰。

春日寄柳巨天

東風三月草芄芄。雲樹相思隔燕鴻。今日春愁方蕩蕩。舊江花色正泔泔。堪懷佩酌臨清渭。長擬尋儔泛短篷。丹杏縞梨空爛熳。剩教迢遞夢難窮。

同春稷會詩 丙子

^P十一人煩十一招。家家盤酌宴生朝。尋常曲水歌修竹。恍惚康衢頌大堯。饗具在情宜稱力。約辭盈卷幾多條。懽心逐會乘時興。不必春風柳拂橋。

次季真韻

生年我偶兄。天質子真清。須共詩書習。肯徒衣食營。山高究簞築。泉達待科盈。天道本無息。復元於既貞。

雲嵐寺 己卯

雲嵐寺再訪。僧老少如干。鷲嶺他年別。龍堂是處閒。白雲低暮箔。明月動春山。登來臨萬壑。方覺上方寬。

待從二兄 近仁

昨夜龜庄釋子迴。爲言今日我兄來。雲樓試遣菴僧掃。盡日青山石戶開。

鬻堂文會。次剛窩任丈 必大 韻。

一鄉衿佩並冠童。七月新秋樓上風。批白竄黃羞拙技。逼精透巧欠前功。留連勝會騷壇上。肅穆嚴師聖廟中。庠序由來興孝弟。詞華非必急先工。

寄金道彥 宗德○庚辰

三旬攜筆逞詞華。空負雲山宿約嘉。隨處一心嬰外物。秋風又發木綿花。嘗期棲山未果。秋又監摘綿未赴。

青巖亭

忠定遺風百世光。野亭松竹想幽藏。眉翁粉篆青巖字。退老瓊詞活畫章。窻下短橋通絕嶼。檻前明鏡有迴塘。殘花亂葉顛風雪。匹馬窮山客意涼。

架山

人謀天意共經營。南路關防第一名。三面懸厓秦函固。五州輸粟漢倉盈。重城太守元戎職。朱帶胡僧總攝榮。却恨南門遮不密。幃樓須更謹探情。

次李善述 述靖 韻寄諸友

燈前三夜共開襟。別後相思更不任。化蝶却煩莊叟夢。題詩空覆子安衾。花迎暖日紅將展。柳帶新春綠未禁。離合紛紛元有數。莫教分手更傷心。

送黃景初 啓熙

明日商山路。送君歸帆賒。前期指白雪。佳節負黃花。忽忽功名晚。悠悠歲月過。何曾關造物。努力更須多。

敬松齋

山下深林林下屋。山光屋影倒波心。江湖賴守魚龍護。巖壑驅藏虎豹侵。秋水淨時催月色。夕陽低處易峯陰。白鷗自是閒中物。對爾渾忘古與今。

先君嘗爲小齋一間於龜湖上。扁曰敬松。以先祖孤松府君手植古松在其後故也。齋既^P成。不肖嘗隨先君爲四韻詩以詠之。未多年。先君下世。齋亦不保。松爲風雨所拔。惟此詩爲可徵云。

次蘇處士 應天 陶淵詩韻

卓立清標筭古今。陶淵碑閣慕增深。乾坤獨抱尊周義。日月長懸思漢心。栗里田園靖節宅。南陽花鳥臥龍吟。却歎外裔遲瞻賞。曾有詞人解遠尋。

玉蓮寺。與小山李丈 光靖 及孟休 顯靖 春遊韻。辛巳

聞道春山裏。雨餘饒蕨芽。殷懃隨杖錫。飄拂入雲霞。幽^P壑渾嘉木。層崖已落花。居僧迎客拜。強半舊顏多。

來坐隱仙寺。青山深復深。鳥啼疑有待。花落自無心。幽興隨時發。眞緣逐處尋。雲間相對語。方覺滌塵襟。

心克存時志不荒。不須題句更商量。若教大本元無立。靜裏遊騎已遠揚。

陶山 癸未

退老先生天下賢。陶山書院國中傳。百年南土絃歌盛。萬古東韓日月懸。草木曾經杖履跡。風烟若覩藏修年。眇然末學瞻遺廟。落日蒼蒼雲半天。

孤山精舍

P 招招舟子暮江頭。來訪孤山精舍遊。山是清涼第一落。水窮東洛最源流。瑤琴聲斷風烟古。梅鶴庵空草樹秋。到此小孫增感慕。梧峯佳句至今留。

昨夜

昨夜春天闊。溪山灑氣生。寒簷猶月色。平野但江聲。露菊青芽濕。鳳梅瘦影橫。朝來心界活。贏得夢魂清。

涵碧樓 甲申

五日南遊一日閒。來登飛閣倚江干。西南地勢虛無裏。上下天光蕩漾間。一郡風流歸紫綬。四時歌管繞朱欄。書生亦解探佳景。孤棹隨風去更還。

旅館

金鑪火宿燭搖紅。孤館寒宵聽雪風。黃卷聖賢心法密。不妨隨著靜存工。

自畿湖還。次村秀賦詩。

三秋殘蠶走東西。踏盡江雲嶺日低。歸卧故山紅葉裏。賴君今夜和清題。

用前韻。警作詩較工。

寒燈達曙日仍西。吐萼爭雄意不低。此際一身誰所主。不關華藻滿篇題。

柳洲柳丈 禮 吟五年字求和

P 夫子衰顏我少年。偏蒙情眷似忘年。詩書寄問從前日。風雨登堂記去年。每說同庚先誼地。幾欽玄髮獨遐年。自憐枉荷稱褒重。虛負平生六六年。

柳洲翁新構小屋韻

甲第窮奢世共愚。拂雲朱棟不關吾。居休自足成單架。營築何須役衆夫。江漾晴沙千里浪。山圍丹壁四時圖。若論晚景安棲意。飛鳳將雛集翠梧。

仰復柳洲翁六十韻

河之水瀾瀾。其上柳洲宅。丹壁映晴沙。雜以松篁碧。柳洲公自老。高吟卧水石。世間物號萬。柳洲公盡撫。或遇^P佳景寫。或發閒愁作。或叙別離苦。或述嘲戲劇。或寄問相酬。或誅訣窀穸。磊落千百篇。淋瀝瀉腎膈。得韻無難字。逞技恣疊複。一一編作卷。藏在笥篋窄。記吾去年秋。掃墓入羽谷。逶迤向仙庄。一宿催歸轂。乾坤忽冥晦。疾風挾雨激。驚浪蹴天起。魚龍鬪江國。征馬懼不發。僕隸愁欲哭。所以三日夜。坐零江郊木。羈懷苦無聊。何以慰窮寂。間詣公之室。試請傾書篋。公不以我矇。抽提數卷擲。再拜起更坐。雙手擎閱亟。詞致何翩翩。氣力頗不弱。大篇能自恣。短律愈濃熟。其中勃磔者。往往如怒嚇。顧余何所知。拊卷空咄嘖。阿胤時在傍。相對如鼎足。縱談^P雜今古。窓日倏西落。回首如夢寐。追想歲已隔。正月春之初。公書忽盈尺。提及先誼好。謬加推獎辱。謂有新廬韻。強我構拙惡。新廬問何如。前日蓋我郎。記公當戶坐。相邀許前席。爲我說經始。伊昔無寢閣。年老覺漸苦。近日纔構得。家貧財力艱。無由起宏廓。人皆小如斗。我視瓊樓若。父子日同處。足以容數客。我遂審其廬。制度蓋極樸。荒茅惟數間。短椽不曾斲。所處極幽靜。轉透入巷曲。瀟灑向江岸。松籬密如柵。冷壁絕塵意。小窓晴舍旭。爇香坐其間。正宜讀經籍。吟詩固云好。靜養最可樂。我欲賦公韻。爲公侑清福。自愧非詩者。其如才力薄。少小^P學綴句。開口談甫白。及長漸頹懶。自謂非急速。每恐不自振。轉被沈吟極。中間設嚴戒。噤不評律格。年來或破例。不曾致心力。以是益難就。如今全窒塞。瓊韻患燥澁。何以副勒索。恬默久未報。歲爛增慙恧。方秋菊欲華。馳戀倍平昔。乃竊擬古風。包絡題盈牘。何必步來韻。竊兼賦新屋。荒詞不知裁。庶幾免終默。憑便欲賦懷。煩及忘猥碌。題罷秋日暝。江月想滿舫。

和雲洞書齋會話韻

追想溪齋勝集幽。座中巾佩雪盈頭。此間應有好談話。所恨不能同往遊。爛熳吟來滿軸韻。依稀隨入亂峯秋。^P何時擔笈投閒界。超卻人間多少愁。

憶趙姊兄聖與進道

郊墟日晚雨垂垂。落木寒山有所思。當世誰真相愛者。一身須自謹持之。春來花發烟霞洞。月出猿啼松桂枝。此正高人閒卧地。莫論榮悴等雲移。

兼憶姊兄之弟聖紹述道兄

日月山中閒卧客。近來眠食平安不。昔年知抱朱書讀。曩日仍聞雨谷遊。外物想忘榮辱久。實工宜向本源優。太平遺蹟饒花鳥。不是空爲隱者流。

聞柴里柳丈 聖霖 與栗里洪丈 虎吉。攜樂工遊俗離，金烏，伽倻三山。吟呈。

聞說柴桑晚興悠。名山隨處作清遊。聯筇友逐洪厓老。弄篴人逢蕭史儔。攜入萬峯秋色裏。坐吟三峽水聲頭。靈編知有囊中貯。早晚雲扃秘訣求。

有薄酒。擔送姜上舍 必勉。

陶元亮性嗜酒。家貧不能常得。想亦必有此患。親舊知其如此而不能真酒招之。豈不慨然哉。家中偶有薄釀。淡如水。飲之只敗口味。竊念嗜性或不簡厚薄。似或勝於茶湯。故因便寄一壺。因以詩道意。所冀欲得瓊章。若不鄙厚報。從當更辦醇味以謝至意。笑領幸甚。

薄薄山醪一飲罌。雪江擔寄釣翁貧。家人不識相思意。卻道無顏饋遠姻。

呈柴里柳丈。謝未賞盆梅。

遙想寒江處士梅。小盆春信臘前開。恩恩雪裏東歸客。空負水魂寂寞來。

嘉興曉發

曉發忠州路。清霜落馬蹄。雞聲村遠近。月色樹高低。漠漠江烟外。蒼蒼驛店西。寒風欺醉面。佳句向人題。

饗堂。同徐侯 命敏 講大學。次韻三首。庚寅

前聖遺書一部傳。千秋留與後人研。龍門發趣編章日。雲谷勘功易篋年。細密工程逐節在。分明宮榭幾間全。華筵欲共窮微旨。覺似顏賢歎益堅。

瑤琴絃斷曲無傳。塵匣惟尋古鏡研。著力但須從此地。流光無奈既過年。實工修處知行進。德業成時體用全。妙法莫如一敬字。不須徒患志難堅。

聯榻看經次第傳。何如委巷獨潛研。佳期末路惟今夕。盛舉吾鄉忽此年。萬事只須名實副。一心宜務始終全。躬行東閣推餘教。闔郡相期立腳堅。

遊蒼巖亭韻

鷺城南畔海門西。郭老江亭秋草萋。振代英聲如昨日。滿山青竹憶高棲。牕臨萬丈魚龍變。汀簇三時舸艦迷。唱盡蒹葭聲數疊。層巖無語夕陽低。

曉過丹月驛。馬上與李台甫 秉延 拈鳴字。

並轡江郊帶月行。千峯曙色入望平。蒼茫古廟將軍恨。搖落荒墟達水鳴。茅店逐來雞響遠。霜風吹送馬蹄輕。回看嶺樹千重裏。共宿寒燈一夜情

南漢開元寺。示李姊兄師文 學靖 李戚穉春 堦。

天下金湯國晉陽。一城林樾萬層蒼。朱旗映日元戎出。畫閣殷山釋子忙。積米連厓雲影合。洗兵臨壑水聲長。沁都醉帥終堪戒。况復留情粉黛香。嘗觀州尹出巡故頷聯及之

宿慶安驛示穉春

踏下山城雪。來懸驛店燈。風霜千里客。文墨百年朋。周俗詢南漢。嵇歌續廣陵。坐愁明日險。鳥道拂雲升。

次徐侯講太極圖韻 辛卯

道體無形寫作圈。又將如意說中傳。機分動靜相乘際。源在陰陽未判前。人事亦須人極立。一心還有一圖圓。恩恩講罷如探影。惟擬歸求敬字研。

季真夜話

草閣黃昏夜。云云語數迴。西峯半面白。應是月東來。

澗水

細澗流汨汨。前頭大海脩。緣何乃若許。日夕不曾休。

伏次大山先生高山精舍韻 壬辰

俯郊依峽占橫坡。爲看蒼屏倚碧波。西入洞門緣水國。中爲亭子接村家。林泉喜辦圖書室。詩禮思從杖履歌。早晚孤舟巖下泛。數聲漁唱繞晴沙。

次諸公賦李睡隱 弘祚 興丘遺墟韻

名區前世隱。遺蹟後人知。日月幽樓意。烟霞利遯時。紅塵山以外。高興水之湄。怊悵賢孫思。遺墟肯構期。

野城歸路。吟寄李使君 龜應。

林蔚嶺頭望眼悠。野城春色綠盈疇。千峯岌業開天險。一路逶迤繞海陬。峽裏官居兼吏隱。海中鹽舶似仙遊。清心樓上憂民意。惟在清心導下流。

輓柳洲翁 二首

楊柳金絲拂水垂。春光搖蕩夕陽時。從今花樹西城外。回首東風處處思。

怊悵詩仙何處尋。疑乘鸞鶴入雲深。一江風月今猶在。留得遊魂夜夜吟。

紅蓼篇

Ⓟ 花草自多品。水陸不同儔。我愛紅蓼花。多生芳草洲。歷歷沙岸際。瀟灑水雲秋。風生綠葉動。雨洗碧莖抽。花底集游魚。花邊睡白鷗。繚繞垂楊陰。掩映綠萍浮。此物固宜水。氣格絕塵愁。流俗不解愛。好事豈肯求。顧我在幽巷。矯首引興脩。所以水邊物。雜取多藏修。海棠植爲籬。綠楊種成丘。紅蓼與之俱。裁向小軒幽。巖居六七月。細雨風颼颼。亭亭十餘莖。開花出檻頭。牕櫺晚色淨。几案清香留。坐我讀其間。依然在漁舟。意想極清灑。氣味頗悠悠。杳冥汀洲趣。日夕且夷猶。誰道江湖遠。亦足此優游。持此感歲暮。仍欲贈遠遊。

趙姊兄寄詩覓次。三首。癸巳

男兒何恨老無妻。難得雙郎膝下齊。況到艱窮知有立。休將纖瑣浪喻悽。潭心却怕生驚浪。駿氣還須息怒蹠。無限太平全一壑。繞山花鳥且高棲。

顛倒呼兒又喚妻。手擎珍札喜看齊。長辭滿幅情難盡。佳句聯題說太悽。欲報却歎伴暗過。相尋安得馬驕蹠。中宵對月難成夢。思到晨鷄欲下棲。

多愧機頭季子妻。幾年操瑟妄求齊。一身就靜當知止。萬事隨安豈用悽。治寇只宜窮逐出。養駒奚必病奔蹠。江湖晚計成新屋。青壁思同老鳳棲。

伏次再從祖泥湖公 一龜 遊周王山韻

姬穆龍蹄遍九區。當時或過此山無。蒼茫往事雲千壑。浩蕩清遊酒幾壺。盈軸唱酬多好句。一牀吟諷起潛夫。此間應有隱君子。何不摸來作畫圖。

剛窩任先生輓 甲午

鍾得梧山淑氣叢。白頭林下倡真工。醇醪動座醺無間。菽粟盈囷用不窮。四壁圖書懸聖學。一堂弦誦養羣蒙。幽光欲闡將誰屬。鄉社終宜報德崇。

[予] 崇：崇

輓洪丈 虎吉

河上丈人誦義頻。柴桑處士解心真。驚傳粟里黃花節。P 搖落洪厓碧樹春。迢遞蓬山餘宿債。淒涼金谷感前塵。翻慙十月西爲路。悵望疎松促渡津。

讀從姪鼎五卜命篇。卻賦非卜命投示。乙未

阿辰從汝來。傳賦卜命詩。卜命是何謂。名目頗不宜。遂覓卜命看。大篇何離披。逶迤八十韻。縱橫說無遺。上記金生卜。中道憂憾罹。終言卜不僭。遂擬福祿基。一篇讀未半。多怪識趣卑。先聖作卜筮。卜筮爲稽疑。箕範貞悔見。大易卦象奇。周官設大卜。夫子創揲著。吉凶叩無隱。萬世民用資。所貴一出正。至理難容私。世級忽大落。翻成術數滋。黃裳不免誤。僂句成僭欺。况觀今人術。其說益支離。世應非古法。六神失正達。紛紜百家起。爭誣流俗蚩。荒唐類讖符。賤極同巫醫。儒者戒偏惑。偏惑是不思。何況人事夥。所叩邪正岐。昔我聞先民。惟命莫之爲。人生不必同。禍福天所司。或妖顏淵短

회병집(晦屏集) 신체인(申體仁)

。或壽彭喬遲。或躋廊廟顯。或潛巖穴飢。或先窮後泰。或始安終危。前定自有分。人力難容之。聖人不論命。立命由我持。賢士正以俟。修身工不^虛。誰肯把命去。區區款蓍龜。蓍龜不造命。前知亦何裨。卜命固不可。况遂信卜辭。既驗是偶爾。來者益難期。隱然若有待。惑甚君子嗤。謂汝讀書久。亦必拒淫說。不意屢百言。難掩立心差。文章異雜藝。著述^P須自祇。我作非卜命。示爾聊自規。

慕先亭韻

昔人廬墓地。亭子一朝成。斷壠非新址。華扁是舊名。欲揚先祖行。兼寓後孫誠。樵牧吟遺跡。淒涼過客情。

題送亡子棺蓋 第二子幼名忠大。姿性近道。才藝不凡。甫踰十歲。便作老成巨儒。年十四。未冠而歿。

汝母葬汝。恨不斂送新製衣。我謂汝志不在衣。汝母祭汝。恨不盛供酒與食。我謂汝志不在食。顧汝何所欲。所欲文與學。生年三四。能自綴文字。十一十二。人稱神童^P子。送爾今日無可云。莫如贈送詩若文。顧我心絕爲朽木。雖欲爲辭不可得。臨窆強成數句惻。寂寥題送棺蓋中。持去夜臺朝暮看。庶幾思我如覩容。嗚呼忠乎可奈何。爾有筆墨匣。爾有著述多。見之增我悲。不如燒無迹。待我他日心稍定。掇錄志行成一篇。并與筆墨著述埋山側。

趙晚谷聖紹來訪 丙申

青草柴門立馬遲。感君來訪日斜時。相逢莫問存亡事。問到存亡語更悲。

桃源店。送別聖紹兄遊智異山。二首

^P江店春生月色升。共君來剪一宵燈。明朝匹馬迢然去。欲逐行塵恨未能。

問君歸路是何時。三月江頭柳似絲。試叩錦囊多少興。細聞方丈萬層奇。

感憶金士濯 崇德 吟一律

那意金司馬。如今忽九泉。青山已葬禮。紅葉復秋天。歷歷平生事。寥寥謾詠篇。春風南渡客。含涕上江船。

鄭士仰 宗魯 來訪。眎趙聖紹，金直甫 宗敬 諸兄韻覓和。二首。

虛堂無月一燈高。坐聽江濤隔岸號。邂逅逢君論古道。辛勤尋我入荒蒿。知行力體真吾學。口舌空談是俗曹。此意丁寧寫未盡。新詩欲就卻停毫。

多病詩全廢。爲君更苦吟。江湖秋水闊。離別曉征臨。聊做一宵話。共期萬里心。終爲遺俗累。孤嘯臥園林。

輓郭履之 昌祿

憶昔南遊手短鞭。石榴花裏訪君眠。邑因玄古淳風在。族是三綱一洞聯。臨別妄言曾戒飲。倚樽懽笑更譏偏。如今萬事渾疑夢。題送哀詞淚滿篇。

柴門雪壓日沈西。坐想寒江祖馬嘶。地下弟兄欣共會。人間孤寡哭相攜。憶曾忘物機心少。無復當樽醉夢迷。客路他年尋舊主。繞牆千竹響淒淒。

輓姑壻鄭上舍

容削琅玕骨澈璃。出倫才格更稱奇。曾將佳句凌王駱。晚悅真工讀孔思。自是金陵豪傑士。丁寧丹穴鳳凰恣。同心此日存亡恨。只爲斯文不爲私。

次延興壁上詩重勉尹氏讀書四絕 并說

余見平山氏之居延興者。無飢寒切身之憂。有子弟衣冠之盛。於是而若加以詩書之學。禮義之教。豈不儼然成一家哉。余之來往。念此久矣。今之來也。見年少童冠同聚一室。讀論孟庸學之書。壁上又揭短律數詩。以述其鞭策相勉之意。而詞致藹然。志尚頗好。顧不偶也。覽之再三。不勝嘉喜。乃以爲余之所嘗欲言而未言者。諸君乃自得之如此。豈非平山氏之福也。雖然。人之所志有高下。而工有始終之不一。所學有真僞。而序有先後之難紊。此則諸君又或有以自得。而爲朋友者。亦不可不加以勸導也。白首無聞。自顧枵然。何敢妄有云云。而中有所感。不能自己。乃竊次而爲四絕。畧道其意。前二篇。言不忍暴棄而所當志道之意。後二篇。言讀必反體而勿躐階級之意。幸勿以隨衆謾吟見笑。而觀其辭領其意。益勉於課誦之工。相與勸戒。期必有以得力則所謂儼然成家而免止爲逸樂衣冠之美者。未必不在於是。父兄親族。將欣然相慶而不能已。豈但爲朋友之所嘉哉。嗚呼。諸君其勉哉。

同是聰明天賦人。如何獨不做工真。休將利慾聲名字。虛擲男兒七尺身。

冠服爭奢易蕩人。詞章逞巧又非真。古書慎勿閒看誦。一一將來試檢身。

非無一世讀書人。未免其中有僞真。知不精深行不力。了無毫分涉吾身。

小學書中始做人。循環四子漸趨真。分明階級終難躡。要在存心敬一身。

次趙月下 運道 月麓書堂韻

民彝今古未曾隳。此理問君知不知。追逐但教閒說做。藏修何用是堂爲。終看絃誦興斯學。莫遣詞章媚一時。回首滄洲遺範在。後生矜式有成規。

川上。訪金上舍 道行 不遇。有感懷留贈。

Ⓟ 立馬荆扉日欲斜。東坡歸路訪君家。屏厓舊迹空秋草。雨谷寒風但暮鴉。川上風流渾不在。渭陽文學更無多。憑君欲托無窮意。落葉荒溪舊客嗟。

花山歸路。訪金川沙道彥苟齋直甫諸兄。宿後山精舍。共次老杜韻。

懸厓斜日客鞭回。爲訪同心入水隈。歡晤更攀常棣萼。秋光將近菊花杯。相逢欲叩淺深得。此事應須講討來。卻怪天灾多敗興。憂時難暇好襟開。是日風雨乖常

後山歸後吟病數日。沃姪又與諸兄用前韻。別爲一詩帖。不勝欣賞。却次報。

Ⓟ 白首同心一路回。茅齋還欲築溪隈。幽香共採淵明菊。晚興爭尋康節杯。論學只要真做去。題詩不必廣傳來。何當更剪寒牕燭。笑對塵編仔細開。

河丹溪延諡旌閭韻

烈士危忠千載憐。聖朝恩典更多前。浮湖晚興吟簔日。採蕨清風恥祿年。大節終爲天陞血。冤魂應逐錦江鶻。休言一死無功業。扶得倫常百世傳。

送鼎梅姪奉家廟南下

江郊何限送人迴。臨別無如此地哀。祠廟亦移難更返。丘原尚在可頻來。呻吟病客長程晚。跋涉寒風匹馬催。Ⓟ 惟祝異鄉能自立。莫教貧困素心摧。

憶鼎梅南歸

園林寂寂響鳴柯。坐想寒風客路除。殘店孤燈何處住。滿天明月此宵多。人生離別非吾恨。客土淒涼奈爾何。惟祝遠征無疾病。夢魂時訪故山坡。

病中次少流除夕韻

歲月憐虛擲。寒牕又此燈。孱庸惟我獨。征邁共誰能。前聖遺經在。中宵發憤興。莫教心法誤。空寂似山僧。

川上訪金上舍不遇。留贈。己亥

客馬隨流水。逶迤出洞遲。尋君君不在。殘落夕陽時。

輓近仁堂李丈 宜奉

求訥村疑避世藏。剛窩筆記近仁堂。長者托契斯文老。雅語留心此學方。不以行年八十倦。曾於古事說論詳。一鄉耆德無多在。爭奈衣冠葬北邙。

惜黃花

隣家少婢子。來請黃花摘。老夫惜黃花。不肯許人摘。少婢大異之。謂惜不當惜。爾輩何以知。黃花真可惜。

次李仲則 師靖 新樂堂韻

新居日月幾晴陰。芳草濃花春已深。江日欲暄魚徙穴。雲山向夕鳥棲林。一堂寄傲全吾樂。百世貽謨儼素心。斜日錦門頻起憶。秋風乘興一相尋。

訪李仲則新居

爲訪故人居。辛苦越重巒。匹馬帶夕陽。繚遶野草間。逶迤入深谷。中有綠樹村。侵昏渡小谿。下馬立

柴門。老翁見我至。欣然欲驚倒。佳子拜庭畔。賢婦出門笑。攜手共升堂。相對却忘言。夜寐聯枕席。朝菜掇露園。詩文發清製。圖象窮本源。談說未竟已。西日欲沈昏。浮世夢一場。此事未易得。相別今距幾。白首前期窄。不念歸路長。所以永今夕。慇懃共勉勵。志氣恐遂衰。孜孜斲則已。無窮相與期。

龜窩詩 并序

丹溪之濱有小屋。名曰龜窩。丹之寓客申鼎梅之所居也。梅之先。嘗世居聞韶之龜湖。梅也生長于茲土。有祠廟丘隴之舊。田宅里閭之盛。族親共會。隣比相歡。誓將歌詠先訓。永植後昆。得以傳守無窮也。不幸中罹窮憾。無由寧處。遙遙遷徙。南至于丹。丹實梅之婦家所在也。婦家柳嘗不忍梅之飢且寒也。要而致之。此梅之所以必歸于丹者也。丹之距龜湖三百里。窩之在於丹者。非山水之有似於龜也。非境域之相接於龜也。惟梅之所思在于龜。居是窩而日不忘于龜。故扁之曰龜窩。此濂溪，紫陽兩夫子之故事。有可据而樂之。樂其所自生。禮之不忘其本者。亦庶幾近之。豈不奇哉。梅也嘗自爲窩記。畧道其孤羈自勉之意。而歸語其族父體仁。欲有以加警之也。體仁惟其記已足矣。奚庸復爲。雖然梅嘗從體仁遊。以讀書問學于龜。而今體仁老矣。棄而遠離。反欲體仁之識其窩也。亦所以不忘乎體仁者也。其忍默諸。遂不復爲記。畧述梅之懷。而因附以勸戒之辭。爲之賦龜窩三章章八句。其詩曰。

龜之窩。在丹溪之傍兮。何思于龜。憫丘隴之荒兮。眷言回首。耿耿不忘。日夕在窩。躑躅興傷。

龜之窩。在丹溪之湄兮。何思于龜。悼親族之違兮。眷言回首。耿耿懷歸。日夕在窩。躑躅興悲。

丹之溪。澗而逖兮。龜之窩。窈而闕兮。宜爾勵爾操。宜爾勸爾學兮。先祖有訓。子孫攸則。

謝庭松

崇蘭顛倒菊離披。園圃疑經萬馬馳。庭畔獨排雷雨立。憐君無恙老龍枝。時雷雨乖常

庭松答

紛紛霜剝又風披。閱盡人間歲月馳。惟有本根培養久。肯愁雷雨撼繁枝。

病中感秋韻。示諸弟姪及家兒。

郊墟歲月徂。秋氣生林薄。寒蟬響欲哀。流鶯久寂寂。早稻忽垂穎。木綿亦云摘。顧余吟病久。是時在床褥。涼風挾細雨。中夜響簷角。孤懷忽翩飄。夙遡千古逝。賢聖去我久。經訓垂遺則。伊我獨何故。彷徨迷所適。流光不我待。白髮空垂臆。桑榆或寡過。事業求在卽。誰能同此憂。所冀相扶策。終日溪堂宴。酣飲非不樂。杯盤適蕩情。談笑恣無益。詞律亦非貴。何況嘲戲劇。君子務其大。一心恒惕若

회병집(晦屏集) 신체인(申體仁)

。所懼做時乖。不似說來的。靜中雖有存。輒向動處錯。古人尙患此。而況於後學。平生惜自棄。七尺恐虛擲。年華忽已暮。時物增感激。白露戒園林。夕陽將下壁。忽忽坐無語。抱書時一讀。幽芳欲採採。向誰寄一握。

閒居次季真韻 辛丑

寥落巖前宅。春泥欲沒扉。鑪烟生細細。牕日暎微微。養疾頻依枕。觀書更整衣。物來惟順應。權度在從違。

輓慕洞權上舍 沈

Ⓟ周王山下洞天幽。夫子韶顏物外遊。兩世功名三上舍。一堂兄弟共仙儔。羲文編裏閒工在。泉石聲中好句留。先契如今渾一夢。青松蕭瑟涕橫流。

輓金戚丈 翼漢

年年來往渭陽頻。歷路登門定幾巡。當座容顏明似玉。接人辭氣藹如春。西河不盡慈猿淚。閬苑重迴旭鴈辰。三世同庚先誼重。至今秋月更傷神。

大山先生輓 二首○壬寅

明誠博約做無偏。夫子工夫體用圓。雲谷微言心上契。陶山妙訣卷中傳。文章載道餘光久。出處關時大節全。Ⓟ小子難窮若喪恨。加衣遺命敢忘焉。

衣冠相弔涕懸纓。風雪門前哭失聲。當世儒宗誰復在。千秋旨訣恐難明。高山亭古春無語。晚翫齋空草欲生。此日錦陽遺緒斷。東風回首更傷情。

錦淵秋懷韻。寄金督郵直甫兄。

孤懷日蕭索。錦淵秋聲集。鳥驚忽高飛。魚游欲深入。溯洄千古意。夕陽時獨立。賢師去不返。勝友難更合。瑤琴韻欲絕。歲晏增愁纏。詩書空滿壁。義理難窮研。幽香欲贈人。採採向芳洲。所思在何許。蕭颯驛亭秋。

金別檢景蘊 宗發 自莊陵還。寄示其所次錦江亭韻。却次。庚子

錦江風景自年年。亭上幾人涕泫然。湘浦春光空綠草。洞庭斜日但孤烟。鶉林一壑啼冤血。象魏當時坐細氈。明月千峯多感慨。知君夜夜未能眠。

過先師終祥。會大山書堂校遺集。奉次瓢谷柳丈 道源 韻。癸卯

賢師如昨日。後學淚今時。蕉荔他年享。溪山何處祠。恐把傳心訣。空教寓目悲。維持一脈事。先進責難辭。

輓金直甫

先師去不返。之子復何之。志業憐將晦。才猷惜少施。此^P生空廓落。吾黨更孤危。鴈叫猿啼處。魂歸不忍辭。

輓黃景初

居是商山姓是黃。來如謫降逝何忙。風標鶴立雲邊影。骨格梅凝月裏香。痛切山樑同負土。盟留花鳥更聯牀。如何一宿淵齋去。却寄凶音若夢塲。

每說初年學未專。白頭生澀更相憐。雖然資性出倫好。所以工夫得力先。不著羸心一點在。全消客氣百爲然。洛西一脈將誰續。但祝阿郎志業堅。

送別趙上舍幼性

江齋三尺雪。嘉客數宵緣。昔別尊翁恨。今迎之子眠。容^P顏已白髮。時事但蒼天。却怕前程遠。穿冰涉大川。

冰溪書院

一區形勝域中名。况是冰寒五月生。往蹟千秋佛塔在。新休中古學宮明。規模父老用心苦。洞府天翁有意成。末路斯文還寂寞。至今絃誦久無聲。

洗心亭

洗心亭子壓溪心。問爾緣何名洗心。休將泉石洗心累。泉石膏肓却累心。

錦山六詠 丙午

錦淵精舍

一山東落水聲邊。懸岸平臺月上先。別界藏修成晚計。太平歌詠送殘年。數椽棲息親魚鳥。四壁圖書對聖賢。得失悲歡渾不記。等閒雲過太虛然。

錦里幽居

錦里先生烏角巾。園收芋栗未全貧。蕭條活計真同趣。磊落文章敢儼倫。荒屋數三成一落。別區耕鑿喜相隣。只緣咫尺淵齋近。辛苦移家卜築新。

平錦山

洞門懸壁對嵯峨。田畝層連向水多。短麓雙支仍別局。青山一面是平坡。逶迤殘落宜多少。甘冽名泉更若何。花柳欲舒春日暖。清江宜浴又宜歌。

晦屏

青山一角擁如屏。夕陽西下易生暝。最在上房高絕處。堪棲老釋寂寥形。小庵鍾磬知何日。一洞烟霞覺有靈。只爲此山名以錦。晦光嘉遯義丁寧。

菖蒲洞

一山西落洞天團。爲號菖蒲取義端。咫尺靈源門外在。蔥蘢淑氣谷中蟠。冽泉膏壤知非偶。別界名區占更難。野老相傳稱異境。會看籬落待時安。

鳳凰淵

鳳凰橋畔鳳凰淵。蒼壁層厓水上懸。知是洞門初入路。倒來山下合流川。漁人網集平沙外。酒肆旗連芳草邊。州號聞韶淵號鳳。九成何日羽儀翩。

錦淵十詠

主敬齋

此心若履冰。動靜工無替。朝夕明牕下。肅穆對上帝。

集義齋

內直外自方。主敬是爲本。雖然日用間。裁處須勿混。

春物軒

小軒跨一麓。物物都是春。邂逅同流妙。默契此心仁。

鳶魚臺

問鳶何以飛。問魚何以躍。吾亦一鳶魚。日用須自得。

光風洲

楊柳綠成行。光風水際來。緬懷周茂叔。曾次絕纖埃。

霽月壇

雨後月光新。玲瓏上梧桐。欲臻灑落境。先致辛苦工。

濯川

濯纓與濯足。滄浪却自取。君子解濯心。豈但濯身垢。

活泉

我心欲如泉。我泉卽一心。活水生不已。靜涵星月森。

松垣

拓土自成垣。老松植如柵。寒風西北來。歲寒多得力。

桂嶠

美人在何許。江臯望悠悠。攀援叢桂枝。歲暮聊淹留。

錦里四詠

慕原

蓼莪豈忍讀。風樹終身恨。一原秋草合。遺跡記猶宛。

農窩

有牛學駕軛。有僮學把犁。課兒夜誦書。日出檢治畦。

洗澗

澗水在門外。洗衣日相尋。中夜響冷冷。我聞欲洗心。

樵岸

繚繞澗邊岸。兒女樵其上。只怕風雪惡。不憂江水漲。

平錦二詠

晚對壁

徘徊歲將晚。一筇聊自適。武夷千載意。落日對翠壁。

詠歸浦

不須風舞雩。何必浴於沂。芳洲春日暖。逍遙且詠歸。

晦屏二詠

隱屏庵

小庵隱翠屏。妄擬武夷山。休問大小隱。惟願隱其間。

綱齋

屏有晦錦義。是爲尙以綱。名齋我欲棲。惟冀道闇炯。

東洛院。校太極問辨書。仍與諸士友別。

江柳陰陰江水平。滿堂佳會月仍明。丹青共拜先生像。瞻慕難窮後學誠。太極篇中晨夜說。不知巖上古今情。歸鞭各向東南去。別後江山夢裏清。

白首分袂。懷緒自別。而臨行漫吟。却欠相期勸勉之意。此爲落第二義。幸各歸努力。懋自崇深。與之扶策於晚景。則雖不得面。亦無恨。惟是之祝。赤馬端陽節。晦屏題。

拙川。訪磨巖翁不遇。夜宿溪亭。題留硯匣。趙姊兄晚入拙川先亭。自號磨巖。

匹馬窮尋不遇君。山扉深鎖萬重雲。空齋寄宿難成夢。月色溪聲夜欲分。

四未亭。與磨巖及其弟聖可 適道 聯句四十韻。

秋雨溪堂上。故人來盍簪。與。 卅餘年面目。數百里商參。長。 白首悲相戀。青眸喜遠尋。可。
 晚花猶石砌。寒露已楓林。與。 溪帶清芬咽。亭留古迹深。長。 風塵山以外。魚鳥澗之潄。可。
 况有文星動。寧無白雲吟。與。 玉籤抽卷帙。瓊珮拊琅琳。長。 隨興閒思遣。多情細酌斟。可。
 憑君百鍊鐵。下我頂門針。與。 莫把文章弄。惟將道義箴。長。 切磋資友益。操舍驗吾心。可。
 吐慄投膠漆。論文卞荒蓼。與。 百家空自誤。千聖只傳欽。長。 努力惟精一。工夫豈古今。可。
 風霜聊托契。山水亦知音。與。 恍惚殘更燭。淒涼寶匣琴。長。 詩嫌子美癖。書忌馬遷淫。可。
 惟恐前程錯。奚憂暮道臨。與。 詞鋒斂突兀。德器養深沈。長。 秉拂須吾子。剖毫豁我襟。可。
 宿情驚楚市。騷思擊吳鐔。與。 志勵三軍帥。功期九仞岑。長。 偶成詩社會。同恨雪毛侵。可。
 琴瑟中絃絕。山川尙眼森。與。 浮生逐逝水。往事過微陰。長。 益懋桑榆業。休歎歲月駸。可。
 落梧鳴策策。拚袂意悵悵。與。 客恨空秋草。山光已夕砧。長。 剪韭巡岸圃。炊麥漑廚鶩。可。
 詩觸爭鋒鈍。詞因覓句瘖。與。 林風欺醉客。山雨濕眠禽。長。 婉變經三宿。鏗鏘抵萬金。可。
 錦淵新月映。太白暮雲霽。與。 笑對牀燈頰。愁拚石路嶽。長。 爲誰蟲語澀。留客雨鈴淋。可。
 古調吟成軸。離懷冷透衾。與。 贈行敦學業。言志破詩禁。長。 別浦聞征鴈。經牀對白蟬。與。
 愧君推借重。衰懶恐難任。長。

余之不肯爲詩句久矣。疾病喪憂。憊憊無好况。今與二兄唱酬而不覺夜分燈盡。亦情之所至也。子長識。

聖可兄吟贈君字。卻覓次。

幾歲思君不見君。西風立馬亂峯雲。一杯今日須同醉。怊悵明朝手欲分。

槐亭主人李東煥。出示諸名勝詩帖覓次。臨發草贈。

春陽翁是錦陽翁。帶得家聲一脈通。所以厭隨流俗住。蕭蕭茅屋山之中。

輓金士濬 崇默

鶴老遺風一脈傳。遁翁高義想依然。厭同流俗爭追逐。閉卻巖扉讀聖賢。銅井卜隣曾擬議。玉山歸路暫

周旋。P巨卿白馬終難致。斜日蘇湖客意憐。

柴里柳丈重牢宴韻二絕 并小序

柳丈人。文忠公之五世孫也。宅於渭水之濱。年老而德益邵。家貧而守愈確。常坐溪山花木之中。而讀中庸大學書。韶顏皓首。儼若仙珮。至今年丙午仲春。公之壽七十有六。閤夫人壽七十八。佳期再迴。重牢是設。公之子亘天兄弟。不計家之有無。大供具會賓友以樂之。噫亦孝也。體仁竊惟人之有福祿休慶。是必有所由至。非文忠公之勳德。曷足以啓其P休。非公之忠信仁厚。曷足以享其福。非亘天兄弟之孝。曷足以成其慶。體仁嘗出入公之家。得辱眷愛而亘天以余同庚特相善。公嘗以其先公壽宴帖示體仁。命爲之序。體仁辭未能。今於公重牢之夕。亘天嘗書告宴期。又以其宴會諸公詩韻錄示。覓和甚懇。其弟惠天又來訪覓序。體仁有不敢終默焉。詩曰。

勳德名家餘慶新。丈人牢宴屬良辰。臨江旭鴈重鳴處。疑有碧桃千樹春。

壽福傳家世世新。先公餘慶又今辰。無窮南極星光在。P留照雲仍千百春。

數咎庵崔先生輓 二首

南國頽波若倒湫。先生隻手按洪流。養成剛健輝光德。劈出公私善利頭。文定春秋嚴袞鉞。橫渠力量做殷周。躬行八十餘年盡。卻恨旌招晚賁丘。

蘇湖木稼昔年傷。師表儒林誰更當。鳴鶴在皋聲遠徹。瑞鳳棲穴影深藏。人倫篤處行無憾。家法成時教有常。自恨山頽空擿埴。終違擔笈侍門牆。

嵩南申公 光翼 寄書求詩若文。題報書尾。

一麓禽花任自然。不曾開口向人傳。臨書卻把相思句。P題報嵩南處士賢。

次嵩南翁求和韻二首

嵩南老叟寄長書。錦里殘年慰索居。帶得清詩吟水石。說來幽興問禽魚。卻慚研討工無得。多謝咨詢意不踈。匹馬寵臨何日是。臺前荒逕欲教鋤。

一區棲息抱殘書。白首江皋任起居。漫興祇吟原有菽。悲歌寧唱食無魚。百年學業心徒切。十口生涯計漸踈。天放此身閒界老。不妨隨分把耰鋤。

嵩翁示及不知巖韻。有感次呈。

時顯時沈人未知。不磷不轉肯求知。卻爲千古魚龍宅。P 惟有乾坤造化知。

砥柱碑韻

記昔年體仁嘗躑躅臨江。摩挲讀碑。投宿栗里謁影幀。得近體二首。粗述感慨。今不必更次瓊韻。遂以舊作仰報。亦舉子入場屋。寫呈宿藁餘習。不以此見罵否。

原上嵩碑砥柱名。淋灘大字壓江清。墨胎節苦惟新日。幼婦銘傳不朽聲。天地驅來元氣立。江山留得大倫明。逢人欲問香娘死。唱到山花恨未平。右砥柱碑

殘店荒郊細逕通。人家住在夕陽中。青山一片高麗國。P 脩竹千秋冶隱風。朝議獨褒名節士。儒門誰識啓開功。廟前齊宿瞻遺像。朝日昇時見素衷。恩諡不許文之一字。士論爲恨。右訪栗里

二可堂詩 并序

青鳧。嶺之巖邑也。僻處東隅。左右巨嶺嶽巖。輪蹄鮮有至者。顧其中有名山大川之勝。巖壑林越之趣。松鶴方臺。稱爲絕境。甘隱之洞。在安德縣西幾里。山媚而水妍。谷朗而阡迴。田疇交錯。宜五穀桑麻。上舍二可翁居之。翁之言曰。吾少也嘗逐名荊園。今年躡七臺。病P且聾。不聽人語。雙眼視玄花。尙復何望於世乎。惟依山而宅。臨水而居。山水之間。有至味存焉。吾乃今自謂粗得其樂。於是竊取韓公盤谷序中語。名吾堂曰二可。而又自爲採山釣水之曲以歌詠之。人之解吾志者。或不以爲迂。肯與相和。藏弄在笥。乃出示其若干篇。要體仁續和之。體仁再拜擎讀畢。竊惟翁之樂深矣。翁之名堂若偏矣。翁之棲此堂也。耕於畚飽。可以無求。讀於室書。可以自娛。修於身。善可行。傳於孫。安可遺。將無所施而不得P其可。奚獨二可哉。既又解之曰。二可者。實百可萬可之本。苟能真得二可之樂。則將由此推之而無不可。堂之名雖若偏焉。而堂之意則圓矣。曷不以二可爲美乎。遂未敢自隱。爲之賦雲山三章。以畧述翁二曲之興。而發明二可之義。苟令覽者得其意。足以知僻邑窮山中乃有名區勝境。不與塵俗相連。而翁之名堂高臥。爲能真得採釣之趣也。詩曰。

雲山轟轟。綠水競流。薄言采采。陟降高丘。薄言往釣。鶴汀苔洲。樂只君子。黃耇永休。

P 雲山嶷嶷。綠水繞廬。薄言采采。我茹我菹。薄言往釣。或膾而醢。樂只君子。黃耇令譽。

山有靈芝。水有游鱗。樂只君子。葛天遺民。秩秩堂宇。速賓招隣。二可無求。百福斯因。

輓豐昌君柳丈 灑

名賢天祿國相終。大老尊榮六世宗。忠孝傳家成法在。貞良盡職一心供。棲遲下邑明新政。躋享高班襲舊封。冠珮千秋藏得所。九龍山色翠重重。

訪川沙翁留話。用后山翁 李宗洙 韻。

天寒江國憶同遊。來渡冰川咽不流。笑入荊扉攜手坐。P卻憐霜雪共盈頭。

川沙草廬。與金道彥景蘊弘輔 宗燮 聯句四十韻。

江雪錦齋冷。主人向北行。道。碧潭隣鴨鶩。幽峽訪樵樵。長。寒月如期到。穉陽應候生。蘊。
 蒼茫前歲會。風雨後山楹。弘。團聚情人在。存亡世事更。道。天寒啼斷鴈。江迥喚孤鷗。長。
 只得欣相見。何須吐不平。蘊。素心雙鬢改。古意一燈明。弘。酒煖風無勢。梅溫氣欲萌。道。
 天心休復吉。人事善端亨。長。鈍滯離羣久。開醒下語精。蘊。自知頹志業。因覺少經營。弘。
 憂樂忘天下。優游作野氓。道。心期黃卷P在。家計白雲耕。長。道自無窮達。時惟任濁清。蘊。
 古人不可見。茲席有誰爭。弘。至理羣心炳。平途衆目盲。道。抱經歌舜禹。論學慕朱程。長。
 星日垂羣哲。天人共一誠。蘊。學如鷄抱卵。行愧鐵中錚。弘。欲造聖人妙。先由小學成。道。
 實工惟主敬。外念肯求名。長。自在平兼易。曾無色與聲。蘊。固知如菽粟。須自整冠纓。弘。
 邂逅南山語。縱橫太極評。道。挑燈開筆陣。酌酒破愁城。長。爲愛襟懷展。卻忘河斗傾。蘊。
 流光空晚晚。意氣尙崢嶸。弘。紫闕胚祥慶。佳期共弟兄。道。白頭憐盡老。青眼喜相迎。長。煖
 氣鑪中穩。風聲戶外獰。蘊。參差人事事。牢落歲寒盟。弘。極目山河P闊。聯牀肺腑呈。道。
 癯容瘦似鶴。能語愧如鸚。長。莫恨前修遠。方教俗慮輕。蘊。守巢同燕燕。耽酒怕猩猩。弘。
 浩蕩看冥鵠。寵榮任繡牲。道。晚工須并武。佳句敢爭衡。長。及此同衰暮。相期勛邁征。蘊。
 斯篇傳後裔。百代更誰賡。弘。

吟病江曲。踰伏多年。乘輿策驢。跋涉寒風。訪同志于川沙翁之草廬。小至之夜。積雪滿地。寒月崢嶸。主客方解衣就寢。忽挑燈命酒。列坐賦詩。顧念今昔。感極存亡。悲歲色之欲暮。愛一陽之將復。躑躅徘徊。信口吟成。僅得五言四十韻一篇。雖未究所懷。然使同好者見P之。亦未必不爲勝事也。余與川沙翁以年長當座。景蘊藉毛倚燈。弘輔執筆以題。恨不與少伴同之。鷄鳴乍寐。朝起書二通。主客各執以別。茲庸畧識其實云。子長識。

大台洞柳丈 淬 重牢宴韻 戊申

恍惚蟠桃花影邊。重鳴旭鴈映華筵。滿庭無數孫曾在。一室緣何福慶聯。聖代歌謳同壽域。丈人忠厚是家傳。莫誇王母瑤池宴。不及同牢對兩仙。

輓孫仲文 思綱

聲漢清風子不隳。梧峯純德我難追。兩家詩札看如昨。百世雲仍誼恐虧。頻誦姓名因發解。暫瞻眉宇照心期。淒涼五十七年客。一入黃泉一淚垂。

輓李仲則排律六十四韻

錦里秋聲集。孤懷日惻傷。自憐衰病劇。空見友朋亡。沙鴈曾含恨。商芝奄歇芳。巖齋松寂歷。羅峽月淒涼。世事雲千古。人生夢一場。惡音驚疊報。哀輓費聯章。那意中元節。仍聞晚拙喪。客來云有疾。便阻恨難詳。謂是衰年偶。寧知數月強。遞傳驚奄忽。過客說蒼茫。未得音書的。空懸涕淚滂。異鄉違弟姪。當事料蒼黃。欲說交遊密。哀湮志業良。天資超齷齪。神彩映圭璋。族出韓山盛。家仍牧老光。切磋曾一室。傳習是同堂。鞭約童蒙早。優游鬢髮蒼。格言歌孔孟。微旨講朱張。務實遵平陸。研精析細芒。一原兼活法。全體謝妍粧。英銳詞章重。衰遲筆力剛。桂蓮聯棣萼。琴瑟友糟糠。雛鳳爭稱瑞。崇蘭欲播香。園林移舊土。基業創名鄉。宅近文巖下。門臨洛水傍。長謨姑寓泊。晚計且彷徨。往躡籠巖屹。遺墟鄭谷荒。文風迴稷下。功化驗高唐。靜討攜綈帙。閒吟溢錦囊。憶余踰葛峴。尋友入仙庄。野色渾秋草。江光已夕陽。門前聊下馬。庭畔忽披裳。童子驚相報。阿翁喜欲翔。中堂尋病姊。終夜侑清觴。鋪席趨諸子。張燈喚愛娘。圖書評奧隱。詩律示鏗鏘。惜別期征邁。憐衰助保將。丁寧語未已。感激意難忘。顧我平生契。推君長者行。風流滌鄙吝。藥石砭膏肓。涼嵐同遊屐。秋潭約泛航。鱣堂來往數。蘭室笑談常。歲晏思偏切。山頽恨共長。鶴原同負土。巖閣更聯牀。每憶來龜洞。相攜陟錦岡。淡供烹野苦。耽飫勝山薑。樂土誇爰得。新居祝允臧。和詩嫌拙澀。覓記愧承當。老去資扶策。書來吐腎腸。蛇杯憐獨苦。瓊珮喜猶康。淵舍思迎旆。江花擬泛檣。郢歌憐白雪。盧枕熟黃粱。一運驅南土。同遊盡北邙。鶉聲何處樹。月色但空樑。一洞應悽慘。全家卻顧惶。隣居因舊主。家學望諸郎。礪谷曾留意。藏修竟未遑。遺文誰掇拾。實蹟擬揄揚。故岫雲端渺。歸魂月裏颺。送君叙惻愴。嫌我說張皇。雲掩三秋月。風號萬木霜。憑誰開襞積。無復聽峩洋。落葉應幽巷。枯荷想小塘。故園阿季在。相對涕盈眶。

病中聞利林形勝。喜甚畧述。

黃猿歲孟春。我適逾月病。雙眼幾欲盲。毒痛胷腹位。亭子臨水國。苦寒風雪競。呻吟徹晨夜。兀坐朝晝竟。詩書空滿案。無由讀賢聖。應外雖廢務。直內惟存敬。昧昧且寤思。一原竊性命。阿辰爲慰我。時將談說請。或拈經訓難。或提文句評。因說數年前。朝家稱大慶。應舉赴利林。形勝竊幽夤。三洞國中名。泉石明如鏡。大賢留往躡。土姓蕃林鄭。遊覽窮數日。佳句時自詠。仙賞驢一匹。行裝筆數柄。欵枕聽未了。恍惚同游泳。沈痾若祛體。清賞諧夙性。遐興忽翩飄。頓散幽憂悵。佳景想在眼。夢中踏清映。沈吟臥牀褥。欲賦仙景盛。呼兒覓素牋。且洗筆硯淨。口號沒倫脊。題寫傍人倩。述奇欲崢嶸。評麗擬粧靚。耳聞非目擊。難得摹寫正。其如病思涸。嗟無筆力勁。

搜勝臺

路從石門入。直繞獅子迴。崢嶸水石間。穹巖自成臺。境界絕纖塵。清賞一洞魁。臺上坐幾人。數十容徘徊。憶昔^P李夫子。爲訪葛川來。搜勝換愁送。命名亦佳哉。至今臺上面。刻詩留瓊瑰。芳躅想如昨。花發酒盈壘。地由人益勝。百歲同崔嵬。俛仰懷古人。感慨欲興哀。

葛川村

搜勝臺前路。西走十里弱。洞府忽寬平。羣巒列轟轟。葛川若弓抱。大野土膏沃。里落樸地居。碧瓦魚鱗簇。是爲葛川村。村名因水得。中有林氏某。富與公侯若。門前客無數。車馬常辟易。地靈驗不誣。人傑生應數。前後聞人幾。林鄭自古族。村前有棹楔。丹青閭里赫。謂是葛川子。伯仲旌里宅。又聞桐溪老。生此有遺馥。利林人物志。葛^P川專孕毓。行路共指點。遊客必先覓。

某里

花林洞某里。桐溪翁舊墟。路從葛川進。西赴十里餘。降仙與喚仙。歷登路左於。蒼茫涉大水。指點古人居。古人不可見。高風尚凜如。伊昔柔兆歲。天綱孰扶歟。剖腹偶未死。慷慨歸先廬。一片皇明土。王春花葉舒。悲歌續采薇。偈兮吟匪車。至今百世下。疇不式其間。雲巒轟天外。大節想如初。樵牧說往躅。過客駐征驢。

四樂亭

四樂是誰亭。憶昔全氏棲。魚樵農桑業。佳興四時齊。珍^P重李夫子。命名更記題。大賢心畫揭。星文若照奎。光價增一倍。流傳今可稽。卉服解尊慕。再拜敬瞻睇。巋然魯靈光。乃獨免焚擠。狂濤忽蕩漾。棟宇隨川溪。華題問無憑。蒼茫水國迷。忽於江陽地。得覓蘆間泥。依舊揭亭楣。瞻仰如壁圭。魚龍若共護。河伯解評批。至今板上痕。波鬢字如刳。宜并搜勝蹟。藉稱一縣西。居人尙共傳。過客遂頻躋。江花欲笑語。野鳥爭吟啼。

總述

利林泉石勝。聞之自少日。相距幾百里。邈如雲漢絕。未曾一往見。行年五十八。病中述所聞。清債酬萬一。編詠^P載一卷。歷歷討覽悉。乃知觀山水。譬如評人物。鷹隼忌太厲。不及鸞鳳質。風霜主肅殺。爭似春煦發。余謂利林勝。石厲而川桀。德容欠溫厚。峻氣嫌發越。可賞不可居。此理從誰詰。惟將反吾學。懋德惟平實。

聞夜會樂善堂。琴歌詩酒。爛熳度夜。卻次韻寄示五姪。

仁人心翼翼。豪客氣堂堂。自別安危界。終殊禍福場。發言知有德。率口怕如狂。聊勸南容志。休嗔杜蕢觴。

白頭悲獨在。歲月走堂堂。衰旺灰千劫。存亡夢一場。祇憐今也病。多愧古之狂。天運應休復。且停栗

里觴。

輓權上舍子晦 襲

秋草郊原欲暮暉。弔公歸路淚盈衣。琴書孝友家聲是。桑海存亡世事非。魯泮科名憐草草。谷芝仙唱想依依。從遊四十年間樂。回首空山落葉飛。

輓金戚丈德中 龍普○二首

魁顏豐頰素心淳。言論風流更寡倫。通經識務能文手。尚德尊賢好古人。吾黨相須聲勢在。儒林多賴指揮頻。奇材連抱終虛擲。六十光陰一夢春。

川沙旅榻報凶音。同志連牀涕滿襟。篋裏遺篇空自在。渭陽歸路更誰尋。淒涼外氏門闌運。蕭瑟平生士友心。P 日暮江皋愁獨坐。滿庭花落雨淋淋。

重陽會。次杜律韻贈姜清之 世白。

病中愁緒自難寬。爲是重陽暫做歡。嘉客登臨吟水石。老翁顛倒覓衣冠。恨無白酒盈壺飲。寧有黃花繞砌寒。人事天時俱未及。惟將佳句笑相看。

留東坡姨弟李汝寅 宇亮 覓句。聊贈一絕。己酉

憐君才格出倫高。擬躡孤山草聖豪。會看天機終自得。落花飛雪響颼颼。

酬李爾則 宇標 覓句

白首相逢一笑宜。不須要我苦吟詩。春山處處多佳句。P 芳草穠花自在奇。

次柳叔遠 長源 東巖亭韻

憶駐征驂立路頭。一丘林壑望幽幽。山連鳴鳳離離地。水挹平川混混流。晚計知將同志樂。浮名肯向外人求。恩恩歸路違登覽。回首東風恨未休。

輓鄭昌伯 忠弼

頽然八尺丈夫身。德性才華更出倫。金石精神王趙法。桑榆志業洛閩眞。良蹄未展亨衢步。隻眼還逢衆楚嗔。白首西河餘舊恨。淒涼六十五年春。

輓趙磨巖

鳴鳳高岡餘響清。克家文學弟兄并。尋常傑氣眉間映。頃刻奔流筆下生。世變蒼茫天日在。科名倏忽夢魂驚。至今蘿月千峯裏。惟有鳴灘響不平。

西坡從叔 道一 遣童奴覓錦莊帖。童奴未的去路。辛勤指示。吟得一絕。題書末以呈。

路左新禮洞。緣溪山數疊。去尋羽扇翁。覓來錦莊帖。

夕烟

寂歷漁村夕。微烟草際浮。稍稍渡江去。平鋪滿汀洲。

嵩南翁席上。次韻卻呈。

更深月上語難終。白首神交面面逢。光景蕭條霜後葉。襟期磊落歲寒松。論心不必詩盈軸。討話非關酒滿鍾。匹馬西風歸路遠。不妨時對夢中容。

酬晚癡子洪光之 天休 眼病中。求金鑱軒記韻。

一疾沈淹雙鬢秋。孤懷寥落自寬不。閒酬閭里從遊客。笑逐東南來往輓。猶喜論交披我腹。不妨題句倩人眸。爲君欲草金鑱記。刮膜神功占永休。

輓安佐郎而進 景漸

西行客裏始相親。一見知非俗士倫。博識貫通今古變。高談出入聖賢眞。霜臺玉署材無讓。龍榜騎郎跡已陳。幾恨殘年相別久。如今空作九原人。

輓半龔金季範 宗琚

牟陽五馬中興業。松老箴辭燕翼餘。抱負未逢嘉會得。從遊惜阻大方於。蒼茫壯志頭成雪。漫浪清詞筆吐琚。六十年光疑夢裏。淒涼一子復鰥居。

次金上舍享天 象九 韻二首 庚戌

余與金上舍享天。不見且數十年。少日遊從之樂。同庚相與之義。蓋不淺淺而衰暮疾病。際接無緣。白首相望。聲信落落。時一念至。未嘗不慨然興歎也。上舍忽自爲四韻詩。寄余以問余淵亭之趣。而又以其栗里新居韻一^P篇并示。辭旨懇到。手畫宛然。吟諷上下。若與拚晤。非君子之篤於故舊。曷足以至此。但詩之寄在去年仲夏。而淹滯中間。至今年元日。始得披見。恐上舍或以余爲無情。不肯相報也。茲庸續和。畧說衰年願言之懷。寓歲寒相期之意。或可以領會言外否。

青山一角水聲濱。亭子蕭蕭寄病身。晚計只宜專講討。悲歌肯自怨沈淪。閒隨花鳥佳辰樂。默驗乾坤妙用神。多謝故人相念切。願蒙提策送殘春。

右次淵亭寄贈韻

^P 青春顏色夢中如。白首相思語匪虛。卻愧蘧翁六十化。誰憐孟老友朋踈。欲燒香拜龍溪社。擬泛菊遊栗里居。只恨瓊章傳太晚。呼燈擎讀歲新初。

右次栗里新居韻

題尹穆如 相穆 屏面六詠

玉成玄冬雪。先唱百花春。一理會無間。發處可觀仁。

右梅

直上疑夾持。虛中覺無情。聞風欲立懦。親見聖之清。

右竹

靈均惜無實。此言曾有激。援琴爲作操。尼父是相識。

^P 右蘭

夕餐非眞語。泛酒同戲劇。千載月令書。特表中黃德。

右菊

閩人解作布。懷師用代紙。爭似張夫子。自養新德美。

右芭蕉

貞操比松栢。無名等至人。神農載本草。非爲取長春。

右杜冲

次寄五姪桃源寓中 辛亥

循環一理感貞元。寒盡仙源日更暄。天地始交神化闡。陰陽相盪氣機翻。魂歸梅柳應無跡。春入湖山肯有言。老叟畏逢風伯怒。不妨高臥閉荆門。

洪敬齋墓豎碣韻 癸丑

霜露荒原歲月深。摩挲遺跡客登臨。柴桑處士曾同趣。圃隱先生獨解心。零落殘篇塵汲篋。蒼茫往蹟鳥啼林。墓前三尺瞻新碣。百世高風想德音。

次宋台卿 國秉 見寄韻

羨爾聰明年尚少。把來古鏡願重磨。吾人自有好田地。同志寧無相切磋。須識聖賢成法在。休將經訓泛看過。自憐衰病無餘念。思得英豪學共磨。

偶用知舊見寄韻。吟呈金道彥柳仁伯 泰春 諸兄。

獨坐懷人人不見。幾吟山木伐丁丁。照來明月影臨砌。落盡碧桃花滿庭。欲煮江魚白似玉。思傾村酒濁如涇。孤棲要借同人樂。不害臨風共醉醒。

客中逢李台叟 鼎顯。吟贈一絕。

芳草洲邊月滿天。客心何事忽悽然。逢君說到磨翁事。疑對磨翁話昔年。

訪東巖

迢遞仙庄宿債留。幾年回首夢悠悠。如今匹馬來尋處。碧樹穹巖似舊遊。

感白鷺窺魚

頽然白雪衣。躑躅魚梁東。惜被口腹累。氣象失從容。

輓趙承旨遠仲 錫穆

長安杯酒憶同歡。尹氏堂中更笑看。綽約聲容娘子軟。精明心力丈夫難。完名不碍公私際。大節無疵進退間。前後歷敷疑一夢。西風回首淚潸潸。

敢續先祖詩。次五宜軒韻五首。

遲日園林靜。和飈正屬春。徘徊攜竹杖。飄拂岸烏巾。花柳千峯遠。乾坤一氣新。吹來山雨細。庭草更精神。

右春宜風

溪山無限好。明月又清秋。圓影懸金鏡。新輝映玉鉤。氛埃曾莫翳。林壑更無幽。惟愛園田菊。花陰落滿疇。

右秋宜月

園林鬱若蒸。几案當炎夏。樹影蔭東西。蟬聲鳴上下。振衣濯足餘。高枕觀書暇。此樂矢無諼。靈龜誰肯舍。

右夏宜涼

天寒一室燠。屏跡且經冬。紅襯鑪中火。青看雪裏松。酒醪新釀熟。書畫舊情鍾。不患淪空寂。閉門聽遠鐘。

右冬宜燠

一身循四序。偃仰在中間。燠室涼堂在。清風明月閒。孤棲伴白鶴。幽興對青山。歲暮空悵悵。徘徊叢桂攀。

右此身宜在此間

更次三宜字賀重建一絕

磊落諸賢詠五宜。八溪題額更相宜。小軒重葺人爭賀。依舊溪山面面宜。

隣人來問春窮。笑賦一絕自解。

白首生涯寄一岡。數椽茅屋水聲傍。春來不羨陶朱富。垂柳金絲萬萬長。

次醫甃翁李向之 奎運 韻

聰明姿性稟非貧。何事甘心托病身。豪士工程醫舊甃。P晚年操履出凡民。寒梅老竹增標格。芳杜香蘭飾珮巾。須識知行要在敬。願從涵養日新新。

次寄南郭諸妙詩帖韻

一區花鳥興。孤臥水聲頭。末路思同志。殘年願共遊。所悲先覺遠。非恨此生浮。恐把詞華重。移風嶺下州。

病中見五姪遊巢野鴨谷庵詩卻次

迢遞孤庵入境非。蒼茫往蹟鴨羣飛。鏗鏘觸石鳴藜杖。顛倒迎門起衲衣。莫道雲林探討苦。不妨塵屐往來稀。明朝出洞還惆悵。珍重禪牕一宿歸。

久病移席入谷。不識淵亭花事已爛熳。幼子續次。折取紅碧桃花薔薇諸品來示。

鎖卻淵齋度幾旬。傷心虛負滿庭春。憐渠故折花枝至。聊掛屏間慰病親。

輓朴士仰 泰斗

峽裏高人臥。年前歷訪深。清寒憐苦節。踈雅見真心。鄉里無公議。親知許晚襟。存亡今日恨。回首涕難禁。

憶東巖翁。用巖亭舊韻。

東巖老叟雪盈頭。歲暮孤棲叢桂幽。一別儀容山更遠。三年懷想水同流。看書或待親朋講。問禮應多學子求。子姪嘉名仍可念。滿前才雋幾休休。翁之子姪多雋異。皆以休字爲名。

鼎年姪來問大學正心修身兩章義。隨問隨答。吟贈二絕。

心正身修逐節工。層層勸進八條同。不要更致躬行力。論說縱橫竟墮空。

初學論心下手難。莫如身上且求端。待人應事須加謹。方寸無形賴此安。

輓孫同知 思翼

養德炎維八耄羸。家聲遙挹七灘清。同樞晚祿天恩重。上舍香名棣萼并。琴瑟百年偕老慶。泉臺一日共歸榮。欲論先契還多恨。惟賀庭蘭競吐馨。

輓黃士剛 建中

一曲芝歌響渺茫。商山何處葬園黃。人間忍棄阿孫去。泉下應追一子亡。養學魏陽知有得。壽躋羲卦豈云長。同庚晚契渾如夢。篋裏惟看手札藏。

偶吟自述。用東巖休字。

江皋獨立或搔頭。病裏孤懷轉鬱幽。誰向桑榆同策勵。不勝川澤各分流。看來問學難真得。說到經綸涉外求。卻笑向來彈拙技。妄期榮進老仍休。

輓春睡齋李文 命天○丙辰

簪笏文章奕世輝。橫溪注谷早從師。彭喬晚福清修得。嶺海韶顏定力知。氣象規模當代杰。風流德義後生儀。金緋例秩何須說。沒世遺光在本支。

輓姜晉恩君 必岳

晉興勳業國朝名。菊老文章一代鳴。繼緒百年偕老慶。貽恩三世襲封榮。如論晚福仙翁是。況有雙郎桂

籍并。白首江皋存沒恨。一生迢遞燕鴻情。

輓鄭上舍琢之 璞

谷口風流一夢疑。漢城歸旆恨依依。仙郎壯志終虛擲。郢市高歌卻自欺。一脈家聲泉下絕。百篇詩律世間稀。孤魂入室應催喚。奄忽隨亡寡婦悲。

謹次霽山翁蒙恩改題日會席韻二首。寄呈金上舍中立。

儒臣眷遇未終多。平地風生宦海波。蘭澤悲音空沒世。金閨雅望始登科。天時有待應前定。王道無私豈或頗。一路恩光爭進賀。寒江獨奈病軀何。

重逢青兔感偏多。往事悠悠逐逝波。八域謳歌稱大慶。一時英雋擢名科。十年蘭珮冤難暴。此日鴻恩理不頗。回首錦陽餘恨在。其如天定有時何。

余警族子鼎周用工博雜不精。因以所賦自述韻示之。鼎周一言契悟。次韻來謝。欲灑然濯去舊習。余喜甚。又用其韻贈二首。要與共勉。

雙眼昏昏雪滿頭。不妨高臥一丘幽。學耽精密嫌多窒。行欲寬和恐易流。所勉自當隨事斫。不然奚用反身求。喜君詩律含新意。扶策衰翁竚共休。右自勉

明誠兩事做齊頭。不必遊心入窅幽。山岳崔嵬緣重著。溪川汜濫懼橫流。雖然妙處難容語。惟在當人各反求。做去貴能多骨力。卻羞容易一言休。右勉鼎周

輓李君普 德中

依稀二十歲暫面。迢遞三百里長程。神交暗會臨衰境。手札頻看識晚情。厭弄文章馳險遠。樂聞箴警向低平。只憐客土西河淚。那意春風杜宇鳴。

追誄嵩南申公 二首

嵩南翁喪畢已久。記翁嘗愛吟詩。辱與之往復酬唱。而余衰病沈劇。於其葬而練而祥也。一未進哭。又無一句以誄。長逝者有知。謂我何若。近日病稍間。西望興喟。陳迹已遠。始以寂寥短章。不拘常式。欲追寄其家。以贖前愆。竊惟爲翁之孫者。幸諒此情。實袖此誄。就墓前炷香告由。爲一讀之。并及其

年月姓名。此^P於禮固若無害。神之聽之。亦或有感於冥冥中矣。

何幸中身托契隆。於吾親見古人風。克齋心法應猶在。節度家聲自不窮。尚義尊賢非俗士。吟詩講禮是專工。鵠原仙籙曾圓滿。不意先看未坐空。

多愧踈慵學未真。感深情眷特申申。清襟雅論忘年契。短札長書逐月頻。倏忽喪期疑一瞥。淒涼世事屬前塵。悲歌欲向荒原誅。宿草芊芊問幾春。

次寄權上舍无悔 以復 韻二絕

滾滾雙川水。蕭蕭一草亭。多謝山中客。題寄片心明。

^P我有活泉好。知君最契心。欲治一源滢。涵照萬理森。

輓柳東巖叔遠

白首林泉外念輕。一方師表弟兄并。沈淹義理陳編出。傳習家庭懿訓成。辛苦一生多摭錄。優游晚景細論評。巖廬從此無人管。萬事西風葉落聲。

敬次金白巖平海壁上韻

周王黃鉞孟之津。採蕨西山義不臣。入海孤舟何日返。千秋波浪望無垠。

輓趙月下 丁巳

月下翁歿且葬已數月。余不忍無一言。而衰^P病沈淹。有未暇念。今春寒漸解。神思稍返。始追賦誄詩。畧述悲懷以送之。冀孝子或以此持陳靈筵。得垂冥鑑。使翁之弟晚谷翁覽之。亦足以照我心曲也。

欲遡滄洲歲晏何。月山翁逝卻興嗟。瓊林特秀曾超俗。棣萼聯輝總克家。望絕亨衢寧慨惋。養深窮壑定消磨。天年儼坐無言歿。乘化中宵只任他。

輓趙上舍美卿 相彥

丈人容未契。平昔許相知。翰墨從遊地。溪山送別時。笑談無客氣。淳雅見天姿。卻謝鵠原去。空留大老悲。

輓金川沙道彥 二首

家聲象四德。首出是爲元。師友淵源正。林泉事業尊。消磨客氣久。涵養晚齡敦。卻恨天年短。孤懷且勿論。

平居深淺志。相勸始終緣。剛果天資是。沈含學力然。斯文陽九極。吾黨涕雙漣。廓落師門事。其如一脈綿。

三烈士歲祭壇韻

難弟難兄義勇均。死生知己卽天倫。三人并殞聲逾壯。雙嶺長存跡不湮。一體名登太史錄。千秋魂作大明臣。雲仍爲設同壇祭。禮擬封塋欲永伸。

輓李后山 戊午

陶山門下良翁賢。親炙當年得力先。硬著脊梁擔尙重。細尋間架討探專。沒身講熟明誠說。建晚資深語類編。契忝同門憐後死。斯文先進一時仙。

當暑自警二絕

當暑特自勵。一氣恐遂昏。所以程夫子。常愛表記言。

舒遲恐遂懈。拘束嫌太迫。著意非著意。深造欲自得。

次金聖爲 宗鐸 韻

休慕玄虛動說仙。須觀九十戒賓筵。著工惟貴循階級。下學方能上達天。

輓趙晚谷聖紹 癸亥

萬事人間無不有。存亡生死不須悲。送君此日傷心事。不獨重泉遠別離。

唐景高才早出羣。大方門下更陶薰。不無事業同天討。爲有雲橋問答文。

窮泰悲歡總不論。斯文一脈更誰存。此生朝暮同歸盡。惟有前期在九原。

次李士彙 國林 留贈韻卻寄

向裏研窮已自賢。來詢聾瞽卻茫然。百年活計詩書在。萬古昏衢日月懸。愧欠實工抽鎖鑰。欲窺真面隔雲烟。緣君強叩陳愚見。恐涉荒虛等說仙。

次金夢賚 良弼 求和百日梅韻

留得王春寄一梅。年年百日爲君開。爲能扶植皇州物。莫道衰年志業頽。

輓李仲綏 經祿○乙丑

白首相期重。斯文晚契敦。淵源數咎壻。家世沅翁孫。存沒關吾黨。興衰係一門。江皋殘景迫。懷事向誰論。

輓金上舍景徵 宗憲

親朋零落盡。萬事總前塵。松老家聲舊。仙巖寓計新。風流賢上舍。淳信是天真。七耋還非壽。應長後祿臻。

輓趙同知 相抃

仙翁乘化去。回榜是前年。周嶽神精降。漁溪世業傳。恩榮稀一代。歌詠集諸賢。宿債空餘恨。哀章且未先。

輓李向之

懿戚從遊密。襟期晚更通。憶憑醫壁說。欽著近思工。一子登龍早。三郎舞彩同。忽驚先我逝。惟冀夜臺逢。

輓李寢郎穉春 庚午

望重萬人首。名成舉國知。何傷絕島謫。仍帶聖恩歸。不負家庭學。無疵志行持。卻慚追誅晚。未及粉旌飛。

贈別趙甥居讓 辛未

惆悵送爾歸。一別難更接。相距數百里。雲山千萬疊。况^P是九九翁。朝夕且垂死。爾年亦已老。請言欲何以。惟願育子孫。勿隳先人事。

晦屏先生文集卷之二

書

上大山李先生 甲申

伏惟冬寒。靜養體度萬重。反聞近間。駕向南淵。與川水諸長老。將參校刊補。此實斯文大事。使前輩未完文字。庶得賴而無憾。而爲後學無窮之惠者。實亦有待於今日。其爲儒門之幸。亦如何哉。體仁雖無似。亦竊有從行之願。以暫廁講席之末。而參聞緒論。則所得深淺。雖各隨分。而私幸則深矣。金休彥近有來往否。此人想無家穴之縛。其於遊學從師。宜無泥而沮之者。恨未得比肩^P執經也。近日擾擾。無別工程。方將大學或問早晚看讀。甚恨其從前泛看。只是爲應副談說。而無一交涉於自己分上也。欲探南淵行聲。謹茲委控。

上大山先生 庚寅

山光水聲中。拜辭言旋。眷言回首。仰止靡及。卽日春和。伏未審道體神休與時增重。巖亭藏修之役。已次第訖功。庶將頤閑否。顧今春色向暮。山日益暖。問柳尋花。正維其時。而浴沂詠歸之樂。實有未易窺覩處。恨不得脫出纏繞。周旋承教於其間也。雨谷遺集。伏想已校勘卒業。五十餘年操履脩行之美。文章道理之妙。庶幾自此^P無憾。垂惠後學。豈不爲斯文一大幸耶。頃進擾擾。未及究覽全帙。而念其與柳叔遠書所論工夫功效數篇及日課幾條。當日承教謂當刪去。而倉卒妄對。未及思量。竊以爲不必然矣。歸卽更思。自悟所見之甚滯。此本與史家筆削事不同。要當刪而又刪。精擇其可存者存之。然後庶幾爲揄揚盛德之實。而不爲誤後學累先覺之歸。古人編校之例蓋不出此。而當日下教云云。意有在焉。顧此蒙見。乃不得深思及此。而攀爾進言。此不但有乖於編校之例。至於爲先覺至誠闡實之地。固有十分未安。茲敢提質及此。惟冀裁察去就。務歸至當。千萬伏^P望。

上大山先生 辛卯

頃伏聞除命新降。五馬催發。康濟一方。足以爲兆。區區欣慰。不但爲私而顧惟以衰晚氣力。適丁窮陰。向北遠征。易以生患。恨未能進謁承誨於啓程之日也。既又伏聞旋駕中途。還尋初服。高山松桂。翫適依舊。向外一番爻象。雖或不無可悶。而伏念大君子胷中義理瑩然。進退行藏。自有定筭。後生末學。有難以意慮料測。而寒程遠駕。得停行役之勞。下懷懇懇。實以此爲幸也。體仁當卽趨謁。兼有質疑。而憂穴牽縛。一出無隙。瞻仰德儀。^P只切愧悚。謹此奉書煩告。惟埃早晚面侍。

上大山先生 戊戌

屏跡寒郊。意想稍閒。收拾殘書。料理舊聞。於斯時也。若登門請益。得蒙提誨。有所開警。其觀感興

起。萬倍他日。或不無啓憤發排底境界。而疾恙纏身。兼縛穴故。寂寥窮巷。杜門自在。雖欲一褰蒙蔽。快觀星日。得進昭曠。烏可得也。卽日窮陰。氣候頗乖。伏未審清齋暖室。居養便適。觀書應物。翫樂自然否。體仁。奉親應接之暇。時與一二子弟看經讀書。往往相發於語次處甚多。數學相資。於是可驗。欲錄出一二條未透澈處。提獻質疑。又有近^P間所與知友相論之說。從當一番仰質。以結其趣也。河丹溪延諡旌閭韻。近始構得二篇。庸詞拙語。於先生軒天之節。聖朝不常之恩。不足以發明萬一。而伏想一入鑒裁。欲觀妍醜。故乃不牢封付上。

上大山先生 辛丑

近者豚兒再次登門。比還。或承賜教。或悉口傳。伏審聖批優許。養專林野。觀書翫物。惟意所適。伏惟大君子出處行藏。是係時運之盛衰。固若可恨。然而後生末學。得相繼來往於門下。請業質疑。亦足以見天意之不偶然。而欲永斯道之傳於無窮。豈不深可幸哉。豚兒非無^P趣向可觀。而於蹊徑門路。全然蒙昧。謂宜見棄於大人之門。而前後來往。過蒙獎許。與聞至論。感誦德意。實未知所以爲報也。使終出入大韜之中。得受鎔化。其幸可言。丹溪都丈。未知留幾日乃還耶。頃造門下歷訪。至此一宿。從容見其眉睫辭氣之間。養得已不少。試與之講討一二段。雖未知已到圓活境界。而知行偏重之說。似已換卻舊見。此爲不易。大抵南道人物氣象自別。往往多在躬行上得力。故終始牢固確實。無流俗脂韋之態。此可尙也。豈非儕友之所可敬者乎。退陶年譜紙頭標識。當日侍坐。目見標識於序節要條上。而退歸私次。全^P不記序。節要一條。妄有云云。致令長者顧疑。還家未數日。伏承賜教。其不審妄發。固爲可罪。豈非所當懲艾處乎。溪門諸子錄。卽蒙投賜。當受言藏之。以待史傳之出。而恐非其任。難免僭率。得無與不審妄發同罪乎。豚兒袖致一圖。而謂自丈席特令傳覽。仰認不外。惶感萬萬。此蓋體用工夫大總會處。前輩乃用許多精力爲此。固非區區後生所敢容易窺議。而屢日究覽。參以古人之說。有所不安於意而未能臆決。茲敢畧提仰質。不審以爲如何。體仁竊惟自古圖象。莫不因其有實體爲圖。若夫河洛圖書。是雖不假人爲。而亦出於理數自然之實^P體也。太極圖。是模太極之有實體者也。心學圖。雖排列工夫。而以心之有實體者爲主也。至若西銘圖。仁說圖此不但理之有實體。乃據銘說文字爲圖者也。何嘗有懸空立象。無實體而苟爲圖者耶。是知道理自有實體。而工夫無體象可指。使工夫而可以爲圖則克己三省戒懼謹獨。皆可爲圖。而敬齋箴一圖。乃當只爲敬圖而已。不必以箴語分排矣。故觀心學圖。其於心之體則畫爲圓圈爲圖。而於敬字則只書曰一心主宰。不復加圈。寒岡鄭先生說破其義曰。心之有圈。以心有方寸之形。而敬則只主一惺惺。別無形樣故耶。其說可以爲證。而^P前年嘗參校龍巖集時。以案上存省圖一圈子。或指爲工大循環之圖。而丞教爲不然。體仁亦竊疑之。取攷舊本則案上存省四字下本無圖字。而後人勒加稱圖。始知其圈子之不爲工夫圖。而料或爲分界上下而設。未得的證而罷。豈不歷歷可記耶。是知敬是工夫而中和是性情之德。非有體象可指。而乃畫爲圓圈。層累相加。若太極心情之爲圖。而名之曰敬兼中和圖者。是不幾於懸空立象而苟爲圖者耶。抑又念敬兼中和。此既做心統性情而爲之圖。則按心統性情圖。乃特以心爲主。而設爲圓圈。至於性情則不復爲圈。而只條列層書。^P屬於心圈矣。今以敬之一字謂兼中和。則似當以敬爲主。而爲敬作一圈。只條列中和於其下。以屬於敬。而竊觀是圖。似亦自知其敬之不當立象而不宜作圈。故其舊圖則第一圈內。特書心字爲主。以敬字只借付心字下。若天命圖之只附著敬字於天命圈內。則是便爲心統性情圖。而有不得爲敬兼中和圖也。新圖則第一圈內。大書性字爲首。而繼情圈於其下。敬之一字。著於兩間。似不得爲主則此只爲

性發爲情圖。而有不能爲敬兼中和圖矣。其名實豈不相矛盾耶。新圖之中和兩圈。相銜處有限隔不相通。此亦可疑。伏聞盛教於此已有^P云云。而敬兼中和之兼字。似亦不如貫字之穩。未知如何。其所著圖說則首兩句。語意未穩。所謂性情者。心之寂感。似不若曰性情者心之體用。所謂中和者敬之體用。似不若曰中和者性情之德。今若以工夫謂體邊工夫。用邊工夫云爾則固可矣。而乃以性情之德謂工夫之體用。則其語果順乎不順乎。且念此圖雖專爲工夫而發然。若究論中和之德而極於其天命之本然。則天命之性。純粹至善。而具於人心者。其體用之全。本皆如此。不以聖愚而有所加損。此在中庸或問中朱子已說破無餘矣。特以其氣稟不一而有不能盡保其本然之^P德。則未發之際。或不無偏倚而大本有所不立矣。已發之後。或未盡中節而達道有所不行矣。故君子於此。特加戒懼謹獨之工。爲致中致和之道。而敬之一字。可以貫動靜一內外而無間。則必如是然後乃可以言敬之貫中和者。而若夫中和本然之德。則自其稟受之初。已自全具。不必待說敬字而始有矣。故子思之始言中和。則乃只舉未發之中。發皆中節之和。而不復帶說敬字。至下節致中和。然後方可爲工夫。於此亦可見其有本然之中和矣。然則今以中和只屬於工夫做得。而不說到本然之德者。其說亦未爲周盡。未知如何。抑又念心^P統性情。則以心之爲一身主宰而自統其體用。敬兼中和。則乃以工夫而兼性情之德。語雖相近而實不相似。於是而必節節推配。若相表裏者。其說亦如何。體仁以晚學迷昧。無一分實工於平日。雖於文句粗淺處。亦不敢容易開喙。况敢恣議於性情體用之工。而乃若工訶前輩乎。雖然義理至公。有不敢一毫苟循。而質疑辨惑。不害於痛覈詳論。故提稟書末。不自知止。伏惟裁教幸甚。體仁秋冬以來。無別事爲。所居洞門佳處。欲縛得數椽看書。蓋嘗辱面教勤懇。欲必催成。故不計歲侵力屈。卒然經始。先就小麓臨灘處。已築得土室。欲於明春更^P構精舍數間。拙計若諸。庶將躬詣。仰懇冀或寵臨。粗償夙願。而奢束之甚。甚於古人。姑未知屋之必就與否也。盛意於此未嘗不惓惓。故乃敢溷陳及此。只增惶畏。

此去申鼎五。卽從姪鼎沃弟也。年紀已晏。所學無本。而亦不忍自棄。欲一遊大方之門而得承指教。亦可嘉也。幸蒙容而受之。進而教之。不以空空見拒而叩發兩端。則或不無一分興起之端。而凡爲其族親父兄者。咸與感誦無已。千萬拜祝。圖本並封投還。以備鑒準。伏望逐節裁教幸甚。

與九思堂金公

^P東西夔閱。便信漸稀。念前日來往之頻。丞陪之親。未嘗不爲之興慨也。伏惟年來。抱書還宅。頤閑中谷。溫理家學。超然自守。妙悟深得之趣。蓋有後生之所未及知者。而獎引教授之責。亦將有所不得辭者矣。且念貧雖常事。到極亦難。幸不以思量計度之勞有損於清平和樂之氣否。體仁。年來別無所事。取來古人文字。早晚閒看而亦或有疑貳未定處。或有窒碍難通處。恨未能一擺憂宄。就質座下。得以免於終晦也。心經釋疑。前日借來。謂或別有可看。而見其但以小註比例大註書之。畧畧插錄質疑訓語。而只要便於攷覽。則不必捨本經而取^P此。卽欲奉還而恨無便因。今始裹上。但丁氏混。終未知爲何許人。嘗奉叩於蘇湖丈席而亦未究攷。近日或有所攷。錄教如何。大學或問。今方看讀。未得并還。或可從容寬許否。但此書看來。固多可疑而小註往往有全不通解者。謄寫後嘗已精校無訛耶。無印本參證。可恨。

與九思堂金公 丙戌

雪積湖山。寒甚於冬。伏惟履泰頤閒。神休萬安。體仁。近日侍率依前。且方來到蘇湖。非獨爲訪妹之計。竊亦有望於啓憤發悱之力。而卻恐自家全欠工夫。恩恩來往。仰首問人。只成閒言語也。春間進候。夙計所存。今既來^P及半塗。若遂轉而前造則不但一拜爲可幸。離索吝滯之餘。欲就正而請益者固非一端。而騎牛行色。惻冰徑歸。翹首仰瞻。曷有涯際耶。或問尙未奉還。違教深矣。今方攜來到此。而居家看讀之際。不無一二帖標處。不可不以自家所標之冊披閱提質於丈席。故茲更少須與留待。以質所疑。早晚進候。要自奉納。因爲重重叩質計。自顧逋慢。無以逃責。而亦意長者許引後學。使容自力。或不深以爲罪。未知如何。

與剛窩任公 辛卯

卽日南至。天道休復。伏惟靜中體候膺時神相。體仁。侍^P率依前而久違鐫誨。只覺得非於長者之門。慚悚何既。近者一邦之士。幸得賢侯講書論學。得見當世之所未見。功效之實。不敢預必而題目已自不凡。豈不可尙耶。藏院十日之會。又欲大集老少。而其所欲講者。乃是太極圖說云。則此其規模不隘。與諸講稍別。而所講之書。又極深切。爲吾輩者當一倍興起。講究討論。必要及期應副。不至埋沒。何必更問在人之虛實耶。竊聞日來聚近方學少於丈席之前。講明圖說。孜孜不懈。伏想啓發憤悱之功。必有不可勝言。切欲進參席末。得承餘教。而方營妹婚。抽出沒計。亦無冊可攷。不得偷隙寓目。深恨^P深恨。

與蔡尙書 濟恭○丁亥

卽日仲夏。伏惟哀中氣力支安。體仁本以委巷寒素。知見孤陋。區區名姓。不足與聞於門下。而前秋忽以爲先事。遠追行廬。粗陳愚見。至于今春。又極煩瀆。前書未及承答而後書繼進。可謂溷冒無恥。不自量分。而執事不以爲罪。既垂惠答。諭教鄭重。仰請之事。又不盡拒。體仁之獲幸於門下已過矣。非大君子德意之宏。何以及此。自今以往。庶將謹守愚分。益自退縮。不敢復以尺牘之煩仰溷崇聽。而至所受來文字中。終有一件大節。所係^P甚重。雖欲恬默無言。烏可得也。竊念子孫錄中。先輩或以族叔而反居族姪下。或以前世而反居近世下。族行世代。全然倒錯。而新本所定。又忽以前所得當之次移而下之。承謂以旌贈與否爲次。遠近見之者。無不欽誦文章之盛。而至此終不能無恨。或曰。人家昭穆行代。不輕而重。作者雖或有以。而實未知當然也。或曰。金石文字。與場屋偶儷不同。若初不見錄於此則已。既謂有顯望而錄載之。則不顧其昭穆行代。而特以旌贈爲重者。實無古例。又況所錄先輩如某公某公。未蒙旌贈而錄載於旌贈之上者。亦非一二。何獨至某公而^P必移錄旌贈之下。錯其世代乎。以此以彼。有未可知。凡有知見者。所論要不出此。體仁等若但以煩請爲嫌。而不肯復爲請改之計。則是內誣族系。外負執事。而終不能無欠於大役也。茲與諸宗共攷各派譜牒。敢以別紙依族行次書各於名諱下。以細字表其代數。委人以上。伏望特垂諒恕。益恢德意。一依別紙釐正下賜。則當依所改刻之。謹稽首懇祝。

與蔡尚書 戊子

頃因宗人稷模。伏聞千里譴遷。旋蒙宥還。神扶豈弟。氣體冲迪。區區仰慰。無以容喻。體仁。跼伏窮閭。飲啄自^P在。本不欲以名姓之微屢溷台聽。而卽聞稷模口傳。及讀執事所賜鄙宗諸老書。乃以先祖碑文中子孫錄刀割改書處。謂非出於執事所次。而大疑鄙宗中有勒改秉筆所述。體仁竊惟世間事雖或有千萬不意。而誰嘗窮慮及此也。去年夏五月。體仁嘗以子孫錄昭穆錯次不可不正。乃走人千里。仰懇門下。而難以原本冊子付送迷奴。特以別紙謄出子孫錄新舊本。及世系族行實次。又以空紙付呈。請釐正還賜。則執事不以爲不可。賜書辱覆。旨意勲懇。果釐載空紙以來。使依此登刻。體仁既承命。與諸宗相議。就原本中裁出三四行。補入新紙。^P以別紙所錄來者填寫。一依台錄。無一字移易。雖其字法庸拙。占位太密。不免異筆班駁。而顧其所次之語。不可謂不出於執事也。執事所嘗辱覆書。尙珍藏不失。宛如陪晤。斯實去年六月十一日所賜書。執事觀之。豈終有并忘手畢之理哉。當躬詣門下。面陳曲折。而千里長途。有難猝謀。茲敢替走伴書。試以去年所賜台翰及別錄小紙。及改書時所裁出小紙二片。并封投納。要爲左驗。幸勿以煩猥見拒而曲垂鑒照。則其逐節開悟之端。無異面陳。願執事特垂裁諒。更爲寫出碑文一通。亟許還賜則執事德意之宏。庶共欽誦。不審執事以爲如何。

與李方伯 秉模

伏惟端陽。令體起居萬重。體仁頃拜書諭。指日期會。据義引重。禮意勤摯。竊念寒葦韋布。生長畎畝。未嘗與觀聖代治光。杜門窮居。隨分耕讀。蓋欲一遊名卿賢大夫之門。獲破愚蒙而未能也。幸今聖人在上。陶鎔一世。曠古盛舉。中外興起。於是而又有賢方伯乃欲祇奉聖旨。延訪講究。棧樸甘棠之化。庶幾於吾親見。體仁雖極愚昧。豈不自知踴躍奮發。樂赴盛會。有以共誦太平之化而得遂其素志萬一也。故於拜書之日。不敢有所規避。恭修覆書。必欲趁期赴會。而便回數日。策馬臨^P發。中夜疾作。風眩猝劇。兼以舊患阿堵。因此添苦。有不敢頃刻出戶以逼風暘。尙何論跨馬登途耶。茲更以尺書仰瀆。伏惟曲加恕察。

答李侯 弘源○己酉

一出三朔。始得還巢。伏見七月十九日所賜書。留在塵案。德意鄭重。兼以魚酒之饋。特施惠存。自惟無似。只切感愧。第審彼時葑制纔闋。悼傷益新。辭旨愴然。天慈所鍾。安得不爾也。卽日秋序已深。伏惟政堂體候增重。以是慰祝。大夫有賜。不得受於其家。則必往拜其門。此義也。蓋嘗畧聞之矣。遠役既返之後。卽當踵門納拜。仰謝^P眷存。而客裏生疾。殆阽危死。僅得扶還。而餘證未已。杜門憊臥。虛辱厚眷。第極慚悚。體仁前後仰懇。非止一再。而崇聽邈然。終靳憐許。自念言行無實。未得取信於外。屢次煩懇。只涉規避。卻無顏面敢近軒屏。時當菊秋。黃花滿堦。月色灘聲。境界稍閒。若蒙解此踈慵。許以天放。相忘於江湖之外而俾得養疾。則其賜亦豈不多也。漫布及此。懼或見哂。

答李侯 辛亥

邑人無祿。坐失賢侯。臨行賜書。足以仰認大君子信義出常。不遺寒素。眷眷至此。感誦何極。卽日歲色且換。伏^P惟陽春有脚。隨處布德。神衛愷悌。百福新休。體仁。涵濡至化。病伏山樊。屢辱眷存。終違一拜。頃於五馬移陞之日。非不欲匍匐門下。扶杖遠于。而顧於是時新遭毒慘。未得以尺書替伸情愴。所賜辱書。乃始奉讀於行旆既遠之後。辭旨鄭重。手畫宛然。繼以新奠之贈。亦出情眷。而行塵莫追。面謝無緣。雖欲奉付數字畧陳區區於千里之外。而屏居一隅。無由討便。茲以轉付一緘于縣吏處。使之奉傳。恐有浮沈。繼此有便。或蒙時垂德音。訪問死生。當受言藏之。永以爲好。豈敢或忘也。

與柳洲柳丈 乙酉

^P次承款誨。兼叩詩囊。滿掬瓊琚。令人奪目。而特恨連日追逐。未得一番從容也。卽日江雪凝寒。伏惟靜中體候萬重。體仁。閒居奉親。隨分飲啄。讀書看文。亦不能委心著力。至於詩律工病。奚暇念及。顧今歲暮風烈。冰雪釀寒。亦足以詠出爲詩。而竊伏念河上丈人已領得仙興無餘。自顧庸庸。雖不一開口。亦不爲造物欠事。遂不爲之留心。虛負清致。寂寥遣日。無亦近於頑陋耶。牽筵二韻。重違盛教。謹此構呈。而第念盛什諸篇。廣占餘地。使繼而作者無復容措。後生不能學其疊出無窮。只以寂寥二篇隨韻各賦。僅能免闕。於此亦可見貧富之不同。^P寒士家計。豈或有一事贍饒也。餘祝對時膺福。與物休息。

與柳洲柳丈

卽日秋清。蘭菊嚼華。伏惟頤神養閒。百福川休。况念江上詩興。與秋爭高。錦囊逐日富麗矣。嚮風瞻慕。安得不介介也。體仁依侍而憂冗日縛。讀書看文。無或如意。只自悼歎而已。春初辱賜覆書。滿紙縷縷。謬獎過常。雖出於愛而不知惡之意。而私竊慚悚。無以仰對也。新屋韻。至說先誼之舊。必要填押蕪辭。雖不敢終默。而本以無能之詞。兼有應接之煩。未能暇念及此。可謂緩而失時^P矣。其餘則韻澀思涸。難以逐篇用意。故托於古詩。爲包羅并舉之計。得六十二韻陳談死調。足令觀者厭煩。深恐仰浼清致。而以多償少。亦自不惡。未知盛意如何。

與近仁堂李丈 丁酉

違侍已多年矣。每念一鄉之中先進長德。次第零落。惟執事尚無恙。齒德已隆。當以時趨候。而家私俗擾。兼以慘憂。墜負舊誼。闕焉若忘。時一念至。不覺怛然興傷。豚兒。嘗以恩行進拜。歸傳動止。謂其聰明潑然。酬酢如響。聲音顏色。無異少年。此必晚工得力。存養以致之。其爲後生欽慕。當如何也。卽日孟冬。伏惟靜候神衛。耽經^P玩物。自樂無求。頌禱無任。體仁。內無所養。外乏所成。區區從事。不過孤負古人。欺了師友而已。有何顏面。可以聽命長者之側者哉。豚兒嘗奉傳盛教。以父喪內母卒服葺與否。辱與俯詢。使陳瞽見。此禮家疑訟之大者。而從古儒賢。無不趑趄難處。不敢容易臆決。

似此蒙愚。雖欲有所論。安得無狂妄僭率之罪乎。雖然。念私門至親。嘗不幸有遭此變者。平居講禮。蓋嘗起疑。及此乃得先儒歧貳之說而未能決得公案。畧有所理會於中。而未敢出以語人。今承盛教。不敢終隱。謹編作一通文字。別紙付呈。又欲往質丈席。得立決案。伏乞特賜鑒裁。一一^P鑄誨。千萬幸甚。

與春睡齋李丈 壬寅

大耋之年。離違鄉土。遯矣荒隅。歲月屢更。親戚故舊之情。正惟於窮途可見。而不肖無狀。自負先誼。既未能拜餞中途。尚不以一字仰候。使吾先大人。在世。必不爲爾。慚罪萬萬。無以自文。即日冬寒漸深。伏未審旅館體候神衛否。彼中距此雖非絕遠。而嶺海之間。風氣自別。未知物情謠俗比南土何如。而亦有一二士友來往相從。知尊敬長老否。守土之官。亦或肯與相顧。藥餌凡物。往往得有資用否。李咸昌老兄亦不意譴斥。而適在同縣。^P日夕相對。歡笑盡意。乃或有忘卻在長沙時日否。鄉者鄭兄幼觀嘗委造納拜。畧傳動止。伏聞到彼後氣力不減。顏範充腴。足以仰認平日定力。有能自豎於患難之中。不以窮泰歡戚亂其心。而鄭兄之不忘舊誼。遠路窮尋。亦可感也。體仁。侍率依遣。而湖上先師奄棄後學。同志遑遑。舉失依歸。想執事聞此。亦必爲吾道興悲也。近者因從祖竹厓公所哀集先祖梧峯府君年譜草本。稍加彙括。僅成一部。而後生孤陋。攷據難詳。往往有欲奉質而不可得。亦可恨也。年齡向晏。外念漸薄。就所居村前錦山之麓。臨水爲亭。此蓋吾先人所嘗留意盤旋之^P地。而不肖肯構。知友相助。得成三間。扁之曰錦淵精舍。而境界亦自不惡。鳴灘白沙。橫帶膝下。有魚梁釣磯之便。恨不能一陪杖履得逍遙歌詠於其間也。想平日風流襟懷。必不以此事爲惡。而乃或慰其愁鬱。故提陳及此。只增惶猥。仍竊念馬伏波之言。曰丈夫窮當益堅。老當益壯。敢以此一語爲執事仰誦。欲其必講討逾明。充養逾厚。而俟日後恩霈之降。韶顏黃髮。翩翩扶還。望之若仙。千萬伏祝。

與春睡齋李丈 己酉

前秋。伏聞僉長老欲命駕寵臨。做一場漁釣之會。不勝^P欣踴。苦待涼生韜熟。欲必定期以告。既又聞德門宗戚丈奄忽不淑。爲之拊念驚痛。繼恨一番佳會儘亦有數也。春事殆半。風寒且緊。伏惟大耋頤閒。永受遐祿。仰賀萬萬。體仁。親瘡身恙。交劇無間。遠近惡音踵至。石田姜上舍又告不淑。痛惜何言。閉門孤坐。意象極無聊。而所可慰幸有生氣者。惟注谷事可謂曠世恩典。山川改輝。神人感泣。而爲吾弟兄地。又豈不節節增恨耶。日前得趙甥書。謂兩世改題。定以三月十八日懇要趁此必來。而又欲通告于座下。竊伏念前秋仙旆。固有乘興往遊之意。未知近日意想更何如也。花鳥籠山。麗景方遲。^P此時仙興想益飄然。而自惟病眼忌風。恐難刻期趨程。將以三月旬前發行。歷抵彼中。恨無由奉陪杖履。追躡駕後耳。

答春睡齋李丈

扶奉仙珮。踰越險阻。周旋唯諾。晝夜昵侍。觀其於人海擾擾中應接無暇。雖年少強壯者。有難自給。

而顧以九十大耄之年。冠珮儼然。談笑怡愉。無一分疲極厭倦之象。及其奉別。分路按轡。容與拂柳穿花。鶴髮翩然。當日雲會之士。誰不顧瞻咨嗟。相與傳誦。望之若仙也。及自還樓之日。計高駕返稅已久。欲一奉書仰候。而恨無便^P因。卽伏承先以書賜。眷眷不遺。仍自道周流四百里。氣體一向冲適。不病不瘁。此決是上界靈真語。歎慕欽尙。豈容形喻。體仁。留英峽十餘日。南出丹丘。再宿姨兄家。至東坡留數日。歷抵大坪瓢谷。與柳上舍兄弟一宿穩討。觀其所編溪集攷證一書。畧論大槩。次東巖韻。托以晚期歸臥川上。阻水淹滯四五日。取路梨峴。一宿邑邸以夾。首尾凡三十餘日。到家而侍率依遣。淵上花鳥姑無恙。私幸何已。遠路撼頓。眼疾添苦。涔涔度日。忽被縣官迫以訓課之任。一面衣冠。來往續紛。卻恐爲猿鳥所猜耳。先祖詩篇及高翁詩。蒙不忘謫賜。足以見神精所^P逮。不勝欽感。而爲乳孫忘猥煩懇。亦蒙留聽。庶將服之無斃。永膺多福。其爲幸賜何如也。

與春睡齋李丈 甲寅

仙籙靈長。恩典重疊。陞秩懸金。位望益隆。而顧惟殘慵。疾恙無間。閉目塊坐。雖欲一進獻賀。承誨從容。烏可得耶。卽日亢陽如火。伏惟燕養清謐。對時神衛。令孫戚契。尙未還侍否。聞其以能詩。得蒙寵褒。可想其逢時吐氣。增價三倍。第念秋科日子。與藏院享禮相值。未知當任將何以處之。頃者豚兒從彼中歸。畧傳德門僉契謂當退行於科後。此有前規云。聞之不勝駭歎。禮曰。祭^P祀以時。又曰過時不祭是禮也。退行科後。非所謂過時而大失禮者耶。院長雖有故。固當遞代行事。况爲有司之科行而進退乎。雖是國試。而有司應舉。只是一人之私事則爲一人私事。而欲退行莫重享禮者。固爲可駭。而前規之說。尤極無稽。此等說話。年少稠中。或率口偶發。不必深咎。而第念吾鄉全沒紀緒。此等意外之論。或發於一隅。而相與唱和。公傳道之則後生無知。慣於聽聞。便以爲當然而有欲遵行。後弊將有難言。不可不豫爲嚴杜以絕其端。故茲敢冒煩仰控。伏惟垂教賜答。俾破愚惑。千萬幸甚。又伏念年前侍坐時。說及先祖梧^P峯行狀。不無多少商量處。欲以此爲家狀原本。而改請於秉筆刊行。盛意固與愚見暗合。而德門僉長老。同然一辭。謂之誠好誠好。靜攝中或記憶及此否。今方有意於改請。而事面終涉未安。故茲敢更稟。伏望明白回教。要爲一心議處之地如何。

與柴里柳丈 丙戌

近者。伏聞晚來仙輿超塵。方秋葉紅之節。與意中諸長老。攜琴師入俗離。歷金烏上伽倻。觀文莊海印之勝。探崔仙吉子之遺跡。往往發爲詩章。平日從遊門下。固知有出俗之想。而亦豈意衰晚筋力之盛至於此也。後生^P殘庸。既未得追躡下風。亦未能進叩詩囊。壤蟲之歎。不勝愧缺。敢以拙句仰浼。以道其區區歎羨之私。遊錄編詩之下。若獲辱與附之。早晚傳入於同遊長老之鑒而許以神遊。則神之所會。殆同身歷。其爲幸賜何如也。

與二可堂趙丈 丁未

入雲岑千疊之中。獲拜仙老無恙。棣影聯翩。歷路告歸。又伏蒙扶杖出巷。臨水相晤。拜辭言旋。終日

惘惘。潦雨乖常。伏未審棣軒靜養神衛否。體仁。奉親避癘。杜門經夏。淵上風光。自不免虛負一年耳。堂詠豈敢忘盛囑之勤。而顧惟主人丈二曲清絕。自領得仙興殆盡。奚必更^P要喙喙爭鳴耶。然而長者既有命。有不敢自諉。乃別爲歌詩三章。冠以小序。聊以仰贊未盡之遺音。伏惟垂覽一哂如何。雲山綿邈。後期難卜。瞻望德儀。只增悵慕。

答嵩南申丈 丁未

每伏念棣軒僉執事。黃髮具爾。仙珮聯翩。未嘗不耿然欽想。五月初。忽自無何獲承三月十七日賜書。手畫宛然。辭意鄭重。恍忽驚喜。殆若夢寐。日月已久。潦雨乖常。伏未審靜養體候如何。體仁。奉親避疾。杜門經夏。所居淵上。境界稍佳。白沙縈前。灘聲盈耳。每日暖風恬。啼鳥籠山。夜深月朗。漁火來往。或攜二兒子手數尺筇。陟降^P原阿。尋花觀魚。倦極而歸。燒香對書。俯仰今古。亦足以優遊自老矣。第念殘景下山。暮途蒼茫。怠忽敬肆之間。一念難保。未嘗不眷言回首。懷我同人。不能無望於先進長德之肯垂警責。得不至顛倒墜落。而卽承賜教。未免失圖。推借不倫。撝謙太過。至礙人以邵翁花草。光霽宵次。而自謂未作聽言之初平。殆涉翫弄戲劇。而無片言垂誨。豈平日所望於門下耶。令人惶愧踟躕。不知所對。况蒙辱覓所著詩若文。要以替面。仰認眷愛之極。而自惟年來憂憾偏甚。一區寄寓之後。實無閒意想可以從容佔畢。所以不免緘口悄坐。泯默度日。至今江山寂^P寞。花鳥無聊。所謂溪山固佳。特主人不好耳。寧有平日著述。可以持納溷浼耶。伏想長者方逍遙江曲。養疾看書。或不無遣興諸作。聊自歌詠。若蒙大度不較。因便投賜。俾獲奉覽。庶將追躡下風。敢與賡和。豈不足以小贖前愆哉。自惟不敏。未副盛囑而反冀承惠。惶懼萬萬。簡幅之賜。非但疊惠不安。知出於親自剪裁。盍亦德其物哉。偶占一絕錄呈。或可以俯燭年來閒居意象也。

答嵩南申丈

七月初。忽自襄陽獲承五月晦日賜書。前書未及仰報而後書繼辱。兼以盛作詩文及謬詢禮疑。爛熳盈掬。顧^P惟愚蒙。實無一知半見可以仰塞盛須。曷不蹙然惶愧也。卽日秋氣漸高。伏惟靜養調候神衛。體仁。奉親避癘。一味畏約。殘年所願。只是飽喫得飯。而潦雨敗麥。十口累心。秋事頗稔。安得不爲民國稍慰耶。禮疑諸條。俱是大節精微。固非所詢於蒙陋。而既辱盛教。有不敢孤。要竭瞽見。冀蒙裁誨。詩韻未能盡和。特次求和韻及有感於中者數篇。文則就其中有一二處可以奉質。并論載紙末。幸垂覽後因便還投。俾得歌咏於閒中。則所賜亦不少也。承早晚欲自襄陽轉臨。若蒙遂計。溪山花鳥。庶將共被輝光。爲係幸不幸非細也。

^P別紙

祧主旁題改不改

疑禮問解。雖云當改。而終覺有難處。盛教所云祝文則書長房名。主面則因存宗孫名不改者。似得宜。體仁嘗以是奉質于蘇湖師席。則師席所教。乃謂最長房。一時權奉。固與宗孫奉祀有別。似不敢以奉祀孫自處。而最長次長。年紀俱高。數數輒改。極爲難處。莫如以宗孫名不改。而最長房姑且權奉其祀云

云。故鄙家嘗依此說。不改祧廟旁題。豈有別見可陳耶。宗孫時。書以高祖。最長時。書以曾祖或祖爲未安。則此說恐推之太深。似不^P必爲嫌。

庶子所生母題主稱謂

只書母字。似亦無妨。而第念朱子所謂但謂之母矣一句語。平日看此。竊認爲不稱妣而但稱母而已。想沙溪亦或如是看了。故喪禮備要。所以只舉下節。不并載此句。而其義已足。奚必恨其不并載耶。家無二尊。嫡庶分嚴。則庶子雖非承重。而豈敢以其所生母越分濫稱。不要避嫡母耶。雖以庶母所生。而既有其嫡母則其所生母。亦不過爲其庶母。觀通典所謂兩妾之子相謂庶母。可旁證。則今來教以庶子之非承重而或稱亡母。避嫡^P爲非者。此說有未敢知矣。顯字皇字。固不敢擬。而先字亦未知必穩。非以其先後之義爲嫌也。至如亡字爲迫切。則蓋溪訓嘗然。乃以亡室改爲故室。體仁年前喪耦。亦依此題以故室。然而其後竊惟之。亡與故。其字義自別。故字是泛稱近故之辭也。亡字是親切悼亡之義也。蓋陷中則是如銘旌碑碣之泛然表稱。而不必据主祀人稱謂。故特題之曰故某官故孺人。主面則全据主祀者稱謂而寓以情禮。故題以皇祖顯考而特致其尊敬之禮。題以亡室而或寓其悼亡之情。禮意精微。有難輕議。卻悔前日未能深究。及此而遽自從違也。然而亡室^P之亡。此別無避尊壓屈處。雖或換以故字。固若無大嫌。而若所謂亡母之亡。乃爲嫡母壓屈避嫌。而出於不得已者也。於其所不得已者而欲得已之者。其可乎不可乎。大抵子之於母也。生則稱母。是親之之辭也。歿則稱妣。是尊之之義也。今於母之歿也而乃不敢稱妣。卻依平日生時常稱而謂之母者。此已是壓屈之辭。獨於亡字。爲迫切不忍。而欲必苟免者。亦未知爲何說。後世物情太細。思量漸深。不能斷以大義而紛紜至此。此不可不戒也。然則所謂避嫡母。止稱亡母而不稱妣者。朱子之訓既如是。更何疑哉。惟當遵而行之而已。伏惟裁諒。

^P嫡子孫親盡後庶孫爲最長奉祀

江左知禮家多如此。今蘓湖，漆溪兩師門家亦行之。揆以情禮。爲亦少須叟賴延先祀之地。豈非幸哉。第此條來教有可疑。凡我國所謂士者。與中朝之上中下士不同。所謂上中下士。固皆仕于朝者。而我國之士。只是一介白面韋布。以中朝言之則非庶士庶人之無廟乎。中朝之士庶。固無等級。而我國則不然。所謂士者。不過士族家子弟。而庶人則庶民也。雖同是無官。而其地分懸絕。且禮所謂庶與孽。又本不同。庶卽衆庶之庶也。凡非嫡長子嫡長孫而爲衆子衆孫者。無非庶也。孽卽妾子^P妾孫。而我國之俗。乃以嫡妻之子孫并稱爲嫡長。而以妾之所生爲庶孽。今士族家庶孽。雖於其嫡長有等分。而不可直指爲庶民。則是亦士之流而已。今特以庶孽爲庶人。而謂當只祭考妣者。固過矣。況時王之制。既許祭三代。而程朱正論。謂高祖有服。不可不祭。故今士族家皆得祭四代。若律之以中朝古禮。而謂庶人只當祭考妣。則我國之士庶人同然。不必獨以庶孽爲然也。來教之以只祭考妣。特就論於庶孽。而乃以祭高祖爲僭者。恐偶未照管至此。未知如何。

亂離中埋安

^P雖在蒼黃急遽之中。而其埋主儀節。則固當一如平時。但恐不能從容致審耳。若更造則此與火燒後改造差異。溪訓謂神主火燒則卽於前日安神處。設虛位改題。或云正寢爲當。蓋火燒者。固已飄爲灰燼。無地可據。有不得不特就前日安神處改造。而亂離中所埋則自有埋處可據。似不可不就此更造矣。然方在昇平無事日。有不必窮究及此。未知如何。

承重孫妻服

此則鄙家嘗當之體仁之伯父早世。及先王考下世而伯從兄承重。時體仁尚幼。記伯母在堂而從兄欲使從
 P 嫂從夫服三年。時永川鄭承宣鳴皋翁。來在喪次。極言其非。歸後又遺長書一通。歷證前言明白可據。
 鄙家遂遵而行之。今不敢別立話頭。只畧節鄭翁書錄上。并垂覽如何。至若高祖嘗不服其夫菴。則其
 妻非嫡。不當敢爲承重服云者。蓋沙溪已有此疑。謂未知何如處之則今盛教之俯詢及此。愚蒙之開喙妄
 對。俱極未穩。而爲質瞽見。有不敢隱。蓋高祖不服其夫菴則其夫未得爲嫡。謂其妻非嫡似然。而凡長
 孫之當爲後者死。而其子仍爲承重孫。則是雖未及爲嫡。而若以其神主入廟與父祖承統繼序。則其死之
 後。乃爲宗嫡無疑。謂其妻非 P 嫡而不當承重者。亦未知何如。伏惟裁教。幸甚。

鄭翁書畧曰。疑禮問解所引。賀循魏仁浦橫渠理窟文公家禮及大明律本朝大典。皆是泛論嫡孫婦當從夫
 服。未嘗提及姑在當如何。則非可援證於此。惟張子所謂宗子雖母在。當爲宗子妻服云者。似可援證。
 而家禮既謂之其姑在則否。則朱子蓋以張子說爲不當遵也。虞喜所謂有嫡子無嫡孫。若其母尚存。玄孫
 之婦猶爲庶。庾蔚之所謂子婦尚存。其孫婦以下未得爲嫡。猶以庶云者。乃是不易之論也。退溪老先生
 答寒岡及金而精問。明言其不當服。又答寒 P 岡問。反謂之當服。此固可疑。然文集中只載前兩說而不
 載後說。想是前兩說爲晚來定論。而愚伏亦以爲不當服。細究禮意。詳攷諸說則從違。庶可決矣。

所賜盛作詩記諸篇。此與禮論較異。不必歷舉條陳。而既承盛教。欲必抹改以報。玆以其有係工夫義理
 。而不容不一論者。畧舉數條。附此尾陳。要埃鑄誨。謹按求仁堂記事。以邑號仁同而爲求仁之資。以
 村名若木。乃援引五行之木。欲以證求仁之義者。似未免苟且。至真實求仁之方則畧不說出。無端的下
 手處。若以所謂博學篤志。切問近思。克己復禮。恭敬忠恕等語。畧提論求仁 P 實工。爲子孫永世從事
 之地則固爲無欠。未知如何。東洛韻落聯曰。止語虛心是妙訣。髦齡四事警吾儕。體仁竊惟旅翁髦齡四
 事。後學驟語及此。恐別生患。大禹行年七十三而受精一之訓。武王八十七歲而聞敬義之說。銘其器物
 以自警。衛武公年九十五而不廢箴儆于國。作抑戒以自警。而不愧屋漏。爲戒懼存養之實。今執事年光
 已晏。與年少初學自異。所以興感於髦齡之事。而與其驟語生患。莫若且就真實下手地。有以警勉。曷
 不以古聖賢老而益勵者爲法耶。以其方賦洛院之事。而特感慕旅翁。則顧旅翁平日所以反躬親切。循歷
 礪 P 逕。著實用工者。自有可法。奚必遽擬於其年高德邵。萬念倦勤後意象耶。竊觀旅翁所自述老人事
 業一篇。既歷述老人衰倦。而終以一語結之曰。所不可廢者。尋繹舊讀。玩悅義理。以此爲扶策頤養之
 本。此固爲四事言外之意。而後學之所當警勵者正在於此。想執事固已領得此義。而區區過計。有或錯
 認盛意。故妄陳及此。想執事覽之。爲之發一笑也。

答嵩南申丈別紙

因喪加冠

孔子曰。如將冠子而未及期日。有齊衰大功小功 P 之喪。則因喪服而冠。註。齊衰以下。可因喪服而冠。
 斬衰不可。記曾子問

曾子曰。以喪冠者。雖三年之喪可也。註。當冠而遭五服之喪。則因成喪服而遂加冠。此禮無分服之輕

重。故曰雖三年之喪可也。雜記 [儀禮註]言雖者。明齊衰以下皆可以喪冠也。始遭喪者。以其冠月則喪服因冠矣。非其冠月則待變受卒哭而冠。[疏]夏小正二月綏多士。是冠月二月。假令正月遭喪。則二月不得因喪而冠。必待變除受服之節。○李士厚問於寒岡鄭先生曰。妹兄之歿。孤兒年十七。P古有因喪而冠之禮。今可便行此禮耶。先生曰。齊衰以下。可因喪而冠。斬衰則不可。况亡人好禮。欲行冠禮。而冠之年尚隔三載。待喪畢如禮而冠。以成先人之志。有何不可乎。

孔子曰。天子冠者。武王崩。成王年十有三而嗣立。明年夏六月。既葬。冠而朝于祖而見諸侯。眎有君也。家語 ○沙溪答尤菴問曰。此言因變除而冠。而以此觀之。斬衰而冠亦有据。或問於尹明齋曰。雜記曰。以喪冠者。雖三年之喪可也。而鄭寒岡曰。齊衰以下。可因喪而冠。斬衰則不可。其義之不同。何P也。明齋曰。雜記只言三年之喪而不分齊斬。斬衰不可云者。曾子問語也。然輯覽以爲孔子曰。武王崩。成王嗣立。明年。葬而冠。以此觀之。斬衰之冠亦有据。當用雜記。以喪冠之禮。以成人之服。成服齊斬。恐無異也。

體仁竊嘗妄以右諸說參究之。所謂因喪加冠之禮。實原於曾子問。雜記所載孔子曾子之說。而顧其說實專爲父在。將冠其子而既筮日。隔不多日遭齊衰以下喪者言也。何嘗并指斬衰之遭父喪者乎。蓋孔子之說。既曰如將冠子。則是爲父在而冠其子矣。既曰未及期日。P則是爲當冠月已筮日。而只隔不多日者也。既是父在而將冠之者。則是其所遭之喪。固不過爲齊衰以下之喪。而父歿斬衰。有不可混蒙言之矣。惟其父在也。故乃得使其子因喪服加冠而爲無嫌也。若是父歿斬衰者。則豈復與議於是哉。若雜記曾子說則較夫子說。恐若泛畧不詳。只曰以喪冠。而不明言父之將冠子。只曰雖三年喪可也。而不明言父之尚在。恐令後人或錯認其并指斬衰矣。然而夫子之說。是固答曾子之問者。而曾子之說。乃平日所受於夫子而發者也。言雖有詳畧而意實無異。誰曾疑其并指斬衰也。鄭註之釋此也。乃特P謂雖者。明齊衰以下皆可以喪冠。而明其不混指斬衰。可謂發得曾子言外之意者矣。然而始喪袒括之際。苟非萬不得已者。則固非暇及加冠之時。雖曰父在無嫌。而非當冠月已筮期。只隔不多日者。則何必蒼黃因冠於是時乎。故雜記註。特謂當冠而遭喪則云云。所謂當冠者。是爲值冠月。當其將冠之義。而儀禮註疏。又謂以其冠月則可因喪而冠。而非冠月則必待變除受服而冠。所以承夫子曾子之說而補其餘意者也。若不及冠年則又與非冠月者異矣。此則當以寒岡說爲準。亦非所以補註疏之餘義者乎。至若成王事。此特爲天子P冠禮。而非士庶家所可通行者也。蓋冠禮初無貴賤之殊。雖天子諸侯之子。不過以士冠禮通行矣。故孔子曰。雖天子之元子。猶士也。其禮無變。天下無生而貴者故也。若成王則既嗣立明年始冠。是乃以天子而冠者也。以天子而冠。則其禮也安得不與士庶稍別乎。故夫子之說。乃以天子冠者四字特首發爲語。則此非士庶家所可通行也。然則論士庶之因喪加冠者。固不當以此藉口。而沙溪。明齋之說。輒證是爲据。欲并令斬衰因喪而冠。至謂雜記只言三年而不分齊斬云云。若未及盡攷乎鄭註。豈不可疑之甚乎。况必待變除而冠者。古者P遭喪而非冠月者固然矣。而今則無卒哭變受之節已久矣。沙溪既自以書儀家禮之從簡。載之備要卒哭條下。而至論因喪而冠。則欲待其變受。是其說乃不自相矛盾乎。大抵齊衰之必當冠月遭喪。而得因喪而冠之者固尠矣。而世俗之藉口於因喪者。乃不計冠月與否。不論齊斬衰。輒混蒙加冠於袒括蒼黃之日。既違於喪禮。又廢卻冠禮。先儒未嘗不以此深惜。而特持重於因喪加冠之說。此惟在信古好禮之君子。自量其輕重從違。未知如何。屢辱謬問。而前書所對。覺失踈漏。玆不免傾竭更報。要質可否。恐犯汰僭。惶愧惶愧。古人必二十而冠。且必二P月冠。故冠年冠月。自有定期。今人則惟定婚加冠之年月。爲其冠年冠月。○曾子問所載夫子說。只言齊衰大功小功而不及總。蓋總服輕。故不廢冠禮。下章親迎未至。而有齊衰大功之喪註。可驗。

承重孫妻

有嫡婦無嫡孫婦。則承重妻之姑在者。乃不得不以庶孫婦自處。若不自處以庶孫婦。則乃不逼於姑耶。夫承重則爲其妻者不敢服華采。素服三年則固然矣。而心喪之說。卻恐太重。昔鄭柏谷嘗以出繼子婦爲本生舅姑服大功。爲不近人情。遂引之爲朞年。而欲從夫中心喪。退溪先生許其引朞。而不許中心喪曰。引於朞已汰矣。而又引之於心喪三年。其徑情直行。不已甚乎。不敢輒許其申也云云。則此不可以旁照爲證乎。

與嵩南申丈 己酉

大江之上。秋意轉清。伏惟棣軒佳興超然。神扶豈弟。好德康寧。體仁。杜門奉親。憂端稍霽而溪山寂寞之濱。無人晤語。只父子日夕相對寥寥。月前幸新抱男孫。而顧自家阿堵之患。常若有物翳前。無緣刻意看書。此必一衰字乘鸞作崇而然。豈宜向長老煩提耶。盛作壬辰錄詩崑山八詠諸篇。詞義忼慨。韻格清絕。令人讀之。不覺激仰興起。欲忘拙效顰而病思憔悴。無由可拔。禮疑幾條。深愧謬詢而要質瞽見。畧效別紙以呈。餘外零瑣。神思短乏。未能一一逐報。冀蒙垂諒。

別紙

丁未八月尋詢二條

家禮義服之說。與儀禮不同。此不能無疑。然朱子嘗自恨編輯家禮。未及更定。爲一童行取去。其間有與先生晚年定論不合者。此則勉齋已言之矣。故先輩或以家禮爲大賢未定之書。而其中可疑處。有未能遵行。今此所疑。亦不必苦究強通。曷若以儀禮爲斷耶。

所後子。正而不體。向來江左。蓋有此說。其服制亦以此斷之。而嘗質之蘇湖師門則以爲不可。所謂養他人爲子。爲是收養子云云。

九月初吉尋詢二條

同原許多墓。各祭有弊。不如掃視墓域後。以紙榜合祭齋舍。無舍則設壇行之。可免瀆弊而神庶享之。此於退溪答金潛齋書。明白可據。今欲設閣合祭於先墓下者。正合此義。無復可疑。而行祭時節次。則恐當如家廟同堂合設之儀。

退溪先生與僉正公書。中一語則未記。其必載文集與否。然觀先生晚年辛酉歲所答鄭文峯書。則乃謂古人嫡庶之分雖嚴。而骨肉之恩無異。故其服制無所差別。己巳答金北厓問。又謂孳屬服制。今人多疑問。然吾嘗疑古人雖嚴嫡庶之間。只以其分言之。至於骨肉之恩則嫡庶無異。故不分差等。古既如此。故吾東國典亦不分差等云云。此兩書既載於文集。又載於先生喪祭禮答問書。至今知禮家遵行無間此爲晚年定論無疑。而所謂與僉正公書則不載喪祭禮答問書矣。恐不得不爲一時未定之論。後學要須活看。奚必苦究耶。大抵禮宜從厚。先賢說雖或有一二可疑處。而自有常經定論。通行可據則循而行之。既無逕直之嫌。且協情理之常。豈不綽有餘裕耶。

答嵩南申丈

數日前。有客隔水傳札。乃執事初三日所賜書也。就伏審服中體候萬重。慰幸萬萬。體仁。眼疾終不快可。常翳昏霧。閱甚閱甚。鵝林慎生。曾聞其名而恨未一面。今此不意獲蒙轉眄五篇文字。感幸。而願欲爲之借耳備目於聾瞽。使之代斲其間則固謬矣。慎生既請于執事。而執事乃自轉托匪人。體仁以無一面之雅。而乃欲雌黃其作。則其不幾於迂耶。可愧可懼。雖然。觀其文。可以想見其人平日得力蓋不淺。而其文辭亦自不易。以其所處而能做得到。此非所謂豪傑之士歟。令人欽尙欽尙。P但爲君子責備之論。而律之以成法。則恐於躬行上偏主。而或緩於問學。故其見解未免或差。而說話往往有病。士友相愛者。所當相與漸磨開導。不使偏落則庶幾不負好人物。而終亦有賴於吾黨。未知平日相好者有能關說及此。而乃能肯受否也。幸以此語試叩之如何。

晦屏先生文集卷之三

書

與西谷權丈 正鄰○庚戌

策馬南歸。聲信頓阻。回首雲山。依舊漠漠。伏未審庚炎。靜中體候連相。近日韋編之工。未知一向潛究否。伏惟覃精會神。閉門探蹟。味衆人之所不味。恨未得日夕周旋。參聽緒餘以發蒙蔽也。向所論九疇子目之說。當日所對。蓋極謬妄。今以九疇所揭子目實數。逐舉歷計則蓋一五行。其目五。二五事。其目亦五。三八政。其目八。四五紀。其目五。五皇極。其目一。六三德。其目三。七稽疑。其目七。八庶徵。休徵咎徵之目十。九五福。六極之目十一。總合數之則是實爲五十五。所謂五十五之爲九疇子目者。非謂是歟。先儒註解。昭如日星。詳載啓蒙。頃者獻言。謂必要看啓蒙者。蓋以此也。平日講究。非不歷攷及此。而倉卒承問。未能記舉。驀地取辦。勤做杜撰。妄言之誅。在所難免。不知謂知之。此前聖所戒。而今日罪愆。正犯此科。庶將因此懲艾。不敢輕發。益自反究。或終有一箇半分實見。亦非長者所賜耶。要自訟罪。付書蘇湖。爲轉達計。未知幾日得入照。一番書信。若是難甚。雖欲源源奉候。烏可得也。第切悵慕。

與宗丈 龍起○乙酉

頃承半日之款。繼接胤戚。槩審動靜。仰慰之至。從叔洛行。臨發馬病。晦日始登途而家狀修正。此實門中大文字。非區區後生所敢與知。而諸處長老既未齊臨。從叔行期甚急。難容等待。故不得不冒犯下手。然實從諸父兄命。爲之編次添刪。初意欲只載遺事。而諸意皆爲家狀較詳。不可不載。故不得已並載狀與遺事。其餘文字。別爲附錄。以次書之。題卷面曰按廉使中公實蹟。家狀子孫錄。依前備載。而貴派行蹟。亦依所來小錄。詳載家狀後。別以狀後附語四字爲題。略記碑石之出。有不偶^P然。而低二字書之。密城誌後。又低二字略記丹密縣在尙州治之東四十里。有孝水云云。而竊念私自主張。不復持稟於宗中。自非道理。故茲敢書錄仰告。而遺事中三處改攢。亦出於一心共事之意。寬如嘗相議爲之。想卽歸告也。

與宗兄 觀模○辛亥

追躡後塵。再做勝會。歸卧江臯。倍覺悵黯。嚮風矯首。時詠沈隱侯佳句。惘然若不能自堪。亦衰甚情弱而然者耶。前所辱詢父喪中死者。其子承重與否之說。擾中妄對。語未周詳。蓋代父承重。其子不得受服。然非變服^P之時。則亦不可遽然受服。若是在祖父小祥前則小祥時始爲承重。而在小祥後則受服承重。更無可議。大祥時。只以嫡長孫主其祭而已。此有先儒定論。可以遵行。江右士友之謂當承重云者。此必指葬後小祥時言之。而自惟疎率。不能審聽領會。只自論葬前而不說到小祥時。卻令聽者依違而無以得其折衷。靜夜興思。不勝愧汗。茲庸因便自訟。冀贖前愆。又望以此說趁卽告於喪家。使之依禮審處。豈非幸耶。

答姜上舍 己丑

日夕翹埃。行旆尙寂。不勝紆鬱。卽拜惠牘。謹審棣軒靜^P候迓新增福。慰賀區區。北行歷顧之計。終爲魔兒所沮。悵然缺望。一番欣晤。信覺有數也。惠覆詩意趣恢豁。詞氣弘重。決非世俗浮躁所可擬議。欽誦欽誦。但以其薄薄之酒爲出於姻家。而謬稱美醞。似未盡脫得俗情。而自誇棊釣。處以通儒。恐人鬻笑。此則涉於苟艱。似有顧恟之意。未知前古所謂通儒達士。其氣象如是耶。好笑好笑。桃花鱖魚。正好把釣。而修理釣具。但囑及從兄。道不同者。固不相謀。然顧此拙儒。亦解釣興。卻恐見擯於釣臺耳。

答姜上舍 辛卯

^P前便有眼病。欲書未書。尙此結恨。卽拜委牘。旨意勤懇。兼以嘲諧。恍惚欣踊。若接款晤。况伏審靜候萬重。何等慰仰。渡灞之淚。古人已有此事。而今以體仁之闕書。謂餒浩然之氣。此必老兄平日認作人之常情耶。好笑好笑。大抵得失奔波中。可見平日所養深淺。而嘗自檢過。終覺有不快卻處。以此惕然自懼。豈但恨飲墨而已耶。

答姜上舍 壬辰

兒還。獲拜惠牘。伏審愆候無間。頭疼齒患。相繼發作。此實衰境常事。雖下執事十餘歲如體仁者。亦不免這消息。牙齒已落。存者又皆動搖。當食咀物。往往有可笑時。^P况如老兄。又何足怪乎。此後光景。俱將付諸大化。與之同歸。有不足用心已久矣。近日奉老窳居。別無所事。淵上卜築。夙計許久。倉卒鳩材。縛得四間。僅已覆茅。所見殊極寥落。然而澄潭白沙。懸壁蒼然。岸柳渚魚。境界頗好。一朝把作己物。庶將率妻孥。優游送老。知友之解此樂者。亦或荷釣相尋。早晚移接後。固知大江漁翁必欣然聞風興起。誓將出邀沙汀。與之忘憂。今承盛喻。不覺欣踊。二水之囑。可謂周于利者。然而請于匪人。凶年烏得免殺也。固不敢承教矣。

答姜上舍 乙巳

^P江齋寒日。閉門塊坐。向外一念。次第消歇。而每當月色滿川。灘聲繞岸。未嘗不眷言起懷於同人之共衰。欲一拚袂道遙。以送餘日。而顧亦首屈指於老兄座下耳。卽拜惠牘。伏審寒天靜養神衛。區區慰仰。體仁。侍傍粗遣。宿處淵齋。朝夕每攜數尺筇。從二兒來而就饋。往而看書。或風日恬暖。陟降原阿。臨逝水望遠野。入溪谷檢花木。倦極而返則一室專靜。紙牕嚙日。罍有宿火。案有陳編。試坐讀經傳十數行。隨分翫討。或不無欣然意會處。向來一番憂戚。忘不置念已久矣。晚景自聊。惟此道理爲可安耳。不必枉用心思以自惱撓。願老兄之辱與同^P歸也。

與趙僉知 宜陽

索居山樊。吟病孤臥。忽蒙辱賜瓊韻。寄意鄭重。且以幾行辭語錄贈。其下滿紙繾綣。若書若識。手畫爛然。井井不錯。蓋不圖九耄翁乃能自力爲此。敬奉珍牒。且吟且讀。欣踴恍惚。疑若夢寐。自惟殘慵。下長者十餘歲。而其衰病癱瘁。較長者不啻萬丈一落。同志淪沒。子立人世。疾恙逐年益痼。志業日以荒頽。雖或被人強督。不免自犯不韙。往往有所著述。而只足傳笑當世。得罪具眼。方以是怵惕含愧。承教。謂近日兀上工夫。推作人文字知^P之。未知嘗看取何文字。而其所推知者何如也。不肯爲下頂針。而只是含糊說與。尤不勝蹙然自愧。繼以興慨也。瓊韻當卽仰酬。而非但無便可付。第來牒面標題。朋友常稱之外。特添了二字見寄。此實出於千萬不意。豈長者少日善謔之習。猶未盡消除了。欲以此戲劇玩弄耶。恐不能無害於庸信庸謹之德。非特在此。爲萬萬惶愧也。以是未敢晏然承當。無意仰報。而受言藏之。不以一言相酬者。亦不免孤負盛意。故遂冒昧效顰。陳說及此。因便遞付。而病眼模糊。無由把筆。口呼倩寫。亦未足以仰酬手畫勲懇。第切歉恨。拙句錄在紙末。并垂領覽。^P幸甚。

答趙月下 癸巳

前秋獲奉惠臨。今此下書。又極勲懇。可以見君子之篤於故舊也。伏審花辰。靜養萬重。區區慰仰。而聖紹兄向晚喪耦。爲之悲悴不已也。體仁。江上小築。尙未斷手。近日春雨成泥。耕播多間。往往招數三奴子。隨分致力。逐日在汀花岸草之邊。逍遙永夕。有不必入此室處然後始得其樂也。叢菊數本。依教裹土送去。而適此雨濕。想不爲枯根。隱逸山居。正合花性。秋間若發得金英。分明相照。請作此一片心看取如何。山家例多白酒。摘來泛^P之。亦足以續前秋好事。或相思及此耶。

與趙月下昆季 己酉

記嘗扶病入萬疊山中。得與平生故人握手傾吐。悲喜交劇。及其還也。雲山乃復重阻。聲信邈然相絕。一時拚晤。恍然如夢裏。安得不眷言回首。增我耿耿也。卽日秋序向盡。棣軒僉起居靜養何似。伏惟山中近日光景異前。白首高臥。歌詠聖恩。溪山草木。一倍增輝。想父老風流由是益盛。子弟文學從此加勉。區區慰賀。豈容盡言。體仁。孤臥江皋。杜門養親。看書應客之暇。非無翫適之資。黃花繞階。落葉滿徑。牕下鳴灘。日夕有聲。蓋足以^P樂而忘憂。而顧於自家胷裏。茅塞依舊。體驗存養之實。卒無以勝苟且悠泛之習。而區區探討。未足填補萬一。雖欲日親強輔。庶幾扶策警發。烏可得也。李學士致道。客化千里。慘矣。先師之家學墜地。吾黨之意象蕭索。安得不怛然增傷也。洛下時象。去益浮曉。曾不以聖斷自沮。而惟幸天意堅定。恩教重疊。至有宣城筵說之頒示。此在我爲益有光。而此時自處之道。亦不可無一分商量。子姪年少中。若或以此爲幸。而不加審慎。對人酬酢之際。有一毫辭氣涉於矜驕。則此將大不便於不言之中。而爲無限不好之端。保合同歸之道。似不^P當如此。而利害所係。亦自不少。想僉執事。或已自得之矣。而相愛之切。縷縷及此。亦可以領我情衷否。此紙勿煩示人也。月丈父子。嘗欲待秋向一善。丁寧約以歷訪。晚翁又有西出遊歷之意。未知此計竟如何也。幼性上舍。聞作

西行。欲參太學哭班。事面似不已矣。秋初往一善。觀李沃川景真以春間未得聞改題日子爲深恨。屢言不一言。作書付我。遞傳追謝。蓋其實心不偶然也。領覽如何。

與趙月下昆季 乙卯

雲山綿邈。信息難通。回首平日從遊之樂。惘然若一夢^P之依稀。矧今秋高霜重。階菊垂黃。江樹飄紅。覽物興懷。日夕瞻詠。匪意胤兄際茲來訪。驚喜之餘。仰叩庭候。審體度康寧。對時神衛。聰明無減於前日。步履或出於閭巷。神思氣力。有不頓衰。區區攢賀。豈容盡言。體仁。庸殘之質。閱盡世故。不勝二豎之交侵。形貌筋力。較數年前不啻萬丈一落。阿堵受病。不便看書。避風忌暘。杜門塊坐。原野谿谷之間。尚不能隨意玩適。往往起懷同人。向風矯首。而疾病衰暮。落落相望。際接無緣。雖欲一吐底蘊。得與扶策。烏可得也。聖紹尊兄。得見惠覆書。審亦不以一時悲慘損其天和。觀書玩理。以時攝養。爲儕友者。^P可謂不失所期。豈不深幸耶。第聞其一區藏修功役幾訖。而一自往年以後。拋作虛器。不免使溪山寥落。花鳥含悲。此亦不必乃爾。幸卒料理。其間來往棲遲。不至因一摧折。甘心自廢。則優游自得之趣。豈不足以擺卻憂穴。導養冲和。得漸到昭廣之域耶。幼性霜鬢蕭蕭。已儼然作一衰翁。推而槩之。可以想見其堂上。眷言回顧。一倍增懷。書未盡言。惟祝棣萼聯芳。益茂多祉。

與李后山 丙午

前秋歷宿軒屏而適值客撓。未能穩討。悵恨可言。卽日新正。伏惟燕養增相。觀書玩理。日有契悟。仰慰區區。每^P欲一書奉候。兼質所疑。而便信絕稀。憑付無緣。因循逮今。銜意未遂。亦足以驗向德無誠也。前承面論。謂刊補答張敬夫中和第三書。方往方來註小圈下。引中和舊說序語爲證。而賺連己丑春凍解冰釋一節并載之。此當在第六書之下而誤引在此。似不可不刊改。此論誠然誠然。非察之極精。何以及此。刊役已畢。印布雖廣。而若不思所追改則恐未免因循苟且。令後學起疑。未知終何以處之。體仁。嘗竊讀第六書。至敬則心之貞一句。始未曉其義。嘗與川沙翁論此而有所云云。今見刊補所解則乃以易大傳本義爲證。只訓貞以勝與正與常。^P乃不能無疑于中。未知於此又嘗何以看取也。竊念此與答林擇之書。所謂靜者性之貞一句。當相發以明。今以元亨利貞之貞。若單舉貞字而只釋字義。則貞之義。固爲正爲常。亦或爲勝。而若論其爲元爲貞之理。則正與常。不足以盡其說。而勝字尤若無義。今但據字義而解心之貞性之貞者。不幾於疎漏淺短。而若未究其實乎。蓋元亨。誠之通。利貞。誠之復。四時之序。冬爲貞而一陽復於冬。四方之位。北爲貞而一陽生於北。則貞實萬物之所以成終而成始者也。故在大全第六十七卷。太極說第二條。有曰元者。動之端而本乎靜。貞者。靜之質^P而著乎動。一動一靜。循環無窮。而貞也者。所以成終成始者也。又曰。惟主乎靜則其著乎動也。無不中節而不失其本然之靜。竊謂此一說。足以證心之貞性之貞之義矣。蓋心主乎身而無動靜語默之間。故敬之存心。亦無間於動靜語默。而動而靜則是爲元而貞也。靜而涵動之所本。則是爲貞之爲元之所始也。循環動靜。貫徹始終。則此敬之所以爲心之貞者然也。人生之初。一性湛然。未嘗不靜。而感於物則動。感既息則未有不復於常。所謂復於常者。是爲復於靜。而動而復於靜則是爲元而復於貞。復於靜而其感之理未嘗亡。則是爲復於^P貞。而其元之理未嘗息。而動常止者。是爲動中之靜。卽所謂貞之著乎動者而性發爲情

。無不中節而不失其本然之靜者。是爲不失其爲貞。則此靜之所以爲性之貞者然也。古人蓋於工夫義理動靜始終。循環不息處。輒用貞字以發明之。而其義舉不出此。若大全定性說。所謂擴然大公者。仁之所以爲體也。物來順應者。義之所以爲用也。仁立義行則性定而天下之動一矣。所謂貞也者。此以該體用一其動者謂之貞。而當證明敬之爲心之貞也。若西山夜氣箴所謂闔者闢之基。貞者元之始。艮所以爲物之終始。南塘夙夜箴所謂養以夜氣。P貞則復元者。此以靜而涵動之所本者謂之貞。而當證明靜之爲性之貞也。今以答敬夫，擇之兩書。循本文上下語意而玩究之。則所以爲貞之義。豈不灼然可見。而要不出動靜始終之義。則其不可只以字義單舉說來也明矣。第念答擇之書中。有未有不復於常之常字。故遂以常訓貞。而因并舉正與勝。與心之貞把作一義。而乃於性之貞註。至謂已見於第三卷。則此不幾於胡廣仲之以靜爲性之妙者乎。今夫樂記之以靜言性則固可。而謂形容性之妙則不可。獨可以爲性之常乎。以靜爲性之常則猶近矣。而以敬爲心之常則尤未穩。以敬P爲心之正則猶似矣。而以靜爲性之正則亦不可。至於勝之一字。今以敬爲心之貞者。謂可以勝人欲則近矣。而若靜爲性之貞則只當曰無欲故靜而已。顧安所下得勝字也。解說貞字未盡。而工夫之始終不息。義理之動靜循環。不免脫畧疎漏。恐無以致其體驗之實。此不但文字名言之失而已也。故愚意竊妄以爲莫若各就本書。緣文解義。解敬爲心之貞。則曰敬爲一心之主。循環動靜。貫徹始終。是貞之爲物之始終者也。解靜爲性之貞。則曰靜是性之本體。而感於物則動。感既息則復於靜。靜爲動之所本。此元而貞。貞則復元者也。夫如是P然後庶或無憾於工夫義理之實。而不止爲訓誥之說而已。未知如何。此蓋爲頭顱總會處。本領精微極致而有不可毫忽錯認。故茲敢極口論卞。不顧僭妄。必欲得聞至當之論。而第念刊補一書。屢經先輩手校。無復遺憾。豈或有未曾照管者哉。此或體仁愚妄。疑其所不當疑而然。亦可懼也。顧執事既嘗與知校讎。庶容隨誤追改。故乃敢妄陳及此。若疑其所不當疑者。則是體仁當伏妄言之誅。而或不以爲不可。則所當刊誤追改。不容遂已者。亦豈但如向所論一時事實之特賺連誤引而已哉。此惟在執事裁諒。不以人廢言。而或不能無補於P斯文傳後之事。千萬悚仄悚仄。

答李后山 戊申

索居看書。疑晦滿腹。春間猥以一書仰叩。冀蒙提誨。而幸不以愚蒙見拒。滿紙縷縷。肯辱與之酬酢。若不忍相外者。體仁之獲私於門牆。已不少矣。欣踊感佩。豈容盡言。卽日秋氣蕭瑟。伏惟燕養神衛。玩樂有相。體仁。奉親避癘。畏約杜門。隨分看討。聊以度日。而第念根本未固。枝葉易瘁。措諸事爲。輒多顛躓。未知將何以自補也。盛教所云漏器之歎。正所以警乎慵懶者。長者豈或有是也。辱覆辨誨。條緒不一。而若言其要領骨子則所論只P在毫釐。蓋體仁則欲必以終始之義解敬之爲貞。而執事謂正與常。已自包了終始義在中。只訓正常。於理無悖。蓋訓以正常。是易經本註。體仁雖固愚妄。豈敢云悖於理也。但只靠正常二字而謂終始義在中。則恐覽者或未能領會及此。而似不免泛畧不明。執事所嘗隱之於心。而謂註說太簡。不及終始之義者。此實體仁之說也。而承教乃謂此條嘗以終始義解之。終有不襯貼得。貞勝註頗明白。故改之。體仁於此實有未能領解其義。所謂不襯貼頗明白者。此必有其說。而執事特引而不發。未嘗痛陳說與。使聽者未免瞠然顧疑。無敢更論。所P謂論在毫釐之間而未能相領者。終無以得至融會境界。安得不慨然以恨也。所謂動而靜。靜而涵動之理。是心循環動靜。貫徹始終是敬者。來教劈破端的。體仁豈敢有異見。而第念動靜者是心。而非敬之循環貫徹。亦無由不失動靜之常。鄙書之所以嘗并歸之一敬字。而更不分論者此也。所謂動常止者。是爲動中之靜。卽貞之著乎動者

而發皆中節。不失本然之靜者。是不失爲貞。此靜之所以爲性之貞者。則來教謂攙入外來義理。體仁固亦自料及此。而鄙書之所以嘗引此者。只以證明靜之爲貞也。此雖方在動境界。而以其能止而靜。故喚做貞。豈不足借引爲證耶。所謂天下之動一者爲貞。體仁不待更加研究。而亦自知取義之不同。所以援引至此者。亦只取其定而一者爲貞。而所以歷證古人之用貞字處也。細究厥義。雖各不一。而自惟取引。非無所主。若蒙玩繹其義。特垂領照。庶或有以相與發明。而辭語冗長。旨義不明。乃令長者卻究論本語。指證同異。未免有不盡人言之歎。第切惶愧無已。來教謂討論之際。惟虛心遜志。實求是者。然後言語可相入。長者所以特爲愚妄。垂戒至此。體仁雖無似。敢不佩服終身。以卒承教意。而顧惟君子聽言之道。亦當尋究本意。察其所以。不但以其文句之未而斷其可否。然後庶不失取舍之正。而爲不背知言之訓。執事於此。未知自料何如也。天下之義理無窮。吾人之所見各異。同我者未必皆是。異我者未必皆非。惟在虛心聽受。折衷衆論。一以至公無私。有以從違。豈足沮撓憾恨於其間耶。卽觀來教。云殊異乎淺陋之料。不敢復言矣。第恐此一語。或未免帶了些意思。得無害於公平和樂意象耶。仰恃德義。不揆僭率。妄言至此。所謂以小人之心度君子之心者也。只增惶猥萬萬。

與李后山 丙辰

卽日老炎愈熇。伏惟好德康寧。日躋高明。體仁屏居事育。衰病侵尋。兼以阿堵之證最妨研討。拋卻書史。閉門塊坐。心界由是益荒。意象由是難振。若得嚴師彊輔日夕在傍。得以提警扶策。則或不至全然壞卻。卒墜坑坎。而寂寥孤居。無與資發。父子相對。只覺無聊。安得不瞻仰高風。翹首懸慕。若不能自己耶。第念年前以敬卽心之貞一句。仰稟書末。至以刊補數語謂或有未備矣。年來試自點檢。始覺鄙見之差。而刊補註語。要不出此。貞固貞常之義。雖若汎而不切。而心之主乎一身。而無動靜語默之間者。實專賴一敬字。存之固而克立大本。得其正而不失常度。必如是看取然後其義始圓滿包該。不落一邊。而向日盛教云云。豈不的確可據耶。顧以愚昧膚淺之見。嘗不肯篤信先進之論。率爾傳會。臆揣硬說。宜長者之深患於此而不欲與之強辨也。近日閒居。往往讀及此書。至這一句。未嘗不怵然顧懷。欲一自首。得更聽長者之教。而淹留屢歲。迄未遂計。亦可謂不勇於引咎矣。伯維戚契無恙歡侍。唯諾承訓。不廢職事否。豚兒只是汨汨度了。卻恐父子相攜。載胥及溺。深可歎也。

與金道彥直甫昆弟 庚辰

頃在校堂。拔忙修謝。未克究懷。罷會之日。天雨戲劇。竟敗良選。悵悵何可既也。卽日新涼。僉侍履平安否。直甫兄何時下山。而在山時讀得何書。一鄉波奔盡沒於詞華之場。而乃獨端居靜養。絕祛外誘。金昆玉友。唱汝和余。念今儕友中。惟吾直甫一人能辦此事。他日知舊之望。豈無所歸耶。如體仁者。蓋亦不無其志。而一切自欺欺人。無足道者。頃於稠會中。應接多方。急迫紛擾。易以失儀。平日所養。於是可驗。而禁戒不嚴。省察未至。尋常談諢之際。動靜之節。往往不自知覺。率意浮妄。無從容簡默之像。有駁雜躁撓之患。有人不及知而已獨知之者。歸來靜思。追悔萬端。始信古人必於此等處存念。雖萬馬驟突。風埃震撓。而方寸澹然。終以靜一自守。然後爲能真有所養也。棲雲之約。宜赴已久而秋陽新曝。木綿方開。日行原野。監拾是事。隴畝生涯。雖固常分。出則操觚弄墨。競名得失。

入而與田夫野老甘心比伍。尚可謂之有志氣乎。好笑好笑。

與金道彥昆弟 壬辰

卽日春氣漸暖。謹問僉服中起居如何。每因來往人輒叩聞消息。而只得其休咎動止而已。至於伯仲征邁。金玉相磨。有日新不已之工而爲知行敬義之實者。則槩乎未由聞焉。居常鬱鬱。繼以興歎。欲一乘閒策驢。從容蘭室。以平日所自疑晦於中而未及講質於師友者。得有以揀拈研討。聞所未聞。而各牽穴故。盍簪未易。書問亦闊。是豈彼此之所期耶。年齡婉晚。外念漸薄。區區一心。常恐得罪於朋友。以負平日之志也。頃適北遊。歸過蘇湖。值丈席出駐海上。只與一二儕友寥然經宿。瞻望高棲。倍切懸邈。歸期促迫。未能轉逶。悵恨豈容盡言。適因便付此。而以眼疾呼倩。不能究懷。所謂長書千萬。終不如一面也。

與金道彥直甫，景蘊弘輔諸昆弟。戊戌

清齋一別。面面如夢。卽日秋序向闌。伏惟侍下。僉起居神衛。仰慰區區。體仁。侍率依前而行役之餘。觸寒成疾。呻吟累日。尚未快健。亦老矣無可爲者矣。唱酬諸什。馬上攜來。風烟在袖。歸臥寒牕。吟病吟詩。卻不知諸兄之隔我。而我之不見諸兄也。其後沃姪又從軒下歸。謂得與諸兄復用前韻相和。而別以一帖來示。觀於此。足以見諸兄別後之思蓋有未盡底蘊。欣賞欣賞。竊惟此事本爲同志寓興而發。非騷人才子跌宕相逐。爲諛浪夸耀之資而已。當反實策勵。相與警戒。寓感發懲創之教。而爲萬一相益之地。此固古人所尚。而今此諸作。全沒此意思。惟川沙翁前帖末聯。最爲深切。苟齋老兄轉聯二句。有自勉勉人之意。斯則非後生之所及也。所可愧者。惟題詩成軸。一紙聯名。紛然相贈。此恐入標榜指點。前帖各篇下。不書名姓。戲題二字。亦安知不由此入笑罔耶。幸諸兄之念之也。杜門荒郊。佳節且臨。黃花落葉。相續滿眼。獨學無與講疑。病懷難以自振。只增瞻想萬萬。

答金道彥諸昆弟

前承惠覆書及惠詩。恍然若拚拜。兼有柳兄及諸妙詩。皆翩翩佳作。令人興起。欲復奉一書以謝眷厚。兼有云云。而顧非日用所急。所以因循迄今。未得奉報也。卽日窮陰。伏惟僉侍履起居神衛。仰慰區區。竊矚辱書長牋。此必出於伯氏兄老手。辭氣字法。宛然難誣。而有嚴重確實之意。無便薄躁擾之態。此足以見年來存養既久。得力深厚。非年少輕銳之可擬。欽歎欽歎。然所謂因物詠物。天機自露。區區說著。反欠平淡一條。此何與鄙見相謬也。夫吾儒所急。固與詩家不同。若所謂詩家者流。固不嫌義理之向背。口氣之虛實。一以格律清奇。意象浩蕩爲貴。故雖或與道義相反。而未嘗不相與傳誦。準而爲式。唐宋間諸名家無不皆然。而吾儒則不然。其日用所急。專在於反身親切。體道不離。庸言必謹。庸德必行。惟恐一念之發。一事之接。或不出於道義之正。而少弛敬畏之心。故其工夫刻苦。警戒深切。唱酬之作。雖未嘗一一傳會。故爲有道之言。有若楚人之像孫叔敖者。而心之所存。必形於言。或隱然爲言外之意。或顯提爲勉戒之辭。而其格律未必以此皆卑。意象未必以此皆陋。觀朱陸鵝湖酬唱詩

可驗。而推而上之。如蟋蟀在堂之詩。不以詠良士瞿瞿而爲不美。抑抑威儀之章。不以說屋漏不愧而爲不佳。若必以區區說著爲忌。而以漠然無所用心爲貴。則或流而爲留連荒亡之樂。有所不^P覺。豈道不可須臾離之意哉。所謂天機自露四字。此又工夫到得熟後。自然有此效驗。安有不下工夫而遽望效驗之自露耶。如莫若看讀語孟等書。客氣消磨。義理雋永者。此正好著工夫在。而若欲真切下工於語孟之書。使詩句得力而至客氣消磨。義理雋永。則所謂消磨雋永。此亦其效驗之著。而乃一以莫若字冠之。一串連說者。語意頗傷急迫。無積累涵泳之漸。而不免錯認效驗以爲工夫。若下所謂不知不覺。從容道德。此一語。此又工夫造極後。已到得自然境界。心與理相安。物與性相順。極其言。便周旋中禮之聖人。而博學之以下。諸學^P者有不敢遽擬。亦所謂發得太早在者。而莫若二字。尤不可以連貫及此也。體仁嘗竊問老兄。從前固有此等意象。似不免急迫。故乃嘗妄有云云。而老兄幸不以爲非。今又所示如此。此或老兄年來存養既久。造詣益深。自念有與前日大異。而若已到從容地界。故遂自述其經驗實事。欲以勉人而乃復云云耶。不然。此殆老兄平日氣象甚好。意思自闊。有不向親切細密。辛苦不快活處。隨分做去。而病根自在。有未拔去。故尋常日用之間。往往不自知覺而輒發言語。雖其養德既久而猶自云然。豈不大可戒者哉。故體仁嘗竊以爲與其汲汲求效^P驗。莫若汲汲做工夫。與其先要從容。莫若先做刻苦。蓋論誠意而欲心廣體胖者。莫若先從毋自欺著工。止至善而欲赫喧宣著者。莫若從切磋琢磨上做工。欲學顏子之不違者。莫若從事於博文約禮。欲到曾子之曰唯者。莫若積真於戰兢三省。必如是爲法。然後庶幾不錯於爲學。而其效驗之各隨其工夫自著者。是將有不期然而然。所謂勿忘勿助。積漸融化。而鳶飛魚躍。活潑潑界。亦當由此可至。何嘗汲汲期擬。責效目前。有如老兄所云耶。若以所惠詩篇論之。所謂王道隨聖遠之句。此特有與愚意相契。竊意老兄或自有所激而發也。夫王^P伯之說不明。而人心日以陷溺。世道日以紛淆。逞其私智。急於苟成。切切然計較長短。而爲枉尺直尋之道。此其心術之巧。蹤跡之詭。殆有甚於顯揭名目者。而本領既誤。隨事輒露。往往有欲掩而不可掩。此莫非伯家餘術功利遺習。而千古聖賢相傳至純極正之道。無由得見其面目。則此體仁之所嘗痛惋興慨。不能自己者。學者要當先透此關。必劈出於天理人慾義利公私之分。有殺一不辜得天下不爲底氣象。然後庶幾不淪於雜伯。而爲純王至正之學。平居自厲。未嘗不以是爲戒。而今老兄之詩。忽及於此。隱然有痛傷之意。非自有所激^P於中而思有以障其橫流者。曷足以及此。此體仁所以自謂有契。而欲相與勸戒無怠。幸老兄領得此意否。平日相從。只照心曲。未嘗以一言相規。今此縷縷。蓋欲以古道相期。要勿相負。自今以往。幸諸兄共以此爲務。勿少推借。要相告戒。體仁雖無似。亦不至訑訑拒人。聞同志責善之言。雖未能一一卽行。亦知其出於相愛而不相害。幸勿以爲慮而各要盡言也。

與金道彥 壬寅

黃葉滿山。堅冰且至。伏惟侍餘靜養有相。觀書玩理。日有深趣。慰仰區區。省郵兄聞亦平迪幸甚。而主簿兄新^P遷郎署云。信否。兄弟遊宦。且將次第祿養。慰賀慰賀。蘇湖遺稿繕寫之役。今至何境。連汨憂病。不得一番來往。未詳顛末。甚鬱甚鬱。體仁。秋間爲構江上小屋子。畧用心力。荒歲此役。自覺沒緊。而黽勉經始。亦自有感傷之意。此懷豈足與人人說也。況此等事。只是外物。於自家實事。全無交涉。時自反念。曷不怛然含愧耶。所欲言者甚多。奉拜未易。臨紙只切冲悵。

與金道彥 癸卯

杜門荒郊。歲色向暮。昨年此時。湖上景色何如。日月如流。祥期不遠。感痛追慕之懷。同志者想與無間也。頃拜^P辱覆。亦已多日。伏惟省餘靜養神衛。慰祝萬萬。體仁。侍傍粗遣。而月前聞丹城都處士竹泉翁訃。此其人實非末路人物。生在下方。初極縱逸。一朝忽然向此邊。就正有道。反躬飭行。行年六十。汲汲如不及。雖不免偏向躬行上用力。而牢固確實。無流俗脂韋之態。豈不毅然可敬乎。一自樑摧之後。吾黨之聲勢日孤。而老成如此老者。又不起。其所係不少。玆以奉告。想在同門之義。亦應一般悼惜也。從姪鼎五。不無可爲之志。而讀書講義。只向家間相討。乃欲就近門下。有疑輒質。退與同志從遊。其爲計亦云可嘉。幸勿與相外。處以子姪之列。難疑答^P問之外。雖至日用細節。輒一一告戒。誨責不逮。得與爲成物之功。千萬幸甚。此子志氣固不陋。而往往闕於細微。若得師友相輔之力。庶終有可觀也。湖上相聚不遠。萬萬在面悉。

與金道彥景蘊弘輔諸昆弟 乙巳

苟齋翁奄棄同志。此何事。此何事也。天之生斯人。既畀之以資性之好。而充之以問學之工。其所成就之者已不少。豈忍止於是而已耶。顧今吾黨無祿。山樑奄頽。一脈殘緒。不絕如縷。所與相恃。只有若而同志。可以相與扶策警勵。以期無窮。而其中慈良溫雅。該洽精敏。有體^P用知行之實而兼窮通隱顯之業。有如吾苟齋翁者。天又奪之斯速。此豈一門一鄉之運而已耶。客臘石田歸路。臨訪江皋。見其容顏嫩燁。若敷韶華。暮春重來之約。至以花蕾爲期。丁寧顧語。誓不相欺。而及到花辰。寂然無音。方日夕瞻詠。跂余以望。畢竟至此。已矣尙復何言。訃音之至。與家兒臨風慟哭。不覺失聲。終日慘慘。無以定情。此懷其誰知之。其誰知之。萱闈九臺之下。伯氏亦已衰晚。抱疾長逝者。魂魄亦無以瞑目。而平日弟兄之間。志業相須。天倫知己。曠世難遇。而一朝割去半體。將何以仰慰慈念而得以自遣也。言念至此。不覺於悒。雖^P然。古人於此等處。固有堪處之道。僉兄豈不素講耶。况在老親之下。道理自別。冥冥有知。亦必以此望於弟兄。僉兄想已自料。而抑又念今日之爲賢弟地者。更無可爲。惟要收拾遺墨。綴鋒遺事。以明其志行之萬一而已。疚哀營窆中。或無以暇念。而此事亦不可緩。未知如何。

與金道彥

苟齋翁去後。實無意於把筆作書以寄兄邊。兄之不肯一言以相訪。亦出於此意耶。雖然。平日所與無窮。相期警戒勸勉底道理。實見在面前。不以人亡或息。一二存者。若能不替舊誼。來往從事。有疑輒相叩。有得輒相眎。^P爲切磋觀善之道。而略有所立於晚境。是爲萬一不負吾先師亡友之地。而九原他日。庶將藉手有顏。豈不益與相勉耶。冬寒漸深。風霜搖落。閉門江皋。懷仰倍切。伏未審日間。太碩人鼎茵神衛。省餘履履萬重否。想日月已久。悲憂稍定。湛樂講討之工。雖不免^{虛吟}了一邊。而亦自有日月征邁之實。足以保合天和。日進昭曠而不自己者。恨不能仰叩萬一以警昏愚也。體仁。獨坐山樊。冰霜滿江。意象殊覺寒苦耳。日間試讀朱子書幾遍。間以就經傳幾章。隨分翫究。或不無會心處。聊自點檢。始覺此心真是元來一箇活物。有不忍少須叟放捨昏墮了。^P任作死底物事。天理人欲。誠僞人鬼路頭。真切用工處。實於是在焉。閒居念及。不覺悚然懷懼。每朝日上牕。房室皦然。若照徹心界。遂有

感於提掇此心。皦如出日之義。戲題牕面。得十六句爲牕銘。蓋掇集古人箴贊名言。而非直由我出者也。略備日用存省工夫節度。而敬之一字。實貫動靜徹始終。欲一持覽同志以質其愚。而自嫌鋪張。未敢提進。惟待早晚面叙一論耳。向者趙恭甫到藏院書來。見其立志之堅。用力之實。有非今日所易得。知平日出入門牆。得力甚多。不勝歎賞。懶翁遺稿繕寫事。此老兄所嘗眷眷不已者。而始遂其計。實盛事也。P未知以何間下手也。春間嘗試爲一長牋。論致曲之義。欲投進請教。而適際喪威。拋在篋裏。有不必終隱。茲令兒輩騰出以呈。幸乘間一覽。辱與可否也。

答金道彥論致曲書 丙午

客臘承惠覆長牋。辭旨愨實。卞覈深切。體仁雖無似。曷不自知其所以膛然反省。灑濯自新。而顧惟膠滯之見融化未易。以來書所論之詳。而讀一番則滋一端疑晦。讀兩番則滋兩端疑晦。始看若未易領會。再看始尋語脈。得究其下落歸趣。夫老兄積久研討之餘。必無失照之理。錯認之患。既有疑晦在中。未能痛祛。則苟徇面謾。P此古人所戒。第念說往說來。漸入纖細地界。微密條緒繁夥。乍卒立談之間。有難畢陳。抑又念不曾更入思議。只要立說。若與之爭先較捷者。這意象亦所當深戒。莫如綿以時月。從容翫究。須更質之以章句或問。參之以儒賢定論。俟一知半見或少進於優游涵泳之中。而乃始奉質。則庶幾得回舊見。不背實理。遂常存識在心。時自記起。或閒居無事。父子對討。或清夜孤坐。潛心默會。切勿以急迫紛擾求之。而及茲春半。時日已久。蓄疑積思。依舊難解。雖欲終無一言。得乎。竊惟道之全體。廣大悉備。無物不包。無物不統。而全體之分。是各爲一曲。譬P如山水一曲。龍蛇一曲之曲。觀太極之分而爲兩儀四象八卦六十四卦。是爲兩底四底八底六十四底曲也。西銘理一之分。而爲人物君臣長幼賢聖貴賤等殊。是爲人物君臣長幼賢聖貴賤等各一曲也。大學之三綱領是爲三曲。而又分而爲八條目則各爲八曲也。中庸之經禮三百是爲三百曲。而又分而爲三千曲禮則各爲三千曲也。故曲有大底曲。有小底曲。大底曲裏。有無限小底曲。小底曲裏。又有無限細底曲。曲中有曲。其曲無數。大小異形。各自爲曲。何嘗以其大者爲曲而小者不爲曲哉。嘗以是反之於一心之理。則仁義禮智四端P之隨感發見。是固宜分作四曲看了。而仁之中。又有親親仁民愛物之各爲曲。義之中。又有忠君悌長尊賢之各爲曲。推之禮與智皆然。而就其中又細分之。則親親之曲也。而又有養生送死。養志養口體之各爲曲。仁民之曲也。而又有時使薄斂。省刑罰。明教化之各爲曲。禮之分而又分。智之分而又分。莫不皆然。而其界分既殊。彼此不同則不得不曰此曰彼。稱之以彼曲此曲。雖細如毛髮。微如沙土而當以其首末表裏分彼此矣。故據精粗而論之。則當以其精粗分彼此。據深淺而論之。則當以其深淺爲彼此。曲之所分。不別彼此不得。何必盡P如天地之廣。山川之大。其高下遠近。彼此分立之勢。有截然易見。然後始可以彼此稱之哉。於是而若只以其大者爲曲。而不察於其小者之各爲曲。乃曰一直去底。無曲折彼此云爾。則是正所謂樂渾全而惡分析。所謂見輿薪而不能察秋毫。不免爲無星之秤。無寸之尺而已。豈所謂析之極其細而不亂者哉。至若推致二字。揆以字訓韻書。參以古書所用。是蓋有引運底意。有轉移底意。必於其循次進向處。輒用這字。而若於見今所據地分上。只要其保守勿失則未見用這字。不但推字爲然。致字亦同。夫孰非從此至彼。因一至二。爲引伸觸類P底義耶。惟其所推之形。各因其所據地不同。或有大推去底。或有小推去底。或自外推入。或自內推出。或有推上去者。或有推下來者。或分出旁推。或一脈直推。或正推。或反推。正推者。其所推必密。反推者。其所推必闊。試歷論之則如因天之理而推地之理。因人之理而推物之理。是推之大者也。自一箇推至二箇。自一分推至二分。是推之小

者也。因其情而推至性之本善。觀已發而推論未發之中者。所謂自外推入也。自中心之忠而推而爲恕。因在心之理而推而度物者。所謂自內推出也。升高自卑。而因下學推而上達者。非所謂推上去者耶。P因往古推占來世。而雖百世可知者。非所謂推下來者耶。自止於仁止於敬止於孝止於慈止於信。而推類以盡其餘則所謂分出旁推也。自親親而推爲仁民。自仁民而推爲愛物。自保赤子而推爲保四海則所謂一脈直推也。凡推去推來。漸次前進者。是爲正推。若所謂推入向內。推出向外。推上推下。旁推直推等推是也。凡對待相反。反此推彼者。是爲反推。若所謂觀物反己。原始反終。舉一隅反三隅等推是也。正推者。必從近向遠。循序轉致。有不可陵躡地界。故其推也不得不密。反推者。必反乎此而推及於相對之地。引乎是而越推於相反P之物。故其推也不得不闊。於其闊推之中。而又有不得不密推者。今於其反此推彼而就彼分上。又欲一一推究則是爲闊中之密。而若論其所以推之之法。則大小內外上下旁直正反之推。莫不皆以引轉觸類爲義。未嘗只守其見方所據地分。是何嘗有橫說豎說之異其義哉。故凡所謂推致云者。是必有其見方所據一段已然地分。或得於理之自然而發者。或得於人之做得而成者。其爲見據已然地分則一矣。故就這分論之則是謂自家已得底境界。而不容更待工夫做了。直是因據了爲其權輿基址。保守勿失。而特因此漸漸引著。推及P未然而要致其極。則是之謂推致。雖其地界微密。不啻若秋毫之細。而既自有已然未然之別。則當以其已然所因者爲此。以未然方推者爲彼。因其粗而推其精。則粗爲此而精爲彼。因其表而推其裏。則表爲此而裏爲彼。因其隱赤子而推至保四海。則隱赤子保四海。豈不分爲彼此也。因其恥穿窬而推至羞爾汝。則恥穿窬羞爾汝。豈不分作彼此乎。故凡下推字。莫不因其有彼此之形。必因此推彼。因一推二。而其見據已得者。則不過爲所因之基。其未然未及者。是將爲當推之地。論其大則如大學老老而興孝。長長而興悌。恤孤而不倍。是絜P矩推行之廣。而一推字精神下落。專在於興孝興悌不倍之上。則所謂老老長長恤孤等事。說到治國一章。是乃已然已能底事。而不過爲所因之基。何嘗以其老老長長恤孤。并屬之爲方推耶。論其綱則自一分薄處。推至二分三分。自一分淺處。推及二分三分。漸漸深入。漸漸就厚。是爲推致極細之工。而一推字精神下落。又專在於二分三分漸深漸厚處。則所謂一分淺一分薄者。說到此處。乃爲已得先占底界。而只是爲其所據之地。何必反以一分并舉爲方推耶。然則今所謂善端發見之曲。其所發之端。假使極細極微。有如霎時惻隱之不P忍入井。一端羞惡之恥受爾汝。而實天理之真面目也。本原上好消息也。若金莖玉條。藹然萌發於荒草之中。天光日影。忽然穿漏於頑雲之間。固已純粹至善。真切端的。專出於自然不能已之實理。而無一分勉強私偽之雜。則非易所謂復其見天地之心者哉。學者於此當察識端倪。邂逅悅豫。欲有以就此下工。則不過靜而涵養。愛護保守。惟恐或失。若先王之至日閉關。慈母之保養嬰兒。要爲其諸曲未及發見者之權輿基本而已。何嘗就這第一曲發見已然分上。更要其推致以得之哉。若然則是不免於急迫紛擾。無從容涵泳之意。似未覩P得其一箇真切之界。端的之體。而無由致其保養之實。直急要廣推遠致之術而已。其爲害何如哉。故凡欲因善端發見而推致之者。是必如擴泉之始達者。其最初湧出一脈水。則固已通了一竅。不容更待掘鑿。而惟從旁邊轉拓引灌。然後方始爲擴底功。如煽火之始燃者。其最初噓出一點火。則固已著物得起。不容更待吹噓。而惟將別薪延燒。然後乃始爲煽底事。非必因其已然爲基。已得爲本。而特更加引伸之功。爲漸次推去者耶。然則此有不必專就大賢論之。雖庸衆人。莫不皆然。蓋天理之在人心。固無聖狂賢愚之別。而若論其邂逅發P見。則雖至惡之人。亦不能無此一曲。有朱子說。在大學首章小註。 凡人之於大賢。地位不同。其所發之端。雖不無大小之別。而若因其已發爲一曲。以已明處爲基。而特循此擴充推去。則其節度方法。彼此無異。章句所以必兼舉并論。特謂之大賢以下者。其說固極完備。而鄙說嘗偏舉於前書。乃亦察之不精。語之不審。安得不蹙然含愧耶。竊觀大學補亡章小註。有朱子說發明。所謂因其已知益窮之之義。乃曰知元自有。纔要去理會。則便是這

些知萌露。便是這箇骨子透出來。卻不是理會箇知。如今只是須著因其端而推致之。使四方八面千頭萬緒。無有^P不知。今夫元初自有之知。必待理會萌露者。雖與善端自發見者較異。而若論其已知者不更加理會。只因其端推致云者。其次第節度。豈不足以相引旁照乎。故在明明德章下小註饒雙峯說。有曰明之之工有二。其一。是因其發而充擴之。使全體皆明。一是因其已明而繼續之。使無時不明。始知明明德工夫固亦有已發已明底第一曲。而說到充擴繼續。則爲但推致其未發未明者也。此其說固亦可驗矣。抑又念治國章如保赤子一節下小註。有朱子及諸儒說。皆以其教與化不作推說。謂必到平天下章。然後方始爲推。至於孝悌慈之爲推^P之本者。則不過以守而勿失爲要。有曰人所同有。而能守而不失者鮮云云。則推字本義之所以必爲因此推彼。因一推二者。觀於此。豈不較然可驗乎。然則如章句所謂自其善端發見之自字。或問所謂因其發見之因字。是亦惟在看取如何。今以這自字。若把作自今伊始。自此下手之自。則所謂推致之工。固若并舉第一曲言之。而若看作自其界自其後之自。則其善端第一曲。乃不入於推致中矣。以這因字。若把作因其方發。因其方見之因。則所謂推致之工。固若必就最初曲下手。而若看作因其已發。因其已見之因。則其發見最初曲。乃不^P屬於推致事矣。故嘗竊以這自字。讀如自誠明。自明誠。自既灌以往。自地以上無非天之自字。以這因字。讀如大學首章章句所謂因其已發遂明之。補亡章所謂因其已知益窮之。中庸首章章句所謂因吾之所固有者裁之之因字。以其最初發見第一曲。必據爲所自所因之基本。而所謂推致之工。則必引接了第二第三。未及發見諸曲看來。未知老兄於此二句。嘗何以看了。而特留意深究也。今以鄙說所陳。若律之以老兄之說。則不免節節相碍。段段可疑。老兄所以自證者。恐不免反以證成鄙說也。老兄所以攻破鄙說者。恐不免反以自攻^P其說也。遂不勝疑晦之至。欲得見究竟之論。乃復逐節提陳。不嫌煩濶。幸試覓出惠書本草。相準而一一垂照。則庶幾得究其可否得失。而有以裁誨也。

與金道彥 丁未

三陽回泰。一氣向暖。伏惟歡侍增祉。昆季征邁。日有契悟。日前金上舍子厚兄。從軒下來。謂與其伯氏注書。聯翩信宿於蘭室之中。得與棣軒諸兄合席從容。爲傳其緒餘一二。令人聞來。不覺黯然起懷。恨未能共參席末。質論講討於其間也。金兄又得見心經質疑刊補。畧傳數條。乃知亡友一生真面正在於此。而尙未一窺影響。^P若或不外。因便投示。得有警悟。何幸何幸。前此所論致曲一說。承老兄最後書諭。蓋老兄之言。約而易知。而鄙說則煩而難究。老兄之言。完備無罅。而鄙說則零碎苟艱。正所謂有知無知。不但較三十里者也。雖不無各據一方。未能盡人言之歎。而其大體則得失較然。曷不幡然改圖。甘心自首耶。從違去就之間。士君子氣象意思。固不容有一分吝滯。宜卽一書稱謝。而渙汨未暇。今始畧陳。幸老兄之諒照之也。前此縷縷煩陳。留在清案。適足爲累。幸以兩次長牋。勿嫌還擲。使之得以深懲前日之非。而或有所論說自訟。則此在老兄亦與人爲善之^P道也。千萬勿復留難。因便付還伏望。

與金道彥諸昆弟 戊申

卽日春暮。省餘棣軒靜養神衛否。庶物方暢。生意流行。想有活處。無言之樂。隨處呈露。而無由就叩

。良可恨也。體仁。客冬歸後。重患阿堵。跨歲浹春。閉門度日。汀花岸柳。次第向榮而未能隨意玩適。况可望對黃卷中人耶。伏枕呻嚙。未嘗不起懷於同人。而追記前遊。往往覓出四十韻聯句。呼兒曹讀而聽之。依然更與挑燈酌酒。列坐賦詩。而此會難再得。安得不慨然興喟也。汝安兄奄作古人。柳兄聞遭內憂。相別幾何。而乃有此存歿吉凶^P之殊。人事之不可知者。固如是耶。新塘金戚丈將以來月初二入地。而杜門吟病。未伸臨穴之哭。茲以拙構輓語。托座下爲因便投傳計。一賜抽覽。指教病處。亦古人事也。

答金道彥 庚戌

即日春和。伏惟孝履支安。兼有節順溫理之工。仰慰區區。體仁。事育姑依。月前被永陽士友敦懇了。與李戚丈臥雲翁并轡入橫溪。登玉磗亭太古窩。沿洄上下。歷尋二老遺躅。留書塾數日。披翫遺集。畧窺當日進修規模。講論旨訣。有足以想見萬一得其影響。而纔得下手。未^P及究覽。忽聞川城妹喪之報。促發還巢。意象慘慘。寧有一分餘况。可以仰提耶。刊補一書。願見已久。乃蒙不遺。辱與投示。得以看亡友平日見解之精。造詣之真。有非儕流所敢輕議。蒐摭編錄之功。實大有補於師門來後。而僉哀兄所以整頓繕寫。必要勘定無瑕者。亦非專爲化者計而已。其意固亦盛矣。然欲托此固陋下手。則可謂非其人。不敢承當。而耽於究覽。未卽奉還。情誼所摯。不忍恬默。往往有疑晦合商量處。不得不點標以求教。而恐涉疵摘成書。惟冀虛心恕覽。回示可否也。百弗菴崔先生。既蒙旌褒。繼下寵贈之典。足以見聖朝^P崇儒右文。尊德樂道不尋常。而斯文與有輝光。盛禮有期。伴書來告。而新遭至憾。恨未赴會。向來注谷改題時。吾鄉學宮。獨愧埋沒。今番則送儒生致賻儀固好。而未知鄉意何如也。書末所教。何遽至此。窮儒茅屋。床床沾濕。乃亦常分。前後相好。或過慮及此。有所云云。而持重固拒。近日鄉丈老。又忽力伸其說。年少相和。不勝閱甚。同志一般窮苦。豈敢以知仲之義。望於人人耶。冀或有繼之者。則哀示實非所意。只增慚愧萬萬。

與金道彥論心經講錄刊補別紙 丙午

序燭幽之鑑。按西京雜記。咸陽有方鏡。人來照。腸^P胃五臟歷然無碍。有疾病。知病之所在。女子有邪心。膽張心動。始皇嘗以照宮人。

咸陽方鏡。與燭幽鑑自異。不可苟引以實之。頃見李德而亦云。而自言未及標識。然則當只載講錄。按字以下。刪之無妨。

附註非惟精不可。按格致先後。恐只是文字偶然處。

先致後格。似特有意。講錄所謂由終派始。實微發其義。恐不可只作文字偶然看。

視爾友君子章屋漏。朱子曰。屋漏。室西北隅。此是^P深密之地。

屋漏是室西北隅。而日光所先漏入處。所以稱以屋漏。而深密之地。日光漏入。有昭昭不敢欺不敢慢。

爲人所警省處。故前後釋屋漏者。輒特舉此義。詩經及中庸。皆以此特懸小註於屋漏下。而退溪西銘考證講義。釋屋漏無忝。而特曰西北隅。日光所先漏入處云。蓋解得到此。然後屋漏之義。煞有精神。此亦加小圈按字。而添入日光漏入四字如何。

閑邪存誠章附註存此。此指主一。涵養此意。按此意。恐指敬以直內。

P 按此條。兩如此之兩此字。存此之此字。涵養此意之此字。皆是一義。上如此之此字。此指不之東西者而言。下如此之此字。此指不之此不之彼而言。存此之此字。此兼指不之東不之西不之此不之彼。只是中只是內者。而欲其必存而不放也。涵養此之此字。謂涵養此。不之東不之西不之此不之彼。而只是中只是內底意也。以涵養此意之此。謂敬以直內則是爲將敬以直內。涵養敬以直內。愚意存此涵養此兩條下小註。更加商量添改似好。

顏淵問仁章本註。語類。有張敬夫不與并入石刻。**P**朱子歎惜之辭。按語類。或曰。南軒作克己齋銘。不取子雲之說如何云云。此與講錄不同。當更考。

石刻歎不入。語類與講錄。文少異而大義則同。按字下末段。此與講錄不同當更考九字。刪之如何。

延蔓 止 上去。按莆田。鄭氏云物之延蔓者。纏繞於他樹。解其纏繞。卽能上去。此蓋以延蔓之物譬學者。纏繞譬世習。言延蔓之物。去纏繞則能上去。

物之延蔓而纏繞於草木者。必解其纏繞。然後草木得以上去。而若其延蔓之物則纏繞草木時。可與草木共上去。而解了纏繞後。莖葉脆弱顛倒。只是寅緣地上延蔓去。寧更有攀緣上去之理乎。此則兒童之所共見解。鄭氏必不錯認誤指以延蔓之物。爲解其纏繞而得上去矣。顧其語意稍欠曲折。故卻令覽者錯看。然而循其理而究其義。則必有不然者。卽能上去四字。何必反屬延蔓之物耶。要在活看以得其義。此蓋以下云云。恐未免有不盡人言之恨。諒而刪之如何。

仲弓問仁章附註東嘉史氏條。考誤此說。非程子本義處未見。按如賓如祭 止 未知如何。

按字以下甚好。足以補講錄言外之義。而考誤所謂非程子本義處未見云者卻可疑。考誤一條刪之如何。

P天命之謂性章率性之謂道。按率性之說。通人物而言 止 天下萬物。莫不總會於此。

按字以下。是依做中庸或問。大展拓說來。義理圓闊。辭氣發越。圓闊中自有主宰。發越處亦有下落。未易說得到此。不勝欽賞感嗟。亡友平日得力。有足以窺其萬一。然而講錄一書。此一時師弟之間。隨疑輒質。隨問輒對。或只討字句。或極論義理。而記錄之體。與或問等書排鋪敘述。敷衍層出者絕異。貴精而不貴繁。貴約而不貴博。只依本旨說去。明白勘破。令人易曉而已。不要別生客說插入。若爾則說話雖好。義理雖明。而恐於本旨。不**P**相交涉。卻失端的刊補之意。爲亡友校是篇者。不可不極意裁正。必要無憾於幽明。若石田說。以通人物而言者謂之非。則實是意外。不必更卞。而若所謂物理具吾性之說。無關於率性之義。則亦不爲無見。方痛說人與物率性之義。而其說已極張皇。於是而又延及言外。欲竭盡其見而後已。則豈不涉於太蔓耶。以愚所見。然字以下。雖並刪之。未爲缺。其下亦不無一二可議。而苟欲並刪則不必煩提。

附註靜中有物。按朱子曰云云。

按字以下諸說。歷舉皆切於靜中有物之義。摭錄排列。P固爲有功於後學。而其義固自洞然無餘憾。不待總括論斷。而當自得之。末段蓋字以下刪之。而只列載諸說則似簡精。

這裏便是難處。難是知之難。而做到靜中有物底亦難矣。按未發之前云云。

按字下。以難於言語形容。釋這裏難處之義。此恐非程子本意。而與講錄不合。試考本條。則或問下動字。下靜字。而既答曰謂之靜則可。然字以下。乃以其餘意。謂靜則靜而其靜。也須有物始得。這裏下工甚難。何以爲下工之難也。朱子曰。未發之前。不可尋覓。或又問無事時。P如何戒懼。只管如此。恐執持太過。不如此則恐都忘了。朱子曰。有甚矜持。只不要昏了。此非所謂難處之甚者乎。故曰。莫若且先理會敬。能敬則自知此矣。非以工夫說者耶。以是也而乃以言語形容之難。釋難處。而以學者理會得敬。敬則自知此者。又引以證難於形容之義。甚可疑。眞西山曰。思慮未萌。知覺不昧。程子所謂靜中須有物者。蓋謂學者能深味而實驗之。自當有見。未可專以言語求也。今以難處之義。只作難於形容看。則不幾於專以言語求者乎。陳潛室曰。未發之初。此問最精。前輩於此。最難下言語。今按字以下所云。或本之於此。P而若釋這裏難處之義。則當以陳說下節所謂既是未發。纔著工夫。便是發了等語當之。何必苟引難下言語爲證耶。此正本領工夫。最精微極難處境界。而其難也有不可不知。故痛下及此。幸裁諒刪改如何。講錄所論。已得正義。雖更無按字以下。亦無妨。未知如何。

求中。朱門人問延平靜坐求中。無乃有助長繫累之病否。答曰。以不見見之。

問辭無看見字。而忽以不見見之。載答辭。問答未爲相值。更著小圈按字。以延平靜中看未發時氣象。靜得極了便自見得。問者以此提問。故答之以此等語。畧載似P好。

赤子之心章附註機關。機。陷穽之類。關。門關之關。皆言心之用巧費計處。按機弩牙也。

機關之機。當釋以機檻。樞機之機。當釋以弩機。文字擬用。各有所屬。按字弩牙之訓。刪之如何。然而機檻與陷穽亦較異。陷穽是掘地爲穽者也。機檻是設柵爲檻者也。考中庸章句。豈不較然乎。講錄釋以陷穽。亦可恨。按字下。刪弩牙之訓。更補之曰。機機檻也。見中庸罟獲註。與陷穽自異。似好。

牛山之木章本註同然。按此段是孟子本註而西P山節約入錄。殊欠曲折云云。

節約。集註入錄。則固宜有詳畧。不必以欠曲折爲病。按字以下。恐未爲緊切。

神明止難安。按孟子本註。神明不測下。繼以得失之易而保守之難。蓋兼出入得失說。意方完備。今只說危動難安。未知如何。

難安之下。自有如此二字。這此字乃非指出入得失言者耶。謂欠完備可疑。

附註毫釐止之辨。按聖賢論心云云。

按字以下。只是疊陳附註小註及講錄已盡之意。而別P無緊要。所補刪之如何。

仁人心章附註昭曠之原。昭明廣達之原。乃天理之本原。按此恐指此心虛明之本體。据下文此中條。訓以心中可知。

本條。昭曠上。有獨觀二字。今端莊存養。而獨觀天理昭曠之原則固可。而謂自觀此心昭曠之原。則未免爲病。下文雖有此中昭明洞達之語。而惟在善看如何。若謂端莊存養而此心昭明洞達。故能獨觀天理之昭曠。而自覺無窒礙。恁時乃取文字來看。則道理自然透徹。如是看取則有何可疑。按字所云。有未可知。諒裁如何。

P 無名指章附註西山。附註乃篁墩所纂。而小註作西山。恐誤。士敬云按西山說止學者西山上。恐脫按字。

西山說止學者則誠然矣。而謂脫按字則卻未知。今著按字。而以己見說來則固穩合。附註小註固多此例。而真氏日之上。乃著按字則語勢不穩合。前後無此例。西山上三字以下。刪之如何。

養心說誠立明通。按聖字賢字。各以其氣象意思而言。非實有地位等級。然既曰立則有持守之意。通則有神明不測之象。以此而分高下。亦無不可。朱先**P**生解。亦用此意。

賢者蓋未及明通。而其實體則已安固。故曰誠立賢也。聖者則誠之立而又能明通。體用到極。全體無憾。故曰明通聖也。按字下所謂各以其氣象意思言者。似然矣。而謂實無地位等級者。卻可疑。此雖曰聖曰賢。而俱是到寡欲而至於無者。此聖賢二字。蓋不必苦要分等看了。而若謂這聖賢地位。實無等級。則未免涉如何。至於然字以下則又翻說有等級可分。而只以其賢聖字義解說者。說話孤單。意味淺薄。朱夫子蓋或嘗有如此說處。而有不必全以此藉爲話柄。亦裁諒幸甚。

P 聖可學章明通公溥。按靜虛則其發也明而通。明通。指動直。直則其靜也公而溥。公溥。指靜虛也。朱子以四者分屬四時。明通公溥。正如春夏秋冬之序。乃是定論。以今觀之。明通之配春夏。自分明。公溥之配秋冬。似不恰合。然秋以成熟萬物。豈非公。冬屬水。水體周流不滯。豈非溥乎。大抵周子學問。自一而二。二而四。李德而標曰。周子學問。都是太極陰陽五行。語類曰。康節須是二四六八。周子只是二四中添一上爲五行。據此則一而二。二而四。恐未安。

按字所云。極端的分曉。而以今觀之。以下語涉牽強。只**P**以成熟萬物解公字者。未知圓滿。而以冬之屬水。水體周流擬溥字者。語似僻。恐不必強說。傳會至此。以愚意則莫若并刪以今觀之以下。而只存乃是定論以上。則似爲簡約精切。未知如何。末段一而二。二而四。石田見誠是。

附註縱不得止至失。按一者無欲。卒難湊泊。無下手處。無周子見識。或不免差入空寂。敬字工夫。有據守處。雖不能十分盡得。亦不墮落空虛。此所謂縱不得亦不至失。

竊謂一者無欲。而尋常人有難便得無欲。莫若且就敬**P**字上捱去。執捉得定。有箇下手。則縱不得便至無欲之一。而亦不至爲私欲汨了。失其本心。語意來脈。只是如此。故其下因要人以必於此心上見得分明。而說世之言敬者。不知直截於心上求功。遂覺累墜云。所謂累墜者。乃非失乎。又曰。不若眼下於求放心有功。非所謂縱不得無欲。而亦不至放失其心者乎。按字以下。乃謂非周子不免差入空寂。而以不至失之失字。爲墮落空虛。未免究思太深。插入客意。卻失平易。以下文有累墜字。故遂認作墜落空虛而爲是說。然而放失其心。收拾不上者。是亦爲墜。何必墜落空寂。然後始謂之墜也。惟在**P**雅諒裁

取。

體用 止 無間。

體用顯微。主心而言。已見於上序文註。此不必疊說。按字下。只曰此當與上序文顯微註參看。如何。

體之 止 餘味。按程子所造。亦自如此。然不知以道聖爲志一語。何以見從容默會。超然自得底意思。此是信不及處。

竊謂程氏此條。自學聖賢以下。至全體妙用皆在其中。上下五行說話。大段鋪說聖賢事業工夫。立爲學者準的。而乃以龜山程子所云以聖人爲師。學聖賢之所^P爲。以道爲志。以聖爲志等語。提爲決案證左。申勉後學。必要學聖人。而終又反其辭以勸戒之曰。聖賢之道。固不可不學。聖賢之業。固不可不做。而自非實體之以身。能之乎云爾。則所謂體之以下。至餘味一轉語。乃總指前皆在其中以上。聖賢許多好工夫。許多好事業。而歎其未可容易冀及。踈率擬議。而與顏子喟然之歎。語意彷彿。說話痛快。問架圓闊。有足令後學感發興起處。何嘗只承來程子一言。而迫促立說。便以志道志聖爲有餘味。而全沒深遠意思者乎。今觀按字下乃謂不知以道聖爲志一語。何以見默會自得底意思。此是信不及^P云云。若未嘗照管上下語意下落。恨不於亡友無恙時。一與之痛卞及此。敢此煩陳求教。務歸至當而後已。惟諒裁幸甚。

視聽言動箴。習與 止 同歸。按此聖賢。恰似周子明通誠立分聖賢。程子質美其次之別。非聖但誠。思賢止守爲也。

此聖賢以下。刪去無妨。講錄及按字第一條。解釋已無不足。

與金道彥

日間閒坐。無與往還。時對方冊。寤懷古人。而或有疑難^P合商量處。安得不起懷同人。而有無田甫田之歎耶。卽日春序已盡。伏惟僉孝履支安。讀禮征邁之工。想惟於此中有料理。恨不得參聽一二。得有警發也。頃所呈心經刊補標識。想已歷歷垂覽。狂瞽之言。有或不幾於妄發者否。靜中須有物。這裏便難處。刊補釋以難於形容。故妄以爲未知得當。而斷然以下工之難。略陳愚見。未始不瞿然顧疑也。近日將鄭墳篋兩翁遺稿。早晚閒看。知舊往復書中。拔此一句。質難破者。非止一二。而輒皆以下工極難。丁寧說破。或曰。此在非著意非不著意之間。此其所以爲難。或曰。孟子之勿忘勿助。延平之非^P著意非不著意。正在此間難處。若此類。難容盡提。始知先輩亦嘗看作此義。而鄙說或不至大舛否。歷覽後幸終一一提示。顯加取舍。勿以謹默因循爲節度。如何。

與金道彥 辛亥

疾病衰暮。餘景無幾。而邈焉相望。拚討未易。安得不耿耿懷仰也。卽茲炎霖。謹問兄棣軒靜養何如。天倫同志。日夕相對。爾征我邁。切磋琢磨。晚景至樂。實無以加此。一切世間是非歡戚。寧有一分攬

我曾次耶。體仁。杜門奉親。僅免他撓。而終是一病字爲祟。閉目塊坐。未得極意看書。往注意會處。輒呼兒搜出。看得一兩行而止。尙P何望有溫故知新之效耶。向來霖雨成漲。龍門鴈蕩。日夕舂撞於階下。而目今光景乃忽蕭條。白沙迷茫。草樹顛倒。眠前桑海。須臾變滅。亦足以驗氣化之推遷。人物之消息。只將翫造物兒伎倆。還自笑歎而已。心經刊補。紙頭所陳瞥見。今不能自記。而第四卷孟子寡慾章下附註朱子說。所謂於這本來底。都不得力。嘗妄以本來底。謂本來養得底者。此全是臆見杜撰。近看語類中這話頭甚多。若論仲弓問仁章第二十九條中。所謂是本來自底物。此本來底心等說。將爲左驗明證。而乃敢勒作別見。縱橫說來。亦非無忌憚之甚耶。茲庸引咎自P首。要贖其罪。而所恨者。如老兄者不肯一語辨破。以救其失。恐非所望於平日也。但以不得力。謂無所資於本心之力者。語意終未分曉。幸老兄之一賜陳說也。兼有所奉質者。孟子必有事焉而勿正。心勿忘。勿助長。朱子嘗謂勿忘。是有事也。勿助長。是勿正也。此當爲不易定論。而退溪李先生嘗論此曰。當作四項看了。有事一也。勿正二也。勿忘三也。勿助長四也。此在言行錄可攷。嘗理會及此否。或嘗有所受於平日。而同遊未及盡聞歟。願得的確之論。以破其疑。幸勿吝詳示也。

答金道彥諸昆弟

P即蒙不校。爲其遭不忍之慘。而特垂先施。悼傷嗟惜。眷眷不已。繼以懼失天和。隱然有勉戒之意。無一字不出衷情。奉讀以來。只增感泣。體仁。生世六十餘年。無一好光景可以自慰。閱盡喪威。七尺苟存。惟有眼前三兒解說文字。往往父子環坐。拈出經籍。更進迭難。或不無欣然警悟處。此足以逍遙忘憂。樂此晚年。而今焉已矣。尙復何言。然而古今賢達。處此有道。亦何敢任情縱意。過自悲傷。爲同志憂也。索居淵齋。觸境增懷。或不無不可堪耐處。而聊且置之相忘。不復念矣。

與金道彥昆弟

P芳草繞岸。鸚聲滿樹。江臯閒坐。無日不相思。奚獨聽蟬而懷高風耶。伏惟味道觀理。日有所樂。體仁。荒年索居。事育姑依。而自家眼疾倍劇。只自憐歎。第念春間多賴一卿儕友之力。幸免作餓鬼。而知此實先從座下唱之。自惟無似。別無輕重有無於一鄉。而輒以口腹。貽累同志至此。豈不可愧之甚耶。且念曾子居衛。六日不舉火。而曳履而歌商頌。聲滿天地。若出金石。是甚地位。是甚氣象。欲以此自勵。而第恐一朝塌然墜墮。欲扶豎振發不得耳。四月中。適夜深獨坐。江月滿牕。忽黯黯起懷於同人。偶用知友寄來韻。得丁字近體一首。欲以仰呈求P和。而苦無便因。今始轉付。覽此足以知其滾汨窮餓中。不無一端停雲之思。尙耿耿不已也。詩句之作。固無加損於實工。雖不必偏著用心。而愁病無聊中。亦足爲發舒休養之一助。古人所以相與酬唱者。蓋此意也。若得瓊報吟諷。豈不興起一番好意想耶。

與金道彥

曩者。聞老兄竟遭不忍當之境。始疑非真。終得其實。不覺視天夢夢。背膺欲判。豈料吾兄晚景。至於

此極耶。年前體仁再瘞幾冠之子。昨年。趙兄聖紹一時哭二子。今老兄又遭此憾。莫非一運所驅。直是無可奈何。不可不^P以無可奈何處之。此非老兄之所嘗賜書體仁者耶。古人哭子。有謂與無子同。此語似過高。然亦出於其不得已者也。記柳兄仁伯嘗貽書體仁。慰之欲必以曠達處之。體仁答之謂曠達二字。恐不能無病。似不若知命順受。寬以居之等語。爲得平實。未知此言何如也。不欲把筆作書。提陳及此。而終不一言相問。亦恐卻失平正。故強起呼倩。以替面慰。蓋欲持此仰叩。得承回諭。有以畧窺君子所養深淺何如也。

與金道彥 甲寅

杜門山樊。送盡三春。而自患阿堵。懶廢書疏。豈敢望朋^P友之肯惠一字耶。聞蒙恩典。新受僉樞之帖。信然否。此若出於大同優老。則固無可嫌。而謂與朝士比例。則在我恐不無商量。未知何以處之。自謂與他不同。而分疏呈稟。亦不爲嫌耶。想周詳審處。不失其宜。而義理精切。正在此間。自惟無似。雖愚魯無知見。而竊欲與聞其義。亦出於相悉之不能已者也。鼎凝便裏。又得奉覽抵族叔賀書。不無好話頭。可見風致令人欽誦。但自稱以天上一鰥夫。而隱然自擬於赤松子。以愚之見。其所自稱者。只是出於自傷。未免強作大談。未知真箇赤松子亦未能脫去塵想。切切自傷耶。好笑好笑。春間。或入樓^P山齋。一番逍遙翫適否。時物方妍。塤箎交唱。想或有言志述事。聊以遣興。而不肯以一字投示。此古人所以毋金玉爾音。勉賢者而恐其決於遁思也。豈不可慨耶。日前隣居親知。適來問春窮。余笑而賦一絕曰。白首生涯寄一岡。數椽茅屋水聲傍。春來不羨陶朱富。垂柳金絲萬萬長。此雖一時偶吟。而覽之足以知此間近日光景意象。故不敢自隱。聊爲同志誦之。或不爲發一哂否。前者所寫呈涇字韻。尙未蒙辱和。因此并惠幸甚。

與金道彥昆弟 丙辰

霜風淅瀝。氣候不佳。伏惟伯氏令翁靜養神衛。叔氏兄^P調候漸復冲和。區區慰仰。體仁。偏侍患候。無日或寧。身恙一味沈綿。憐歎何已。衰境垂死。別無新知可與知友商量。而只以一病字煩溷不已。俯仰興慨。固將如是而生。如是而死。尙復何言哉。東巖翁奄作古人。吾黨日益孤矣。想一體悲痛也。顧此癯病。杜門索居。未曾得見訃書。遽以啓期來告。而白馬臨穴。無由自力。茲構輓歌二首。付呈座下。一坼垂覽後。卽令的傳。幸甚。

日用書疏。不能躬自把筆。輒口呼倩寫。故兒曹迷甚。多以同音錯書。前者覆叔兄書中。冲和之冲字。以充字換書。覽之想發笑也。前輩於此等處。未嘗不致謹。^P觀李先生答良齋書中。責隆慶之慶字闕一畫。非後學之所當爲法耶。

與金道彥 癸丑

前此所論。必有事勿正勿忘勿助長之當作四項看。體仁蓋嘗有疑於是。而老兄所答。亦似未甚分曉。未

회병집(晦屏集) 신체인(申體仁)

見其必有明据而只涉強解。故雖未敢更提煩濶。而顧其中尙耿耿也。秋初拜后山翁。偶論及此。則翁乃拈出語類孟子卷此一條。丁寧提示。而其說端的分明。覽之悅然。始知朱訓之固若是。而有不可更疑於陶山所教也。平日。蓋嘗覽及語類。而見解未逮。未嘗反復潛究。玩心理會。乃敢率爾起疑於不當疑之地。后山翁之一言拈示。其惠不少。此古人所以重於講討。而後進之輒得力於先進。蓋如此。得此之後。欲卽一書相告。而疾病摧頽。含意未果。近間或更尋繹語類。而已照會及此否。朋友之道。有疑必相問。有得必相告。豈不彼此交益耶。衰病垂死。同志相望。不過如是。伏惟諒照。

晦屏先生文集卷之四

書

與柳叔遠 己酉

體仁解別渡水。進拜仲氏文丈。得奉覽溪集攷證。讀土室記一篇。出洞言邁。指點故人之居。烟樹莽蒼。一別依然。東巖泉石之勝。未嘗不耿然在懷。恨未得一登以覽也。歸臥川上。阻水淹滯。聊和亭韻一首。錄在紙末。仰副盛囑。所以必不辭而樂爲之者。非但以列名其間爲幸。欲以所寫呈鄙廬韻。得蒙辱報以修陋室。頃以此意亦已仰囑于仲氏丈耳。鄙廬詩語意之倒。從當依教商量。而雨谷金上舍戚兄。又以數椽棲息。謂與上聯相疊。始知歷經高眼。疵類盡見。有不能自逃也。起聯外句平臺上所缺。今始記認。乃是懸岸二字。幸以此填寫。奉浼于仲氏丈座下如何。

答李仲則 庚子

嚮者秋水方漲。前江如海。雖使飛鳥相過。亦云難越。况望得故人書乎。適會其時。兒曹出野。得一書而來。謂有行路傳之。時日已昏矣。急使張燈。照視封面。已知其爲老兄七月晦日所賜書。而留滯蘇湖。乃從縣北來。得免爲潦漲所阻也。遂審夏間。有一時愆度。趁卽向佳。區區慰賀。第惟衰境筋力。與年少頓異。過了一番震盪。難以昭蘊。未知近日肥瘠虛實之狀視昨年何如。想鬢髮日益蕭蕭。白黑多寡分數亦何如。來書不提示及此。良可恨也。放倒墜墮之歎。何令人興喟不已也。大抵吾輩通患。在年少氣銳之時。舉皆有些箇才分。多少意想。可與有爲。而輒爲俗學所牽縛了。及夫年齡既暮。外念稍歇。庶將收拾桑榆。追補既往而亦患志氣摧頹。世味轉深。朋友相逢。往往容易酬酢。說及向裏。而夷攷其實。不肯一動心以肆其力。如此而生。如此而死。噫亦可哀也已。如老兄者。自以忠信通敏之姿。不出家門。早承鞭約。家計已成。豈容有是。而若體仁則譬如一箇屋子。合下立得未正。既又屢經風雨。面面壞落。中間雖幸略蒙大匠指揮。得以改植頹礎。扶起危柱。大勢稍安。而欲隨補其許多壞落處。得成完屋。則力勢漸殺。歲月無多。尙何望其無憾迄功也。所以輒興喟於同人之言。而冀或有助萬一。此又如釋子持帖勸人施善。得無爲老兄所笑耶。堂記。固非愚陋所敢爲。而嘗深恨其相距益遠。欲自以手字附送。故不辭而爲之。寧有警語可相發耶。篇末一語。亦不意老兄看取若是也。今以新樂工夫。爲不欲強叩。則此固有病。而鄙意以老兄之能已到熟處與否。及至可樂與否。此非人所能與。而惟老兄可以自知。竊嘗自以此語爲一篇下落歸趣。爲可以暗激老兄。惕然加勉。而老兄乃未能領會此意。反有云云。亦可謂不盡人言者矣。雖然。道邇求遠。以多問寡等語。此在我爲對證良劑。前此知友。固有以此相規。而自家用工未親切。得力未深厚。尙未見信於朋友。今老兄之言又如此。敢不孳孳講明。反身益勉。以勿負眷厚是圖。願老兄之終惠此意。輒加規誨。勿與相外。則體仁雖無似。亦當粗效愚見。以時納言。誓不替平生之義。未知如何。歲已秋矣。欲一起踐約。而涼熱之交。疾病頻作。一行早晚。固未可知。未前若更蒙垂問。何慰如之。年來離索。懷緒日孤。見同人問字。如獲異寶。反覆不忍去手。老矣不能自己。而然想同此懷也。

答李仲則 壬寅

承有繙閱之工。此固可賀。而身心之呼喚不上。此亦通患不如此是藥。嘗竊以敬之一字爲喚衰靈丹。而欲有以從事。想老兄已自得之矣。散稿校勘。要待寫出中本。此計善矣。金柳諸兄僉意皆然。而夏間歷臨。以此遷跬。此爲介介耳。淵上小構。逼於農劇。未得下手。姑退以新秋而歲荒如此。未知其如計否也。隨分看書之暇。亦或攜筇出門。涉野渡水。竟日徘徊。魚游鷗影。亦自可娛。但無與同好者可以共此。所以每起懷於老兄而恨未拚邀。承示。謂或置之相忘之域。其所慮則過矣。雖然。忘不忘亦無與於老兄。而老兄憂之。未知達者亦有是乎。呵呵。

答李仲則 甲辰

喪耦空訖。悲悴度日。老兄遠垂慰問。手畫宛然。辭旨惻怛。既切悲憐之意。繼辱勸勉之語。縷縷滿牋。若不忍相忘。非平日相愛之至。曷足以及此。感佩至意。無以容喻。卽日冬寒比酷。體履何似。歲晏江上。境界稍靜。觀書玩適之樂。可占其從此益專。而多少外物。不復累我一毫。世間完福。寧有加是耶。體仁。前後幾三十年之間。再遭鰥窮。衰境情弱。比前益苦。然而惟以隨分省察。保攝殘骸。以不失天和爲務。奚足爲同志憂念也。淵舍當寒。烈風難禦。爲便養疾。入谷閉門。一倍靜寂。似勝畧界。待春開日暖。欲復灑掃庭宇。攜書偃仰。以待一二同好之來。此爲無限勝事。而第念吾輩向衰。各自多碍。誰肯爲我惠然。共做此樂也。從姪哀辭。惠念及此。不勝悲感。辭旨懇惻。正得誅體。寧有疵類可以指摘耶。遺集。既經老兄重校。想無遺憾。日前直甫兄相訪說此。欲復合席。而鄙意以爲頻複不已。恐無了期。大體已定。有難輒議。當商量收殺云云。金兄亦頷之而去。未知兄意如何。此惟在致道兄諒處耳。

與黃景初 壬辰

昨春漢城中。離合擾擾。太不從容。至今追惟。終始落在聲利場中。俱不免以得失關心。故逐處相逢說話。未暇及他。白首氣象。有足含愧。而平日所養。可知深淺。未知兄意於此。獨自念何如也。一年之間。想容鬢衰歇。異於前時。而其深於是者。亦必有可叩。能不向晚蕭索。日有所樂否。

與趙聖與 庚辰

聞有威命之降。不勝駭惶驚歎。頃見金陵鄭上舍書。謂趙兄事言之痛心。但恐其有不平之鳴。或發於樞機。使蜮弩吹沙於其傍。宜相告以警之。此蓋出於相愛之至意。其言甚有見。蓋不必以禍機言之。有道理固當然者。若不能恭而受之。正以埃之。盡排去其胸中鬱鬱之結。而欲徒掩其不平之鳴於外。則尋常辭氣之發。日用酬應之際。有不能一一存戒。而不知不覺。人得以窺之。古人於此等處。必以理字排過。幸依而爲法。更自勉於不怨天不尤人。無入不自得。安以處之之道。超然於禍患之外。而不以外物嬰其心。則深山之間。耕田種黍。課兒讀書。自有可樂。非先公所以遭憂獲譴。涉險履艱。而一不易其

所操。爲可繼可述之道乎。幸千萬慎旃。

與趙聖與 乙巳

相距數百里。嶺峽重阻。往往翹首北望。渺然如雲漢耳。欲一奮身翼風。致身於雲山萬疊之中。以覩我平生親愛十餘年前顏範。而得與之握手歡晤。以叩近日所養之深淺。亦奚由自辦也。冬律殆半。風霜搖落。伏惟蒼厓高處。伴棲雲鶻。聽流看經。意象超絕。試自念近日胷中。義理長幾分。物慾消幾分。少年客氣磨鍊得幾分。矯揉^P得幾分。想必有涵泳浸灌。漸次就醇。往往回念。或不能無獨坐發笑。不言妙悟。而此正是精微境界。真切消息。恨無由得聞其萬一也。體仁。孤坐淵亭。光景蕭條。谷裏斗屋。募人成村。聊且自遣耳。近日竊有感於考槃衡門之詩。書揭壁間。坐臥諷誦。而存養進修節度。自有古人成法。階級歷歷。或不無欣然意會處。此可以優游餘日。無求於外。向來一番憂憾。奚足留我中也。所以自勉而不敢懈者。未嘗不在此。而恨不能一聽長者奇偉之論。以激發庸庸也。蘇湖李甥。知欲就座下讀書。可嘉。然而看渠知見。姑未及精細翫討。幸須一切鞭策向裏。使之^P親切理會讀去。庶見多少得力處也。待春開。欲必作北行。此計決已久矣。若無大疾憂。不可遂已。未知能諧否也。

與趙聖紹 癸巳

頃聞兄遭伉儷之痛。爲之悲歎萬萬。而山居讀書。養得已久。豈足以一時存亡損天和也。此則不爲吾兄慮也。卽日春暮。服履何似。想不以外物害實工。近日進修之精。益向昭曠境界耶。吾儕通患。初間非無好箇志尙。欲做到遠大境界。而一朝或少不幸。遭窮憾患難。輒嗒然摧沮。無復一分氣力可以扶起。此大可懼也。兄則前此^P已大不遇於時。屏跡山門。伯仲征邁。孜孜不懈。今亦非所慮。而顧此愚劣。自惟難立。往往有此患。故及之。想爲發一笑也。

答趙聖紹 乙未

悲慘吟病中。忽承手墨遠投。審老兄服履有相。觀書哦詩。知有所樂。吾儕好消息。實無過於斯。山川間之。盍簪無期。雖爲可慨。然而誓共策勵。日月征邁。有足相期於無窮。則此惟爲不相負也。未知如何。體仁。侍率依前。隨分看書。雖不敢放下。而每念自家所患。全在知不真而行不力。多少講說。徒歸虛套。想吾兄靜坐山中。絕祛外^P誘。專心此事已久。必不如此中之脫空也。水旱疾疫。相繼爲災。國家蒼生之憂。腐儒雖不敢自任。而白屋飢飽。亦不得不關心。何莫非壞了我耶。可怕可歎。病中難作細字精寫。信筆胡書。全欠敬謹。還切愧歎。

與趙聖紹 辛亥

昨冬聞兄旆西。爲徘徊河湖之間而不肯南向。未嘗不悵然含歎。知君子之難於踐約亦如是也。咸甥之來

。叩審近日動止頗詳。謂衰白甚於年前。而筋力起居尙無恙。燕養翫討之中。不無來往問難。門親鄉友。爲築菟裘之所于泉石佳處。功役垂成。此實盛事。知平日忠信仁厚有以深入厭服。而得至于此。豈但山中淳俗。尙有古風而然耶。早晚攜童冠。入此室處。抱書高臥。歌詠先民。入谷採芝。臨水觀魚。兄之樂。爲能獨得天餉之福。而恨無緣致身其間。一與之逍遙探討也。但距家十餘里。恐不便來往寢處。尙趁山高水深。紅錄相映時節。爲武夷春間計。亦自不惡耶。體仁。杜門奉親。疾病連仍。隨分看討之工。雖不敢全然放下。而終始一病字爲祟。閉目塊坐。不盲而盲。恐不免與省緣廢事。跣趺面壁同歸也。所居平易。比兄所營築較便。而屢經大水。物色變遷。長夏滿前滄海。忽作迷茫白沙境界。始知氣化推遷。人物消息。大抵多類此。向來一番憂憾。豈足介意耶。嘗讀兄雲橋問答一篇。深仰其扶正抑邪之功。而末段一轉語。爲若過於謙虛。欠剛毅力撐意象。嘗面對奉告一笑。閒居漫述。不無所論。恨不一與吾兄共討也。

與李君普 辛丑

若和姪袖傳老兄諸作。謂老兄年來頗有意著述。而乃以無似。謂或有見。所作幾篇詩文。親自精寫。辛勤付送。欲必論列可否。此不恥下問之義也。體仁與老兄。始相遇於年少數十歲之前。而邇來聲問絕未相及。雖容貌辭氣之間。尙有未能詳記。其深於是者。顧奚由窺其萬一也。今承謬問及此。此在老兄。固爲謙虛不自滿之盛德。而在體仁則其爲可愧深矣。體仁少愚妄。嘗竊有意於爲文。而顛沛衰懶。便與永棄。或乘閒偷隙。隨分看書。而左，馬，韓，柳之馳騁。忘之已久矣。日用應副。或往往把筆措辭。而一以達意適用爲務。奚暇論向背於作者軌法耶。老兄以相距之遠。不知近日鹵莽如此。而欲取以自勵。其亦誤矣。然若一向恬默。不肯承副。是老兄不負體仁而體仁負老兄也。敢不畧效愚見。以獻其忠。竊觀所來諸篇。步武平遠。間架恢闊。極其博而不入於險怪。導其順而不間以客氣。雖無嵯峨奔汨之象。而不爲無氣。非有頭臚本領之立。而亦自雅潔。蓋其大體如是。以其博也而終約之以法律。以其順也而終達之以義理。固亦何所用而不宜也。乃敢逐篇標題。盡吾所見。錄下帖末。亦別有一說特獻。望老兄之留心加察於斯也。悚仄悚仄。

別紙

文章是儒者一事。雖不得不爲。而要其歸則當以道義爲準。不然。吾恐其無關於實用也。文字之生。始於書契。而不過爲當時適用之體。二典三謨。是唐虞適用之文。司馬，班，楊。爲西漢時用之體。何嘗有外於時用而別立爲文耶。自宋濂洛以後。諸賢倡明道學。文之悖於道者。皆不足用。吾東亦以是爲準。士之不敢遊於義理之外者久矣。况今老兄之文。其性淳雅淡潔。引而進之於道義也不難矣。桑榆既暮之境。決不可彷徨向外。何不汲汲反之於經訓。以求其實乎。得之既深而用之無碍。則感發興起之端。固不啻如一時因文而悟道者。而畢竟主客之勢。有不足屑爲於文者矣。白首相望。前路不遠。而風便相寄之書。只以區區著述爲務。則得無爲大君子之所笑乎。異日相訪。或又以手字相寄。而不以愚言爲妄。有一分採用之實。則是體仁爲不負老兄。而將與之相期於無窮。雖不源源相接。亦何害於相信也。惟老兄裁察。

答李君普 壬寅

十月初。獲拜八月五日書。族孫之來。又拜十月二十四日書。前書後書重疊相繼。而長牋短幅滿紙纒纒。非相好之出尋常萬萬。何以及此。伏審寒沍。客中起居神衛。慰仰區區。寄示盛作諸篇。每每謬辱至此。愧歎則深矣。讀某書看某文。愚昧何敢容易開口。而謂方讀大學或問。老兄已自得之矣。爲學之法。自有次序。須先從四子著力。然後可以循序漸進。而大學爲初學入頭。必先就章句熟讀。知其實爲羣經之綱。而三綱八條之工。井井排立。如八間屋子。知行始終。知不可闕其一。然後乃可以就讀或問。而驗其義理之精博。舍章句而直就或問者。亦不幾於先泝其流乎。慮衰老之不能周盡。而欲徑趨要約。則實無此理。日暮途遠。雖當汲汲前進。而何嘗有一蹴徑造。苟趨捷路而得者乎。朱子曰。苟得十許來年。何書不讀。此語當玩味。觀老兄詩。曰世皆榛塞爭趨徑。誰復川流任障濤。體仁實有味乎此語也。何其發於詩則能識此。而欲反而求之。則乃反自犯其戒也。徑趨簡約之弊。或問中已痛說之。兄可領會。須勿以老病日短自諉。而循序漸進。無敢少懈。必使秉燭之工。終有實得可觀。此朋友之望。而不但區區爲隨俗之說。千萬諒納幸甚。詩文較前進格可賀。然而既欲有意於傳訓。必要得力。則亦有所不暇於吟嘯。幸勿過用心力也。信筆及此。只切僭冒。

答李君普 戊申

昨年。聞老兄失登龍之子。爲之愕然悼惜。而計今日月漸遠。期制奄闕。未審慘毒以後。老兄榮衛豐悴。飲食起居之節。比前何如也。幸不大段摧落。一朝頓異否。族孫之來。聞平日佔畢之勤。未免因此漸廢。往往悲吟悽楚。有不忍聞者。年少口傳。雖或未的。而槩想其不能處以平實。何令人不免失所望也。氣化參差。脩短不齊。若寒暑晝夜之過前。而有不容人力於其間。此直是無可奈何處。西河失明。豈不可戒耶。况念吾年齡已晏。前路無多。這間光景。把翫詎幾。惟將一種悲歡。付諸造物而已。要自保合冲和。養真樂天。涵泳優游。歌詠先民。以終餘日。尚何足以不平之思橫在肚間。往往發爲楚聲之悽惋。以自摧損耶。意平日得力或有未深。而自貪淫著迷之日。乃不免玩物喪志。沒了主宰。一遭慘界。輒被壞誤。有未能自定而然耶。相愛過憂。妄陳及此。乃不以故人知子。子不知故人見訶否。書不盡言。只增瞻悵而已。

與金中立 己丑

杜門寒郊。歲色忽改。懷我同心。耿耿如夢。卽日新正。伏惟靜侯神衛。體仁。每念年來外氏不幸。宿德先進。次第零落。後生來往。無復可依。親友之所相期。德門之所屬望。未必不專在從者眷眷也。顧此無似。情義自別。安得不以平日所望於先長德者望於從者。而竊覲德性淳厚。任用真率。看文讀書。以涉獵汎濫。遮眼破寂爲主。此不能無疑。而欲一與相論。未知近日規模。有與向來不同者否。恨不由從容相討以叩萬一也。仍念前秋歷叩衡門。不遇且歸。兼有感昔之懷。吟得一首詩而未及相告。茲以錄呈。覽之足以知當日所懷也。并照辱報幸甚。

答金中立 甲辰

秋間蒙辱垂問。爲體仁遭伉儷之痛。而特加傷閔。辭旨惻怛。竊惟平生故人。情念自切。窮途相憐。固應如是。而恨未能卽脩覆書以謝厚誼也。卽日冬寒。謹未審靜養啓處如何。白髮相望。拚拜未易。寤言興思。日甚一日。未知近日顏貌神采。鬢鬢黑白分數。比數年前何如。而盃酒風致。尙無減於少時否。桑榆晚計。乃或漸向親切靜坐。讀得古書有味否。或時與村秀才子來往講討。策勵^P成就以自樂否。來書切於憫人而不暇自道。不畧提近日所從事以相警勉。良可恨也。體仁。年踰半百。再作窮鰥。同堂之內。至憾相連。平生奇愛如駿蹄玉樹者。亦奄化風燭。一身孤畸。若閱桑海。將何以爲懷也。然皆屬既往光景。豈以一番憂憾過自摧傷耶。谷裏新庄。募人成村。乃足以寄我家室。薄田歲收。可支臘前無飢。淵上小亭。境界淺薄。別無勝賞而功役纔訖。偃息有所。課兒應客。隨分看書。風日恬暖。溪山靜明。輒攜筇緩步。陟降原阿。聽流觀魚。此足以優游自適。而第惟法門摧敗。吾黨日孤。運值陽九。天奪滋甚。金直甫豈不誠可惜也。黃景^P初亦胡爲不救耶。白首同衰。志業易墜。扶策維持之道。未始不默與相期。而一朝至此。若虧半體。日暮途遠。恐難自立。安得不恤然懷懼耶。來書眷眷。若與相吊。尤不勝潸然攬涕也。然亦已矣。惟一二存者。相與勸勉。收拾殘景。爲毋負九原之計。而亦落落相望。會合無期。惟在各盡其力。毋敢少懈。時因便風。寄書相問。以講討所疑。乃非古人所尙耶。瓢谷柳上舍兄弟。近日安否何如。想相與來往。有所資發。而恨無由得聞萬一也。

與金直甫 壬寅

卽日涼雨滌炎。伏惟竹館深處。對書哦詩。日有佳趣。體^P驗操存之工。未始不隨事著力。隨時自勵。使吾師門欲絕之緒。庶得有以不墜於他日。而平生所學。可以少試其萬一。區區友朋之望。寧有過於是耶。體仁。杜門荒郊。意想日孤。江上縛屋之計。夙願所切。不計歲侵力屈。斷然經始。僅構得三數間。而失於會計。財力俱竭。滾穴方劇。此則古人已不免矣。况此迂愚一窮儒乎。光陰幾何。而靡弊於事役。客氣盛而天理微。一言未終而覺其有過言。一事未終而覺其有過行者。此不可不十分警省處。而亦只是誦古人之名言而已。寧有實得力可言耶。灘聲山色。境界不惡。日夕盤旋於其間。恨不與同人共^P之。而亦恐奔走雲路。意象自別。或不以爲迂愚而哂之耶。

與金行可 宗道○壬寅

衰境分袂。倍覺黯然。諷誦隱疾之詩。而歎古人之先獲我心也。卽茲熇熱。謹問老兄靜養何如。旱魃肆虐。物情洶洶。畎畝韋布。難免窮餓。想君子平日固守之節。當際此益勵。而亦非一人一家之憂而已。安得愀然忘情也。體仁。事育之暇。乃或觀書翫物。而只自消日而已。寧有意味可言耶。齋銘之托。本非愚拙所堪承。而念故人以我爲相好。欲得一言則此意亦不可孤。試草數行語爲^P銘。謹此付呈。有未足仰副盛意萬一。覽之想亦發一笑也。第念居窮處泰。其道一致。欲實有所固守於其間。則非平日得力於義理者。不足與議。若只以一箇固字把作題目。強忍堅守則吾恐其未必能固。而適足爲心恙。豈不猶念中者之反爲中字所累乎。故於銘語中。竊以讀書講義爲第一義。講之旣明而得之旣深。則庶將漸至可樂。而自然忘了窮字。尙奚論所守之固不固耶。想老兄平日固已有得於中。而志氣衰倦。恐或爲一窮字

所撓。以此欲仰勉秉燭之工。而亦欲以自勵。實相扶共進之義也。未知如何。

答金士濬 乙巳

天寒水上。風霜搖落。閉門山樊。獨坐懷人。每念春末東井之遊。忽忽已半歲事。而一區林壑。頽然入夢。未知約中同志果已先我著鞭。爲前驅首事計乎。已能攜家入洞。突兀起新屋否。漠然不相聞。未嘗不來往在中也。乃忽見故人解此。先辱以書。伏審靜養神衛慰幸。而第惟蒼松一壑。圖書滿室。俯讀仰思。晚工專靜。必有日夕自得之趣。妙契於黃卷中。而何不畧提及此以相警發耶。可恨可恨。體仁。奉親絜幼。碌碌依前。淵上小築。境界淺薄。別無可稱。日間有數三童冠來受課學。知友亦往往相訪。得與警發款吐。遇風日溫舒。溪山靜明。輒攜筇緩步。寥然獨往。歌考槃之詩。詠衡門之章。陟降容與。尋梅觀魚。返而入室。陳編滿架。手焚鑪香。整襟對案。讀朱子書十數遍。間以考諸賢遺籍。隨意玩討。清夜孤坐。誦古人名言。如四勿，敬齋，夙興夜寐，夜氣箴等篇。詠歎玩味。反復不已。此足以優游餘日。自適無求也。然人生惟隨地自娛耳。亦豈終係戀於此耶。名鄉山水。寤寐入夢。第一爲名勝可居。其次與同好卜隣。待諸賢定頓後。從當假東隅近溪一片地。藉成數椽屋子。此意已定。豈終相誣耶。惟洞裏無水石可處。嘗觀洞之南越小麓幾步。有^P一局。窈窕寬閒。眼前白石籠山。隔澗相對。望之甚奇。足以卜築藏修。曾留意看取否。嘗與李兄仲則指點擬議而不忘于中。卻恐非力贍者。不能辦也。

答柳仁伯 辛亥

朋友道缺絕久。忠告責善之言。有未得聞。忽憑遞便。遠辱情訊。以病拙向來有一番不忍當之境。滿紙眷眷。不暇出一語直以責勉。慰諭爲急。多方援譬。辭旨警切。此古道也。感誦欽歎。豈容盡言。矧伏審際茲潦災。歡養有相。區區仰賀。體仁。禍厄偏劇。瘞子哭妹。淚眼未霽。晚景苦懷。蓋或有不可堪忍處。而不以無益害有益。平日誦^P此言已久。豈終爲友朋所憂也。曠達之教。所當感佩。但這話頭有所從來。卻恐爲病。不若知命順受。心無留滯等語爲得平實耶。一疾三年。當暑倍劇。閉門塊坐。不敢近風暘。看書對人。往往失其真面。霖雨成漲。江海連簷。亦無由扶杖臨高。極目縱觀。似此意象。不免與省緣面壁同歸。若不於主敬存養之工真實得力。懼或爲壠頭尋春客。此可戒也。雖然。惟在自家用工如何。其虛實真妄。豈足向人分踈耶。

答柳仁伯 己巳

杜門山樊。朝夕垂死。一書口號。便作大事。非大用意大^P振作。難以自辦。以此時或有便向北。而不能以一字相寄。卽蒙不較先施。滿紙辭語。殆若奉晤。非君子之篤於故舊。何以至此。矧審際茲獻發。茂膺難老一向神衛。仰賀萬萬。同儕云亡。乃亦理之常。謂之何哉。顧茲殘喘亦當隨分養疾。符到卽行而已。第於未死前幾箇月日。惟當以衛武公九十箴倣爲法。豈敢自棄耶。但阿堵所患。比前無減。無以任意看書。往往閉目塊坐。欲提誦平日所習文字。而亦茫然不能記起。所謂捐書絕學。白地成佛者。未免相似。寧有可言耶。

與鄭昌伯 庚子

年來。知嘗來往蘇湖。而未蒙一訪。不能無介介于中。即日秋深。伏惟起居冲勝。相別之久。倏已多年。榮衛想益憔悴。鬢髮想益蕭颯。志氣能不與之俱衰否。晚工過時。有不得不百倍致力。此不佞之所方恤然含傷。而往往興懷於同人者也。年前錦門精舍四大字。蒙辱書送。感珮珍藏。趁此年豐無故。乃欲下手經始。而第其基址不便。改卜於水上數十步許。是不爲洞門。而只是滄洲斷岸。故欲改號曰錦淵精舍。不得不更煩故人。幸不憚一番勞撓。復惠四字。使之輝映江山。則不但老夫將沒身觀瞻。草木魚鳥。當與被其光。何莫非吾故人所賜也。季真南下。暫此付書。而及此同衰暮。非復別離時。况握別又無期耶。臨書悵悵。

答柳士極 逢○甲寅

杜門山樊。吟病孤臥。忽里中番卒。千里奉書而歸。謂嘗分屬直所。日周旋出入於門下。爲誦其直中起居狀甚悉。且言辱詢此邊聲息。眷眷不忘記。可見其篤於情思。不以閒忙遠近有間。而滿紙縷縷。手畫宛然。若更拚晤。令人驚喜。繼以感歎。白首遊宦。屢經寒暑。神扶愷悌。動止清裕。直所清幽。不妨讀書。君子仕優之學。未必不隨處著力。爲應時需用計。多賀多賀。體仁。阿堵之證。逐年彌苦。論文講書。有未能極意看破。舊忘新味。日覺鹵莽。日用翫適之樂。豈有足說向與人者。而看書應客之暇。往往攜筇理屣。陟降原阿。聽鳥觀魚。聊以度日。所謂人不及知之妙則有不敢擬議萬一。豈欲故與相戲提問及此耶。德門二妙科聲。運係陽復。而不世恩典。由是重疊。豈獨爲一門之幸耶。泮中同遊之或竄或化。令人驚悼不已。而權兄其天無恙供職。柳兄天瑞又罷旋復。亦云幸矣。日夕從遊。亦或有好說話與共講論。隨處自樂。欽想欽想。

與柳士極 甲子

豚兒鼎輝。歸自美洞。謂邂逅管謁於客中。且傳韶顏不垢。神彩朗然。跨馬來往。惟意所適。未知何修而乃特如是康寧耶。古者仙翁有號稱河上丈人。今居在河上而黃耆無疆。依然作地上仙老。前後一仙翁。幻現度世。至今無恙自在耶。即日冬律伊始。謹問令體動止何如。大江之上。風煙捲舒。光景浩蕩。竊惟隨時取適。遣興言志。想有靈真歌曲之作。與世俗哇音不同。而顧此癯殘。落在穴臼。仙凡相隔。渺如蓬弱。雖欲得聞一闋聊滌鄙吝。烏可得也。寂寥山樊。杜門孤臥。衰病垂死。哭盡朋親。而晚谷翁又奄作古人。孤懷廓落。若無以自聊。逝者已矣。而存者亦無由際接。落落相望。餘日無幾。安得不恤然增懷耶。聞美洞書塾。有坡州金學士元韻。和者甚衆。瓊律亦在其中。令意勤至。爲主人從中相引。送言求和。自惟疾病衰朽。不事吟嘒已久。而既辱謬懇。又不能無感於學士遺蹟。黽勉構拙。錄呈別紙。惟冀俯覽見哂。

答金季範 乙巳

薄暮相求。乘月渡水。聯枕江皋。一宿穩叙。此意何可忘也。還稅未幾。又辱清札。辭旨慙懇。兼寄眎馬上佳句。非故人相愛之情出尋常萬萬。何以及此。乾鰈之餽。吾儕晚計。一般清素。豈有餘味可以及人耶。况山居啗菜。習^P性已成。實未知梁肉之勝似葱麥。或未諒及此耶。仙凡高人之句。只增愧汗。殘年拙計。偶占江岸。所居未免超絕。而顧惟自家胷裏塵滓未洗。仙流高處。固非可擬。而道在卑近。貴循平實。亦奚嘗要爲高人耶。好笑好笑。秋至埃韜熟魚肥。趁月踐約。足以酬一番佳興。切仰切仰。惠韻。忘拙仰報。惟冀一粲。

答鄭上舍 履寅○庚午

秋冬之交。氣候不適。重侍履用珍謚。嚮慕旋切。高靈行旆。已訪青泉翁否。果有奇論。足令人激發否。昔蘇瀨濱年十九。上書韓大尉。欲盡天下大觀。今執事當其年。果^P無讓蘇瀨濱乎。青泉無讓韓大尉乎。嚮者高旆從此還。爲雨師河伯所戲。行李艱危。是雖主人不能繫駒投轄。亦由執事拂挽固發以致此。滄浪之責。卒有所歸矣。當時行旆到屏川。川雨後波悍且無船。爲執事計者。固當從此復路。還宿弊廬。待明日歸。明日雨。復明日歸。復明日雨。復明日歸。自五日六日雖至九日十日。可埃雨晴水落。無憂然後始歸。胡爲望望然冒險不愛身。且夫徒涉。雖安流順波。非勁壯者不敢爲。况怒濤衝突者乎。雖水至腹。不敢爲。况腋而肩者乎。一猶不敢爲。况於再乎三乎。是亡與鄒孟氏巖牆之戒相違乎。是亡爲知命者^P所諒乎。體仁固總髮者。出入不頻。故不曾涉危蹈險。用是爲執事獻規。亦用自規。微執事。將無以發吾狂言也。

與鄭上舍 丁亥

春寒尙峭。侍履萬重否。體仁。只是依舊。看文字。雖不敢自廢。亦未能專致。拊循平日所爲。則本末緩急之序。未嘗不錯料而逆施之。今纔七八分休歇。而所以移其力以從事者。又不得不爲外撓所奪。得之不深而存之不固。養之不久而積之不厚。發於言語事爲者。輒覺罅漏百綻。往往可駭。若得彊輔如執事同處。則其相規麗澤之道。必有與之相長。而忘我實多。終不肯顧。安得不爲^P之深歎耶。

答李德而 萬運○戊戌

嘗見謂孔子待曾子。真積力久。始語一貫。而朱子以無極太極之妙。遽望初學。以圖說首近思錄。殊爲可疑。其說纒纒。尙今可記。未知近日所見。於此又如何。積累涵泳之工。終有所不念乎此。而一朝渙然開悟。則或不免獨坐發哂。而乃將覈其所異。覩其所同。未知如何。又聞左右近日頗留意吟詩。信然否。吾儕通患。其始也泊於場屋。幸而了此則又專從詞華走了。組綴吟諷。無一人肯回頭向裏者。斯文之所以寥落而終無可告語也。左^P右嘗念得及此否。自惟老拙。才志極劣。區區俗學。尙不能及人。而乃敢開口語上。若自有所爲得。不爲先達者所笑否。慙報慙報。

答李德而 壬戌

客冬。蒙冒寒歷訪。坐席未煖。立馬催發。殘年一別。只感沈隱侯詩意。其後豚兒歷便。獲奉情訊。慰感良深。便因頓阻。迄未奉報。慨我寤歎。不勝耿耿。卽日春序殆半。伏惟靜養萬重。年及既耄。外念漸歇。專心向裏。隨分加工。或不無獨得妙悟。中心悅豫境界。而落落相望。未由與之相叩。豈非臨死一恨耶。體仁。衰病沈淹。與歲俱深。頓覺前路漸窄。惟將符到卽行而已。近日偶讀詩小雅。至溫溫恭人。如集于木。惴惴小心。如臨于谷。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一章。不無反躬意會處。閒居養疾之暇。往往諷吟。過了一兩番。竦然若有警悟。朱先生所謂曾子一生工夫。皆從戰兢中做出來者。豈非的確至論乎。垂死殘喘。萬念俱灰。杜門屏跡。以是爲家計。相聞之或有所默契。而爲之發哂也。

與任公弼 輔○甲午

近日潦雨。僉孝履何似。夏間轉辱寄語。謂或有遺札所藏。而欲卽封還。蓋平日往復承誨。非止一再。只緣少也愚昧。不謹藏弃。所存只是庚寅十一月所承書。而紙頭一面。爲迷兒所裂破。不得不帖以新紙。悚仄悚仄。竊惟日月寢久。實蹟易晦。不卽記載。恐有後悔。古人必於葬時刻銘。不待喪畢者。蓋有以也。顧今秉筆之門。道契不淺。若及此無故之日。而自修家狀一通。詳載志行。孝子躬詣泣血。願得一言發明。則不必更待銘碣。而一通行狀。自足傳信。曷不汲汲以圖哉。今欲修爲家狀。則亦不必著爲一篇圖文。惟在僉哀及再從氏戚兄與及門親切之人。相議筆削。一冊合載。以此請文。則秉筆家自當隨意去取。未知僉哀意如何。

[주-] 沒 : 汲

答任公弼 癸卯

卽茲新正。蒙辱委人垂問。審靜履神衛而賢季氏祥日且迫。孔懷之情。安得不爾也。况以痘患行祀極難處。重爲之歎且無已。所詢儀節。向者再從氏說及於此。而只舉村憂問之。故亦只以家中無事則當齊潔行祀云矣。今承示。孤兒方犯痘。主婦遑遑無暇。是其難處。豈非萬倍於從氏所云耶。金上舍之說固好矣。古者卜日而祭。依此退行。似亦有据。或者所謂因禫除之之說。恐未合禮。未知如何。

與李仲綏 己亥

鄉者。家兒從軒下歸。以爲吾兄於近思錄一書。自謂有可疑而無問處。足以見其用意篤實。下工真切。體仁。嘗竊以爲近思錄爲書。略與大學相類。必先有以知其規模之廣。節目之備。科級井井。問架分明。有本末體用之全。然後乃方就其中。有以逐段翫究。一一理會。使求端用力之方。處己治人之道。無不歷歷探驗。真實體認。明誠兩進。敬義夾持。則凡千古聖賢成法。無或有出於此者。而進而博極經

傳。不過以此爲階。循序漸到。其文句字義。雖或有一二解不得處。亦不害爲學。而且將積累涵泳。漸次融會。或因知友講論以發之。或由自家反覆參驗以得之。豈足深憂哉。體仁。以庸愚。半生虛拋。及今既衰之日。聰明日減。神思頓散。雖欲收拾舊聞。填補罅漏。爲少酬師友之計。烏可得也。顧惟本心未泯。隨處發見。往往中夜拊躬。恤然含愧。思欲得如吾兄者與之朝夕遊從。相與扶策。而亦不可得。殊可恨也。雖然。年齡已暮。志業難固。有其意者未必有其事。得其名者無以副其實。此惟可相念。不必以區區面貌顧戀也。

答李仲綏 辛亥

前年夏。獲拜惠書。手畫宛然。若奉款晤。此我之所嘗含意未遂者。而乃故人先之。始知兄之愛我甚於我之愛兄也。此固可感。然而若所謂山頽樑壞。賴有扶豎等語。何老兄之見教至此。儼以不倫也。山樑頽壞之後。遺緒墜地。蓋無人拄得一脈。惟有若而同志。散在諸處。雖未得源源相接。而欲與之精白一心。無敢少懈。時以書疏來往。有得必相告。有疑必相難。無敢自是。無敢自畫。萬一不負先覺君子。爲後人期望之意。則此近日垂死所冀。而亦同志之所當相與共勉者也。豈一人之所敢擔夯耶。想老兄之意亦不過如是。而遽欲把作題目。只見其不免失口也。未知如何。江國春生。景物欲妍。玩理忘機。正於老兄爲著題。閉門看討之餘。亦或有逍遙玩適時日否。知嘗與李向之有并轡左顧之約。過時已久。非敢必望。而第念向之晚年。意象不草草。間有秉燭之工。吾儕此等消息。正不易得。欽尙何已。知相距不遠。必有往復好說話可聞。而無緣相叩。良可恨也。

答李仲綏 甲寅

昨年辱訊。宛若款接。而來往無便。一書難傳。至今再易寒暑。闕然無報。時一念至。未嘗不惕然興慨也。卽日窮汨。兄靜養神休日有玩會。而賢胤昆季亦唯諾趨庭。服習詩禮。有不寥寥。吾儕晚景所樂。寧有過於是者耶。體仁。屏居事育。隨分飲啄。而落木山樊。抱病龜縮。環顧宇內。朋儕漸稀。其幸存者。亦各衰倦。際接無緣。往往翹首興思。依然若夢中人。盍簪麗澤。未易復望。安得不爲之興嗟也。一日未死之前。尙有一日之責。有不敢全然放下。惟將收拾殘書。溫理舊聞。反身體驗。填補萬一則庶不至爲臨死拋棄。見斥儕友。而阿堵受病。逐年彌苦。不得極意看破於古人文字。塊坐深房。捐書絕學。未免與陸學同歸。可懼亦可笑也。近日與向之亦相來往問問否。向之近有作醫翬翁說寄來。欲必爲一言以相之。故畧爲說後叙以遺之。以陳瞽見。若并覓兩作而試觀之。亦足以當一番面晤也。豚兒年少多病。非無些箇志尙。而無以遂其志萬一。書末見念至此。豈不可愧可感耶。

與金汝好 始全○乙卯

吾南近日。疊蒙聖恩。六十年戴盆之冤。次第昭雪。天理固應如是。而亦由孝思上格。動悟天聽而然。凡爲吾黨後生者。無有遠邇。固將感泣相賀。齊頌天恩。罔知攸報。況於其爲子孫者乎。顧惟無似。非但爲戚親之至。撫念疇昔。情誼自別。當改題稱慶之日。敢不挺身勇赴。祇謁廟前。退與外氏諸戚握手

獻賀。而第以庸殘之質。向衰多病。一自春間大震盪後。茶茶如枯木朽枝。兼以眼疾。無由出門。眷言興懷。只切感傷。惟祝盛禮無撓^P穩行。遠役之餘。起居萬重。以副遠懷。

與李向之 辛亥

白首相別。去留銷魂。而臨江分袂。折柳贈行。亦不害爲一番風流耶。大江之濱。春景已闌。卽惟觀書翫物。燕養有相。語類抄錄之工。一向趨趁作課否。每念儕友中。如吾向之者儘難得。向來一番意象。非不迭宕留連。而桑榆旣晏。節次斂約向裏。操持淳實。見解明的。一宵聯枕。槩窺所存。區區欽賞。豈容盡言。第念衰境精力。與少壯不同。用工節度。雖當一倍嚴密。而保蓄頤養之道。不可不十分自愛。漁獵古書。左抄右錄。汨汨要作手中便覽^P者。卻恐無補於身心而爲害不少。愚意莫如將一敬字。隨時隨處扶策涵養。勿太拘持。勿遽放下。時以古訓澆灌胷次。以此爲晚齡究竟法。何苦逐逐筆硯。枉費心力。若年少人伎倆耶。相愛之切。漫說及此。未知得契雅意否也。中庸首末。存省先後之序。夜間對討。未究其說。此在語類中庸篇最末三十三章。有問首章只言戒懼謹獨兩節工夫。末章復發此兩條云云。朱子曰。首章是從裏面說出外面。蓋自天命之性。說到天地位萬物育處。末章自外面一節。收斂入一節。直約到裏面無聲臭處。鄙說實以此爲斷案。而第見溪訓。有曰首章以成德言。^P故先存後省。末章以進德言。故先省後存。高明之見知。亦有得於是矣。兩說雖若不同。然愚意以爲若主本經正義觀之。則不得不以朱訓爲定。而反諸工夫論之。則溪訓又覺親切。後學似當以是折衷。未知如何。秋間。倘蒙與李兄仲綏并轡肯來。得踐前約。庶將逍遙拚晤。更究未盡底蘊。而恐輒被造物兒戲劇了。難以遂計也。

答任君輔 輓○癸卯

公弼季氏祥事。終何以處之。前者鄙書未過時不禫之說。本非提擬於此也。大抵三年通喪。以二十七月爲限。使其祥事若退行於二十七月之後。則是爲過時。不可^P復論禫祭。而只退行於仲春則是爲二十六月。季春可以行禫祭。如是而遽諉於過時則其爲失禮何如也。故在開元禮曰未再周而葬者。二十五月練。二十六月祥。二十七月禫。今以正月祥事而退行於二月。則豈非所謂二十六月而祥者乎。二十六月而祥。則二十七月。何以無故不禫也。禫或過時不祭。而小祥大祥則雖或不幸而至於逾年。不可闕而不祭。直自變服。或者所謂不祥而因禫除之云者。此無可更論矣。然祥事之退行與否。惟在更詢知者審處。區區愚見。不敢質言。而日子已過。想必有以處之矣。幸回眎可否如何。

答都聖瑞 尙郁○甲子

衰病杜門。日與死迫。忽承珍札因便遠投。不嫌平日之無面雅。而瀉出衷情。樂與相告。滿紙縷縷。手畫爛然。自惟愚陋屏跡山樊。與當世相踈已久。顧奚由得此於座下也。東岡先生遺集。此平日所願見而未獲擊覽。特蒙糝縑具帙。寄惠封。使末學固陋。得以仰窺大君子盛德光輝而有所興起。老兄之惠我周行亦至矣。承示謂嘗得見闢邪之論。知所養之正。竊惟愚昧過慮。偶述及此。初不欲廣煩人眼。而見教

至此。只增愧赧無已。其見解辨說。乃或無罅隙可論耶。杞菊軒一區。可想其晚景^P棲養之專。而顧此耄荒。神思短乏。何由爲老兄效一言耶。重違勤囑。畧述數行以呈。惟冀一覽覆瓿。

答都聖瑞 乙丑

賢胤遍歷江左。逶迤數百里。來訪於寂寞之中。目其貌。耳其言。可知其爲長德賢器。杜門孤臥。病懷寥落。而乃忽邂逅拚叙。一宿聯枕。衰病中一番嘉會。寧有加於是者耶。况伏承珍緘遠寄。不啻若親承顏範。不意獲托神交。續接情訊。源源至此。區區感幸。體仁。猶幸近日眠食姑依。方春日暖。萬彙昭蘇。往往攜筇理屣。陟降原阿。聊以自適。亦或起懷同人。拄杖遐顧。不勝耿耿。而無由際^P接。安得不爲之興喟也。沈隱侯詩意。此季章之所未及知者。而垂死神交。亦有與別離較異。臨書冲悵。倍覺惘然。非共老同懷者。亦無以識此意也。前所呈軒銘中。有一句欲改處。玆以錄付賢胤。領照幸甚。

答姜士郁 世文○丁未

春間蒙辱訪。拚別未幾。繼垂情訊。辭意鄭重。兼以瓊韻尾贈。寄意超然。自惟愚陋何以得此於故人乎。三復吟翫。不勝感歎。第念一區藏修。初無形勝可言。所謂近處無山。隨分占取者。而書中稱說太過。卻恐山靈浦鬼。有不肯冒受於此。而若所謂主人清風四字。全不著自家^P真面。所謂簞瓢太極。寶匣蘭珮等語。無一句近似者。所以泯默惶愧。不知所以爲對也。方有暮降之制。吟詩押韻。恐非其時。要俟後追償。或恕諒否。大抵爲詩之法。以記實著題爲貴。所以稱爲有聲畫。何嘗有摸虛寫空爲畫者乎。君子謹言之道。朋友箴警之義。要當以循真責實爲務。而詩人之工拙生熟。亦必於是可驗。有不得不審也。傾蓋如舊。不敢自隱。蔓陳及此。想覽之爲發一笑也。

與李穉春 壬子

行旆西爲。潦暑交劇。伏惟跋涉長路。旅遊神相。體仁。杜^P門吟病。甘與當世漸踈。忽因遞傳。伏讀閏月二十七日筵說。大槩及再疏批答。有以仰認再伏闕下。輒得上徹咫尺引對。天語丁寧哀痛惻怛之教。足令神人感泣。且蒙恩除。一路章甫。與被榮寵。此固爲不世之恩光。而筵前奏對。又極痛切詳明。平日家庭所講。可謂於是畧効。豈不重爲攢賀耶。自今以往。吾東土幾晦之義理。幾墜之綱常。庶幾由此更明。此其所係。果何如哉。吾嶺自以三百年忠義之鄉。幸得辦此一事。將有辭於天下後世。伏聞諸君子義氣愈勵。雖九疏十疏。冒萬死極力必爭。以窮討根柢爲期。此非義理之^P當然。而有不容遂已者乎。似此病拙。同出秉彝。中夜起坐。自不覺喜而不寐。第念疏儒自處之道。不無少可商量。千里匍匐。相率叫閭者。蓋其意不欲只翦枝葉而已。方於力請窮討之日。而乃蒙恩除出於望外。若遽爾承命出仕。則是多士本意。有難自明。而其於上動天意。下愜人望。得辦大事之道。恐未免有所如何。伏惟諸賢方居輦轂之下。日與縉紳諸君子相對論確。其思之非不爛熟。其處之非不周盡。固不待區區遠外愚妄之說。而私憂過計。有不敢仰瀆疏廳。敢以私布於座下。惟冀千萬諒裁。曲垂恕覽。

答李穡春 乙卯

即日溽暑如蒸。伏惟觀書養靜。啓處神衛。體仁。春間大震盪以後。神氣絳綴。若老樹經寒。索然無復生意。兼以眼疾當暑倍劇。閉門塊坐。拋卻書史。只是作面壁胡僧而已。卷裏尋數之工。固無可議。而淵上春夏景物穠妍。啼鳥游魚。非無可娛。猶未得優游陟降以瀉幽鬱。以是神思日覺昏昧。本原日覺荒蕪。安得不起懷同人欲得。有以策勵警發而不至墜墮耶。如左右者。本以聰明姿地之美。一生濡染於家庭之間。淵源旨訣。自有親切所受。桑榆進修之工。所以繼述箕裘。發明家學者。想愈老愈篤。而來書見教。乃自謂頻作不緊出入。荒卻自家蔀屋。未知此何謂也。向人自道之辭。雖知其出於撝謙之至。而竊窺其語意之切。亦或有因事反省。而不無追悔耶。未知嘗出入向何處。費卻幾許日月。而若論其緊與不緊。此惟在厥初當審行止而已。若是關於義理事勢之當然。而有不容駐得。則是固爲緊要底。自家蔀屋。固將依舊自在。不必慮其或荒。或非關於事勢。而只爲外物所牽動了。若被人拘使而然。則是誠所謂沒緊要底。可見其蔀屋之未免從前荒廢。而空虛無主已久。何必至此而乃歎其始荒耶。自惟極陋。固不敢以此更爲賢侍慮之。而平日自戒。未嘗不在於是。惟恐有所或忽。故信口及此。幸須與際可戚契同覽。而一笑其愚妄如何。

與李穡春 丙寅

炎海絕島中。鯨濤洶湧。毒瘴漲天。非平日義理浹心肝。學力透骨髓。素患行患而不以死生禍福動其中者。固難望其樂天知命。無入不得。而聞向來威命之降。一室門族。無不驚惶攬涕。乃獨怡然就途。不以幾微見顏面。亦足以驗平日得力於家學之傳。而不爲窮憾失容。區區欽賞。有足相賀。而顧惟爲儕友者。與自家較異。安得不爲之躑躅顧懷。忽忽無生意耶。計今發行已久。想已得抵島中。觸冒風寒。遠涉江海。安保其卒能無事穩泊。而蠻鄉缺舌。方俗自別。其物情好惡。或與常性不近。將何以住接聊遣也。或有所謂醫師藥餌之可以緩急相酬。聊自攝養否。昔蔡西山自西山絕頂。直赴配所。子九峯從之。徒步跋涉。腳爲之流血。到楚越窮僻處。禽鳥號鳴。一行無不嗚咽流涕。而父子相對怡悅。論孟子夜氣章。此正君子平日定力所致。想平居尙論。亦必爲之擊節欽歎也。自惟窮約。無一物效情贖行。惟以寂寥數語。提誦及此。欲必以前脩爲法。亦窮途相期之意也。惟祝信道篤敬。勿少挫沮。時以聖賢格言澆灌培植。益礪其鐵心石腸。而有以自立。卒無愧於古人。幸甚。

答李穡春

千層海浪中。翻身脫出。首尾究竟。曾未數朔。而歸臥林園。歌詠聖恩。凡爲吾南路臣民者。所當一體感誦。圖報無地。豈曾只爲當人乃已耶。惠覆辭意。委曲詳盡。可見其一時患難有不足介滯胷裏。而神思精念。無減平時。恨未得一鞭馳進。得覩其勝昔髭髮而與之從容拚叙也。體仁。衰病不死。閱盡無限慘境。萬念俱灰。而時於病中。或念及從者宥還。覺令人稍有生意。爲亦不失性情之正者耶。

與金子野 塚○乙卯

千里遊宦。奄遭羸博之痛。此豈白首翁所忍當者耶。自惟耄荒。亦嘗積傷於喪威。聞人極慘閔處。不欲念及提說。所以令翁既扶曳冤禰。解紱歸鄉。而至今闕然若相忘。未得以一字致問也。第念吾輩平日。不無所受於師友者。及茲不幸。政當驗其所養。未知能節抑自愛。不以無益害有益否。年前此間哭子時。令翁特垂存慰。至以過毀傷生爲戒。辭意鄭重。有足感認。今體仁之所以仰報於令翁者。亦不出此義。豈曾有別語可獻哉。體仁。餘禍未盡。又哭長子婦。臨死之際。悲憂交劇。區區志業。未^P免全然放倒。不勝愧忸。

與李致道 塚○癸卯

樸馬衰衣。儼臨窮巷。顛倒恍惚。繼以悲感。而適有劇憂。未得從容奉討。及其纔發。大雨竟日。未知行幾里停止而討歇何處耶。至今耿耿入念。繼以不安也。卽日炎熱漸苦。未審侍殯氣力如何。體仁依侍。而季真竟不起疾。白首相依。一朝至此。其痛惜何如也。文集考校之役。此實斯文大事。一二同志已經勘照。自惟愚陋。年紀差下。見解迷昧。固不敢與議其間。而孝子躬抱來托。有不敢自外。况念吾輩爲先師地。所當各悉所見。各盡其心。有^P不但區區退讓遂已。故再拜奉受。盥手擎讀。伏惟我先生道學之正。文章之盛。固有足以質諸既往而無愧。竣之方來而不惑。遺集之得行與否。是關於斯文之興衰。時運之盛衰。爲吾黨者。曷不汲汲致力。收拾編輯。謀所以嘉惠無窮耶。謹依哀教。逐處籤標。自字畫文句之細。以至篇章義例之大。凡有所疑。無不提表。惟以不隱謬見爲務。或於諸兄標識之上。又別付標。不敢有所雷同。哀教雖固然。而終涉未安。未知如何。所付標處。欲輒以鄙名自表。亦涉煩猥。特加小圈子以識之。覽者亦將無患於相混也。痛慕錄。足以見哀兄紀述之詳。編錄之勤。^P出於至誠純孝。非平日薰炙之親。見解之明。豈得以形容至此。大君子盛德光輝。固不容湮沒於世。而家有賢子。闡揚無憾。豈門下諸人所嘗區區撰錄者比哉。奉覽一通。不覺萬萬欽歎。亦依哀教。畧以所見付標。惟可否是矣。體仁。竊惟子弟之稱述父兄。門生之發明先師。跡涉嫌疑。所處自異。故自始遭樑摧之痛。同志相戒。未始不以是惓惓。凡厥文字施設。特忌張皇。務從簡約。而今觀錄中所載。哀兄所與直甫兄書中。亦謂寧卑毋高。寧淺毋深。惟恐一毫有差。又謂寧失於踈漏而失實。不敢過於詳密而喪真。此其言可謂不循俗謬。迥出常情。非^P的見義理之真而無一毫私意之間者。豈能若是乎。此等處。不可不特致審慎。務要嚴謹。故昔朱門諸子稱述夫子極其說。而不過曰及其久也。中一外融。人不見其持守之力。果齋說 或曰。養深積厚。不待操而存。不待索而精。勉齋說 溪門諸子。贊揚老先生極其至。而又不過曰天品甚高。充養有道。文峯錄 曰。從容中道。忿厲未見于詞氣。罵詈不形于婢僕。月川言行總錄 曰。不見其著力矜持。而亦未見懈慢之容。秋淵錄 莫不就大賢分上工夫切實處發明。不無操縱審量於其間。豈故爲謙抑而然也哉。蓋不如是。不免有所未安。而有未得爲停當道理故也。文集六^P冊。謹封投還。其餘亦繼此得覽。幸甚。

與李致道

趙生奴來。謹承哀覆書。兼奉受文集九冊及白冊一卷。有以仰認孝子用意之勤。而足令人興感不已也。

회병집(晦屏集) 신체인(申體仁)

卽日庚炎正酷。謹未審孝履如何。廣興墓砌之崩。不勝驚歎萬萬。此蓋由封築之際。有未能堅完致此。當日賓客門生。皆不當辭其責。然而向來一番雷雨。蓋極乖常。亦無怪其有此一時震驚之患。安得不云爾耶。想已及時虔告。補完無憾。而顧此無狀。落在穴窠。不能以時登省。只增慚恨無已。所來九冊。僅得攷校一過。依前貼標。此與平日從容侍側。有疑必問不同。惟在哀兄諒照。奚必要向人人說此耶。惶仄惶仄。白冊。謹依教填寫以呈。鄙錄原本。早晚覓還。如何。文集。謹以所來紙封還。領納幸甚。

晦屏先生文集卷之五

書

答金景蘊 丙辰

日前憑遞傳。竊聞將攝有方。漸復冲和。便風惠札。忽此來投於寂寞之中。恍惚如夢。驚喜則深。而第審牀第所慎。尚欠昭蘊。至有耳目肢體之患。而鵠原湛樂。未得隨意來往。此何與傳者說相謬也。第念君子自愛。多方慎護。雖或未盡復常。而可想其大勢已歇。視聽運用之往往不能如意者。只是衰境常證。願兄未曾得服仙丹。奚由獨免此患耶。弊亭韻。辭致和厚。題品消詳。臨江一屋^P子。頓覺生顏。感歎珍誦之餘。亦足以仰認故人胷裏。自有一段活潑意想。隨分自適。吾輩晚年所尚。亦惟在此而已。體仁。杜門吟病。幸野麥登場。孟飯穹然。山腰水曲。飽喫逍遙。一區花鳥。與共太平。自惟此生。亦不可謂不遇於時也。每誦程先生萬物靜觀皆自得。四時佳興與人同之句。未嘗不欣然有會于中。願所居孤絕。時當盛暑。賓友罕至。恨不能與人同之耳。司視受病。不便看書。舊忘新味。日就鹵莽。來書所詢燭舊契新之味。固無可論。而塊坐終日。無與晤語。惟一心耿耿。寤寐古人。則或有之矣。盛律所穉夢中時見古來賢一句。雖若許之太^P重。然亦不可謂全然孟浪不近語耶。前路漸窄。餘日無多。而各滾衰病。際接無期。惟祝棣史征邁。各自保重。時以尺書相訪。略討所蘊。伯氏前當別致一書。而乏楮未果。若蒙聯照及此。庶幾領我孤懷也。

與金景蘊 己未

頃承辱覆。謹審攝養神衛仰慰。而所示欲慎醒收拾。不忍自畫之語。令人欽尚。先伯仲氏平日征邁之工。至今專在座下。勉之哉。勉之哉。湖上校刊之役。近日得聞消詳否。竊惟此舉。實係斯文興喪。其校整一事。固非一二臆見所敢主張。高山本。此乃及門諸老之所共盡力磨^P勘。本家孝子之所嘗協心寫藏。其大體粗完。已成定本。今於臨刊時。只當攷其字畫之訛。魚魯之錯而已。似不必廣引齊會。徒涉張皇。而近聞一二年少與本家人隨意去取。舉措未妥。自惟無似。以疚燬荒迷之極。固不敢仰首開喙於其間。而如吾景蘊氏。乃獨非前日及門同志乎。願念分誼。有不當徒守玄默。何不一折簡于穉春戚侍。勸其必一依高山本登刊乎。孤卧廬次。百慮俱灰。而言念及此。力疾轉懇。惟冀俯覽諒處。

答金景蘊 辛酉

卽日冬律漸深。謹問靜養體度何如。近間想不無所從^P事處。或有新得悅豫境界。而無由相叩。寧不耿耿在懷耶。朋友雖固有通財之義。而今世衰矣。此不可復論已久。而惟賢者之於此老。獨行古義。終始惓惓。此則非人人之所可爲。而亦不敢望於人人也。衰病垂死。無一物可以相報。惟以將死一言。仰替千金之獻。馬伏波曰。窮當益堅。老當益壯。上一句。固老物所方自勉。而下一句。賢者亦當與之存念。未知如何。田單勵氣巡城。身操版鍤。吾輩衰境。亦不可無此意象。要自振發。一日不死。有一日之責。勉之勉之。斯文不幸。先進淪沒。習尚物情。較數十年前。不啻萬丈一落。吾儕數人。乃獨至今不

死。子^P然若無依。時一念至。豈不恤然喪心耶。

答金景蘊 丙寅

索居江皋。便使阻絕。不以書尺相訪已久矣。自惟七尺未化。一息尚存。而世間聲信。若漸踈絕。未嘗不拊躬笑歎也。卽此匪意忽辱手札。以此間所遭偏劇。而歷提唁慰。兼有惠寄之物。可見其篤於相念。欲必始終無替。顧此殘慵。何由得此於故舊也。書末勸勉之語。所當佩服不忘。自惟餘日亦幾何。說之無及。思之無益。惟將付諸筌蹄。一併寬處。聊以自保而已。豈敢過自疚懷。挫折放下。卒爲朋儕所憂也。李寢郎海島之行。不覺爲之怛然^P喪氣。豈獨愛一穉春而已耶。竊聞道儒峻發。欲必抗疏叫閭。未知畢竟乾斷何如也。

答安象三 鼎德○辛丑

南路三百里。無愈於五百里之嶺北。若論其兩地相望。落落無見期。前後無異也。年來因若和姪來往。時間動靜。而顧此衰懶。未能以一紙相訪。今故人先之。乃知人之好我有甚於我之懷人也。年前羸博之痛。此亦曾經。言之無益。不必追提。而無子而有子。無所依而有所依。斯惟爲今日可賀也。第真範依稀。若不能記。爾來鬢毛。想益蕭蕭。榮華想益凋零。而若其志氣之衰與不衰。亦^P不必以是爲限。未知於羈旅貧困之中。能不以所處易其所守者乎。念其以所愛女妻若和之子。若和。貧士也。流落窮苦。無與可比。而老兄不以爲嫌。斷然結親。意或以若和爲不可棄。而非自有不衰者存於中。曷足以能此。可賀可賀。體仁。杜門奉親。隨分看書。顧無足以說向人者矣。每伏念從氏尊丈學有淵源。齒德已隆。年前蓋嘗一再登門。獲瞻顏色。而年來聲息。渺如雲漢。欲因老兄座下時候起居。而亦不可得。安得不北望興喟也。餘祝千萬自愛。勿以或墜。奚必款接面晤。然後爲相好耶。

答申仲源 光孝○己酉

^P秋間。歷叩仙庄。旣與之徘徊江曲。拚袂游泳。臨別言志之作。又令人感認情思。稠坐擾擾中。雖未得專意穩討以窺深淺。而眉睫辭氣之間。蓋已畧得所存之萬一。知有所從事處也。頃辱書問。旨意勤懇。藹然有未盡底蘊。足以領會於言外。非志之篤而情之切。曷足以及此。計從者年光已晏。志氣易倦。而乃特眷眷如是。可見其策勵自振。奮發勇往。不與其冉冉者同衰也。若論其下手先後。門路階級。則自有古人成法。端的可據。豈不昭載於克齋先生遺集。而特爲家學之可述乎。體仁。疾病衰頹。愧負師友。往往臨書發歎。不覺面駢。寧有一毫自得^P可以向人開口。而特感情愛未忍相忘。誓欲以一言獻愚。爲桑榆共勉之地。繼自今因便賜書。有懷輒吐。時蒙歷叩。提論可否。吾輩晚景所樂。寧有加於是者耶。法門寥落。殘緒欲墜。區區所望於遠近同志。而欲以自勵者。其意有不淺淺。未知肯領解否。遺集勘校。已屢經先生長者手。顧茲愚蒙。豈敢更下手於其間耶。旣辱謬懇。待李丈覽畢。當乘間奉玩爲計耳。

答申仲源 壬子

前秋遠辱書問。辭旨歉懇。眷眷若不忍相忘。感認厚誼。有難容謝。竊惟兄晚景意象甚好。絕祛外誘。專意向上。P閉門端坐。潛究經訓。想所存益固。所養益深。恍惚邂逅之頃。乃或有感發興起。中心悅豫處。而衰病垂死。恨未得日與之相隨共處。以警發桑榆之志。每承書問。只增瞻想。幸不以衰懶效尤。能奮發自勵。一倍加工否。體仁。年與歲深。志隨氣頹。多少精力。渙散殆盡。雖欲收拾晚景。強自扶策。隨分從事於古紙之上。而阿堵所患。往往不分人顏色。卻恐頹放轉甚。無由自振。若得相愛如賢契者。惠然肯顧於寂寞之濱。一與之拚袂逍遙。庶將有會相告。有疑相討。一切掃去了悲歡雜念。同歸共樂於太平昭曠之域。而佳會無緣。前路漸窄。只將隨所處任P其愚分而已。

與申仲源 癸丑

大界烈火中。餓殍盈野。未知故人能無恙乎。君子固窮。或難免艱食之患。而端居讀書。志有所存。想不以外物爲累矣。體仁。近日閒居。麗景方暢。問柳尋花。隨意玩適。或吟到明道先生萬物靜觀皆自得。四時佳興與人同之句。恨不與意中同之。至末聯富貴不淫貧賤樂。男兒到此是英雄。未嘗不惕然自厲。懼或墜墮。願與同志共勉也。

與申景晦 宅明○丙辰

P卽日庚炎正熇。謹未審靜養起居如何。第念活畫屏裏。摩挲偃仰。有金剛臥遊之趣。年來意象。想益超然。乃或吟詩遣興。時自歌詠。有足提示同好否。每念大阮丈下世後彼中聲息。落落如雲漢。存沒幽明。一體漠然。時一念至。不覺興喟。顧以殘羸之質。向衰多疾。沈淹數歲。三年之內。一未進哭。奠誄之節。亦并闕焉。此豈平日所自期者耶。今陳迹已遠矣。歲月之已逝者。固不可復追。而呻吟之暇。往往追記及此。中心如噎。有難遂已。茲敢爲無於禮之禮。始以寂寥數句。題在小紙。投寄本家。聊以追行誄儀。恐違常式。有或云云。第切愧懼。然而古人有P往吊於除喪之後者。主人就廟門受弔。不哭流涕。識者謂之其動也中。若以是傍照則欲追誄於除喪之後。而要就墓前讀告者。亦或不悖禮意否。此惟在僉兄諒處之也。本孫許當別致書儀。而病中神思短乏。有未周盡。誄詩小序中畧有所懷。覽此足以知這間情戀也。仲源兄亦平安否。年來絕無書信已久。臨死一面。恨無其期。幸爲傳此意也。

答金聖弼 勉儒○癸丑

頃辱歷顧於寂寞之濱。方恨其歸袂飄忽。意外客裏珍緘。足以仰認情思。况審侍學神衛。感慰交極。無以容謝。P體仁。積年阿堵之證。不得刻意文字間。閉門悄坐。舊忘新味。方自愧不暇。寧有餘力可以爲人開口耶。來示縷縷。旨意勤懇。欻然有不自滿之意。可想其振刷之氣。警戒之意。以是心做將去。

將何所不能也。但其所從事者。自有階級門路。先後緩急之序。此惟在循進不躐等耳。向人求撥雲散。可尚誠意之懇。而以其序則當先服補元湯。使自家氣體充健。榮衛順迪。以厚其根本。然後方可爲受藥責效之地。何必汲汲先向外人求藥耶。禮疑。深愧謬詢。紙末錄呈。惟在諒裁。

出繼孫奉祧主與否。較庶孽有間。先輩論此。皆謂有^P二本之嫌。決不可。決不當云云。但或立別廟移奉。而限出繼孫身死前。不忍廢祭祀。死後方埋安者有之。此出於情理之所未忍。而非禮之正也。京洛間士夫家多如此。而先輩所論則如右。鄙家亦嘗不免爲此。有不敢質言。

答金聖弼 丙辰

一別多年。耿結入夢。不意惠牘。遠投山樊。驚喜之餘。第切感幸。况伏審炎夏。堂上體候神衛。侍學增重。仰賀曷已。體仁。衰病沈淹。與歲俱深。雖欲收拾殘書。溫理舊業。而阿堵之證。從而爲祟。拋卻多少卷子。兀然塊坐。以度^P時日。氣象頓覺蕭條。心界日漸荒蕪。了無圓活流通之意。只有枯燥窒塞之患。此懷寥寥。無與告語。只增憂懼而已。來書眷眷。寄意鄭重。兩鬢華髮。無一事做得之說。何令人感歎不已也。此有足反隅於老拙。而不覺興愧。如賢契者。豈宜稱老於奉侍之下。而居然發歎至此耶。其沮退自畫之語。至謂明牕斐几。乃若有人不肯假我暫處。不無向他歸怨之意。此則過矣。何不以古人九十箴儆自勵。而直爲此推諉耶。竊謂賢契。志尚非不高雅。意思非不懇至。而第念志有虛實。意有緊歇。若不肯一番大動心振作。痛下時月工夫。輒向人興吁起嗟。咄咄^P自傷。則此竟是虛漫無實事。歇後沒緊要而已。鸚鵡能言。究論至此。惟冀曲恕諒照。發奮策勵。隨分歡養。得有所立。

答柳泰三 象經○辛丑

獲拜手札於許多年夔阻之餘。恍然若曠世希音也。謹審春寒。省餘棣履萬衛。慰仰區區。四以名齋。足以見年來反省之工。有不偶然。而如欲得知友文字以警發之。世自有能言之士。可以發明揄揚。勸勉策勵。不必越三百餘里。尋求贅說。又莫如讀聖賢經訓。得下頂針。無庸煩後人之筆舌矣。年來衰懶。兼以煎憂。固難容仰副勤^P覓。而慇懃遠要之意。亦未可默然無言。數行蕪語。寫呈一紙。覽之想必發笑也。

答趙恭甫 友愿○丙午

初三日惠書。來自無何。而近患阿堵。不親筆硯。至今闕然無一字。歉恨何極。卽日春事躑躅。伏惟侍學珍勝。來書精切。足以仰認所志之篤。所存之實。而第以不佞爲一日之長。推借過重。至許以發蒙開惑之道。此在賢者。固爲遜學之實。而在不佞。有不當隱然自居。冒昧仰覆者也。雖然。朋友相與之間。若復以此爲嫌。不肯以一語相答。則相須共進之義。恐無以自伸。而責勉期擬之重。^P不免自貽伊阻矣。第念白首鹵莽。七尺朽然。平日從遊於先生長者之側。而或得聞影響一二者。亦皆茫如捕風。收拾不上。來書所謂中夜以思。不覺汗背者。正體仁之謂也。今承盛示。安得不恤然興傷。惘然不知所對也。

。獨坐江臯。春日方暖。看書應客之暇。攜杖逍遙。興闌而歸。或不無忘憂自適境界。而遽指爲翫理日深。有外人不知之樂。則不亦可愧之甚乎。若得與疆輔如左右者相處。而得以切磋琢磨。則蒼茫暮途之中。或不至有獨立搔首之歎。而此亦未易期。良可恨也。殺不辜不爲之說。平日自檢。此最爲本源切緊工夫。初學似不可不痛省。故向者偶說及此。乃蒙虛納。欲爲一生用不窮之義。始知愚妄一言亦有契於賢者之見。而庶幾相與扶策。永言同歸。豈不深以爲幸耶。雖然。公私義利之間。分界甚微。析破未易。所以必先要窮格以致其知。想賢者從遊長德之久。固已不迷於循序漸進之工。而所謂懈意一生。便是自暴自棄。及弘毅任重道遠。一息尚存。此志不容少懈等說。不可不痛自存念。亦區區所嘗自勵而病不逮者也。每讀表記至小雅。曰高山仰止。景行行止。子曰。詩之好仁如此。鄉道而行。中道而廢。忘身之老也。不知年數之不足也。俛焉日有孳孳。斃而後已。未嘗不反復致意。再三諷詠。自不覺感發興起。繼以傷歎。顧此桑榆晚景。前路已窄。故特有所感。然而年少疆壯者。若又常存此念。則所以激發於詠歎淫泆之際。而惟恐其老之將至。不敢自懈者。較已衰。其所得尤別。未知平日或留意看此否。

答趙恭甫 乙卯

每念左右以耿介之資。端一之志。奔泊東西。不遑寧處。挈家寄寓於窮山僻峽之中。未嘗不爲之興喟也。客臘初間。忽得至月廿六日書。恍惚擊讀。疑若夢寐。而寂寥孤臥。討便未易。雖欲卽報數字。烏可得耶。歲律更始。三陽回泰。伏惟履端增祉。溫理舊業。隨處漸進。區區慰賀。來書縷縷。瀉出衷曲。足以仰認相念不遺之意。而又見其始終堅苦之志。有不以顛沛窮窶易其所守。至以雪裏凍殺。露地著睡等語。隱然有所自勵而懼或失墜。平日相與。固知有雅操之不俗。而乃今於窮途中。畧驗其實。豈不深可欽賞耶。第念心是活物。不可使有一毫礙滯。若既到莫奈何境界。而有未能坦然自處。輒向人過自傷歎。踟躇不安。則是不幾於長戚戚者乎。始知君子爲學。先從辛苦不快活處做得。而所以必發舒休養。不令志氣局束者。亦豈無所以也。今高寓所處。乃適在周王近地。形勝甲於東南。而其下流佳處。想亦不無多少可觀。屈首研討之餘。若試向此中取適。往往攜筇緩步。倘佯遊覽。以瀉幽鬱。則亦足以擺卻憂惱。助成冲和。與本源涵養之工。庶將內外相發。得力最深。凡前日礙滯蘊結於中而不能自己者。自不覺七八分消散去。豈終止爲貧窶憂憾所重壓了。若不能擡頭耶。如體仁者。白首吟病。屏跡林丘。蕭然一屋子。孤寄山樊。初非有勝致之可論。而阿堵受病。不便看書。頓廢職事。舊忘新味。自惟平日志業。不啻萬萬脫空。左右不料及此意。或有晚境樹立之固。而多少稱謂。全不著題。今年益老。病益深。風江雪厓。不利居養。欲必移下於大村平地。來示所謂壁立不渝於冷江之上者。畢竟落在荒郊。未免乾沒於塵垢界中。豈不可笑之甚耶。父子日夕相對。別無猷爲。謂或有唯諾講討之樂者。固亦無怪。而阿兒所患。終不快可。發作無節。尙何望其專意加工耶。川沙翁竟失賢子。不意其晚景所遭至於此極。想平日從遊之久。爲之慘惜。有不與他人等也。雲山縣邈。後期難卜。惟冀時因便風。復惠問字。有欲相告。不吝提示。

答金凝之 宗駿○丙午

久旱得雨。未審棣軒起居神衛。家居應酬之餘。亦或有工程節度。稍向靜裏日進否。脫出院席。可謂

解去纏繞。同堂征邁之樂。正惟其時。而卻恐爲夏課所撓奪。未知內外主客果何居也。體仁。近日意象。稍覺定頓。江齋清涼。炎熱未酷。雨我公私。農歌四起。臨流築梁。得巨鯉盈尺。炊麥膾鮮。飽喫無求。固亦可娛。然而索居中不免鈍滯之憂。恨不與左右者一握以資講討也。冰溪水石中。提攜來往。殆過半歲。而終是有係管處。未暇一言及工夫。謝脫後又無緣相接。其慨歎瞻悵。誠如來喻。承欲早晚一訪。若如計。可謂欣遇如夢。而亦奚敢必望也。來書意寄太過。若以無似爲有足開發英少。而隱然望其薰^P灸變化。此在賢者。爲未免遣辭之無操縱。而在此亦難仰報。此後幸勿復爲此。一以白直誠心相與。則體仁亦當竭吾知見。與之提攜從遊。相期於無窮。未知如何。

答權叔尊 得仁○丙午

頃蒙枉顧。繼辱惠書。伏審院享穩過。行塵已遠。感珮之至。繼之以瞻悵也。卽日風寒。雅履如何。數咎庵崔先生奄棄後學。吾黨益無依仰。想所懷同之也。體仁。依侍而寂寥山樊。秋氣蕭瑟。未嘗不翹首懷人。往往興歎。承示被任事擾擾。相對恨不能盡意穩討。然當事盡心。亦道理當然。奚必輒要講說從容也。省坪一事。公私俱可念。^P然而若常以此憧憧關心則似過矣。大小大事。惟當隨分應去。無將迎倚著。然後得免局促紛撓。庶見圓活。豈非賢聖由來旨訣耶。餘肉之餽。特蒙眷惠。非情之至。何以及此。然因此一事。欲竊有相愛獻規之道。幸不以爲咎否。吾儕相與。惟當一循義理之公而斷以可否。無一毫苟且曲循。然後庶幾不負所學而無慊於心。處己待人。初無二致。士君子立心行事。寧不以是爲準耶。今一鬻之投。雖若甚微。而在公義既無例。則其偏施無名之地。而自作不常之事者。其不幾於曲循私意。苟且相處乎。此在賢者非細失。在此冒受亦不安。而卻恐矯激近^P名。遂未免隱忍奉受。此亦可愧。然此義亦不可不爲賢者一講矣。趙恭甫情契亦平安否。想日與磋切。並冀征邁日進。

與張履卿 泰殷○己酉

春間一書。辭旨勸懇。意想不凡。不勝嘉尚。平日相從。知有才分不草草。而不意有好意思能若是也。况所處未免寂寥。無明師良友之朝夕左右。相與觀感。而能自拔於流俗之中。慨然有直前向上之志。至誠惻怛之辭發於書牘。而有足感動人者。卻悔前日相與。未嘗以片言半辭肯向進修上相勸。而只是恩恩忽忽。舒寒暄。問休^P咎。等閒度了二十餘年也。第念吾人有志者固難得。而有志矣。能不失趨向之正者尤難得。或不失趨向。而能不錯先後緩急之序者。爲尤難得。苟不免好逕欲速。凌躐等節。不務急先親切之切。而遊心玄遠之境。枉費心思。探影討響。則畢竟於我實無一分可以需用。而公然作孟浪無用人而已。誠可懼也。圖象精微。此固爲肯綮頭臚。而以左右所占地界論之。則不免高遠而不急。玄妙而不切。曷若專心用力於小學大學。日用身上下切實工夫。冀見實效耶。此亦由先進未有能相導。而不能自解於蹊級門路而然。豈兄之過也。所未知者。惟乍間^P或有些箇好意。而難保其真實有此志。使左右苟能有真箇篤實意思。而欲真實得聞相益之語。則體也雖不敏。庶將誦平日所聞於師友。而爲同好畧陳一二。與之勸勉扶策。而相期於無窮。所謂蹊級門路。豈不有成法之可講乎。此惟在領受虛實而已。近間若獲一面。儘有商量可告語。或不憚一來否。

與金開汝 良鍵○壬子

左右以年少後進。獨行古禮於積廢之後。使一方士友得覩盛儀。始信先王之道有未墜於地。而况伏念好禮之家。終受多福。色憂勿藥。歡養依前。衆賓交賀。亦有不^P偶然者矣。體仁。騎馬出門。雪海連天。艱關跋涉。僅以尋巢。而侍率姑依。私幸。第登岸下馬。來星既歸。而始覺所來幣束中。有物胎封。此何爲也。左右之拔出流俗。舉行盛禮。固爲可賀。而惟此一著。實非所料。有或未之思歟。朋友有通財之義。有賑救之道。想憫我貧約而欲需一用。有意爲此。故人忠厚之意。固若可感。然而冠禮獻幣。名目自異。使左右若依禮以酬之。則雖用錦帛亦可也。幣物之外。若別以錢穀。謂救貧窮以周之則亦非無義也。孟子曰。其交也以禮。其接也以義。斯則孔子受之。况此無似。乃獨何人。而獨不受當受之物耶。外面則封以^P筆墨。裏面則實以錢貨。諱人耳目。混作禮物。不免若暗地授受。而揆諸禮意。進退無據。此在我固不容頃刻冒受。而在左右亦豈宜以此相處耶。數日來。以此思量萬端。欲還擲則恐有痕迹。欲隱忍則終是十分未安。在誠心相愛之道。有不可不吐悉本情。非苟爲自貞計也。古人有或以卻之爲不恭。而此則不卻。恐反爲不恭。左右幸相諒及此否。茲以所來物付還。此後若值窘急。當別請受賜也。

與金開汝 戊辰

主客聯翩枉顧。感幸則深。而第恨其恩惠未穩。卽惟日^P間。服履珍重。李兄乃卽北還否。其子婦喪儀節。李兄終以鄙說爲不謬否。倉猝失對。不無大錯誤處。不可不自引追辨以破其說。今人或有遭子婦喪。而自以舅主其喪。題主面曰。子婦某氏神主。其後又忽喪配。而其老親尚在。又主其喪而題主曰。子婦云云。同入一廟。別無旁題可辨。而姑婦主面。俱稱子婦。則其爲大錯相混。不待屢辨可知。論至于此則李兄之大人丈。不得不主其孫婦喪。而題其主面。曰孫婦神主。蓋有嫡子則無嫡孫。此雖非嫡孫婦。而乃是長孫婦。畢竟以主入廟。而李兄之大人丈。乃主其家廟則必并主其孫婦喪。自當無疑。彼^P中前此僉議。可謂得之矣。凡論禮。須要隨處無窒碍。乃是可行。而衰病耄荒。杜撰妄對。幾不免誤了重事。只增慚恨萬萬。幸以此意詳細通告如何。

答金聖爲 壬戌

窮陰凝沍。伏惟學履神衛。瓊韻及小識與惠覆書。一時并投。璀璨盈掬。衰病無聊中。不意得此珍貺。感幸何極。第詩與識。辭意懃懇。甘於自斫而過於推借。若有所求教者然。令人反躬含愧。不覺面駢。自惟衰懶。本極空疎。顧何由激勵振拔。得以仰酬萬一也。顧今斯文寥落。先覺已遠。有志此事者。鮮或得聞。而竊觀來詩。賢者乃特^P拔出俗學場中。不以向晚自劃。而方有意存養。欲得其要。非平日志尚之雅。有不爲外誘所撓汨。何以及此。欽尚欽尚。然而欲必理會其著了甚工可得則不過曰敬而已。程子曰。涵養須用敬。朱子曰。未發之前是敬也。有以主乎存養之實。從上聖賢相傳心法。要不出此。試將大學或問，朱子書節要，心經等書。讀來讀去。潛心玩究。親切體貼。則庶知所以用力之方。而中庸所謂戒慎恐懼。是實敬之主乎存養者也。敬字工夫。通貫動靜。而必以靜爲本。故非敬之主於中。則其所謂存養者。只是一死物而已。恐不免爲釋氏之空寂。將何以該衆理立大^P本。而一天下之動哉。然而

未發前主敬存養。自是本源極精微工夫。所謂靜中須有物。這裏便難處者也。初學未易驟語及此。莫若先就日用有依據處。著得整齊嚴肅。正衣冠。尊瞻視等工。而格致誠正。循序漸進則何莫非敬之所主耶。故小學大學。皆以敬爲主。而未嘗說及存養。至中庸。始發此義。此亦不可不知也。念賢者芳歲雖晏。而餘年尙富。苟自今委心問學。眞實做得。則敬之一字。一生需用不盡。尙何患存養之未得其要哉。至若末句落語所謂性中天三字。卻恐未免爲病。人得天理爲性。這便是在我底天。性中何嘗更有天在耶。蓋說到P性字。已自直窮到底。若更謂有性中天則恐只是層累支離。淪入空虛。卻令學者或不免強探力求。穿鑿傳會。其弊有不可勝言。所謂毫釐之差。千里之謬。其不在斯乎。所謂養得二字亦可疑。曰性曰天。雖自以一理異稱。而曰養曰事。其字義自別。故在性則只當曰養。而不當曰事。在天則只當曰事。而不當曰養。此等下語。亦不可不審也。體仁竊惟與人講討之法。各舉當人文字。提論其工夫之所當。下辭語之或未安。而端的指陳。丁寧勸戒。則與但取古紙上懸空泛論。而茫無交涉者。其效自別。亦策勵警發之要道也。故體仁亦不敢泛爲閒辭說P以要酬酢。而直以賢者目前工夫之所自理會未得者。與來詩句語所以偶失照管者。爲賢者眷眷提告。不嫌煩陳。要聽可否之論。不審賢者於此。果能虛心領受。親切反省。不以愚言爲妄乎。大率張皇千百言。不如眞實一下手。霎時好意思。未知畢竟有守立。此古今通患。而吾輩之所當痛戒者也。然而學者論學。比如農夫之談稼穡。商賈之說販鬻。同志相對。不得不輒以所方從事者相語。而未暇及他。必如是然後庶得與之往復答問。警勵扶策。而此古人所以必以朋友講論爲急者也。若不屑爲此。同志相接之際。或偃然以老成自處。或漠然P以謙讓爲事。不肯與之開口論討。而一以恬默爲務。則其沈重閒靜。雖固可尙。而終無以切磋琢磨。與入堯舜之道。豈不可慨耶。抑或有避名爲學。不事拘檢。甘心自放於繩墨之外。而終歸曩棄。若此者。亦何足道也。體仁。自以衰朽鹵莽之極。了無平日實得于中。固不敢更爲賢者謀忠。而第不勝傾愛。披出肝腎。佇或相發而不能自己。如或有所未安而欲與更論。幸勿以煩瀆爲嫌。往往因便寄書。喚起衰頹。則顧此殘喘。雖未卜餘日多少。而一息未絕之前。庶或有以分寸躋拚。隨分用力。垂死所願。寧有加於是者耶。

答鄭理卿 台攝○戊辰

忽承伴書遠辱。謹審棣履珍勝。慰賀萬萬。體仁。八耋不死。但見親愛之寃逝。只欲溘然而已。尊先狀費盡心力。累次改易。而毫荒之見。終未究竟。幸持示具眼者。從公議諒處。全集題目。當初鄙見。不無商量仰告。今又俯詢。顧此衰病。何敢率爾斷定耶。然而既曰兩先生。又曰墳簾錄者。終若不穩。若以墳簾兩先生文集七字爲大題目。第一張第一行。以此極行書之。第二行。又低二字。書墳簾錄三字。第三行。乃以先生所自述墳簾錄序語。極行書之。其外詩賦雜著諸篇。依常例列書。則庶或不悖。P而倉猝思量。恐亦未知其必當。更與知者相議爲之。幸甚。存養說。篇中可疑者。竊以鄙見敢加刪去。而欲不全刪於集中。遂以此意畧錄於本草紙末。亦須與知友議處之也。

答李士彙 甲子

別紙諸條。一依所詢答去。領覽如何。至若氣質之問。恐非愚昧所可率爾妄對。然而第念來喻所疑。恐未免誤認張子語意。蓋聖人自有聖人氣質。凡人自有凡人氣質。豈可曰聖人無氣質之性哉。但聖人則天

理渾然。未嘗有一氣字主張用事。所以與凡人不同。尙何疑哉。所^P謂君子不性云者。非謂纔說氣質。便有不好。但天地之性則是聖狂賢愚之所同得。而至於氣質之性則聖狂賢愚其性不同。未能俱純於天理。故有未足謂之性。此君子所以不以爲性也。如是看之。則似無可疑。未知如何。別紙畧有所言。惟冀留意領覽。因便回示幸甚。

答李春如 東發○癸丑

前秋。二妙聯袂。翩翩來訪於寂寞之濱。至今耿耿如夢也。忽此匪意。獲承前月十六日惠訊。謹審重侍鍊玉勝相。慰賀區區。體仁。荒年索居。事育姑依。而阿堵之證。當暑倍劇。寂寥山樊。塊坐度日。安得不眷言回首。起懷於^P同人耶。平日相接。固知有志尙之雅。而未能叩其深淺也。今讀來書。辭意勤懇。趣尙不俗。可見其趨向之正。見解之真。占得地分。已自不少。吾鄉寂寞。習俗易渝。年少後進。蓋鮮向此邊興起。而乃忽得聰明好箇人。有志尙如此。豈非幸耶。書末所囑。此如向聾者借聽。卻愧謬詢。而相愛之切。亦未忍終默。重堂之下。既不免俯就程式之工。則當依李先生所訓。必要作屠龍手段。不必任其鹵莽滅裂。僥倖萬一。而課做之間。欲時時溫繹舊業。點檢收斂。則此意甚善。蓋不待人言而已自得之矣。自惟少時。亦嘗隨衆攻苦。而倦極昏倒之際。輒以此方試之。^P而所謂點檢收斂。不得不專靠往訓警發。故嘗輒提誦四勿敬齋夙興夜寐箴等篇。得討一邊靜地。吟諷澆灌了。神思頓覺灑然。心眼忽明。未知近日所拈出溫繹者。亦不出此等文字耶。大抵此事。惟在自家一心所主如何耳。若是此意思爲主而在內。則詞華記誦之工。雖未得一切斷置。而終是爲客在外。有不足以撓我。不然。恐賊反荷杖。狗反吠主。此不可不深戒也。

答宗人以周兄弟 冕朝冕周○庚申

忽辱情札。聯名特垂存訊。謹審侍學增重。感賀沒量。每念吾宗黨年少中聰明文雅。有足相與期擬。如吾宗侍^P兄弟者無多。前此相從。非不源源親切。而自惟所學空疎。無善及人。未曾與之一番從容。要相警策。時一念至。未嘗不耿耿于中。大抵中原有菽。人皆可採。吾儒成法。著在方冊。而亦由於其趣尙之高下。志意之虛實。有不合他人一朝驟語。而專屬自己分上。此則蓋願與之一聞而未得者也。衰病臨死。餘日無幾。中心嘉愛。日篤不忘。漫說及此。不自知止。倘不以迂愚謬妄見笑否。

答宋台卿 癸丑

春事躑躅。懷仰政切。卽憑珍緘。如對丰儀。况審侍學珍衛。慰釋良深。分力從事之歎。奉親之下。所當難免。退溪^P老先生嘗與門人書曰。諸君既不免舉業則當作屠龍手段。不可任其鹵莽滅裂。僥倖萬一。曷不以此自勵耶。志之所存。實有自立。則十日之工。有未足以奪我一生事業。隨分做去。此正恰好道理。惟在自力如何耳。傾覆栽培之疑。其說話張皇。而大要以天地把作有情想有意思底物事看。故其疑愈深而其說愈舛。恐於慎思上欠工夫耳。蓋聖人順萬事而無情。天地普萬物而無心。何嘗有意而培覆之哉。願其理勢之自然。有不得不然者耳。大德之必得壽位。乃固理勢之常。而非天地有意爲之也。章

句曰。氣至而滋息爲培。氣反而遊散則覆。此^P非自然之常理耶。本章下小註朱子說。不啻明白可据。而辭氏所謂培之也非恩之也。覆之也非害之也。皆理之必然云者。此足以破左右之疑。而左右乃反刪去非字。而直謂之恩也害也。以致疑於天地之故爲恩害而有所云云。亦可謂不善看文字矣。理無常變而氣則帶數來往。故以常理則栽者必自然有培植。傾者必不免覆敗。而以氣數則或變之甚。而理未得循其常。故大德之得壽位。在大舜則是爲得理之常。而在孔子，顏淵則未免爲數之變。推以論夫天地萬物。孰不可以此斷處耶。陳氏之說。固無可疑。而謂亦有疑。非所謂疑於不當^P疑者耶。常變之說。在或問詳盡。覽之足以破疑也。

答宋台卿 乙卯

體仁寄棲江皋。積受風寒。抱疾已久。而正月二月之間。蒼黃濱死者數矣。年至衰甚。病狀如右。決知其自有歸處。尚復何埃。而惟一念耿耿。願聞年少相愛。懋學不怠。知所用力。乃或諒得此意耶。來詩穠麗可觀。可知近日用工多在這一邊。爲能長得格價。而第念初學急務。有不在此。曷若專用心於經訓而要自體行乎。病思蕭索。無緣續和。未免令雅意虛辱。第切慚負。然而所謂溪山我看獨一句。卻恐未安。雖若超然獨得。而恐不免有驕^P矜自高之態。須取退溪集中答趙士敬書。見其論宿鳥趨林只自知之句。而申申貽戒則亦可以知所自警矣。未知如何。錦莊帖。何以得聞有此耶。閒居謾吟。只是一時遣興。豈足煩掛他眼。早晚若蒙來訪覓及。則或不免浼眼也。

答宋台卿 戊午

月初。獲承惠訊。謹審色憂休復。學履珍勝。清坐山齋。誦讀終日。可想其絕去外撓。專靜可樂。而又自云不無微悟處。令人興起。不勝歎羨。但未知所悟者何事。悟而得者是何義。若就自家一身上。悟前日立心之差。而乃欲^P回頭革慮。灑濯自新。或就聖經賢傳中悟前日見解之差。而乃能因此推驗。隨處自解。何莫非恰好境界在者耶。恨未能面討從容。得叩深淺。然而觀於別紙所錄。有足以窺其影響萬一。欲將韓，馬，歐，蘇等書。一切權倚閣。惟專心致力於大學論孟及心近以下諸聖賢書。此誠大得力大成就之機。而所以自悟者。莫善於此。有何更問於人。但讀大學。須提起知行二字。必要其齊頭做去。相資并進。則三綱八條。要不出此。而論孟以下諸義理。庶將節節分屬。填補無遺。一書之必爲羣經綱領者。將於是可驗。而一生需用不窮。乃能覷得及此耶。學要^P不錯門路。不躐階級。不然則雖沒身讀書。只是醉夢。此不可不戒也。不輟日課。反復熟讀。此語甚好。而亦惟在知其所以讀。不必啣唔不撤聲爲貴。未知如何。但來書。心畫頗欠楷正。此實古人所戒。恐非所以施於長老。而有志於學者。不可不先從此等處致敬。雖在儕友間。恐不必然爾。

答趙奎應 星復○丁巳

十月十五日書。驚倒欣慰。向後沒便。無緣奉報。居常歉悵。卽日竊沍。謹惟侍學珍勝。體仁。事育姑依。而斯文陽九。長德俱逝。衰病獨立。廓落無侶。想海內惟晚谷翁同^P此懷也。秋間歷訪。一宿穩討

。見其方新從場屋中出。跋涉風雨。逐日撼頓。計一時得失之念。或不免係在胷裏。而終夜媿媿。說盡多少。可見其平日志尚所在。中心嘉愛。日篤不忘。既又得見手書。其辭語之翾縷。志意之懇切。比面討有加。平日相與。何嘗深叩及此耶。自惟衰病朝夕臨死。而乃得此好年少。將與之扶策相發。此在我爲幸不少。而若吾奎應者。以年少資性之美。日夕觀感於門堂之內。志尚固已自好。見解固已不偶。而乃反委曲致辭於癡瘁無聞之人。有若求教者然。豈以其戚親年老而謬爲推重若是耶。顧此晚工無實。日就耄荒。平日所聞於師友者。至今茫如捕風。固無足藉手自立。爲人先導。然而第平居自檢。恍然興感。或私與子姪輩相警則有之。有不忍終隱於相愛也。盖人受天地之中以生。固與禽獸異矣。有是身則有是職。有是職則有是責。一日不死則有一日之責。一日不謹則曠一日之職。固不容頃刻放下。甘自暴棄。而第道有邪正。教有虛實。學有純雜。儒有真僞。若不先審乎其內外輕重之分。義利公私之界。王伯儒釋之所以不同。君子小人爲己爲人之所以相殊。而只欲昧然直進。胡亂做去。則顧奚由卞別從違。知所用力哉。抑又惟習尚不齊。氣質易偏。病痛疵累。有各不一。持守固欲牢確。而或懼其窒滯不通。識趣固欲圓活。而或懼其駁雜不純。門路欲平實則懼其或淪入汙下。見解欲精深則懼其或妄探玄妙。規模之所欲宏大。而或慮其泛遠不切。氣象之所欲嚴重。而或慮其夸大自尊。欲振拔流俗之中則慮其或不近常情。欲樹立頹波之裏則慮其或矯激近名。有可尚則有可懼。有所勉則有所慮。此實人之通患。而亦理勢之所難免也。故欲一循吾儒真正路脈。而不雜異味。不出他歧。得以自立。則非讀書窮理慎思明辨而有以自得者。有難驟語及此。此向日相對。所以嘗論及儒行要看者。盖欲其先廣識趣。有所裁擇。有以得見吾儒真面影響。而知戰國豪士習氣爲可戒也。然而其目前合做底急先務行程節次。則有不在是。自有小學大學。井井若日用笏記。庶將循蹈階級。得尋門路。而次及論孟諸書。有不終迷。非此書之所可與擬也。竊惟人之生也。得天地生物之仁以爲之心。而以仁爲全德。心是一箇活底物事。雖天下之事務紛紜。吾人之酬應無窮。而惟此心常炯炯不死。在中爲主。故乃能流通於萬事萬務。以至德業宣著。輝光日新。譬如木之生意自下直上。連續漸滋。未嘗暫息。故乃卒流布於千枝萬葉。而枝枝達去。葉葉透來。畢竟繁陰暢茂。華實極盛。人物一致。內外無間。吾亦天地生意中一物耳。奚忍獨不保此。使吾主人翁漠然如枯木哉。此心一死。百體無主。雖云七尺姑無恙。而生理已斷。與奄奄泉下人無異。豈不哀哉。故昔聖賢千言萬語。無不要人保活此心。使之各致其省察克治之功。操存涵養之道。而敬之一字。是爲要訣妙方。千古聖賢相傳心法。著在方冊。學者於是而能潛心玩究。真功體驗。有以得知用力之方。下手之地。則其於居敬乎幾矣。然而心無形影。敬亦無形影。初學若先從無形影處做去。卻恐生病。故從上聖賢教人法門。必要於日用可見處用力。而程朱論敬旨訣。必以整齊嚴肅。正衣冠。尊瞻視。爲第一義。奎應平日想必放認及此。而其通貫動靜之工。亦未嘗不以靜爲本。此亦不可不知也。今此所論。只是遼東之豕。已陳之狗。而自惟平日所聞。未嘗出此。聖賢成訓。自無可疑。吾安敢捨此他求。而別爲杜撰哉。奎應以聰明富有之年。苟能一遵成法。勉進不已。則當先進淪謝。斯文廓落之際。庶將繼次興起。卒有可觀。而若其不出門堂之內。朝夕臨視。低仰權錘。審證投劑。爲補瀉攻達之術。則晚谷翁自當任其責。吾又何憂哉。然而索居吟病。日暮途窮。所望於後進亦不少。奎應能憤自勵。不容少懈。時因便風。繼此寄音。以家居親切聞見及自家工程節度。往往提示一二。往復論討。則庶幾相與警發。彼此交益。自今至死之年。未知日月更幾何。而晚景所樂。實無以加此。區區老懷。亦不能無望於斯也。儒行一書。後學固難輕議。而禮輕編末李氏說。此爲的確可據。要皆依此商量。以自財擇。恐無妨。俗學之不可頓謝者。則姑且隨衆應舉。隨時致力。勿要僥倖。惟不以得失動念。不易賓主爲可貴。向人求益。固亦可尚。然亦惟在真實虛受。真切著力。勿專靠唇吻說一過便了。奎應豈終有是慮哉。勉之勉之。

答朴華如 在淳○己巳

新正惠問。迨極欣感。卽日春序已晏。謹問侍餘鍊玉如何。旋切邈仰。體仁。衰病中又添一齒。耄荒日甚。無以溫理舊學。寧有新得可言耶。謬詢冠禮。可見其當事審慎。未敢少忽底意也。固未敢臆揣妄對。然而既有所詢。亦不可無一言以報。階級房堂。固當以宅之前後左右爲南北東西。脯醢衣領之設。曷不以是爲準耶。賓降階字祝之時。賓與冠者。雖不直相對。而稍相向授受。似不得不然。禮賓則固當行於宗子家。其行於本家者。恐非正禮。然而勢或有不便則因勢行之。亦無妨耶。此無明据^P而只以臆見論對。第切愧悚。幸更與知者廣議之如何。

答金鍊甫 就礪○丙辰

山居寂寥。寸白如金。紙短而意長。辭約而情厚。或不以爲咎否。夏初一書。寄意鄭重。不勝欣感。第衰境伉儷之痛。此平日所自經歷。爲之悲淒。而一氣流行。大化參差。存沒先後之不齊。亦理所難免。何必重歎永傷。損其天和耶。白羽之贈。乃蒙念及。江上逸翮。落來山樊。翩翩成羽儀。顧惟病拙。若自與仙老有分。有時把弄在手。飄拂林丘。依然與振鷺舞鶴上下翱翔。何莫非丈人之所賜。而索居無便。一謝後時。第切歉恨。

與趙甥兄弟 居信，居讓○癸亥

君家事不欲提說。晚谷翁又何以此時云逝也。一運所驅。同時相隨。儕友含痛。不覺膽裂。豈惟一門一家之所遭耶。第惟事機光景之前後翻覆不已者。自有所係。若使達觀者論之。殆若風烟雲雨之恍惚。卷舒于目前而頃刻變滅。自無定狀。有不足爲榮悴欣憾。莫若一切委之於命。庸言必信。庸行必謹而已。未知諸君近日意象何如也。晚谷翁。旌嬰已入地。萬事已矣。啓期之至。顧無以往哭臨穴。只以數句輓語畧述悲懷。送付蘇湖。爲轉傳計。未知能免浮沈否。書不盡言。須以此紙輪照。得以^P共諒此懷。與之相勉。幸甚。

與李甥兄弟 垆，垆○乙卯

趙生便所付書。想卽見之矣。見和之痛。何以堪遣。舊壙無大段可愕灾害否。前書所及。老夫瞽說。得見聽采。幸甚。片言虛受。舍己從人。大事臨時。斷然停置。念君平日意象。實未料其容易辦此。人之美德。寧有過於是者耶。可尚可尚。然既辦得及此。則其外亦有所當審慎。前後或不以此乖激失道否。自今以往。須戰戰兢兢。遜言謹行。委曲盡道。婉轉處事。不以一毫不平意象著於身心。一以篤倫保情義爲主。使外人無敢窺其罅隙。則善^P後之策。無以加此。在人者不可豫必。而在我者所當自盡。至誠所及。豈有不動人者乎。情之所至。又此煩及。有不當泛念也。此間偶兼別證。神思昏昏。茲遣姪兒

替哭致酌。而徒步跋涉。無以袖去魚果。只以數行文付去。使之借得盃酒。讀其文而哭之。亦足以知病中此懷也。

答金時彥 宗夏○丁卯

一別已久。歲色將盡。未嘗不日夕馳戀。卽茲意外。獲接手滋。審侍學珍勝。種種慰幸。來書勤懇。辭意俱到。俗學程文之外。慨然有反躬向裏之意。平日來往。竊覩其氣象和厚。意念周盡。不無遠大可期之望。而自惟哀慵。不能策勵警發。要與相益。乃今不待人言。挺然自立。有此好意思好言論。而反若有望於老拙。自反增愧赧耳。知方讀得朱書而節要一書。卷帙亦不少。其篇首所載時事出處條諸篇。其辭旨汎博。筆力汪洋。初學看了。有未易領會。易生厭倦。莫若先就其中間以下知友門人往復答問書看之。則其所以因人提誨。片片說與者。無一字無下落。無一句無照應。往往若爲我提教。有足感發。既以此反心實體。積累漸熟。然後乃就上時事出處卷。吟諷誦習。反復上下。以觀其旨趣發越。則豈不大有得於胷中。而恍然若覩其涯岸乎。不肯真實用力至此。而遽生厭倦不安之意。至欲以外傳易解者先之。則此一念已先差了。未免爲病。幸須審內外輕重之別。而以立志爲本。勿爲他歧所惑。則寧有此患耶。若言其堦逕門路。則大學是初學入德之門。而論孟次之。三綱八條。井井如八間屋子。門路洞然。知行交盡。而聖賢大訓。昭如日星。曷不先從這裏用力。爲循序漸進之計乎。讀大學者。不可不兼看小學。填補既往。朱夫子此說。特揭於大學或問篇首。亦不可不念也。

答西坡再從叔 乙巳

十月十二日下書。不知自何而來。綵牋清辭。滿幅縷縷。無世俗塵雜意想。兼以佳句尾贈。興致蕭灑。平日欽賞。固知雅懷之不俗。而顧今習尚汗下。向上真實之工。固無可議。山水清遠之想。亦難得其人。豈不深可奇賀耶。讀書吟詩。心眼頓開。自不覺灑然興起。消卻鄙吝也。第覩衰景首丘之願。往往說及存亡。不無悽楚之思。此不須然爾。何不開豁胷次。坦然自居。爲隨遇自適之道也。體仁。喪威摧剝之餘。外念全歇。自惟殘景荏苒。前路短促。奚必以一時存亡生死攬了我胷中耶。一區淵亭。鳶魚飛躍。谷裏蝸屋。養雞種黍。聊且飯僕課兒。耕田讀書。以送餘年耳。近者偶讀風詩。竊有意會於考槃衡門之篇。遂書揭壁間。坐臥歌詠。或清晝鑪薰。開卷肅然。對越古人。所謂我思古人。先獲我心處。不能不與之欣遇。而月色灘聲。助發興致。亦不暇於爲詩耳。縣北歸旆。恨違歷臨。而瓊韻惠投。意寄可感。亦奚下於面拜耶。韻語。忘拙仰報。

答再從叔 己酉

杖屨之還。羽扇低仰。出沒林際。望之如白鶴乘風飛下。送行江皋。獨立延佇。既又擎讀手帖。兼以清詩。足以仰認晚景清致不寥落。令人感歎。昨日送奴覓鄙帖。而童奴未的去路。辛勤指示。偶述其事。得一絕自吟曰。路左新禮洞。緣溪山數疊。卻尋羽扇翁。覓來錦粧帖。茲以錄呈。聊博一粲。足以替報向日清什耶。

答再從叔 丁巳

兒曹傳下書。滿紙縷縷。無非實祭語。令人感歎。貧家計活。與歲俱窮。吾輩於此。別無奇謀異策。可以脫得困境。惟將以窮當益堅。老當益壯爲八字符。聊以自勵而已。憊卧寒齋。寂寥吟病。試歷數古今豪傑則聖師絕糧於陳蔡。顏氏未免屢空。曾子居衛。六日不舉火。以至顏色腫噲。手足胼胝。下此一等則淵明三旬九遇食。少陵拾橡同谷。其詩有云厚祿故人書斷絕。恒飢妻子色淒涼。韓昌黎嘗自言。冬暖而兒呼寒。年登而妻啼飢。若此類不可勝紀。右諸聖賢諸君子。其道德文章。直與天地同大。日月并輝。而猶不免此患。則吾輩何人。乃敢不安其分。至或戚嗟怨尤也。唐之樊紹述慕古道能文章。妻子或告乏。輒顧而笑曰。我道蓋是也。皆應曰諾。無不意滿。可見其平日趣尚。爲家人信服已久。吾輩一不食。便不能泰然忘情。爲家人者。雖不至交徧謫我。而亦未免失其歡色。是則其不食非可憂。惟不能使家人若樊子之妻孥者。實可愧。非自反警惕處耶。長夜無寐。往往思念及此。則志氣稍若警發。意思頓覺疎爽。始知救窮拙法。莫此爲妙。同病相憐。不敢獨善。奉以仰告。幸以此少試之。則亦不能無效。所謂分進靈丹。要與共嘗者也。不以方士妖論見訶否。滿江冰雪。塊坐無侶。詩思寥落。不成一句。恨不以一絕韻語獻破愁城。然所陳若干辭意。若蒙肯採。則其排憂遣悶之功。亦不下於詩韻之鏗鏘。未知如何。

答族弟立仁 癸丑

向日長牋。可見近日閒居玩究有得。此豈容易答去耶。必有事焉勿正。心勿忘。勿助長之不過爲兩事。非但程朱訓爲然。蓋其實理似不得不爾。而乃有當分作四事看之訓。所以有疑於溪訓。而未能強究得解也。來示如此翻縷。後學之篤信師說。安敢不爾。而但所以分作四事者。終欠分曉。若只以必有事焉勿正爲二事。勿忘勿助爲二事。而欲指爲四事則是不過以二事換名各分而已。勿忘是有事也。勿助長是勿正也。烏在其爲四事也。試思之。必有事。只是事所當事。而勿忘是加申念無間也。勿正是勿先事豫期。而勿助長是勿當事妄作也。如是看了則乃可以分爲四事。而各就用力之地耶。至謂與鳶飛魚躍義同。此意儘好。平居未嘗不時時諷誦以自警省。而今方論二事四事。則有未能暇說及此。不^P必長語。

與再從姪鼎梅 癸未

歲之將除。行者咸歸。而乃獨一去忘返。他鄉可樂。有甚於故鄉而然耶。客牕守歲之苦。可想其太無聊也。此間幸姑無事。而每念遠客離鄉。顛沛失所。有不能忘。能不以羈苦亂心否。能不失素志自守否。能讀得書否。能激勵自拔否。往往與沃姪輩說話及君。未嘗不喟然發歎也。

與鼎梅 戊戌

發行之日。聞宿赤羅。未知過幾日得到。而無或犯危添^P病否。奉遷祠廟。日夕歡侍。省定瞻謁。兩盡無憾。自今以後。庶得專著一邊。而回首家鄉。永作他界矣。此間送行之後。諸族相對興嗟。每想其奉廟行色常在于眼。而有不得忘者。復得詠懷二詩。亦情之所不能自己也。此等空言。雖無補於實。亦足爲勸戒不忘之一端。故欲並編前後諸作。投寄客中。已以此意囑沃也。合成龜園贈別帖付去。早晚當有此一事矣。餘祝隨事慎戒。無敢或忽。以時讀書講義。有以自立。終不負相愛之誼。則是不見亦無異相見也。

答鼎梅 甲寅

^P眼疾比劇。無由作覆字。吟寄一絕。以寓言外無窮之意。當與南國竹枝詞同悲。覽之能領會我意否。大旱又如此。民將盡劉。幸千萬慎旃自保也。餓死事小。失節事大。

與從姪鼎沃 乙酉

潦暑乖常。宿證不添發否。戀戀客裏。雖不從容。既不計日往還則幸勿優優泛泛。日事追逐而已也。且念同儕相處。謹言最難。須十分慎之。

與從姪鼎五別紙 乙未

爲文。貴正而不貴譎。貴實而不貴虛。貴嚴重而不貴浮輕。貴端的而不貴荒亂。此不但判其工拙。有德無德。君^P子小人之別。未始不於是在焉。可不謹哉。所謂春雪一篇。引喻不切。意思夸蕩。欲學爲俳優而反類蒙兒。求之古體。無萬一近處。決不可強做此等語。且全無元氣下落。須多讀得力。

遇少小悲歡。不能自遣。輒發爲聲詩。疊復不已。則或不幸遇進於此。將行哭於道路乎。義理固勿說。氣象決不當類此。極怪極怪。意思不得其當。故詞格亦甚凡俗無可觀。浦村悲詞。是爲不可之甚。而教一女酒滿盃。亦不須作。惟沴氣一篇。作之無妨。文亦可觀。古之君子。作詩做文。必審慎其題目。若是過中失正。害義理傷氣象者。^P則豈嘗命題要做耶。况兄弟相對。酬唱非一再。而絕無以問學義理相勉意思。或專於謾吟。或過於傷情。殆若童孺婦女。而一心無所定向。何乃如此也。此後則絕勿復爲。若或命題發語。必取其有意思關實用。導和養性爲材料。則此亦一段工夫。古人所作何嘗有不然者耶。雖然。亦不必汨沒爲之。恐受大害。茲和成兩絕。亦反離騷之類也。

與鼎五 己亥

知眠食無事。文篇批送。而卽見姜上舍所寄詩若書。則頗有許獎之意。慰甚。但困於所長。忽於所短。此古人所^P戒。况又以外人毀譽動其心。則不免有終身誦之之病。此可惕念處也。須勿癖於詞藻。養其本源實德。誓不爲流俗淺淺態也。

與鼎五 乙巳

桃開行。今發去否。居喪出入。古人所戒。而亦或有萬不得已處。豈盡拘此耶。凡對人酬酢。勿放言語。勿煩動止。一以恭敬嚴謹爲主。勿失禮意爲佳。內行一事。亦所當審處。不得不與彼中主事者相議。慎勿以憤悶不平之意形諸外面。辭氣之間。切忌凌厲迫切。務要委曲婉轉。開陳誠心。使之知事勢之不得不然。而毋至乖激。幸甚。^P凡人處變之道固應如是。而衰服人事。又與他自別。千萬慎旃。隔水遙望。無由面囑。委人錄示。庶領此意也。

答族姪鼎周 辛酉

來示縷縷。方在滿室憂病中。而乃能反身自警。陳說及此。可想其志意之篤。能以是自勉。豈卒無所立耶。所囑事。不待君言。有意已久。適此新元。特有所感。畧有所述。令家兒書送一通。而顧其辭意。不是偶發。能領會我意。激勵加勉。不只作楮壁間無用標榜否。所以必令辰兒書贈者。亦不爲無意。要共與之協心相勉。第其筆禿手拙。字樣不佳。君更寫看亦無妨。

答鼎周問目

從大父祥事在三月十日。而季父服喪在十二月。故練祥則將以服喪日行之。初暮祀事時。只告事由而不用祝耶。

小祥固爲退行。而初暮祀事則似不必用祝。只告事由似宜。

從大父襄禮時。未及造主。故今將追造。題主祝則改旣成爲始成。去形歸以下八字耶。題主奠。因夕上食行之恐無妨。未知如何。

題主告辭。依所示刪節本告辭。而畧提事由以告似宜。^P題主是大節。當別設一奠。而百事不得不從勢爲之。因夕上食行之。亦無妨耶。

季父喪制。雖始於十二月。而從大母練變之制。與從姑期服。似不可退待。從大母及從姑則依禮行之。而季父季母及從弟。皆待十二月耶。

先滿者先除。後滿者後除。凡服皆然。而今此所處。又與尋常自別。鳴臯令公嘗以此質於橫溪。而其論

說明白。載在本集中。似無可疑。母子甥妹。前後差池。似不得不然。

姪家叔姪兄弟皆在服中。兒曹俱未冠。俗節及忌日。P無行祀之人。欲製直領自行之。未知如何。

俗節。製直領行祀固好矣。朱子在祝夫人喪中。嘗別製服行廟祀。此固可做。

小宗以未葬前。寒食不行茶禮。姪家私廟獨行。極爲未安。兩家家廟。密邇如一室。何以爲之。

小宗未葬前。支家不敢獨行節祀。吾家家禮。自前已然。况密邇若一室耶。

答鼎周問目

宗子之服親喪而爲旁親行祔祀。與自爲喪主有別。衰服行祀。竊恐未安。姪意則宗子使長子代之。似無P妨。慎齋曰。宗子居父母喪。當期大功祔祭。服其所祔之服。今無所祔之服則似不必以衰服行事。向承下教。又不能無疑。故敢此更稟。

宗子以喪人。旁親祔祀。使子代行。是似便好。而第念禮必通行無碍。然後可以爲法。宗子以喪人。若或無子。或父子俱是喪人則奈何。莫如宗子以深衣平涼子躬親爲之。祔祀與他自別。使子代行。亦恐未安。宗子自行。不必爲疑。

虞祭祝文。小祥則夜處下。有小心畏忌。不惰其身八字。夫夙興夜處。哀慕不寧二句。已說盡孝子哀痛不P違之至意。而小心不惰之義。自在其中。何必於小祥。始爲添用耶。世或以爲此八字只用於小祥。而大祥則不用云。尤不可曉。姪意則雖小祥。不用恐無妨。未知如何。

八字添用。舉世通行。嘗觀近世所刊禮疑類輯。則陶菴，黃岡皆以爲亦當用於大祥。盖虞祭則主哀痛。小祥以齊潔致謹爲重。所以必添用八字。不惰。以身言。不寧。以心言。亦不必疑其意疊。

答從姪鼎凝 癸丑

昨書適值撓忙未答。卽惟日間。制况支安。知止能得。向P者相對。率口酬酢。不加審察。自覺其謬而無及矣。卽得來示。未易看得至此。豈不深嘉耶。知止爲知。能得爲行則誠然矣。舉三綱八條而統言之者。其間架甚闊。就知止定靜一節而言之者。其間架甚促。然而功夫功效。實包在三綱八條之中。而爲其全體三綱領。何嘗特言功夫。而不包功效耶。大抵此章。既以三綱領爲大題目。繼以知行先後爲次第功夫。使學者欲必循序做去。故下節特以本末始終。知所先後近道。爲結落歸趣。其下因逆推功夫。而言其所當先。順推功效。而說其所後得。其旨意所重。專在於此。爲今日學者。所當加意用力者。惟P在其功夫之知所先後。而欲必齊頭做去而已。其功夫積累後。其功效自有所得。不必預爲論量。不曾實下旬月功夫。而遽汲汲并論其功效也。陽村圖說。雖極精詳。而此不過摹出一部大學影子。讀大學者。且當專就章句。玩索講究。體認服行。如圖象等文字。只用把作證案而已。今於章句。有未及得見歸趣。而輒以這圖象參錯并進者。不幾於博雜紛擾乎。古人讀書。深忌此等意象。亦不可不念也。

寄子鼎辰 甲申

以我之思汝。知汝之思我也。汝之腹痛。必頻頻作苦。雖^P有母可恃。而亦與在家不同。何以堪過也。亦能不廢課學。又不與同類戲亂否。古人有於流離中讀大學。况汝之隨母乎。日詣南丈宅。恭謹受學。無敢或慢。退而勤讀所受書。明日背誦憤快。則是亦事長之道。豈但爲文乎。此間無他故。而猛虎噬殺廐馬。可謂寅月之厄也。雖欲往見汝。亦何由致身也。早晚若借得所騎。當一往。未前須千萬慎戒。凡厥坐立行止出入之節。皆留意謹重。勿以幼妄自處也。所望於汝者惟在此。暫時不見則不必恨也。戒之警之。

寄鼎辰 壬辰

^P奴來。知無事得到。即日眠食何如。客中凡事毋忽。慎言行慎疾。勿放勿弛。勿語及時事。勿費眼力犯夜看文。及期得還。幸矣。

寄辰兒別紙 乙未

觀汝雜著一卷。其文句意象。依例賞罰外。逐篇逐節。多有可論。不可不畧說使汝知之。顧字行極窄少空白。別紙錄去。要看之。其可者欲與加勉。否者欲動心知戒。善惡邪正。虛實褒貶。輕重大小之間。是汝爲文不爲文。做人不做人。爲君子爲小人。爲吾黨爲異端。吉凶禍福。所係不輕。尙明聽之哉。毋忽毋忽。

^P汝先慈氏行狀。其煩冗不穩處。畧加爻周改攬。然大家精密詳陳。文句語意。各有下落。是汝本來面目。可嘉亦可用。待日後從容相議正書。

送朴君序。全是生手。畧題本題下。及紙頭篇末可考。然亦不過文病。熟則自祛。非足深慮。

遊涵碧樓記。裁削可用。但篇末一節。不自務實。夸虛慕名。此心已不好。文人詞客。或不忌此。而儒門實工。所戒在是。若不痛革此念。漸至差了。則捨卑近驚高遠。厭實慕虛。脫畧清曠。未始不以是胚胎。

遊梅鶴亭記。末端有失格處。然亦是文病。不足深慮。

^P臥遊金剛序後所書。此有當極論痛斥。觀其意思夸虛。全不自量。妄欲學馬遷規模。而自家頓無力量氣勢可以彷彿影響。故只是虛浪無主張。虛歇無收殺。亦或誕幻不經。而自不知愧。全不成文。全不成語。此不但大悖儒家口氣。爲無限病根。其於爲文。若不深戒痛革。量分反實。則恐全失本來精雅好面目。而終不能一番實用。可懼可懼。

艾湯詩序後所書。此惟切實精雅。始見本面目。似此做將去。何所不用。文句有病處。畧加裁正。可以示人無愧。然而西山爽氣中這五字。此又何爲。於文於義。皆是贅^P疣。必刪去此句。然後始穩貼。終是好用此等語。是向來夸大之證。已釀出清虛病根。始見於此。豈不知所可戒耶。

傳此欲效爲五柳先生自傳。觀其文溫雅精密。而其中大病非一。不但爲一時文句之疵而已。向來病根。至此大發。若不回頭轉腦。痛革快祛。則是必爲小人而不爲君子。爲異端而不爲吾黨。如居無定所一句。此宛然山僧語。爲儒門子而甘心作此等口氣。此在身命。亦極不祥。胡不知戒。胡不知戒。因久病得養性術。謂可入聖域。既謂因養病得其術。則當日得養心術。不必日養性。^P而養心養性。是不可白地忽得。必須講學做工得之。自古聖賢成法。昭揭如日。載在方冊。是豈只因養病得之者乎。只是塊居養間。茫然不知存養節度方法。而遽謂可入聖域。則此與禪家所謂忽地成佛。觀心見性等語。彷彿相類。汝曾知此而不爲嫌乎。抑識未逮而不自察乎。喜爲高談。不與流俗同調。所謂高談。談何事乎。不肯向平易卑近處。講究人倫日用之實。而必欲超出清虛澹泊。脫畧世故。是其說不得不高遠。而與流俗不得不異調。高乎云爾。豈曰正哉。不但與流俗異調。而與吾儒門氣象。大不相類。被人嗤笑。不以介懷。尤極肆然^P無忌憚。古之君子。守死善道。雖不以外人嗤點有所沮撓。而醇儒處世之道。亦未嘗欲觸犯忌諱。輕世肆志。有所取辱。故夫子有危行言遜之訓。何嘗肆爲高談。不恤人言乎。況在我有未能得正而固足取笑乎。神仙道士。外類雜家。婦孺亦知其誕荒。而乃亦有意。是豈汝之罪哉。我於平日。實未嘗以荒怪不經教汝。而惟其無實工夫。可以傳家作法。故汝輩無所觀感。以至於此。尙誰咎哉。他日士友有識者。必有見汝而知我罪。惶懼惶懼。夜半霜氣逼人。非但氣象太清寒。心無定主而遽尙此等。則未必不至於孤枯寂寞。古人或有這意想。而心^P實有主。未嘗或虛。故亦無害而有益。此不可不知。飲竹露似寒蟬。渴則飲水。是常事。大都失於太清。而無一分平實意思。俯仰乾坤。顧眄山川。是甚形狀。是與點也浴沂。與萬物同流。其氣象何如。高不如平。清不如和。秋之寒不如春之暖。激仰慷慨。不如從容自樂。識此則當知所自養。遐思遠想。感慨不樂。不知其所由。汝則謂不知所由。而我則知之。清生於虛。哀生於清。所以不如和厚自養。欲自養疾而反助其疾。汝試於心平氣和時自點檢。於悲歎怫鬱時自點檢。則當有所驗。然養得和厚亦固有法。莫如從事古訓。欲不病於心病於身。^P欲不短於智短於身。正心以修身則心益正而身可修。講學以明智則智益明而身無患。惟其欲不病於心而實不得其正。故病於身。欲不短於智。而實不循乎理。故短於身。

上樑文。人間未必有真仙。只願清心以寡慾。方築學室上樑。而乃說及有仙無仙。於文爲客語。於意實大謬。只緣自家平日於此等說話。用之如茶飯。有如儒家平常說聖賢。故不知不覺。自然如此。况清心與養心不同。清心字。是老氏來歷。

五養丹詩并序。所謂五養丹。吾儒家亦有此名目乎。塊^P居養疾。謂不能看書字。孔孟程朱之書。未嘗或列於前。而猶有精力及於參同契。看去看來。費了工程。至謂皆治心養性之方。則治心養性之方。果外此而無可看耶。所謂治心。果無愧於儒家正心。而所謂養性者。果能養得仁義禮智之性乎。忿戾怫鬱之氣填塞曾中。則只緣平日不能得力於義理之正而然。能知以理處之則亦有此患乎。蠶聒喧雜之端。焚集眼前則只緣平日不能立其大本而然。本既立焉則雖萬馬驟突於前。而寧有亂了我乎。習其懶則無怪乎有志而無成。一懶字。是誰之過耶。懶於聖經而不懶於參同契。不亦怪乎。讀庸學^P論孟之書。做格致誠正之工。意既得誠。心既得正。則外物自不能亂。而人慾退聽。天理流行。終至於心廣體胖。則疾病之生。亦將救得萬一。奚必曰白地安心。滅息思慮。不要理之流行。而必要正氣流行。不要欲之退聽。

而必要風邪退聽也。退溪詩所謂思慮損精。清虛養身。古井無塵等語。直借來這說話。要爲存養之資。而自家自有實工夫鞭辟做得。何嘗白地徒坐。直要清虛無塵哉。朱子之觀參同契。亦有意偶發而然。非退溪朱子之已得力於實工。而只就其偶合處。謂前賢亦嘗取此爲我心契。而至於感發成詩。則其迂怪自信已甚。誣前賢 P 亦極矣。退溪詩集所當感發興起處。乃只在於此乎。就大賢名言中。不肯潛究要切之訓以自服膺體行。而特拈出其外面偶合者。以爲援引耶。

病中述懷詩。正陽仙子。見之何益。溫養神方。未開何恨。閉眼只增生忿恚。則閉眼冥心。不足爲養心之方。已驗於此矣。無端忿恚不堪。乃欲將身上臺。則狂怪悖妄已甚矣。參同契乃無效於此耶。若有實工夫存養得力。則寧有不堪病苦而遽至狂縱乎。鈇鉞在頸而從容談笑者。其氣象何如也。夫子厄於陳蔡。而絃歌不絕。曾子六日不舉火。而歌聲若出金石。此必有其本矣。似此不已 P 則恐汝終不能保完身命。而身世亦恐不泰。閱極閱極。送族兄南歸序。欲學爲莊氣而參差斷續。夸虛雜亂。全無收殺。正所謂畫虎不成。決不如依本文性做去。此與上金剛後序所書一篇。其病痛一般。不自量固甚矣。故嘗觀汝所作策一首。則其必作問神仙有無之題者。非真欲斥其誕也。惟其慕清虛而若有所見於參同契等書。得神仙家羽翼文字說話。而樂自編用。故必以是爲題而勤勤說去。其文亦中毒於莊子。故大不類前日面目。齟齬不穩貼。踈闊不精密。漫而不切。煩而不簡。如此而尚可望於射策得科乎。窺汝本意。有不敢無端坐說 P 神仙。故假借策題。要一番極口說破。而既自編來成文。則自愛其說之能談仙。其文之有莊意。不欲卽泯而去之。常書在粉牌。置在案上。常常披視。此豈爲有科念而然哉。是其心術不好。實有甚於科學之學。而此亦我已知之矣。不看馬史則看莊子。不看莊子則看參同契。尋常文句說話。從此流出。無一言半辭或及於進德修業。格致誠正之實。此其像果何如也。可痛可痛。

病居讀書令序。上曰病戒。下曰讀書法。而不相包貫。法字又不穩。故改其題目病居讀書令。如是庶幾上下相包。不相離析。此序文一篇。最爲可誦。文句抑揚有力。語 P 意親切精細。若粗知作者規模。而未抄下落。能知所自勉於是。而乃始有回頭復迷之望耶。惟閉目塊坐。垂簾頽臥一節。終有舊病。若改以常常優游不迫。保合天和十箇字。則始無病。

餘外不能盡論。惟汝詩中。細草含烟能淡泊。晴花映日自分明一聯。最爲可誦。何不懋養此意象。爲第一義乎。沃姪所詠靜觀動盪三春氣。能使氤氳萬物情。又極和好。其弟所爲動處難持靜裏心一句。亦甚的確。若有自檢工夫。可嘉可嘉。須痛斷去清虛悲憂夸大意想。誓不復爲不平不正不中之語。將聖經賢傳讀來讀去。則自 P 當有效。向所送魯論。已始讀否。能漸次有味否。後便竚得聞好消息也。觀汝岳翁書中多可警語。於汝可謂對證良劑。汝能服行則寧有他患。此翁見識之不凡。於此可見。而恨不能說破用力之方。此惟在熟讀大學魯論。錄此後既示鼎五矣。汝又持示國年同勉也。

寄子鼎輝 甲寅

[1]ITKMOXML | 복사 URL 복사

日熱如火。羣居無病。課做如意否。諸君留汝分饋。其意可尚。而今日又聞招邀獵魚。亦有遠來之朋。可想其一番暢懷。汝以童幼。始出家庭。與衆稠處。課業固不可懈。而言行固不可不謹。豈可不知可羣之道耶。接中於汝 P 無非長者。雖是兄弟之行。而既爲長爲先進。則其敬事之道。當與尊行無間。近日

회병집(晦屏集) 신체인(申體仁)

吾家後生。全不知事長之道。戒之戒之。長者出入時。輒爲之起立。有使令。輒輕身起應。勿觀望於同類。坐處寢處。勿自擇便利。食時勿先長者舉匙。長者之談笑言論時。只當坐而聽之。絕勿與之參錯紛紜。題出後。定坐一隅。恭聽長者論難。必尋見其旨義路脈。而著念究思。趁速卒篇。戒勿稽緩後時。有疑必再三質問。勿容苟且塞責。修草時亦楷書。卽就長者請考。有間隙。須誦小學一二章及箴銘等篇可也。洞中長者。或有來往。輒爲之出門下堂。納拜迎送。與同類相^P處。亦必相敬勿相忽。慎勿譁浪過度。雖或有不如意者。慎勿以幾微見顏色。一以和好無嫌處之。福曾於汝爲同類。而實與我同行。不必直呼其名。爲之稱氏固可。吾家舊法。無論遠近。凡行尊者皆稱氏。而近日後生。全不知此義。可恨。諸君既以好意留汝。其能饋之。而又有忠焉之誨乎。但以言教。不如以身教。諸君之年紀已晏。未知能各自謹飭。不以雜亂荒怠示兒曹否。爲諸君深念。而又恐汝之效尤。須以此紙奉示諸君。因與福曾共覽也。聞少年洞痢疾大熾。往往濱死。甚可怖也。一接須皆戒慎。勿相干。夜必爨突溫處。勿寢冷堂爲可。須勿失此^P紙。時時披見警飭。則當有所助。坐必跪坐。勿偏任一膝。勿伸兩腳伏臥。看文字。高聲疾言。忿氣厲色。皆十分加戒。勿使汝父垂死。以不教子得謗則幸矣。

寄鼎輝 壬戌

昨日汝既發行。而此伴踵至。恨汝不少遲一日也。昨暮宿於何處。而今日到楡谷否。昨日臨發。畧有所言。汝不忘惕念否。爲客與在家不同。初出入。又特自別。須十分戒慎。言行動作之節。待長交友之道。無或放心。必致敬謹。歸時須歷入柳村石田上枝等地。修各處人事。而到底謹慎。勿使老父由汝得謗也。到處勿多費日子。汲汲^P促還爲可。

晦屏先生文集卷之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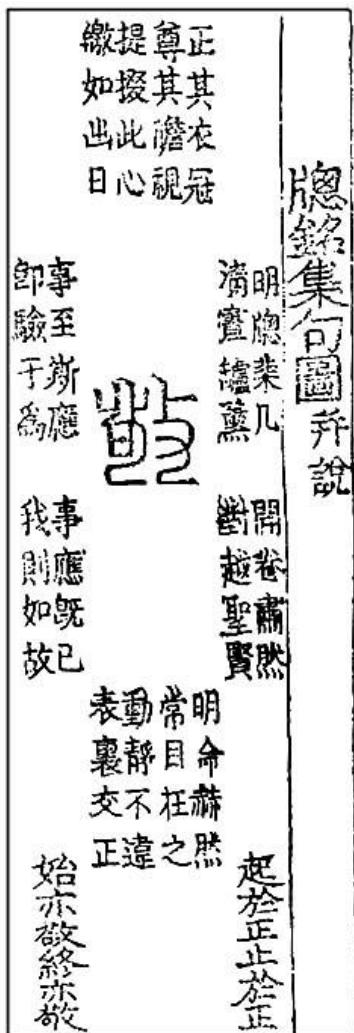
雜著

宗孫祖應字詞

爾生之夕。夢見乃祖。初度同日。知亦匪偶。一氣感通。若與相應。宜卒無忝。蓋亦明聽。恭惟乃祖。志行可則。始也不羈。一朝端勅。力學無怠。先民是程。爰暨乃考。克世家聲。冥冥眷佑。篤生寧馨。乃考諷我。錫以嘉名。冀汝長成。卒承令緒。承之如何。是惟在汝。戎雖小子。而式弘大。豈敢曩棄。甘就污下。志無虛邪。行必正直。從師就友。切磋成德。溫恭自虛。毋驕恃力。激勵圖新。舊習是革。庶張吾家。配祖增光。八世宗業。永休無疆。乃考有知。曷不嘉喜。宗族交賀。儕友稱美。迨今冠汝。蓋以是祝。爰字幼承。其義可繹。

牕銘集句圖 并說

[窓銘集句圖]



歲乙巳。余在淵齋。常獨處牕下。或默然靜坐。或對案讀書。或事至客來應之。應畢復靜。每朝日上牕。房室皦然。照澈心界。無微畢顯。圖書筆硯。牀罽揮檠。枕席等物。莫不昭鋪森列。有不敢欺不敢慢底意。遂有感於夙興夜寐箴所謂提掇此心。皦如出日之語。欲因敷演為銘以自警。顧自述自砒。莫如取據古訓。謹依詩家集句法。乃摭取前賢箴贊名言。得十六句為一篇。名之曰牕銘集句。因排列為圖。中置敬字以總會之。銘凡四章章四句。首四句為整勅身心之敬。次四句為讀書時敬。次四句為應事時敬。最後四句為常常顧諟。無間斷之敬。圖既成。揭諸牕面。題其上曰牕銘集句圖。圖之占位。蓋跨牕之四箭三間。而圖下旁右偏。又直豎書。下日起於正止於正。左偏曰始亦敬終亦敬。雙腳對立。齊垂以承之。蓋銘以正其衣冠為首。而以表裏交正為末。是為動靜循環。粹然一出於正之義。而要之敬字工夫。實貫徹始終故也。坐立觀省。須臾毋忽。萬一有助於閒居分寸之工乎。余又念是銘。實感發於日皦牕明而作。故不綴及嚮晦之工。固若可欠。然而朝晝不至牯亡。則夜氣愈清。夜氣清則平朝未與物接之時。自可以見湛然虛明氣象。晝夜晦明之工。乃不相因以發。而皦然如日之心。豈或有間於暮夜乎。然則是銘也。亦將由明逮晦。自顯及幽。周流貫徹。無復遺憾。或由此漸擬於終食不違之工。而為流通普遍之仁。亦惟在積累用工而已。豈直以標揭牕壁為貴哉。欲一與同志語此。以質其愚妄也。乙巳南至月日。淵齋主人書。

天學宗旨圖辨

衰病索居中。因士友來往。聞近日京洛異端新起。所謂天主之學。來自中州。都下學士大夫有聰明者。多中其毒。是蓋自西洋國來。轉入中國云。其法大抵與佛相似。而近理亂真。有甚於佛。朝廷嘗詰治嚴防。而有難痛絕其根。余聞其說。不覺悼心失圖。愕然驚歎。以爲聖遠道喪。百怪競起。犬戎僭據之後。先王之禮樂文物。盡入腥羶。中國蓋無可論而我東今日。治教休明。列聖之培養已久。諸賢之遺風尚存。孔孟程朱之統。焯如日月。不意聖明之世。有此妖魑之作。此實係民心淑慝。國家興亡。而爲吾道盛衰之一大機括。有志之士。所當深憂遠慮。挺身奮發。必要其嚴辨痛斥。鳴鼓建幟。一快廝殺而後已。恨無緣究其詳而得其要也。其後乃得見順菴安公所爲天學設問十條。李爾雅齋獻慶所爲天學問答一篇。吾友晚谷趙聖紹所爲雲橋問答一通。皆所以辨斥天學。設爲答問。究極源委。不遺餘力。雖其文章有下之殊。氣象有疆弱之別。然而大率扶正道闢邪說。憫時俗病焚溺。慨然自立於頹波之中。而欲以隻手障川潰者。三君子之言。如出一口。非所謂深憂遠慮挺身奮發。欲必嚴辨而痛斥之者耶。自司寇詰治之後。乃有正論之繼發於下。而相與戮力聲討。故其泛濫橫流之勢。未必不由是少沮。其功亦云不少矣。雖然。闢邪斥奸之道。自有深淺精粗。不必窮詰於其說話形像之易辨易知處。而莫若先就其本根深奧處傾倒囊橐。剔發肝臟。拈出其所謂要旨。而尋討病根。使其心術綻露。情狀昭晰。不容少有遮掩逃匿。然後庶見其摧沮惶縮。消散就滅。有不敢更肆其氣。余嘗得見安李二公說一冊。而其卷端空處。有所謂天學宗旨圖者。未知是圖乃亦出於利瑪竇者歟。抑其徒相與祖述而爲之者歟。表章宗旨。提爲名目。則可料其三昧秘訣。無有深於是者。噫。名爲天學圖。而圖之上面。只特書私慾二字。則是便爲私慾圖而有不得爲天學圖者矣。人之一心。本具天理。而私慾紛拏。迭起以侵。故吾儒心學。必以存天理遏人慾爲務。前後聖賢相傳旨訣。蓋不出此。而今是圖乃以私慾二字。爲一圖之主張面目。略不提及天理。則是人之一心。只是一團私慾窠臼。而本無天理矣。其學之無本領無主宰。於是可驗。而直孟浪爲異端虛妄之歸。其大頭腦。固已錯矣。克治存養。相須共成。如內修外攘之不可偏廢。必如是然後可以扶豎大本。剷除邪私。永保無憂。而以慾制慾。其慾益熾。天理本體。無復可尋。其學似高而實卑。其術似深而實淺。只出於釋氏之腳下而掇拾其糟粕而已。謂之甚於佛者。亦過矣。釋氏大抵近理。而此則無一端近理處。釋氏有足亂真。而此則蓋無足亂真者。不待更究其詳。而觀於此圖。足以得其大要矣。三君子之答問論斥也。恨不以此圖有以發其奸而摧其喙。所謂明其爲賊。敵乃可服者。其不在斯耶。蓋順菴之說。其攷據甚博。證明端的。大體可謂得正。而其說亦未免有病。若所謂聖人所訓。皆天主之教。又謂西士之學。言言皆實。事事皆實。比諸老佛。空寂有間。而特其言語貌樣舉措。終是異端云者。卻似斥其表而許其裏。又謂或如世間官長之有長貳。使之宣化西士者。其說可疑。未知此翁嘗何以看認。而卻稱說如是耶。爾雅之說。其筆力條暢。議論切實。若所謂上帝無耳目口鼻之可以圖象。魂魄精爽之可以廟祀。而其曆法之得明一曲。此猶鴉鵲之知風。狐狸之知雨。有不足信其知道。又謂佛老陷天下於夷狄禽獸。而天學溺天下於魑魅魍魎云者。其說煞有精采。而其論釋氏地獄之說。原其心則出於勸善。寂滅之教。本其意則在於澄慮者。未免過於假借。末段之欲明吾道以教之者。爲得反經救弊之道。而但未能的指下手處。蓋明道立教之責。有不必專在君上。而爲吾徒者所當自勉。苟非知所下手。真實用力。則曷足以明道而立其教哉。故必反諸六經而講究體驗。深造得力。義精理明。不爲他技所惑。如朱子嘗自說。將所謂禪權倚閣。起取聖賢書讀之。讀來讀去。漸漸有味。卻回頭看釋氏說。漸漸破綻。罅漏百出。然後吾道庶幾可明。而後學庶幾可教。恨不能痛快說此。使聽者有以興起。晚谷之說。其詞氣頓挫。辨證宏博。有足警發。而且并說毛學之弊。一舉而兩討之。其志固亦偉矣。然而其篇末一轉語。反若謙退。無始終力撐意象。良可恨也。先儒謂聖人本天。釋氏本心。而爲天學之說者。又

謂西學本諸天。此其說若相近而實相懸。晚谷蓋已力辨。而必參以爾雅之辨。然後當相發以明。若爾雅所謂。在事物則當然之理是上帝也。在人心則所賦之性卽上帝也者。可以發明聖人本天之義。而與西學所稱恍惚有形像之天主不同矣。大抵其學。動說天主。往往可駭。卽此一圖。可以洞見情狀。而聰明才智之士。乃不免風靡影趨。載胥及溺。不亦異哉。傳曰。得其情則哀矜而勿喜。朱子曰。彼之迷昧爲可憐。夫以搢紳名家之子。一朝被異說誑誘。至滅絕倫理而不自覺。非可哀可憐之甚者乎。或謂變速禍少。徐當泡解電滅。無以作菑於宇宙間。其言亦似有見。而山東之鼠竊狗偷。亦未嘗不爲秦患。則直自恃吾道之中正而忽於防患者。豈君子周于德之意乎。慮不在千里之外者。患必生几席之下。此不可不戒也。窮居翫討之餘。不勝過計之憂。僭不自揆。畧述瞽見。爲天學宗旨圖辨。而欲以足補三說之缺。豈敢自擬於其鳴鼓建幟。一快廝殺者耶。恨不與三君子對榻而一論之也。歲辛亥孟秋月日。晦屏書。

中何嘗不在裏面辨

已發之後。中何嘗不在裏面。此南軒之說而朱子非之。其說詳在朱子與南軒書矣。百世之下。公案已定。此不但槩以朱子說爲重而有難輕議。揆以實理。旨義誠然。有不敢問矣。故自宋季元明諸儒以及我東諸老先生。無不篤信師說。遵守定本。不復疑難。而近世吾南先輩。有忽力伸南軒之說。爛熳說與於知友往復之書。雖未敢顯詆朱訓。而遷就兩間。曲爲辭說。至謂南軒說話有或未瑩。而朱子未得領會云云。張皇翫縷。不止一再。而其大要則謂中有體用。已發之後。用雖形於外。而體未嘗不在裏面。乃引胡文定公所謂不起不滅心之體。方起方滅心之用。雖一日之間。百起百滅。而心固自若者。以爲之證。體仁。嘗竊有疑于是。以爲體用之說其來已久。在天地則以太極動靜爲體用。在吾人則以一心寂感爲體用。所謂未發已發。卽心之寂而感者也。寂然不動而不偏不倚者。是爲未發之中。感而遂通。而無所乖戾者。是爲已發之和。和者。實中之形於外者也。於是遂以中爲中之體。以和爲中之用。則所謂中有體用者固然矣。而體用同源。顯微無間。顧何嘗有分體用而各立別地頭爲異位者耶。噫。道理之冲漠無昧是爲體。而實咸具萬用。發育流行是爲用。而實不外全體。故觀中庸費隱章。費是用之廣。隱是體之微。而所謂微妙難見之體。不過在用之廣大流行處。此不是別立各在者也。今以理之在人心。而爲中之體用者論之。則其寂然未發之時。是中也固在裏面爲體。而及其感而已發之後。則此不過以其在裏面之體形見於外。而爲其用矣。故朱子於此。亦嘗曰。當其未發而品節已具。隨其發用而本體卓然。寂然感通。無少間斷。又曰。寂然感通。周流貫徹。而體用未始相離。又曰。情之動處而性在其中。此與中庸費隱說相發。而有不可更疑體用之分立也。若以是而或把作二物。各占地頭。謂體則在中而用特形於外面。用方形外而體尙在於裏面云爾。則是體與用各爲別物。而不相涉入。用不是體之顯。體不是用之隱。豈不大悖義理之真耶。然則如文定所云。亦不過就其用以論其體爾。何嘗外於起滅而論其體者哉。故朱子嘗以是稱爲好語。而又解之曰。讀者當知所謂不起不滅者。非是塊然不動。無所知覺也。又非百起百滅之中。別有一物不起不滅也。夫以其不起不滅者。謂不是塊然不動。無所知覺。以百起百滅者。謂不是別有一物不起不滅。則此其義不啻明白精切。而乃反引此。欲證成其分立體用之說。則吾恐其未免自引而自破其說也。豈不并與文定之言而失其旨耶。夫以南軒學問之深。義理之精。偶失照管。有未契朱子之意。則此不過爲知者之過之者。朱子大訓。昭如日星。以揭示萬世學者。而乃忽作爲新論。縱橫說出。欲翻了已定之案。此固已不韙。而顧其所以爲說者。又未知其必契南軒之意。此余之所以不能無疑也。昔有人說心無體用者。退溪李先生嘗爲文以辨之。今之論體用者。卻將體用作別物看。一合

一分。其說雖異。而及其失義理之真則同。倘有如李先^P生者復出於世。安知不又爲一言以破之耶。大凡天下之論。無兩是之理。若必以南軒說爲不非。朱子說在所不是。安在其不敢顯詆也。况南軒不是模糊說未瑩者。而朱子不是未能領會人言者。則說出到此。尤豈不十分未安耶。客有難之者曰。邵子不云乎。體立天地先。用在天地後。此以體用分明截作先後分立。獨不可分立中外耶。余應之曰。邵子之言。實與朱子說無異也。天地未生之前。此體已立。而用未嘗不具其中。天地既生之後。其用始行而體未嘗不立其間。未嘗有體外之用。用外之體。則此與朱子說當相發以明。而不可遽疑其先^P後之分立。以是而欲證明分立中外之說者。不亦誤乎。大抵後學之講學論道。要當攷究成法。遵守正案。白直加工。不敢苟爲新說以亂之。此不可不深戒也。閒居謾錄。畧述所疑。欲一與同志論之。豈敢肆然自多。爲若獨得朱子遺旨邪。

父卒三年內。爲母服說。

喪服。父卒則爲母疏。父卒三年之內而母卒。則仍服朞。要父服除而母死。乃得申三年。出儀禮註

南菁伯問存齋曰。斬衰三年。遭母喪則雖已除父之喪。齊衰小祥後。禮當伸心喪。而世俗莫不駭怪。皆以^P短喪論之。伏望據禮指教如何。答曰。父喪內遭母喪。當爲服期。行心喪。一如父在爲母之儀。詳見儀禮註疏。分明可攷。或以此問于朱子。朱子亦不明言其不可行。似當一遵註疏。而但此禮不行已久。幸更問于知禮處。

葛庵答權一之曰。父喪內有母喪則當以期斷。既有明文。遵而行之。更有何疑。十一月之練。既不能行。則月數已過而追行。恐非禮意。若使不違月數而行之。則其除之也。當服除喪之服。右二說主賈疏

杜元凱曰。父已葬而母卒。則服母服。至虞訖。服父之服。^P既練 父喪練 則服母之服。將除。父喪將除 服父之服以除之。訖服母之服。出通典

金沙溪曰。按疏說雖如此。而揆之情禮。終有所未安。若父死未殯而母亡。則未忍變在。猶可以父未殯服祖周之說推之。而服母期也。如父喪將竟而又值母喪。亦以父喪三年內而仍服期。果合於情理乎。杜說則似無服期之意。未知如何。

吳汝和問愚伏曰。杜氏通典。賀循云父死未殯而祖死。則服祖以周者。蓋父屍尚在。人子之義。未可以代重故也。若以父屍尚在而服祖以周。則父死未殯而^P母死者。其亦以父屍尚在而不得服三年耶。答曰。賀循之議。推之精矣。左右因此又推。又益精矣。但禮論竝有喪偕喪處非一。而語不及此。不敢臆說。又答問曰。服母以期。乃是屈於父在。千萬不得已而奪情者耳。若又以賀循之說比類而降服。則恐於心不安。寧從禮宜從厚之說爲得耶。不敢知不敢知。右二說符杜說

體仁竊惟賈疏服期之說。是孝子不忍死其親之義也。杜說雖不明言其必伸三年。而按母之卒。在父喪葬後練前。則至父喪將除之時。當已過母之小祥。而猶且服父服。除訖而^P反服母之服云爾。則其母卒不服期而必伸三年者。豈不明白可據乎。賈，杜二說。固無輕重。而存，葛，沙，愚亦各殊見。按存葛專以賈疏爲斷。而存齋則論及心喪。葛庵至論十一月之練。問者至謂雖已除父喪而猶伸心喪。則其爲說反有深於賈疏矣。沙愚雖未嘗直舉杜說爲主。而沙溪以服期爲終有未安。愚伏謂於心不安。說話意思暗與

杜說相承。沙溪所謂猶可以三字。又不免爲僅可未盡。非斷然無疑之語。則是其語意。又非以父未殯服
 P 菴之說。爲亦未爲至當。而其說不反深於杜說之只論已葬之後者乎。兩說共行。義理分立。後之學者
 將奚所折衷。而舉行哉。體仁妄竊以爲孝子雖有不忍死其親之意。而爲父屈母。亦出於萬萬不得已而奪
 情。則當父喪母卒之日。其遭變罔極。所處自異。恐不必過推父在之義以守其常。而不思所以爲母伸情
 也。故父既卒則雖於其未殯母亡。而孝子不得不主母喪祭。及其葬也。又不得不以顯妣題神主。事異勢
 迫。禮不得不隨以變焉。奚 P 獨至於服制而不然也。若以父屍尙在。而欲固守父在之義。則是主喪旁題
 。皆若未敢。而既不以此爲嫌。則服制之獨以菴年者。亦恐斑駁不均。未知如何。大率禮緣人情。貴得
 平順。若全無古說可依。而只自徑情直行。則固爲有罪。若不然也。俱有先賢明據。而一則合於人情。
 一則終不安於心。則奚必舍其合情。而行其所不安心者。自謂有所受也哉。故以愚妄見。則凡世之遭此
 變者。似不得不以三年賈疏不忍死其親之意。則惟當存諸心。不 P 忘。若朱子所謂三年無改之中。或有
 不得已而改焉。則能存得不忍改之義。然後可以無害於爲孝。豈不兩盡無憾哉。蓋賈疏所云。實儀禮經
 文之所不言。賈疏只演出言外之旨以補經意。而其駭俗難行。自近古已然。杜說雖不明言所以當三年之
 義。而顧其語意。斷然無疑。非出於勒說無稽。大乖經義。則豈敢斥之。以爲死其親者乎。然則存齋雖
 嘗引朱說爲證。謂不明言其菴制之不可行。而愚意謂既不明言其不可行。則亦不明言其可行 P 也可知。
 此亦所當商量。近者得見三棄齋鄭公所撰禮儀補遺。則其父母喪同時。爲母服條。首揭賈疏爲主。而又
 以愚伏問答。低一字錄載其下。若以爲折衷斷案。豈曾無見而然哉。體仁以蒙然末學。固不敢容喙於禮
 訟之場。而不幸親族有遭此變者。有不可不相與熟講。通之以要據行。而鄉里長德。又辱見教及此。欲
 有以粗效妄見。故乃敢列錄古說。附以臆論。書爲一通文字。而因便投納。冀蒙裁誨。又欲就正大方之
 門。以決其疑。只增慚懼 P 萬萬。

蔡覺軒動箴說疑義

[]ITKMOXML | 복사 URL복사

動箴曰。哲人知幾。誠之於思。志士勵行。守之於爲。未云習與性成。聖賢同歸。覺軒說曰。聖性之也
 謂哲人。賢習之也謂志士。及其成功則一也。故曰同歸。愚按是箴該動之精粗。誠之於思。是就心之動
 勿非禮也。守之於爲。是就身之動勿非禮也。此惟哲人志士能然。而學者所當取法也。其語義正與聽箴
 所謂卓彼先覺。知止有定相類。所以特舉能者以勉不能者也。故動之能順於理則必裕。或從於欲則必危
 。學者當造次克念。戰兢自持。 P 毋敢或忽。而其習之之久。得與天性合成自然。則可以直與聖賢同歸
 而無間矣。然則哲人志士之事。此不必以聖賢等分。而只當分作動之精粗看了。况以其誠之之二。謂是
 聖人之性之者。豈可乎哉。四勿工夫。是下生知安行一事。而爲亞聖克己復禮事。若是聖人之自然性之
 者。則顧亦何事於四勿也。故程子四箴。皆就工夫說來。未嘗說到不思不勉界上。而遽以此哲人知幾。
 謂是說性之之聖者。乃不可疑乎。以聖爲哲人。以賢爲志士。而習則屬之賢。性則屬之聖。謂及其成功
 同歸。則是不過聖與賢自與同歸。而更無學者工夫可驗處。豈程 P 子作箴之本意乎。此在近思錄有葉氏
 註。平實正當。爲可準。卻恨蔡說之採入論語。而不免誤後學也。平日嘗見此有疑。故謾錄之。要與同
 志一論也。新安陳氏以這性謂氣質之性。此亦可疑。

書贈柳學士士鉉 台佐

柳氏子士鉉。擢金榜來訪。山居貧約。無物相贈。乃以四言詩八句爲箴語以勉之。倘蒙留聽。萬一有助。

上輔君德。下濟生靈。增光祖烈。勿墜家聲。學業宜富。詞華何有。聖君賢相。庶終成就。

縣西多士勸論文

本縣幸逢賢侯。文教丕興。既出四所訓長。而逐朔命題。考第論賞。多士固已興起矣。顧惟西一面生徒。於一邑雖云最少。而亦多才雋。自以無似。不意承乏。忝在訓任。官意所迫。屢辭不得。疾病衰頹。愧無以堪承萬一。而乃不免策駑強起。黽勉應責。則科文程式之外。豈無可與多士商量者哉。噫。教不素明而學不素講也久矣。長夏炎熱。羣居肄業。志氣易以昏惰。心思易以荒亂。諸君將何以自持乎。若只追逐談笑。悖謔謾語。聊以度日則適所以敗德喪志。日就偷惰。雖做得千百篇如錦。顧亦奚補於身心哉。大凡爲人爲士之道。此不只在文字之間。苟欲有志興起者。則其門路蹊逕。工夫次第。自有聖賢成法。固將俟秋冬講讀。相與講勉。而顧今齊會課做之日。亦豈可以全然放倒。無所用心哉。若朱子敬齋箴白鹿洞規。陳茂卿夙興夜寐箴。退溪先生伊山院規等。前後聖賢名言旨論。必要隨處隨隙。整容莊誦一兩次。收斂理會過。庶不至淪陷壞蠱。而亦或有恍惚自醒。得見好意思時節。無似之所以望於諸君子者固不淺。而顧惟賢侯命題之意。亦若實有所不止於此者。如前朔賦題。所謂獨得宗。乃若提示初學入德之門。今朔題所謂九三不言龍。又若勸以日夕乾惕之意。豈不欲因此爲兆。漸導以入之者哉。時當太平。聖明在上。治化日隆。而爰有賢侯承奉明旨。作成一邦。教之不明者。庶將由此可明。而學之不講者。乃或因是得講。竊願少須與無死。得與一方英少策勵相先。征邁不怠。有以見菁莪作興之盛。豈非幸哉。所謂壯元禮。亦古例也。而自多士先倡。亦一勝事。衣冠齊會。與社飲不同。豈不日禮始諸飲食乎。謂之壯元禮則此亦禮也。長幼相接。儕友相對。固應有敬謹揖遜之禮。而衣冠拜揖。坐作進退。要當有節度不放。若只羣飲亂譁。顛倒無倫。或至紛爭則豈約日禮饗之意也哉。當日來會。須各著上衣。濟濟升堂。拜謁諸長老。退與同儕相揖問寒暄。談文討義。待考文畢後。列坐飲食。無使威儀錯亂失次。向晚解歸。一一入辭長老。始終無愆。俾爲一場盛會。勿貽笑見聞。幸甚。相望之厚。不勝眷眷。畧陳及此。千萬念之哉。勉之哉。

留揭冰溪院壁文

惟茲冰溪一洞。嘗爲釋氏所據。中經亂離。蕩掃湔滌。遂以泉石形勝之區。終爲斯文俎豆之所。天意蓋有不偶然。羣賢賙享。陟降如在。四時絃誦。洋洋可興。豈宜令荒怪不經之類。復得以干於其間而肆厥鼓譟哉。顧院門外溪上古樹下。有所謂洞神壇。每歲秋冬。洞人輒大供具祀神。設巫樂甚盛。鳴箏擊缶。狼藉歌號。聲入廟門。其爲不敬孰甚焉。前人之所以不禁者。或以氓俗愚惑。有難一朝痛祛歟。况聞前此院或出財穀以相之。亦可恥之甚也。名爲學宮。而乃捐崇賢養士之需。以助淫樂慝禮之用者。此何理也哉。頃因洞人因院隸請施。竊不勝傷歎之至。遂令自今以往。只齊沐祀神。絕勿復學巫樂。噫。

居是洞而欲共祭是洞之神。則是有据。亦古人五祀之義也。於理非不經。於院無不安。非惟不必禁。雖或與之相助。亦有說也。若必令巫樂煩鼓而逼擾廟門。則凡^P爲學宮之體。有不得不禁。禁之亦不可不嚴。故茲勅院中諸卒屬禁令糾察。有或乘間復舉者。院卒輩當限死嚴治。洞人亦次第論罪。後之任院事者。亦不可不知也。傳曰。務民之義。敬鬼神而遠之。是固爲遠鬼之道。而若民義之所當務。則已有壁上所揭白鹿規及諸賢銘箴在焉。蓋亦知所勉哉。

讀書謬錄

曾子問。宗子爲士。庶子爲大夫。其祭也如之何。孔子曰。以上牲祭於宗子之家。祝曰孝子某爲介子某薦其常事。記曾子問 註。介子。庶子也。不曰庶而曰介者。庶子。卑賤之^P稱。介則副貳之義。亦貴貴之道也。竊謂以庶子爲大夫。猶不稱庶。而特謂之介子。以表其副貳貴貴之義。而不加卑賤之稱。則况以帝王之仲子諸子。始雖不免爲諸王子。而及其入承大統。君臨寶位。則其貴貴尊尊之道。豈特與爲大夫者比乎。於是而若不能深究禮意。但知其爲先王之仲子諸子。而全沒貴貴尊尊之義。其爲疎謬不敬。莫此爲甚。當以禮經孔子說。爲傍證決案。

按記 曾子問 宗子有罪居他國。則使庶子爲大夫者奉祀。而其祭也。祝曰。孝子某使介子某執其常事。是爲攝主。孔子曰。攝主不配。蓋攝主。非常主之者。故曰不配者。其^P禮畧於宗子。謂不敢備禮。不以妣配也。竊謂宗子以其名使介子攝行。則是與介子之直以其名自主者有間。而猶謂之非其常主。畧其禮。殺於宗子。而至不敢以妣配。則最長房之本非常主。而只一時權奉者。其禮豈敢與宗子等。而無裁殺減畧之道乎。考位之祭。以妣配食。恐違於攝主不配之義。而有所未安。故體仁方以最長房。奉祀曾祖考妣祧遷之主。而不無商量顧疑。未敢遽以妣位配食。當更俟知者論定。

漢武帝是甚麼英主。而賊臣江充誣告太子。致有天倫罔測之變。觀後來築望思臺。可見非其本心。賊充之罪。^P可謂萬戮難贖。是知賊充非但誣戾太子。實誣武帝罔極也。非但爲太子逆臣。實爲武帝逆臣也。非但爲太子讎。實爲武帝讎也。宣帝以太子之孫。既入承大統。爲先皇帝辨誣。爲先皇帝討逆。爲先皇帝復讎。歷剔肝肚。播告萬方則雖使窮源討流。殲盡餘黨。以至惊心無憾。庶幾上無所礙。下無所嫌。而太子之極冤無罪。不待更加伸辨。自當蕩滌昭融。煥如日星。當日漢朝諸臣。未聞有倡此義者。千載之下。不能不爲之嗚泣。嘗讀漢史至此。特有感錄之。

小學大學。是始終相須之工。故朱子作大學章句序文^P及或問。必兼舉小學說來。作小學題辭。又必并舉大學說去。一體發明。未嘗偏舉。小學題辭所謂建學立師之學字。蓋兼指小學大學。而所謂以培其根者。是謂小學之教也。以達其支者。是謂大學之教也。故其下卽以小學之方。灑掃應對。窮理修身。斯學之大。二節承之。以實其義。豈非的確明白乎。然則小學集說。乃以小學大學之教。釋培根達支之義者。可謂正當。而新刊註則不兼舉大學。只就小學指證。以養本性爲培根。以充四端。愛親敬兄。忠君悌長爲達支。恐失本旨。新刊取舍。有未可知。

^P大學無存養工夫。此先儒說也。後人有論著其說。謂於誠意正心二章。存養工夫自在其中。其說似矣。而以愚之見。大學與中庸自別。中庸直說到未發之前。故戒慎恐懼。是爲存養工夫。而大學只就發處用工。故所謂誠意。不過誠其心之發。正心不過正其心之用。而未嘗說到未發存養之工。其謂之無存養

工夫者。可謂得其正意。何必推演立說。探究言外。謂存養之工自在其中乎。然而章句特以敬以直之一句。追補傳文。而始微發其義。則所謂存養工夫。蓋於是在焉。

本國經書諺解。大抵多可疑。而惟詩經尤甚。若所謂左^P右芼之之芼字。是固與鍾鼓樂之之樂字叶韻。東方明矣之明字。非東方則明之明字。與朝既昌之昌字。月出光之光字叶韻。而薇亦作止之作字。與歲亦莫止之莫字叶韻。則本章音節。不啻明白。而諺解只從方俗俚音。芼則讀以毛音。明則讀以庚韻音。作則讀以入聲音。而詩人所叶音韻。未免絕落。若此類不能盡舉。似當一從反切釐正。而有難卒改。不能無恨。

心經夜氣章小註。西山本註所引朱子說。自晝之所爲以下。至卒語。與孟子集註多不同。所謂晝之所爲既熾則必害夜之所息。夜之所息既薄則不勝晝之所爲云^P者。其既熾既薄四字。實集註所無而此則有之。下這熾字。則若以晝之所爲。爲但指意慾熾盛處。而下這薄字。則若以夜之所息爲全就氣上說。此固可疑。集註則展轉相害。至於之下。謂夜氣寢薄。不足以存仁義。而此則至於之下。謂平朝之氣。不足以存仁義。則此與集註相違。陶山講錄中。未見講說及此。亦可疑。而觀寒岡心經發揮書。特以集註說換載。想亦不無取舍之義。

昔年以先祖碑文事。往訪蔡相公于漢城。留數日。夜間坐語。公忽提誦星湖李公事。謂李公於經書集註。多釐改句讀。覺於後學有功。體仁請問其畧。公乃舉孟子^P穀^P觶章說。謂李公以穀觶若無罪就死地之若字。謂集註所解。是無義。遂以若字。謂如易夕惕若之若字。把作然字義看。謂之穀觶然。而乃以穀觶若三字爲句懸吐。其下曰。牛是無知之物。豈嘗故自穀觶。有若無罪就死者然也。其說儘好。未知如何。體仁答曰。解經之法。或準以義理。或參以事實。只看取其順不順如何耳。今以這句若字之義。從集註讀。而有或不順於理。難容強究。而幸有別義。可以順理解得。則或出於不得已。而姑爲別說以俟知者。固可也。今集註所解。是全就齊王心上發明。顧爲精切。奚容更議。以牛之無知言之。則固不必有意^P穀觶。有若無罪。而若反就齊王心上論之。則以其有惻隱之心。故視無知乃若有知。視無情乃若有情。顯顯若無罪就死而不忍遽殺。則以羊易活之。仁未始不由此得來。而集註精切之至。非後世庸見所敢容議。何苦捨此而更立別說云云耶。恐不免尙奇好新。大失本旨。不佞居在嶺表。竊聞李公白首窮經。高臥林泉。文章高古。義理精博。而恨未得一進掃門。幸蒙提誦。得窺影響。第恐不能無疑。公不以爲非。卻深服鄙說。謂之誠然誠然。而末乃自云平日素性疎闊。全欠精密理會。覺於古書。都是錯了讀也。當日一場酬酢。耿然如昨。至今追思。有^P足爲後學鑑戒。故遂畧錄之。

蔡公又言朱子知之盡則行益力。吾於此有未能信得。及試以平日自家事驗之。則居官貪汙。食其所不當食。是有國家常憲。我蓋真實知其不可。而往往牽於私慾。不能自制。未必但食其所當食。烏在其爲知盡而行力也。體仁笑而應曰。明公雖自謂真知。而以愚之見。似未能真知。明公不反就吾心之天以求其真知。而只是徇於外。而知有國法之可畏。若然則未必不更圖欺蔽。遮諱彌縫。以要苟逭其罪過而已。何由真能灑濯自新耶。若反諸吾心而深究義理之當然。常自謂或有一毫私^P慾累我靈臺。而少犯非義。則是上欺君父。下欺生民。內欺吾心。外欺耳目。是將與穿窬同歸。思之不覺汗背泚顙。而一毫私慾不容更萌。則若是者。雖日撻而勸爲貪汙。有不忍爲。而此心瑩然。俯仰無忤。安而樂之。其守益固。其真知力行之驗。當如何哉。公笑頷之曰。果未知得及此。此一說有足以反躬自省。而蔡公之披悉心曲。無少隱諱。聞言卽服。不苟文飾者。其義亦可尙。故并錄以識之。

大學正心章末段曰。心不在焉。視而不見。聽而不聞。其章句曰。心有不存則無以檢其身。按在字存字。其義自別。存是心之爲主而存於中者也。在是心之隨事而卽在者也。蓋正心之工。是正其心之用。而章句乃特就心之本原全體。戒其或放失不存。故据本原特下存字。蓋必此心存中不放。然後可以隨事卽在。而不失其正矣。然則心在心存。恐不無深淺精粗。故程林隱作心學圖。而以心在一圈。特眞之過人慾邊。以操存一圈。特眞之存天理邊。位眞分排。不無義例。是知傳文及章句其所主自異。而在與存兩字。實各有其義。有不可混看。然則章句所以方釋用處不在之病。必說到本源。戒其不存者。正所以沿流究源。濬源導流之意。觀章句所謂然後二字。則是當爲存與在兩界分限處。然而存於中則必能在於事。在於事則必有存於中。工夫則未始不以一串貫來。此章句所以必以敬之一字。足傳文未言之旨者也。世之讀是書者。或不究在存之別。而謂之通看無妨。恐未免闕畧。而徽庵程氏乃以在字。謂必在於視。在於聽。其義極精。

老聃值日食。止柩道右。謂孔子曰。夫柩不蚤出。不暮宿。見星而行者。惟罪人與奔父母之喪者乎。日有食之。安知其不見星也。以此推之。今世俗之惑於日家之言而或暮夜行喪。或以中夜下棺。往往不免顛沛。而幾敗喪車。或經夜山上。犯寒受凍。其爲違禮玷患。莫此爲甚。爲人子者。不可不知此義。

家禮是朱子未定之書。而儀節蓋多闕漏。沙溪喪禮備要。依經禮添補處甚多。若繼母服之入於義服者。而特釐之爲正服。及食肉飲酒之必待禫後。復寢之必待吉祭後。改題主遞遷之必待吉祭爲之者。是其大節。而其小小添補處亦多。似不得不依此行之。然顧惟朱子之輯成家禮。自有本意。一從簡約易行。而裁損繁文。則亦不可不知此意。若小小添補處。有不必盡準行之。

沙溪喪禮備要。舉世遵行。固難容議。而顧其中可疑處甚多。虞祭以後之必以主人妻爲主婦。及承重孫妻與母與祖母當并服三年云者。已有嶺中先輩所嘗勘破論斷。不必更論。而其餘可疑者不一。向來京洛先輩之相與尊尚沙老。一心祖述者。猶不能無疑於其間。各有所論。若養他子爲後。不服三年者之入於斬衰條。則權遂庵尙夏已言其爲他姓收養子。而因程朱說。論破甚明。若嫡孫父卒。祖在爲母。短喪說之入於杖菴條。則同春謂無明文。當姑服本服以俟。而南溪亦謂無明文恐未安。若適子父在爲妻不杖之說。尤菴以爲若從家禮則無可疑。而李陶菴緯又謂此本疏家之說。而愚意則欲從家禮。若此類不能盡舉。此則非公案之可据。而有足綿縉者乎。然則觀喪禮備要者。不可不知所裁擇也。

祭祀告利成之義。儀禮小註及記疏註。近來沙溪說。只是一義。而皆若不順理。不能無疑。惟詩楚茨章。工祝致告下註。此實朱子說。而其言直切明白。順理合義。覽之令人悅然。所當以是爲正。

大學工夫。不出知行二字。知行先後。固有其序。而或者有謂大學是因小學已成之功。而只是開發擴充而已。小學之灑掃應對。只是行上工夫。而大學格致因其後。烏在其爲知先而行後也。竊妄以爲小學自有小學上知行工夫。大學自有大學上知行工夫。而其序之先後。皆有不可亂者。則小學所謂愛親敬兄。忠君悌長。是曰秉彝。有順無彊者。非出於良知之自然。而得行其灑掃應對之節者乎。然則大學之知行工夫。是皆因小學之知行而收其成功。尙何疑於行先而知後耶。然而知行雖曰有先後。而要須齊頭做去。相資以發。何必截作先後兩項分論耶。世之同或者說者恐不少。故聊錄以識之。

家禮雖是朱子未定之書。而朱子本意。則只是參酌今古。一以刪繁從約爲主。故在今觀之。則蓋或有太畧行不得處。若虞祭之無飯羹及炙。自卒哭至禫。只有飯羹無炙者。固若可疑。然而試嘗竊窺編次本

意。則孝子喪親。舉家遑遑。惟以哀痛哭踊爲主。而不暇備具以祭。故在初喪卒哭前則其禮大抵從至約。一以哀情爲度。使之次次向吉。次次備物。哀漸殺而禮漸盛。禮漸盛而物漸備。故襲後小斂前則只用餘閣之奠。而小斂後則始以酒饌爲奠。成服前無上食。而成服後始上食。葬前則有奠無祭。而既葬而虞。始用祭禮。爲猶是卒哭之前。故其饌品只與朝奠相似。而不用羹飯及炙。反不如葬前月朔殷奠。而卒哭後始用飯有玄酒。爲猶是三年內。故^P乃有飯羹無炙。祔練祥禫皆然。至三年吉祭。然後始用盛禮。有三炙而惟不加鹽。至始祖祭。始加鹽。其豐約隆殺。莫不漸次有節。燦然可觀。則此等處有不必以其太畧難行。而輒指爲闕誤也。蓋家禮是因書儀編成。而其原則一以儀禮爲本。試就儀禮相參之。則其品節裁刪處。不啻歷歷可指。儀禮自是帝王極盛之禮。故卒哭前七虞之祭。視士夫家儀節。不啻萬萬極盛。而家禮三虞則只就士夫家本分上宜行者裁取。故其禮之至約。只存其大體。而刪節其品式。至無羹飯炙而不嫌其太畧。亦理勢之降殺而窮於下者也。故得禮之文。不如得禮^P之意。得禮之意。不如得禮之理。於是而若不究其理。不會其意。而輒以世俗粗淺之見。謂必是闕誤而有欲更定。則不幾於臆決僭論。而便與金根車類者乎。喪禮備要之特添補飯羹炙於虞祭者。乃亦禮之出於人情者也。固亦好矣。而惟直擬時祭圖爲虞祭圖。而與三年後吉祭畧無加減。只移來家禮時祭條大註。添載進饌條下爲小註者。則此過矣。又於時祭條初獻下。特依少牢特牲禮添補加鹽。而懸小註。謂是文不具者。則此決是朱子之所嘗有意刪之者。而乃反添補。豈可乎哉。以愚之見。莫若於喪禮備要虞祭之具一條下小註末段。特^P以飯羹炙變通添補之意。畧說爲註懸之。又就進饌條下。以小註若干字添補飯羹及單炙。使執事不待獻酌。與魚肉米麪食必同時入設於牀上。而三獻後不別設各炙。則庶不失爲稍殺於吉祭。而爲不晦卻大賢本意耶。金河西又以具饌如朝奠之朝字。爲朔之誤。而沙溪依其說。懸小註於喪禮備要本條下。此亦疑其太畧。故有是說。然以愚觀之。亦莫如依存本書。只自變通行之。何必云云耶。沙溪既亦自云朔之誤。而其所添補儀節饌品。直與吉祭無別。乃不但如朔奠而已。則亦豈不自相逕庭耶。右諸說。年前或與知友說及。則川沙翁謂葬^P前殷奠。亦有飯羹。虞祭之無飯羹。恐無此理。李穉春謂祝文既有粢盛二字。知其必是闕誤。後山翁謂參以俗情。不得不遵行添補之禮。而不可不知家禮本意之說。則此誠然矣。其說皆若有見而不無異同。不能不懂懂于中故。姑錄之。時覽以自省。

聖人教人之法。不出博約二字而已。故顏子曰。博我以文。約我以禮。顏子之約處。當於其克己復禮見之。而其平日博底工夫。無由得窺影響。若所謂聞一知十。是其博耶。若曾子則大學之格致誠正。可以證其博約。而先儒謂曾子守約。故動必求諸身。豈其魯鈍確實。力行親^P切。故乃只言其約處而不復指論博處耶。然則所謂真積力久。而日唯於一貫之旨者。亦將驗其博約之至矣。學者動說敬字。如三先生論敬之說。朱子畏字之訓。誰則不尋常誦之。而惟未曾真實下手做得。故實未知敬是何樣工夫。未知如何是爲主一無適。如何是爲其心收斂。如何是爲惺惺法。如何是爲畏字義。體仁嘗竊有意於敬。而衰暮疾病。茫如捕風。嘗於所居淵亭齋室。特以主敬爲榜。而日處其中。固若涉於文具。而平居自檢。不勝愧懼。往往仰瞻齋壁。而凜然若有所臨。有不敢自肆。則始知牆壁標榜。爲亦不能無助。萬一天假之年。得^P以分寸躋攀。積累涵養。有能無愧於齋名。則齋之名以主敬者。曷不終爲一嚴師耶。聊錄及此以自警。

呂氏求中之說。此未免爲病。而向來蘭翁 金公江漢 嘗自言。平居自檢。恐終免求字病不得。函丈先生嘗舉似是說問之。體仁進而言曰。不知主敬涵養。而直要其中。則反爲中所累。而未免爲求。若忘了一箇中字。而惟自收斂惺惺。主一無適。則庶幾中之體自立。而無偏倚一邊之患。先生頷之曰。若平日真實有工夫在。今蘭翁已古而山頽亦已久矣。時自念至。不勝慨然興懷。欲更有所奉質而不可得。故感

而錄此。

嘗竊欲聚古今聖賢論敬諸說。作一部觀之。辛苦編輯。僅成頭緒。上篇自黃帝丹書以下歷錄經傳所載。及秦漢以下諸儒說。以至洛閩諸訓及元明諸子說。而終以吾東退溪說。爲論敬旨訣。下篇自堯欽舜恭以下。歷錄禹湯文武周孔諸聖及顏曾思孟實蹟之著在經傳者。以及宋朝諸賢事實若干。而又終以退溪狀錄爲居敬工夫。又欲別採古今帝王不敬無道。其外諸人之或侮聖自恣。打破敬字。或假名敬字。飾詐誣人。或有意於敬而橫走別入。反害於敬者。及釋氏之似敬非敬。爲吾道亂賊者。而合爲一篇。附之其下。名之曰外篇。要以自警。而上篇之末。又別採聖賢格言。名之謂靜敬說。誠敬說。敬義說。居敬窮理諸說。各立題目。列錄附之。總作一部而名之曰敬說集覽。一曰崇敬錄。名目已定。編例纔成。蒐輯謄載。僅成草本。或既錄而更刪之。或見漏而追載之。或移上移下。次序未定。或上乙旁補。字樣不明。錯雜淆亂。無由攷認。外篇則但立篇目而未及條錄以實之。欲更得紙地若干。及子姪能寫者數人。恒在旁側。日與之指揮正書。則庶幾無憾斷手。得成一家之書。而阿堵受病。逐年漸苦。無由復得把筆。只將亂藁數冊。藏在篋裏。而疾病衰暮。今朝夕且死矣。恐終無以訖功而遺恨無窮。時一念至。有足興慨。而此惟在反躬自勵。警策扶豎。不以老病自懈。而得無愧於死之日而已。一時之編輯攷覽。顧亦奚重於我耶。古人不必以是爲貴。雖或卒未成就而溘然以終。亦不必深恨也。遂錄此以自解。

朱子曰。心是活物。活字最好玩味。蓋在天地則理是活物。故能貫徹四時而流行不息。在人則心是活物。故能貫穿萬事而無不通透。若不是活底物事。豈能如是哉。惟人慾一萌。隔斷天理。則這箇心未免一朝死了。若是者。雖一身依故無恙運動。而豈可曰活底人哉。故學者工夫。惟當以活得這心不死了爲務。夫然後可以主宰一身。管攝萬事而做得多少事業。活字意味。豈不儘好哉。余平日最愛這活字。嘗以所居亭下一小泉。名之曰活泉。而自爲一絕以吟之曰。我心欲如泉。我泉卽一心。活水生不已。靜涵星月森。蓋愛看其活流湧出。源源不絕。又能澄靜涵照。有若心體之虛明故也。雖然。欲心之得常如泉流之活而不至撓汨。則是亦有法焉。不曰敬乎。朱子曰。敬故活。不敬則何以活。是知敬之一字。乃活人之靈丹。余今老矣。衰病垂死。而惟恐此身未化。一箇心未免先死了。所以必用敬字爲法。要得其力。幸卒能保了主人翁無恙耶。是懼是慮。

靜是動之本。靜無資於動。而動必有資於靜也。故曰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立人極焉。程子曰。不專一則不能直遂。不翕聚則不能發散。蓋以其動靜大體論之則固然。而細推之。則體用一源。動靜相須。在天地則陰必翕聚。然後可以得遂陽之發散。而陽不發散。則亦無以成陰之翕聚。在人則存養既深。然後庶可爲其省察之本。而省察不明。則亦無以得固存養之工。動固資於靜。而靜豈嘗無資於動也哉。故曰。朝晝之所爲不牯亡。則夜氣愈清。又曰。制之於外。所以養其中也。學者必認得此義。然後庶幾不偏於靜。非所謂循環無間之功哉。

明道先生曰。今學者敬而不見得。又不安者。只是心生。亦是太以敬來做事得重。此恭而無禮則勞也。恭者。私爲恭之恭也。又曰。禮者。非體之禮。是自然底道理也。恭而不爲自然底道理。故不自在。須是恭而安。伊川曰。學者須恭敬。但不可拘迫。拘迫則難久。又曰。學者須敬守此心。不可急迫。當栽培涵泳於其間。然後可以有得。急迫求之。只是私己。終不足以達道。又曰。志道懇切。固是誠意。若迫切不中理則反爲不誠。蓋實理中自有緩急。不容如是之迫。觀天地之化。乃可知後生初學之不能刻苦用工者。乃或藉此等說爲誠。惟恐近於拘迫。而遽欲怠緩懈弛。只見其不思甚也。或問持敬覺不甚安。朱子曰。初學如何便得安。除是孔子。方恭而安。初要持敬也。須勉強。但覺有些子放去。便收斂提

掇起敬。便在這裏。常常相接。久後自熟。伊川又曰。嚴威儼恪。非敬之道。而但致敬則須自此入。存養熟後泰然行將去。便有進。張南軒曰。敬守此心。栽培涵泳。正是下工夫處。若近於放倒。何栽培涵泳之有。學者若更看得這說話。而有以警勵自勉。則庶幾知所用力而不至於怠緩放倒。得見有久後漸熟境界。豈無節度之可以循次勉進者哉。余^P雖衰晚已老。而實未免爲初學也。欲以此自警。而或與同志相發。故特錄此以識之。

勿忘勿助。孟子只爲養氣說。而程子借作養心法。其用工節度。只是一般。孟子未嘗說破敬字。而所謂敬工夫。豈不端的在此耶。程子推說其義。謂與鳶飛魚躍意思。同活潑潑地。此義最好看。余每誦朱子中庸或問費隱章說。而至論此未嘗不竦然興動。而所謂在人而見諸日用之間者。則初不外乎此心。必此心之存而後有以自覺也一語。又未嘗不惕然反顧。若知其有端的下手處。實有所感發而然也。向者有人嘗提誦程子說。若有^P會於活潑潑地義。而未嘗說及心存二字。未見其有下落究竟。故遂錄此以發之。

或問程子云。若說鳶上面。更有天在。說魚下面。更有地在。是如何。朱子默然微誦曰。天有四時。春秋冬夏。風雨霜露。無非教也。地載神氣。神氣風霆。風霆流形。庶物露生。無非教也。竊嘗玩究微誦之意則無限活潑潑意思。正在此間。豈非謂鳶上面有天。而天有四時。春秋冬夏。風雨霜露。魚下面有地而地載神氣。風霆流形。庶物露生。則此所謂化育流行之活潑潑。而上下察者。無非可以爲教云者耶。余嘗以是錄附於錦糲帖末。而與鳶飛^P魚躍一句。往往歌詠上下。玩味以樂之。

易學非初學急務。而孔子曰。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其惟聖人乎。蓋盈虛消息之理。仕止久速之義。惟當於易得之。後學亦不可不熟講。觀天地陰陽闔闢張翕。寒暑往來。晝夜晦明。日月升沈。草木開落。吾人一動一靜一語一默。觸處可驗。此無非易也。故以天地大體觀之。則此固爲全體一部易。而萬物萬事之紛綸錯綜於兩間者。是爲卦爻六十四三百八十四之象。其所以交易變易者。何莫非自然而然者耶。然而初學有難驟語及此。恐亦滯蕩無所交涉。惟當以易學啓蒙一書。爲指^P南而玩繹其間。隨分得力。

王安石請不以春秋進經筵。而世之不講春秋已久矣。我國科場著述。亦嘗有春秋義。今廢之。亦可慨也。多士之奔競應製。固無足以發明經旨。而命題納券。相與服習傳受。則庶幾得見其影子萬一。不至全晦。而今以聖人筆削誅討之大經。反歸之束閣而無用。大義未始不由是盡晦。而人類乃將至爲禽獸。其患豈容盡言耶。故余欲使後生初學。既讀習經書訖。因必受以春秋。要見大義。而以其無科場得失所係。故後生輩鮮肯留意。深可恨也。

^P朱子嘗深斥東萊史學。至謂浙東近日變怪百出。而猶自纂出綱目一書。以繼春秋之旨。則豈不以東萊之學偏重一邊。失本末緩急之序。而未免流爲功利故耶。余自幼素性偏枯。不喜博攷前史。有未能詳知前世興亡治亂之蹟。忠臣孝子之行。而至吾東事實。則尤未免鹵莽。李德而嘗戲余。謂同於程子之學。不見雜書。有足以會其語意。及茲衰晚。不能無悔。欲隨分攷閱於春秋國語公穀左馬。下至元明諸史及我東古蹟。有以得窺影響。而精力短乏。神思耗昏。有未能包羅得。尙復何望耶。士之窮居草茅。無官職名位。而若不顧出位之嫌。動說^P當世之務。則實未知妥當。藉令有伊，傅，孔明之才智。而其義豈足尙耶。朝廷之號令法制。當世之國弊民瘼。自家胷中。雖或有經緯黑白。而只將慎言緘口。屈首讀書而已。故范氏座右銘曰。不言朝廷得失。邊報差除。後生輩或妄論時事。而不知畏戒。故特錄此以警之。

余幼從里中先進。學做科學文。至年十九。忽自謂全沒讀力。所作無可觀。斷然撤去筆硯。歸取韓子文讀之。不輟晝夜。忘寢忘食。既讀得千遍。明年冬。又讀書經千遍。文思稍進。若泉始達。於是妄欲學爲文章。續續取莊，馬，班，柳，歐，蘓諸大家。及楚漢詞賦諸篇。李，杜唐音諸詩家。日夕諷誦歌詠。傍及孫子吳子劉子賈誼新書。汲冢諸書。旁究徧覽。反之東方若簡易蘇齋東溟，佔畢齋，挹翠軒。前朝稼，牧二李諸作。汎濫考閱。或讀或誦。如是者僅七八年。或效爲詩賦序記雜著諸篇。觀者或謂有作者家法。由是自大。動說文章。雖不免旁治科學。隨衆應舉。而不以得失介意。評隲今古。馳騁上下。如醉如狂。至今思之。往往可笑。年既二十八九。因尋姊往留湖上。始就謁函丈門下。先生既款接數語。乃謂嘗得見筆札一幅。詞華燁然。卻太過。後先生又謂見子著述詩文若干篇。崢嶸有骨力可尚。移其力。何所不做。仍力言文章非君子所重。自有聖賢事業。不可不及時用力。知所當務。余聞是說。始茶然愧縮。不忍自棄。反復從事於經傳心近等書。專心致志。隨分講究。或進謁承誨。或因書質疑。始知本末輕重之分。不敢向人更說文章。而歲色已晏。山樑奄頽。豈不悲哉。但自檢年少氣銳。談文賦詩。胷中鬧熱。如戰水火。而一自舍真以後。漸覺義理平實。心界專一。此前不啻靜貼安穩。此其可驗也。惟冀賴天之靈。得以收拾桑榆。填補萬一。而晚悟無成。只切含愧。此不足自提顛末。說與向人。而後生初學。若以余爲戒。早定趨向。大肆其力。則庶幾不至虛送日月。誤了一生也。

余始讀韓子也。氣象褊急。節度刻薄。始自里中文會。撤去筆硯以歸。時七月初也。老炎猶劇。流汗霑衣。而獨坐虛堂。窮晝竟夜。日氣稍涼。始入室以讀。而約五夜一假寐。寐不過一更。不滅燈。不設衾。只俯伏書牀以寐。或冬夜不爨突。只著單衾縷衣。蓋恐其溫暖思睡也。或中夜無人。出踏庭中積雪。遍身受凍。睡魔頓散。如是幾數月而精神益勵。五夜一假寐。惟意所欲。冬入華藏菴。因用是法讀之。菴前新構屋子。四壁不鏤。面面受風。當夕爨。毒烟滿室。僧徒無不駭散。而獨晏然不已。至明年三月。畢讀以還。此可謂狂奔疾走。入水蹈火氣象。令人聞之。只足可駭可戒。而第念初學。亦不可全無此等意象。朱子嘗以沈船破釜。燒廬舍。示士必死無還心。警勉學者者。蓋亦有意焉。後生之以余爲戒者。固亦不妨。而亦欲以余增勵。故聊錄及此。欲以自示家中子姪而激其慵懶。

順菴安公 鼎福 從遊星湖李翁。得衣鉢之傳。而時人稱爲臥龍云。昔年余因便往漢城。適出留靖陵奉恩寺。時公被薦爲陵官。聞吾至。遣胤子名景曾來要甚勤。余往拜之。談話竟日。至夜半還寺。明日。公又親來相訪。其後數年。余從漢城歸。乃與其胤子同行。至廣州本家。登門拜謁。坐語移日。見其清寒孤苦。不渝所守。愴然有古君子風也。公乃以其所方序次東史綱目草本出示之。謂是師門所托。而畧與論討。又說及星湖翁之子故縣監名孟休所撰春官志。謂有可觀。竊窺其志尚法門。若偏重於用邊一事。而以經濟一世。著書立言爲急。人之稱以臥龍。蓋亦有以也。其後幾年。因友人李上舍仲章。聞公又採錄退溪先生書札之最爲要切者。畧加裁節。若朱子書節要。而名之曰李子粹言。出示仲章云。可見其著書立言之意至老愈切。竊意因此。得有契於陶山親切之訓。而特致其反博歸約之功。則其存養益深。玩究益精。後生初學。得有以矜式模範。而恨未能再進門下。得聽下風。哲人云亡。徽躅已遠。噫豈不悲哉。

王伯之說。非但帝王所當明辨。學者爲學。可不早辨其義利公私之際。而直劈破心術隱微處毫忽分界耶。余竊欲聚錄古今論王伯說。合爲一部觀之。上自三王五伯心術精微。下至孔孟以下漢唐諸儒及有宋諸賢論破諸說并載之。名之曰王伯辨。而早晚閒看。則庶幾有所得力。而於後學不能無補。嘗以是託於趙兄聖紹。趙兄亦樂聞之。謂亦一端事業。而不遽自任。余亦因循未果。亦可恨也。世道漸降。人心日渝。

。號爲名流而有望譽^P者。舉不免挾其私智。假借名義。陰陽捭闔。恣行權數。何處得更見一分純王面目。而有殺一不辜得天下不爲底意象耶。故曰。聖人之道不行。而百世無善治。聖人之學不傳。而千載無真儒。余每讀至此。未嘗不喟然興歎也。

程林隱心學圖。以遏人欲存天理。分作兩邊工夫。自良心本心以下。至四十不動心。七十從心。莫不以類相從。排列左右。而以人之臨圖對看者言之。則遏人欲底。乃在右而爲上。存天理底。乃在左而爲下。其必以遏人欲爲先。存天理爲次者。固亦有義焉。天理本體。未嘗不自^P在人欲之中。必先遏去人欲。然後庶可以明其天理而得存。圖之位真及圖下說之特有語序先後。豈不以此乎。或曰。天理人欲。必相與消長。遏去人欲一分則天理自然存得一分。既能先遏去人欲則似更無存天理工夫。而天理自存。余謂遏去人欲後。若恃其天理之自存。而不更下工夫。則安知其必不爲釋家之空寂也。是知遏人欲是捍邊圍底工夫。存天理是安社稷底工夫。遏人欲。當用猛將逐捕廝殺法。存天理。當用大臣保護匡濟法。易曰。閑邪存其誠。而程子曰。閑邪則誠自存。觀自存二字則亦若更無存誠工夫。然而不曰誠存。而曰存^P誠者。豈曾全無存之之工乎。程子曰。閑邪更著甚工夫。惟是動容貌。整思慮則自然生敬。敬只是主一。主一則既不之東。又不之西而只是中。既不之此。又不之彼而只是內。存此則天理自然明。是知動容貌整思慮而絕去雜念者。當屬於閑邪工夫。主一無適而存此不失者。當屬於存天理工夫。豈不各隨地界用力乎。然而此不是今日遏欲。明日存理。亦只是齊頭做去。如知行交修。始得。

七情中易發而難制者。莫如怒。余素性躁暴。未始不以暴怒爲戒。而涵養無本。省察不密。未免往往輒發。每讀^P明道定性書。至所謂忘其怒而觀理之是非一句。自不覺汗出沾背。赧然增愧。呂東萊嘗打破家事。而卒得力於躬自厚而薄責於人一句。意思忽然平了。古人讀書之效。豈不大哉。余每誦此語而未嘗不自警也。

辭受取與。是人之大節。而其得中不失義爲難。余少時性偏苦。一以不受不取爲主。而或不免於迫切不恭。晚而思之。恐不必如此。莫如可辭者辭之。可受者受之。故昔之所不受而今也或受之。昔之所不取而今也或取之。欲庶幾不悖於孟子皆是之義。而第恐老也戒在得。與其失於受。恐不若失於辭。與其失於取。恐不若失於^P不取。在我之權度有未能精切。而所處或未能無差。故或趑趄未決而因循度了。余嘗遊湖上。小山李丈亦嘗說及於此。謂或有難處云。

含蓄不發露。嚴重不輕動。此大人氣象。而偏於此則卻欠了光明勇斷底意。洞澈無隱情。樂易無吝態。此儒門正法。而偏於此則或涉於輕淺躁率之患。此可戒也。余與故宗姪鼎沃。親猶父子而氣質相懸。沃則以上所言爲所當戒。余則以下所言爲所當戒。未嘗不相與警切。面沃也忽不幸短命死矣。余以衰晚頹冗。索居江曲。而耳中不得更聞警語。豈不悲哉。拊念存亡。往往爲之興^P歎也。

蔡西山貶舂陵。二子 節齋九峯 從之。徒步三千里。腳爲之流血。到楚越窮僻處。雲物慘悽。鳥獸嚶鳴。一行來者。無不流涕傷心。而西山乃與二子相對怡悅。論孟子夜氣章。於此乃可見大君子平日定力。而孝子之慰安親意。固不當如是耶。其後在舂陵。特以其平日所嘗用力自勉者。貽書諸子警之曰。獨寢不愧衾。獨行不愧影。勿以吾得罪故遂懈其志。是知西山平日家庭之訓。亦有足以成就諸賢子也。今平居家室。或不無貧窮憂憾之惱心者。其困苦悲悴。實不至如西山所處。於是而若不能晏^P然相處。則實由平日定力無以自立。而有不足爲訓於家庭故也。可不愧哉。遂錄此以示家兒。而有以自勉云。

退溪聖學十圖。固爲切於後學而端的可攷。余以小屏子。摹寫揭之。日夕繞諸左右觀之。此等屏障標揭。卻涉文具糞點。在自家實工。未必以此加損。識者見之。或不以爲笑否。第念義理法象。聖賢格言。森列左右。如有所臨。而疾病衰倦之極。或不免偃臥瞻眄。褻服慢容。惶蹙不寧。此固可嫌也。然而寢處之際。或不至放肆解體。而自不忘敬畏之義。則乃不至爲狎侮聖賢之罪耶。惶懼惶懼。

○ 鄉曲後生之不見古禮久矣。余嘗爲冰溪洞主。一鄉父老同志。要舉行鄉飲酒禮。顧其儀節煩多。院力不逮。有難猝行。而惟朱子大全所載增損呂氏鄉約。月朝集會讀約禮。是實本於鄉飲酒禮。而其禮約而易行。亦足以寓行通講之禮。故遂欲依此爲据。參酌時宜以行之。既騰出一通。畧加替換添補。欲以持納稟論於一鄉先進。蓋不能無望於後人之或因此舉行也。

家禮儀節。已是刪盡繁文。而近得見星湖李公禮說。則其所以又刪去家禮儀節。而只從末世極窮無依家綿緒。往往有不成樣處。若此類。有難盡舉。至如冠禮。三加○禮之次次漸隆。是固有義。而別無力勢之所難辦者。則此不必苟加裁約。而星湖翁乃欲合三加爲一節。至裁節其祝詞。而傳會句語爲文。冠禮是先王之所重。而世之不行久矣。鄉曲好禮之家。初若無意於舉行則已。如欲舉而行之。必攷据儀節。遵行不謬。然後庶不失爲古禮影響彷彿。而有足可觀。不然則奚必冠禮爲哉。有其名而無其實。無足觀而有足愧。此豈君子之所貴耶。昔我函丈先生。亦嘗以冠禮勸人行之。而本家事力有不逮。則或使之不宿賓。不具幣。只以門族來會者。特代立爲賓贊。而行三加之禮。依禮讀祝辭以加之。不必行醮○禮。禮賓等節則此可謂約而得中。而不失爲責成人之道。故余於宗孫祖應之冠。乃亦依此行之。而星翁之說。終不能無憾於鄙意。有不當準以爲法也。

讀書之餘。間以游泳。此意味最好。蓋終日端坐。諷誦潛究。而至或神眩體疲。則意思恐未能圓活。氣象恐未免局束。於此之時。必須掩卷游泳。爲發舒休養之道。所謂游泳者。亦無他焉。惟將容與逍遙。隨意玩適。或攷閱圖史。或問柳尋花。無迭宕自恣之態。而有從容不迫之趣。亦或取風詩雅頌數章。及古今聖賢名言佳句與心相會者。歌詠上下。擊節蹈舞。要不出義理之中。而適所以○養成冲和。則讀書浸灌之味。庶將於是益深。而所謂事與心相契。心與理相涵。鳶飛魚躍活潑潑。勿忘勿助。上下同流之妙。未始不自在其中。其樂爲如何哉。余處淵齋。別無所爲。疾病之暇。隨分讀書。或值日暖風和。輒攜杖緩步。聽流水之潺湲。觀鳶魚之飛躍。慕古人風浴詠歸之趣。而又以古今歌曲風詩名言佳句。附錦莊帖末。時時拈出一章或數句。抑揚洪暢。諷吟一過。則不知不覺之中。神氣忽若清朗。意味有能流通。讀書講究未會之旨。往往若觸發喚開。恍然自悟。而不無中心悅豫處。固將終吾身以樂之。尙復何求於外哉。

○ 延平先生曰。凡遇一事。且就此事反復推尋。以究其理。待此一事融釋脫落。然後循序少進。而別窮一事。此蓋延平窮理工夫節度也。嘗侍函丈。晝間講大學或問格致章。以至此說。當夜就寢。先生忽顧余。擊節而歎曰。融釋脫落四字。此語最好。所當玩味。屢言不一言。其意蓋有足感人也。反復窮理。積累不已。畢竟至於濃熟通透。渙然無疑。若冰之融解散釋。若果子之脫落其皮殼。則此正是好境界在。而有中心悅豫處。非平日真實用力。得自到此界者。無由識得此味。先生所以必舉似此句。臨就寢稱誦說與者。豈不以其平日所自驗者。欲提與○後學。而冀其能激仰奮發以自勉耶。每念及此。亦未嘗不爲之興歎也。

晦屏先生文集卷之七

序

亂離日記序

人之讀古史。而見前古帝王爲彊胡醜虜所逼。力屈勢窮。匍匐受制。其成敗存亡。初非與於我者。而猶輒爲之扼腕興歎。憤懣不已。往往至於泣下。此天理之所不泯。而人心之所同然也。而况以我朝人。讀我朝史。見我之先王嘗戾於凶酋。蹂躪抄掠。廟社蕩然。天綱人紀。一朝盡隳。有不忍盡言者。其心益何如也。若是者。雖掩卷揮涕。頓足椎髻。以至於發聲大哭。亦無怪也。余^P自童子時。每念我朝丙丁時事。欲求見其詳而未能焉。去年冬。余往屏山。滯雨無聊。求見古書於注書南公。公以其高祖由由軒公所爲丙子亂離日記一卷示之。蓋由由公嘗以重試差官。隨駕入南漢。爲司饗郎。故有是記。實信史也。余讀之未及終篇。至胡酋於松城外。設九級崇壇。南面而坐。使吾聖祖帥百官四拜。又令助攻皇朝。余於是不覺心墜臆塞。茫然不能視字。乃欲手劍登壇。斫首剔肝。啗之無及也。至胡兵蔽海入江。都元帥慶徵縱酒酣娛。晏然不以爲憂。又不肯許用兵器。使廟社淪陷。嬪宮大君皆被繫。余於是竊欲毆^P出軍前。拔劍數罪。斬之懸街市無及也。至大臣甘心主和。忍恥忘仇。媚辭遜語。無所不至。余竊怪其心情。鬱鬱銜憤。鄙極欲嘔。至斥和諸君子力扶大義。恐隳天常。其言若秋霜烈日不可犯。余未嘗不斂衽豎髮。想見其風節。至或縛送虜庭。竟死不得歸。聖祖涕泣臨遣。命酌親侑。余又爲之慘惻揮淚。弔哀籲冤不已也。蓋有所不忍盡言者矣。蓋有足椎髻頓足。發聲大哭者矣。豈止若讀古史而偶然興涕於前古之禍亂而已哉。嗚呼。余生之後。丙子固遠矣。未嘗親經大亂。目擊其事。而秉彝同得之天。自不覺胷中慨慷。非觀於日記而得者歟。日記^P之能使人激其天彝。其有補於世教大矣。注書公嘗命余序是卷。而余惟卷末有孤山李徵士所識。不敢更贅他語。只述其悲憤之意以還之。豈足有所發明哉。由由公諱磔。官縣監。養德有文章。丙子錄勳贈職。蓋以入南漢同難故也。崇禎丙子後一百二十五年庚辰孟春。鵝洲申體仁謹書。

龜洞逸稿序

聞韶故有讀書士。申姓。名曰重仁。字君任。不幸早歿。歿之年。從弟體仁拾其詩文亂藁若干篇。藏棄在笥。後十有五年而孤子伯憲始長。泣閱其稿。請更繕書爲冊。詩^P凡二百八篇。賦一序一祭文二書一。體仁曰。書不可以無名。念兄未嘗自有所號。無可據稱。而惟所居里是爲龜洞。古人蓋有因其所居以名其書。遂名之曰龜洞逸稿。既而伯憲又請小有說。爲序書卷首。體仁不忍提述。欲下復止。歷數月。始淚而言曰。嗚呼。如吾兄者。固可悲也已。兄之少也。豪邁駿放。不入羈勒。若不可以自制者。而一朝忽斂然爲雅士。拋舉子業。慨然有志古人之學。持論語孟子中庸大學朱子書節要陶山老先生之文。口誦心惟。探蹟微旨。以事親奉祭居喪。待賓友處族鄉。皆有出人之行。知友至今誦之。又博觀諸詩家。如少陵^P青蓮^P東坡^P山谷^P玉溪子^P簡齋^P放翁遺編。無不慣誦。其詩鏗然有古聲。鹿門李公嘗見青巖石泉二律。謂有唐人餘氣。兄之生僅二十九年之間。而其所成就。蓋已如此。豈宜終沒沒者哉。惟其瞥然泡化。名聲久未聞。今其歿未二十歲。而芳躅漸泯。日遠日忘。嗚呼。如吾兄者。固可悲也已。兄嘗荐罹憂苦。早管家務。日應賓祭事物之煩。而不能專意於讀書。每中夜不寐。怛然興歎。恨無以脫

去纏繞。而超然拔俗之思。往往發而爲詩。所以言志述事。觸境謳吟而亦必以澹雅爲主。故不務爲奇麗詭特之辭。今按稿。如爲學寓歎旱灾感秋有感。走筆遣懷。夜^P坐書懷示諸弟諸友。自述偶吟等篇。皆出於傷時知命。懋學自珍之意。而詞致最切。其餘諸詩。又皆溫藉精端。力祛陳言。或間以悲涼清楚之音。而亦不失爲雅言。以至文賦書序。皆極有味。使人讀之。足以見平日所養之深。而眞若老成宿儒之作。亦豈只以唐氣許之哉。今吾與伯憲之意。蓋將以此稿。欲持示兄平日所與相來往者。與之共論悲懷。又退而藏之於家。以遺子孫。使之摩挲吟諷。槩徵志行。而顧吾於慘傷痛惜之中。有不能亟修其稿。塵箱敗墨。蓋多亡失。嗚呼亦可恨也已。世之仁人君子。或有取於此而肯一覽焉。必拊卷興涕。惜其無^P命。思有以發其幽光而照示來後。乃宜藏是卷以待之。歲昭陽協洽孟春下澣。從弟體仁謹序。

縣宰徐公詩論後序

我侯徐公莅縣之數月。以興學設教爲急。既入鄉校講大學。赴縣北講西銘。冬十月。又詣于藏待書院。招縣南多士。講太極圖說。而歸而作詩若論。俾卽相酬。體仁以無似。亦嘗與在招中。廁父老長者之後。同聽講說。凡有疑晦。輒陳瞽見。聖人定之之義。體仁實受教于長者。而動靜互根之說。公亦不以體仁爲非。體仁嘗竊以爲圖說之作。說出圖中之蘊。苟不先究圖象而參之以說。則^P是圖自圖。說自說。曷足以知其義哉。故體仁嘗欲一据圖象爲本。證以註解。徐究其道體之實。而逐節鉤論。則庶幾得窺其髣髴而乃未及焉。又竊以爲周先生作爲圖說之意。固欲闡示性命之本。使人得立其人極。故其用方之地。惟在修吉悖凶。其本則又在主靜。及其爲修爲之方則朱夫子嘗足以敬字。主敬之工。又自有方法。一篇之下落歸趣。於是在焉。講圖說而欲得以實體於身者。不可不特講此義。體仁欲提叩及此。仰請于公及諸父兄。一爲之說破。有以感發興起而未及焉。噫其可恨也已。雖然。念公於朱墨控僇之暇。能超然抽身。唱進^P儒冠。講世俗所不講之書。威儀施設。儼然有古師儒之風。雖其平日用力之深淺。有不敢窺議。而此固已奇矣。又况竊讀其詩與論。詩能究邈於道器之微妙。而無世俗浮夸語。論正體仁所嘗與人深辨者。體仁嘗遊畿湖江右。見論學者往往致疑於知行交修之說。謂人固有所已知者。猶病其不能盡行。奚庸致知爲。莫如且從已知上行得去。甚則以朱門教法爲可疑。謂孔子教曾子。特待其眞積力久。始語以一貫。朱子輒先教玄微。近思錄爲初學工夫。而以圖說爲首。此豈初學者所易窺測哉。體仁時聞其說。極言以辨。今雖不能盡舉。而其大約。^P輒妄引先儒語。謂退溪李先生嘗筭進聖學十圖。亦以圖說爲首。而自謂與近思錄同義。乃謂學聖人者。求端必自此。而用力於小大學之類。及其收功而遡極一源。是知首揭近思。此初學求端之工也。晚告一貫。乃遡源反約之事也。故近思錄卷首所載。朱子識語中。亦嘗以求端反約爲言。而呂東萊特辨其首揭圖說意。其言約而甚明。不待更卞而知矣。因竊爲引喻之說曰。今夫皇都爲四方之極。而遠在萬里外。苟非身歷目覩。固難驟議。而凡出門始發軔者。亦不可不知有皇都而審問方向。不然。顧何由向尋哉。疑者稍以爲然。而未知其斷然^P心服。此說紛紜競起。有足可駭。體仁方竊憂之。今公忽以此爲題。欲與多士共卞。其意豈偶然哉。但詩之所詠。出入空妙。而無反身自修意。論之命題。與場屋試士相類。方講圖說之旨。而反偏主於寒泉編錄之意。固若可疑。然而非卓然以講書興學爲先務者。亦不足以與此。曷可少哉。乃將推其所有而發之於政。以濟一方之民。其爲幸賜。又何如也。體仁以不文。固不敢妄有所議。而既辱公命。未敢終辭。欲敬承公意。特論首揭之義。則私見如右。不欲苟爲欲綴緝前言。汎論一源之妙。則註解已備。不必更贅。遂不得已而別爲之序。畧道其講討未^P究之恨。賢侯作興之美。而亦附以私辨。繼之以詩。冒昧投報。惟冀公之鑑恕裁

納於斯云爾。

龜園贈別帖序

龜園贈別帖。此爲再從姪鼎梅而作。梅之奉家廟南下也。固將永離鄉園。無復歸期。諸族相與興嗟。而梅之意憾憾也。遂各爲歌詩以贈其行。所以識其別也。梅之行也。諸族相攜出門外。拜送神位。因與梅別。簇立街衢。躑躅移日以望其行。是日也寒日向午。原野蕭條。見其行旌飄忽。逐望漸沒。至不可復望乃止。是夜。余與諸弟姪愴然言曰。遠矣梅之行。已不可及矣。顧梅之意。欲以諸族詩歸詠於客中。亦可悲也。蓋亦編載爲帖。因便投遺。爲得慰其意者乎。咸曰諾。遂相與成是帖。既以當日贈別諸詩揭首。而因以梅之所和附焉。送梅之後。有所吟出恨別餘意。寄來於去後者。亦載之。武陵精舍韻。此間梅之所傳。聊以戲次。非臨別贈行。而嘗爲示梅作。故并附帖末。總若干篇。梅之觀於是帖也。將宛然與諸族復會。從容相對話別。詩帖之助。爲不少也。雖然。諸族之愛於梅。而必欲與之相勉者。亦不止惜別而已。此在贈別諸詩。已畧有及之者。梅當默會而自勉之。茲不復焉。龜園乃龜湖。於梅故園也。此帖蓋爲梅作。故表其爲故園諸族所贈。而名之曰龜園贈別帖。欲慰其思故園故也。戊戌窮臘月日。再從叔書此爲序。

察訪張公行蹟序

余少遊屏山。得以畧聞故察訪張公嘗以孝聞。既又聞其暇享白川。槩知其有行義之高。而衰病杜門。恨無緣得其詳。公之后孫光漢。忽責公行蹟一通以來。踵余門而請得一言弁首。余始奉而覽之。寂寥小卷子。非所以收錄公平日遺文隻字。而特以後來若干稱述文字載之。首揭西厓柳先生所爲碣文一篇。而附以白川前後奉安常享祝諸作。皆信蹟也。詩云永言孝思。孝思維則。公以資性學問之美。爲親盡孝。始終無憾。行之七十年如一日。非所謂永言可則者乎。又能推而至於過密不懈。終三年嚴謹盡禮。此則非人人之所易能。而孝之爲百行之源者。信不誣矣。柳先生蓋與公爲內外戚親。公之平日居家實行及日用細節。此先生之所嘗親見熟知。而得其實者。豈但出於耳聞者哉。先生一言之重如山嶽。而既嘗以公薦聞于朝。至命之爵。公之歿。又特爲碣文記實。刻石傳後。而其後諸君子祝文諸篇。莫不以此爲据。稱述備至。不佞平日。蓋嘗淺之爲知公。不圖其至行實蹟之若是可欽也。爲公后孫而欲爲公發揮潛德者。可謂知所當務。而無遺恨。尙復何求哉。抑余念公之六世祖達山公。嘗以麗季名臣。避聖祖三幣之聘。剃髮入山。大節卓然。余嘗編其實紀。而今又序公行蹟。惟忠惟孝。家法可觀。公之行義。豈曾無所本而然也哉。遂并書所感以歸之。

崔上舍遺稿序

嗚呼。此吾亡友崔上舍仲久遺稿也。仲久下余六七歲以生。而今其歿已二十七年矣。余今老不死。尙呻吟在牀。而見上舍之子已次第成立。抱乃翁遺稿。謁余請存削去取。且要一言弁首。余覽之。安得不怛然興感也。上舍娶吾從祖妹爲其婦。自年未弱冠時。出入東床。朝夕與吾遊處。論文講義。一心相許

。以及中身。蓋知上舍深莫吾若也。上舍以數咎菴先生之從子。資性絕倫。儀貌皎潔。服習家訓。儼然夙成。既又從遊於大山李先生之門。早聞爲學之方。慨然以古人自期。其志意之勤懇。見解之明敏。固已見許於師門。而儕流謂未易及。旁治學子業。早登國庠。不以是自多。常汲汲若有所不逮。沈潛經訓。質疑請益。欲必體諸身心。而其入頭大致。必要以孝悌爲本。詞章筆藝。顧非所重。而亦皆精娟特達。需用不滯。以其資之美志之篤才之高。天苟假之以年。使之^P沈涵蘊畜。磨礱練熟。而卒究大業。則吾知斯道之責未必不在斯人。而吾黨庶幾不寥落矣。豈不惜哉。上舍既歿數年。其弟士矩父猶痛惜不已。不忍其湮沒無傳。收拾遺蹟。得詩文雜著書札若干篇。欲以此編輯藏弃。垂示後人。其意亦不偶矣。第上舍早歿。故著述無多。其歿後又多散佚。今所集不過數卷。爲若可恨然。而今觀其與師友往復書及湖上筭記一通。足以認歿時成就已自不少。而平日觀感於師門爲最切。令人讀之。不覺起欽。而其北遊詩一篇。乃其年二十三歲時作。詞趣筆力。宛轉平叙。依然若出老成人手。此亦足以徵其志行萬^P一。奚必多乎求哉。往在庚戌秋。上舍之胤子洵以士矩父之命。齎詩文一卷來託。謂將繼此增搜以來。余病未下手。藏之巾衍以待之。洵也又不意奄忽。父子相繼歿。天意固未可知也。迺者。洵之弟洵若潑既葬兄畢。以兄遺意。又齎送書札一卷。寄書申請。而其語亦可悲。力疾強起。拊卷興咄。畧加刪校。乃特題其卷面曰崔上舍遺稿。而因次蕪語以還之。恐未足以少慰幽明也。歲丁巳維夏上浣。同遊申體仁書。

龜窩遺稿序

嗚呼。吾豈忍序若和遺稿耶。若和後余生十餘歲。嘗以^P童孺從余問學也。今若和歿既三年。而吾迫七耄不死。但見子姪後進相繼寃化。五內盡朽。百念俱灰。吾豈忍序若和遺稿耶。若和之喪期纔畢。而其子祖榮。懼乃翁遺蹟之寢湮也。爲之掇拾遺文。得詩札序記雜著累十餘篇。附以前日龜園諸族贈別諸帖。及葬祭時知舊誄奠詩文諸篇。合之爲龜窩遺稿。欲以垂示後人。既又袖其稿。徒步重繭。跋涉遠來。請余弁其首。屢進而屢懇不已。亦豈忍卒孤其意耶。第余念若和已古矣。雖不可復見儀形。而其真面在此。讀遺文而想見其爲人。不必待吾言加損。且余於昨年。因榮也之曳衰來請。不得已而^P爲若和誌墓。既畧述其平日言行文學。表裏始終。可愛可悲者。爲若干言。亦載在是稿卷末。覽之可認。亦何必疊架煩提。只自增悲也。無已則有說焉。若和既老于丹而終于丹。丹之人無不赤心欽愛。許以信義。情猶骨肉。知若和深且摯。莫丹人若也。吾意以爲使榮也攜是卷歸。而就丹晉賢士友與乃翁知者。懇勸致辭。得一言畧叙其實。以揭卷首。庶終爲公案可傳。顧此耄荒一語。未足爲重。盍亦亟圖之哉。既與榮面語及此。因并書以貽之。青鼠重元節晦屏題。

孫積汝 有慶 字序

^P孫君有慶。於余戚親也。以其尊大人之命。挾冊訪余。留止數月。既受讀大學一通。今且歸矣。問字於余。余命以積汝。而且告之曰。積善者必有餘慶。此古語也。世之論者。或但推本前世之積善。而冀蒙餘慶于後人。豈若反身自修。趾美承休。必懋積是善于厥躬哉。故必早辨於舜蹠善利之分。而能復其本然之性。使善之積于內者。必積之積之而又積之。以至充實而有光輝。則在我固已無憾。彼殃慶之自

。各以其類至者。雖不論之可也。余惟君之家。粵自月城野村諸公。其善之積也久矣。今至于君。固應享其餘慶。而顧君父兄之望。朋友之期。豈不^P欲必於君之身而積其善哉。今君承家庭之命而讀大學之書。日講誦於格致誠正之說。而知所潛究。可謂能反身而知所務者矣。將不難於善利之辨者矣。將復其本然之善而積之不已者矣。所謂充實而有光輝者。將由此可期。其父兄朋友之望。固有不出於是者矣。故余嘗勸其必循序漸進。勿要驟躡。俟讀論孟既通。然後始會極中庸。於是而苟能實用其功。心體力行。積歲月如一日。則善之實有諸己者。固將充積發越。心廣體胖。以至於仰不愧俯不忤。而隨處自得。日用無礙。其爲慶也。亦孰大于是。積汝勉之哉。積汝資性醇謹。才思夙成。觀^P其能旁治學業而不背繩律。其前世積累之餘慶。固將於積汝發之。亦不可不賀也。

崇敬錄序

人之一心。合理氣統性情。爲一身之主。萬事之本者。或不免邪私所蔽。物欲所引。昏昧放逸。出入萬變。而無形影之可指。方向之可尋。苟不致操存涵養之工。則曷以保其天理之明。而不爲外誘所撓汨哉。嘗竊惟之。吾之一身知覺運用。雖莫非心之所主。而敬之一字。又爲一心之主宰。使是心欲必存在裏許。總領百體。而不至昏昧放逸。則蓋頃刻舍是敬不得。聖學之所以成始成終。^P而爲徹上徹下之工者敬也。故自灑掃應對。至於格致誠正。自戒慎不覩。恐懼不聞。至於中和位育。安百姓天下平。莫不以一敬字貫之。千古聖賢相傳心法之要。曷嘗有外於敬者乎。聖人之敬。與學者不同。雖曰安而行之。不勉而中。而所謂不顯亦臨。無射亦保。亦不無警惕維持之意。不可謂全無所事。不用些力。而在學者則其工夫節度。自有次第。若不究古聖賢旨訣之明。淵源之的。而列錄編載。合成一通。若朱子所訓類聚。程門論敬處觀之者。而日夕擊討。反復不已。則亦奚由端的省悟。感發興起。欲必實體于身而知用力哉。余以譴劣空^P疎。兼以耄荒。其於本領工夫。了無實得。固不敢與議心學。而少也從先生長者遊。得以略聞主敬之說。與同志論學。亦或掇拾糟粕。動說及此。而恨未能究極源委。的認成法。而有以自勉。數年前。嘗占得閒日月。試博取經傳史記羣聖賢書。特以敬字爲標準。而歷究其旨訣淵源。一一拈采。片片騰出。欲編作一部。藏之巾衍已久。而亂藁無別。縱橫錯雜。未暇勘定。昨年春。始因子姪申請。欲爲之整頓序次。而病眼模糊。無以攷檢。遂令家兒鼎輝逐條歷提。再三誦讀以聽之。只自閉目塊坐。默領心會。商量去取。指揮編錄。以聖賢相傳旨訣之要集爲一^P通而分上下。各有通集列錄。以聖賢相承淵源之正。合爲一統。而又分上下。各有通集列揭。是併爲元篇。且有所謂旨訣續集。淵源附集二通。承元篇次載。至若懲省錄。此別爲外篇係末。以備監戒。而合而名之曰崇敬錄。令鼎輝紉繹繕寫。僅成草本。尚不無遺闕舛誤。不得不更待勘校。然而其大體已成。觀於此而欲有以從事是敬。則至論備載。大統昭揭。一開卷而爛若日星。所謂操存涵養。明天理勝私欲。而得一心體用之正者。庶將由是而可求。此只要自勉。而與同志共覽而已。豈敢曰拈出要旨。發明心學哉。嗚呼。子路以聖門高弟。爲百世之^P師。而及聞修己以敬之說。則猶不免少之。而再三申問。矧如後生末學。未嘗真實得力於敬。則亦安知其功用之大。足以體信達順。而終至於安百姓也。敬之功用甚大。而其工夫特要嚴密。此當從儼若思始。而所謂整齊嚴肅。正衣冠。尊瞻視。爲初學最初下手之地。凡厥有志於持敬者。盍亦知所當務哉。歲乙丑仲夏月日。末學鵝洲申體仁序。

記

三守軒記

三守軒安陵李公。隱居東海之濱。家世問學。天資近道。嘗有味於許文正公屏銘三守三勿之語。而特以三守名其軒。拳拳服膺。歿身不懈。不佞嘗竊惟三守三勿。此便是顏子四勿之工。而乃其目則擬諸曾氏之三省。三省之序。固以忠信爲傳習之本。而三守之守口守身。又當以守心爲本。曷不與之相契哉。惟四勿不言思。又并舉視聽爲目。而三守乃不免偏舉而闕其二。又以守心爲主。固若不合顏子之所嘗從事者矣。雖然。四勿之勿字。此實心之所以爲主而爲勝私復禮之機。四勿未必不言思。而三守之所謂守心勿妄念者。固將總主一身。周流貫通。雖不歷舉視聽。而視聽自勿妄。奚恨於偏舉而闕二者哉。然則所謂三守之工。亦當以三勿字爲機。而機牙既斡。勻石自隨。非所謂勿旗一麾。羣邪退聽者歟。西山真文忠公嘗有意克復之工。而特以勿字名其齋。爲箴以自警。亦有見於勿字之義者矣。李公之必以三守名其軒。而欲從事三勿妄之工者。其亦聞西山氏之風而興起者歟。惟不以三勿名其軒。而特揭三守爲名者。此徒爲溫平持循之工。而非嚴猛禁止之辭。其精神意象。雖若不及西山氏之真切。然而從古學者力量氣象。莫不各因其天分。成就其大小彊弱分數。不必與之相齊。顏子之克己復禮。仲弓之主敬行恕。不無乾道坤道之分。而要其歸則俱是爲仁。此不必深疑也。公之少也。嘗從遊密翁之門。而得聞存葛兩先生之學。循循雅飭。不出成訓。晚忽不幸。兩眼不視物。不以此自廢。輒晨起盥櫛衣冠。端坐終日。聲色溫溫。不變常度。今以公欲擬之於四勿克復之勇。則斯固未知。而若論其得力三守。萬一彷彿於敬恕持循之實。則或庶幾近焉。抑又念顏冉之學。固皆不出敬字。而及論持敬之方。則必先於其外面有形象處著力。程子所謂整齊嚴肅。朱子所謂正衣冠。尊瞻視。此最爲親切下手地。公之必終日衣冠端坐。不以衰病或間者。非所謂知所當務而得制外養內之術者歟。噫亦躩矣。公之子聖執父於不佞。從母兄也。亦以孝友忠信趾其美。年踰六十。既畢公之喪。永慕不已。一日見不佞。略誦公平日名軒之意。而欲發揮三守之實。以星江權公所爲記者一篇示之。而要盡發餘意之未盡究者。不佞辭不獲。乃略陳公之平居節度。爲能真得持敬之方者以歸之。愧無以發明潛德。闡揚實工。以仰副孝子所須之萬一云爾。

樂素齋記

友人姜士悅。居尚州之飛鳳山下。以其燕居之齋而扁之曰樂素。屬余記之。歷三年而請愈勤。余曰。子有尊府君在。安敢遽應是命也。士悅曰。亦大人意也。余不敢辭。始起而請樂素之義曰。素有二義。有曰儉素。曰素位。子之所樂。將何居乎。士悅曰。竊有取於素富貴貧賤夷狄患難。而不願乎其外之義也。余應之曰。子之意誠美矣。然余惟安素位而樂素履。能無入而不自得。超然於外物之至。而不以窮泰易其心者。惟中庸之君子爲可能。非後生學者之所可驟語也。蓋亦反其親切而先從卑淺處以勉乎。今子之居。在尚之州城南門外。尚卽山南之一大都會也。舟車商賈之所湊。有金銀珍貨之饒。氓俗尚芬華。子弟有遊閒公子之習。子之居此也。苟能不染於俗而以儉素自守。絕邊幅外循之弊。而反忠信仁厚之實。遠聲色棊弈之娛。而崇詩書禮樂之教。教子弟則以浮麗豪縱爲戒。結朋友則以謹愿篤敬爲貴。是其爲素。乃不亦可樂而爲可傳可久之道歟。斯與中庸成德之事。雖若卑且淺焉。而蓋莫切於子之身矣。士悅勉乎哉。雖然。樂者。謂樂其所自得也。非苟於外貌而只假虛矯情之稱也。或知素之可樂。而又不能忘情於俗好。眷眷於綺紈珍羞之僭。而實厭其淡泊焉。則豈可曰安而樂者哉。此則士悅有不可自欺也。

。士悅既笑而歸。乃述其言而還之。使之奉質于其過庭之際。俟有所採擇焉而揭諸齋壁。以出入觀省焉。

龍岡草廬記

曰。體仁讀書于家。見客入隣家。皓鬚魁顏。眞長者也。往拜之。乃尙州上舍金公也。體仁嘗來往尙州。聞公名甚熟。未嘗一與遇拜也。至是而欣然奉語。問所從來。曰。欲一遊江左久矣。造河上。登謙菴玉淵。想見二先生之風。往蘇湖。謁李斯文乞銘。轉來至此。蓋欲與吾子一面也。夜坐語數迴。忽自誦其所居而屬以文曰。吾鄉者嘗居尙之外南里。近入白華山洞號迴龍者居之。洞處一州之西陲。地偏而境僻。宅深而勢阻。風塵冠蓋之煩。未嘗及焉。氓俗甚淳。而多山樵野稼之樂。吾結廬其中。數椽足以庇風雨。薄田足以種稻而藝麥。有奴足以執耒耜。有二子讀書。足以課學而忘憂。自謂送老之計。固無以加此也。知友來往之路。乃或邂逅而將迎。信宿而拚話。固不可謂全與麋鹿友之也。遂以其居迴龍洞。而名吾廬曰龍岡草廬。既自賦詩歌之。與吾遊者。多相與和之。願子文以記之也。體仁辭未能。因言曰。諸葛孔明隱居南陽之隆中。後人指其山曰臥龍岡。今公之名廬。豈或有慕於是歟。公笑曰。吾特因地名以名廬耳。人之和吾詩者。或以爲說。然吾竊以爲孔明不如吾也。蓋孔明。以其有三代王佐之才。而爲當時經濟之手。故雖方高臥龍岡。不求聞達。而世不得不求於孔明。自大耳三顧之日。已不可謂無擾間居。而及其感遇而出也。又以攘姦兇。匡炎漢爲己任。流涕渡瀘。出入不毛。曾不暇於甘食安眠。而卒殞於戎壇之上。何嘗暫歸其廬而息焉哉。今吾以驚劣無用之才。固已自棄於當世。而世亦不肯與之相求。甘心湮晦。養拙無營。固將優遊龍岡之下。而卒老草廬之中。其爲勞逸何如也。言訖又笑。體仁竊惟公之言亦奇矣。雖若自謂其高於孔明。而實出於安分自適之意。可謂識間居之樂者矣。雖然。公於孔明之事。乃有所當慕而效之者。今夫孔明才器之偉。智術之神。固非後人之所敢妄擬。而孔明嘗有書戒其子。而其靜修儉養之說。得君子貽謀之正。足以明志致遠。而爲廣才成學之方。今公之教二子讀書也。苟不但以世俗功利之學。記誦詞章之習。汲汲爲捷徑干祿之資。而亦必發之以研精之工。導之以理性之術。一惟孔明之所以戒其子者。則是亦孔明而已矣。雖無孔明之才器智術。而豈不足爲孔明之徒也哉。於是乎雖以公龍岡之居。或指爲南陽之草廬。亦不爲異。何必區區焉較其勞逸而直強語爲自高哉。體仁未嘗一造公廬。以見其洞壑林麓之趣。而屢辱勤命。有難終辭。編其酬酢之語。以爲之記。未知公能領許否也。公名某字某。少以能詩名場屋間。及老而日詠佳篇。龍岡之逸興閒致。想有以助發云爾。

新樂堂記

李上舍仲則。自花山挈家移寓於一善之新谷。名其堂曰新樂。而屬余爲記。余惟新谷在華山之西。洛江之濱。巖巒洞壑。最稱清麗。有蜿蟺扶輿磅礴之氣。厥土肥饒。宜五穀桑麻。魚鹽商賈之利。日湊集其前。固山南之樂土也。仲則乃肇啓鞏基。迓續新休。田園堂室之美。足以永奠厥居。知友之東西相隣。朝暮來往者。皆結以新交。懽如骨肉。江山之外。時見風帆出沒。沙鷗翔集。縹緲上下。其新居之樂爲如何哉。於是而以新樂名其堂。意其所樂若只在新居。而抑又念君子不以外物爲憂樂。仲則江東之宿

儒也。雖未必盡祛外累。而豈曾以一時新居之樂爲真樂者哉。仲則生長蘇湖。早親有道。聞君子日新之學。而欲俛焉孜孜。得見可樂。蓋不待新居而得之也。及今年齡既晏。雙鬢如雪。而江山形勝。乃得如新谷居之。谷之名以新者。固已偶契日新之義。而我之方新居是谷之中者。有足以隨事自勵。與物俱新矣。於是乎其樂之在於中。而將無入不得者。固將隨遇自適。因事託物。以寓其無窮之意。而朝夕歌詠。堂之名以新樂。非欲以其淺者寓其深。而有不以外物爲其樂者歟。雖然。學之日新而至於樂者。非一朝假借而驟得也。必深造以道。積久漸熟。至生則惡可已。惡可已則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然後可以與議於此。未知仲則能已到熟處否。已至其可樂而能樂否。此惟仲則當自知之。吾不欲強叩也。余雖病且慵。當一爲仲則往尋。與之提攜登堂。共論其樂。因與登籠巖汎大江。俯仰今古。歷覽形勝。以暫滌鄙吝而來。夫然後當略窺其新居之樂。而知真樂之得以假寓也。是爲記。

四友堂記

同人李善述。年老而學不倦。家貧而志益雅。嘗屬余記其堂曰。先君嘗授我四友堂三大字。受言藏之。未敢失墜。今欲揭諸堂楣。聊以標名。有能爲一言發其義者。庶將朝夕觀省。沒身歌詠。余既不能辭。仍竊惟之。四友之在文房。其去就動靜必偕。用舍行藏輒隨。未嘗少須臾相離。蓋四者自相友焉。吾人之欲從傍託契。自引爲友者。亦何義乎。先公之嘗以是命子。而欲其必知所與友者。斯必有其說矣。既又解之曰。友也者。友其德也。四友雖同其所趨。而顧其德各有可稱。筆之用敏。敏可以力行徙義。硯之體重。重可以體道成德。紙之質潔。潔可以滌人欲復天理。墨之色玄。玄可以晦光彩守幽靜。君子於此。能知所取益而反身自勉。合四善用。成其德爲。亦有君子之道四者也。行之日用。自當隨處無碍。非所謂友其德而輔仁者乎。非以文相會而爲益者四友乎。吾知先公之望於子者。未必不出於此意也。况子方潛心古訓。日有研究。不以衰晏自懈。四友者在其側。曷不各效其能乎。庶將洗滌磨鍊。展布記注。有疑輒錄。有契輒書。以此或質之經訓而可以上友古人。或就叩同志而可以下友當世。友之道於是極廣。奚止有四友而已哉。雖然。取友必以信爲上。苟不以實心處四友。只欲假借把弄。修飾文辭。以要欺世。烏得爲朋友有信哉。顧善述無是慮。不必煩告及此。善述少治博士業。欲有爲當世。今雙鬢如雪。志業蹉跎。乃欲就靜文房。遙追先意。唯與四友從事。善述其衰矣乎。遂并記此。以著其實云。

金鑲軒記

余鄉者客遊江右。訪晚癡洪上舍干葛峴之陽。上舍方以疾廢雙眼。鬱鬱杜門屏居。若無以自聊。余執其手。嗟傷以別。越幾日。上舍爲四韻詩寄余。又自謂以金鑲名軒。請余爲之記甚懇。蓋庶見刮膜之功。而欲余發其意也。余諷其詩。咄再三不已曰。余惟上舍奇男子。少以能文名嶺下。謂功名可立致。而卒未大闡。今其年已半百。始衰而不幸失其明。雖無以辨物。然而顧其心。尚杰杰然不少挫。豈終憾憾與齷齪輩同歸哉。余謂人之病不一。有或病于眼。或病于心。病于眼者。氣血爲其膜。病于心者。私慾爲其膜。眼有膜者。固將用金鑲刮去也。心之有膜。乃刮之用何術。上舍慣於物理。是必因其病而有能反隅於其心者。豈專爲眼病謀者哉。蓋形有內外。體有大小。與其明於外而暗於內。曷若明於其內。與其養小而失大。曷若養其大者。達人知命。君子聽天。循理順受。安心將息。一源澄靜。萬理涵照。

形屬于中。或遂感通。余以是聊爲上舍提誦。而欲把爲金鑑。庶幾并治心眼之膜。而爲不負名軒之意。上舍或已自得之矣。上舍名天休。字光之。與余相善。觀其病吟其詩。而究所以名其軒者。固可悲亦可慰也已。是爲記。

錦山形勝記

聞韶治之西三十里。有山穹然。來自東南。起伏無數。與雙遷相會。爲龜湖洞門。是爲錦山。水之發源於青鳧界者。西流七十餘里。向山下直射爲北川。發源於龜城界^P者。又西流七十餘里。薄山右腋。屈折向北。逆流與北川合。是爲南川。山在合流之濱。磅礴鬱積。向東北開面。無巖壑林越之勝。與人烟夔絕爲別區。緣山左右上下。土沃多田。宜藝五穀。多間土可墾。冽泉在山上。苦旱不渴。厥木多松檉楓椽。厥花多躑躅。厥菜有薇蕨苜蓿桔梗。產水晶朱草。右腋之下。亂石鋪水中爲上灘。波聲甚駛。常如風雨驟至。有魚梁橫截奔流。築石爲隄。春夏潦漲。得大魚無數。秋冬拾細鱗。魚梁之前。列石爲橋。遇小漲輒沒。緣梁築來往。凡從東南來而繞山下。出桃李源者由之。其下爲合流。合流之後匯岸下爲淵。泓深澄澈。魚^P游可數。淵盡又流爲下灘。列石爲橋。是爲通津。自龜湖大路至者皆由之。灘之下流屈曲抱平沙。當曲流欲折處。又築石爲魚梁。四時得魚。如上魚梁。其下又汨瀾奔流。匯于雙遷之下。西流出洞門。洞門之外。又薄山足南注。闕之爲桃李源鳳凰淵。雙遷在山之西北。隔水相持。青壁層懸。飛鷗棲其顛。人之從鳳凰淵入洞門者。輒渡水壁下。左瞻懸崖。右挾平阜。逶迤緣水而進。歷平沙。抵下灘。赴東南北。惟意所適。其大勢然也。山面當中。何正北平落。分兩翼垂下。如人箕坐伸兩股。兩股之內爲小谷。谷窈而長。中有甘泉雙澗。層落迴互。各成區界。可容^P數十戶。負右翼向西而坐。前對三峯。斜指雙遷舞胎諸峯。蹲蹲拱揖向前。歲壬寅。余取近淵齋。欲挈家移寓。募人先入成二屋。甲辰。喪耦淵舍。既葬。移靈座入谷。茅屋僅四間。承以短廡。又有二屋繼起。合之爲殘落四五家。荊扉石室。匝聚成隣。耕稼漁樵。輒與相謀。是爲錦里。蓋因山名爲號也。躡右翼橫落。東向成平臺。前爲懸岸臨淵。後繞翼脊如屏。廣僅十餘步。輪倍之當前。左右鑿崖面斜。繞爲雙棧。一從上灘登臺。一從下灘入臺。望之如八字分懸。登臺而望。南指極浦。東臨大野。東北諸山。縹緲綽約。列立如螺鬢。月上輒先見。直與龜湖相對。雞犬^P時聞。官路橫中野。冠蓋相連。野闊渡水爲未易。至臺上山際。躑躅爛開。間以松翠。當春如綿繡。臺下穉柳成行。不久成繁陰。淵外白沙橫鋪。芳草蔥蒨。鷗鷺鳧鷖。來往翔集。牧笛或相和。秋夏夜靜。漁火輒五六作隊。沿流而上。照映洲渚。來集臺下相呼。由臺上西出登麓頭。俯瞰碧灣縈迴。白沙平鋪。別成一嶼。洞門懸壁。嵯峨臨水。望之甚佳。當并包爲一區。是爲錦淵。合山與水名之也。由谷中橫出。繞左脇西距。山勢忽平叙。漸下爲水濱。自出兩翼包之。田疇交錯。阡陌層連。與洞門削壁相對。端妍如梳形。水碧沙明。是爲平錦山。野人所稱也。由谷左肩。^P高出右臨。平錦橫繞山腰。西入有一小洞。環山角四圍如屏。裏有土田。泉流開西北通澗水。多藥草奇花。宜置一菴。是爲晦屏。日未沒。輒先晦也。山以錦爲名。而有晦屏者在其間。是爲衣錦尚絅之義。不亦異乎。由晦屏北出。屈折繞山足南下。又有一洞。繚繞若環。向西開谷。中有名泉澗流。膏壤宜稼。亦可居數十餘戶。是爲菖蒲洞。或稱長浦也。出菖蒲洞門從左偏稍下。蒼壁向北。層懸水匯。其下魚鼈羣聚。花木雜植。崖隙可觀。是卽鳳凰淵。或名鳩巖也。山名在州誌。書以禁。爲嫌於禁林禁苑。觀前輩文字。或稱以錦。今從之。顧余世家龜湖。生長山北。^P性愛溪山。自爲童子時。或出遊江浦。輒到茲山之下。見水石稍清。未嘗不欣然會心也。記在歲甲戌。先君愛是山。就谷中左腋高處。結

茅寓居。一日拄杖臨臺。顧不肖曰。此正好藏修。最宜登覽。越數年。先君早世。不肖孤不克保守遺蹟。廢爲荒墟。欲更就臺上肯構。而貧憂窮困。恨未能也。先師大山先生知有是意。嘗眷眷促成。多方指畫。謂欲一與逍遙。體仁不敢少緩。恐有後悔。遂不計歲侵力屈。猝然經始。先築石室一間。募人居守。欲繼建精舍。以書告先生。先生已寢疾。未幾易簣。前後責恨無窮。實無意營築。而有不敢遂已者。俟先師葬畢。得歸始^P事。成精舍幾間。繼營谷宅。植梅菊松竹梧檜薔薇桃杏名花雜卉于精舍之前。爲庭實。樹棗栗梨柿桑柘于谷。資生居。隨宜區處。晚計粗成。父師遺意。乃或追副萬一。惟將投閒就靜。收拾桑榆。優游歌詠以畢餘生。谷宅付家兒耕讀。母敢或懈。我在淵舍養疾。隨分講討。尙復奚望也。於是環山左右上下。泉石礪谷。屋舍堂室。無不隨意題品。以自標識。精舍之右室曰主敬。左室曰集義。軒曰春物。臺曰鳶魚。左室之側。築壇植碧梧曰霽月壇。臺下柳汀日光風洲。洲邊大石列鋪。可坐垂釣。曰釣磯。磯傍灘流清淺。或攜兒童盥濯。曰濯川。棧曰南棧北棧。橋^P曰上灘橋下灘橋。右腋積石盈洲。或峙或臥。巉巖難行曰積石洲。巨巖植山根。橫偃層疊。水源源來注其下。有足泝流究源曰泝巖。巖上山阿。長松列立聳翠曰歲寒坡。魚梁之傍。冽泉出田間。活湧澄靜曰活泉。精舍之後。嘗拓土出積之如垣。繞植老松其外曰松垣。垣之外楓林倚岸曰楓阿。阿之下汀沙明潔。野鶴或來住其間曰鶴汀。阿西麓頭蟠結隆然。若別成小山曰桂嶂。屬棲游也。谷中舊墟。如昨陟原興慕曰慕原。泉流始澀漸滋。若待我忽湧曰靈泉。坂曰牧坂。宜牧牛也。窩曰農窩。欲課農也。種栗繞園曰栗園。種芋滿圃曰芋圃。澗曰洗澗。岸^P曰樵岸。屬宅居也平錦。雖無人烟住接。而或攜杖緩步。對壁臨流。盤桓歌詠。亦自不惡。名其壁曰晚對。浦曰詠歸。實志其興也。晦屏欲俟時募僧。結菴居之。間擊磬。傍爲小室自棲。名其菴曰隱屏。室曰綱齋。寓晦錦之義。未知終得諧否也。菴蒲洞。鳳凰洲。在洞門外。相距稍闊。雖未嘗題品命名。而實山之西垂也。當共爲一山之勝。故並載之。亦廣包無外之義也。若遇畫師好手。當摹寫一山爲全圖。又逐處各爲圖。列作幾疊爲小屏繞之。日夕寢處其中。足以坐領一山形勝。而親切玩驗。豈不有所默契哉。閒居無事。偶述及此。乃略舉山水大體及前後^P事實。爲錦山形勝記。逐處又各爲詩一篇。以自歌詠。或有同好者肯與和之。精舍又別有記一通。以述其事云。歲丙午季春月日。錦淵主人書。

錦淵精舍記

[1]ITKMOXML | 복사 URL복사

錦淵者。錦山之右翼東厓也。在一山最佳。故必於此作精舍也。精舍之作。始於歲壬寅。訖於癸卯。中一間爲堂。左右各一間爲室。前三間皆半架爲軒。余始念先人之夙志。中被丈席之催成。終賴朋友親戚拔力相助以就之。非余能獨辦也。余之棲于是也。固將收拾晚景。看書養疾以自老耳。顧奚爲而將不負父師之遺意哉。竊惟^P之。使我若蒔花種藥。陟降原阿。歌考槃之詩。詠衡門之章。脫略塵勞。逍遙自適。不知世間榮辱欣憾爲何物。顧亦可樂也。惟樂有虛實。不必專任閒放。余少承家傳之業。惟聖謨賢訓。是講是習。及長而受師門之教。略聞古人爲學之方。而因循頹懶。卒無所成。中夜興思。拊躬悼歎。幸今縛得數椽。寄棲江皋。晚計稍閒。庶幾賴天之靈。溫理舊學。省愆補過。得進分寸。顧先君先師之意及親戚朋友之望於余者。亦豈曾出於是也。嗚呼。小軒臨水。紙牕銜日。鑪有宿火。案有陳編。閉門靜坐。焚香開卷。潛心玩究。窺見微旨。反而驗諸日用。要自體察。而同志往^P復。或相與講疑。冠童子弟之間。輒竭所知以對。要共策勵。日暖風恬。溪山靜明。或攜筇理屐。隨意徜徉。覽川流之源源

。觀鳶魚之飛躍。興闌而歸。歸又靜坐。動靜食息。行住坐臥。常不離泉聲岳色之中。而優游涵泳。保養天和。不知不覺之間。或有所自樂於中。則所謂俛焉孜孜。不知老之將至。一息尚存。此志不容少懈者。或庶幾萬一焉。精舍之成。豈曾無所補者哉。惟臨流望野。所處稍高。多通明爽豁之意。無專靜幽奧之趣。若可恨也。然惟谷宅在彼。乃將入樓出臨。咫尺來往。隨時取適。惟意所安。當相與爲表裏也。力竭財窮。無以覆瓦。逐年編茅。恐不能久。然亦惟作此生未死前幾許年計而已。奚足深憂也。岡巒泉石之勝。花草禽魚之樂。吾已略述於一山形勝記。茲不復煩云。丙午季春月日。主人晦屏記。

棣華堂記

世教衰。彝倫漸晦。人之善於兄弟者亦鮮矣。然而秉彝好德。賢愚所同得。是以。雖在叔季澆漓之極。而有能敦於孝友之實者。人之聞之。莫不相與欽歎。若不能自己。可以驗天理之在人心而有不全泯也。亡友金公汝安。世家縣北。宗鄣甚盛。而兄弟凡四人。有第宅衣冠之盛。無飢寒困窮之憂。天倫湛樂。德義相勸。既嘗善事二親。處兄弟且無物我。亦叔季之能敦孝友者也。乃不以兄弟之各專私處爲貴。而欲必團會一堂。沒身同老。別建一字于居第之傍。翼然臨村巷。承以廚廊。繚以牆垣。又營置財穀。做爲義庫。兄弟晚景。乃將團會寢處于此。且欲令子姪後生日夕相聚。讀書課學。遂扁之曰棣華堂。蓋有契常棣之詩而取其義者也。顧余居在同縣。與公兄弟素相善。聞建是堂。亦嘗爲之欽豔歎賞。不無秉彝同得之天。而中罹憂憾。兼縛穴故。恨未得一與徘徊以相其樂也。其後公既不幸早歿。而二弟相繼奄忽。惟有季氏川如尚在。嘗就余而言曰。先伯氏所以營建堂宇。寓意命名。惟兄弟同老是期。而風霜摧剝。棣華零落。痛結孔懷。百計墮空。蓋若魯靈光之巋然獨存。顧瞻堂宇。只增興感。團會共老。固已無望。而惟吾先兄友于之至。營築之勤。卒不免虛負堂名。願爲之一言記實。以著其義。噫亦悲矣。若是者。非所謂樂未圓而生恨者歟。抑余惟之。大化參差。脩短不齊。具爾同樂。固難永保無替。而盛事之未遂。所期者。乃將責成於來後。使爲公子姪後生者。苟能體念先志。惟懷永圖。必以時團聚於一堂之中而相與講習切磋。無敢或怠。卒有成就。則庶幾不忝堂名。遙追遺意。永以爲好。而其功化之著。乃將有補世教。川如之所以必要記語而申請不已者。非欲以發揮乃兄之志。而亦有望於後人者乎。其爲後人者。固宜相與勸戒。各知當勉。而顧此愚陋。欲竊付燕賀之義。爲之善頌善禱者。其言亦不外此。尚復何煩也。公蓋嘗推其孝友以及於人。周窮濟急。不靳施與。優游畎畝。不要人知。至欲號以農隱。此足以驗其意象。非獨是堂爲可記也。

白石亭記

洛之上流。臨江而亭者。不知幾家。俱以形勝名。若論其灑落明媚。端的清幽。以江湖之勝。兼園林之趣。允宜隱者所盤旋者。當以尙之白石亭爲第一。亭蓋在龍尙之交江流曲處。故白石翁晉陽姜公所棲也。晉陽氏嘗居在龍之五龍洞。才俊蔚然。有九姜之盛。公卽其一也。公當我朝康陵之世。中大小科第。歷職郎署。以文章名一時。嘗以野城宰。忽超然謝世。解紱歸鄉。占勝于江之北涯。而爰結小亭以終老。澄江如練。白沙平鋪。林麓雲巒。隱約環抱。公以山巾野服。跌宕歌謳。日逍遙其中。不知世間名利爲何物。以亭之下爰有白石。如大屋可觀。遂以是名亭而因以自號。又自述十景詩及白石亭歌一闕。

以寓其志。詞意浩蕩。出入無際。至以采石月赤壁^P秋自擬。而欲與謫仙坡老上下追躡。至今百歲之下。令人諷誦。足以想見其氣象萬一。余謂公始以科目出世。略踐末班。初非無意於仕進者。而論其時則適際隆平。羣龍滿朝。豈曾色斯而高舉者乎。蓋公以才氣之高。自期不淺。遭遇明時。芥拾科第。謂可以朝夕登庸。贊揚鴻休。而顧棲遲下位。芳歲已晏。米鹽朱墨。適足敗意。遂拂衣遠引。寄興江曲。忘懷得失。聊以自適。是其意無乃出於此者歟。不然。以其志之大言之高。無亦近於吾黨之狂簡。而嚶嚶自恣者歟。視世之逐臭營營。夜行不休。不顧恥辱者。其高下何如也。公之歿。無子姓世其家。以一^P區藏修。并付其外甥具氏。實柏潭先生子也。具氏世守是亭。中忽廢壞復建。建而復壞且百年。名區蕭瑟。鞠爲蕪墟。過者興悲。今具氏之後。有日墩日坦。慨然肯構。乃卽亭之遺址。翼然起堂宇。揭以舊號。江山無恙。物色依前。疑公尙宛在其間。豈不奇歟。余嘗立馬路隅。隔江遙望。恨未就覽。今具君遠來請記。亦不能無感。遂略叙始終。而附以己見以遺之。第恐有慕清虛者。或訶余愚妄也。

嵩南精舍記

宅於南嵩山之下。而名其廬曰嵩南精舍。丈人申公居^P之。不佞惟公之家。自公五世祖以下居于是。前後衣冠之盛。簪組之赫。固多偉人令德。而至于公。又兄弟三人。共享遐壽。黃耆鮒背。秩秩聯佩。非得於名山清淑之鍾而能若是歟。抑又念嵩山一名金烏。冶隱吉先生之所棲也。公之生長山下也。飲食起居之與山相接。出入遊衍之與山相對。常在清風徽躡之傍。而歌詠先烈。欽想高標。有足以激勵興起。毋敢自忽。其必以是山名其廬者。其意豈徒然哉。今公之年七十有餘。而偃仰一堂之中。不廢玩討之工。吟詩講禮。孳孳不已。以世間窮泰懽懽死生存歿。一委之司命而不以爲念。三老聯袂。來往^P湛樂。人之望之。若仙珮翱翔。難躡下風。若公者。非所謂遙追先休而無愧古人者歟。不佞嘗策驢山下。拜公于精舍。見其堂室蕭然。圖書滿架。間植名花異草以實其庭。知公之能優游養真。自樂無求。而顧精舍在大江之濱。風帆煙浪。光景無際。蓋不獨嵩山爲可稱焉。

三一齋重修記

別立一學舍於校院黨塾之外。處在縣邸。沿革不一。而其一成一毀。實係斯文之興喪。爲吾黨者。曷不極力扶護。永世勿替。欲必與校院黨塾無間耶。蓋昔文敬公慕齋金先生。嘗按節南來。特眷是邦。巡到之日。倡進生徒^P講學。仍加惠八十斛穀。爲興學之資。遂以是爲本。漸次更張。以至建齋設所。聚士肄業。而取孟子所謂育英才爲三樂中一樂之義。以爲之名。此聞韶之所以特有三一齋者也。其後方伯地主。相與追做前軌。紹述美蹟。力役財穀。輒爲之隨意裨補。至或移易基趾。或增益間架。要皆以興學成材爲務。父老相傳。遠邇欽誦。此三一齋之所以卒悠久自在。至歷累百年無替者也。前後賢人君子之秉筆立言。有足徵信來後者。或列錄其事實。或持書爲記文。傳示後人。爛然俱在。此齋中文籍之所以有歷歷可攷者也。鄉者齋宇之傾圮。蓋有年矣。吾友上^P舍金宗憲景徵父時爲齋長。以吾族子鼎周爲貳。上舍一鄉之善士也。老成有宿望。鼎周亦有文雅。固已合志同方。隨事盡力。惟勿替舊規是務。而顧瞻棟宇。恤然興吁。特以重脩革新爲急。入告于地主徐公。徐公賢大夫也。聞而樂之。爲募百緡銅以助之。鳩材買瓦。革舊改建。堂室廊舍。燦然一新。以歲庚申孟冬始事。辛酉季春告訖。上舍與鼎周之於

회병집(晦屏集) 신체인(申體仁)

是齋。可謂能事已畢。而非徐侯之樂聞助成。則亦奚以竣事無憾也。一鄉才僑之操觚肄業者。庶終由是作成。其志尙趨向。必不止於泮汨俗學。而金先生所嘗倡進勸勉之工。乃亦因緣感悟。循序漸進。講習服行。得以成就。則是齋之功效符驗。於是爲大。非所謂實係斯文興喪。而有當極力扶護。欲其無間於校院黨塾者耶。上舍旣訖功。使體仁爲記。而衰病悲憂。含意未遂。今上舍不幸云歿。鼎周乃以上舍遺意。力申其請。不忍終嘿無語以負亡友。力疾強草。略述顛末。仍以耄荒一言。別爲一鄉後進申勉。於乎上舍之嘗申勤致力於此。而望於後人者。其意豈徒然哉。士君子所以反躬敕勵。篤學力行。欲必無負金先生之意者。斯固無待於外。而各在當人用力。凡厥居是鄉而遊是齋者。蓋亦知所當務哉。因並附其語以爲之記。丁卯陽月日。鄉人申體仁記。

晦屏先生文集卷之八

識跋

題望金剛圖障子軸面

從姪鼎五。得望金剛圖障子一本示余。乃鄭謙齋所爲也。余惟金剛是海上名山。而乃登斷髮嶺望之。其蒼茫恍惚。固應如是。蓋非謙齋好手。不能摹出得此也。鼎五既囑隴雲翁。書望金剛三大字於圖上。又要余一言。余謂觀山與學道相似。必須躬造登探。歷歷搜覽。然後歸而到方休歇處。乃復超然登嶺遠望。則固將指點領會於曠蕩之中而有能真見也。或不然也。足跡未曾一到其間。只欲於別處望見依稀。吾恐其或墮於虛遠而終無實得也。五也乃亦知此乎。余念五之姿性疎闊。少親切向實之意。有迂遠出塵之想。不可不深戒於斯矣。雖然。學道而能奮勵踴躍。勇往直前。得至於真做實踐者。未始不由其依稀企望地。感發興起以致之。此意亦不可不許也。五也勉乎哉。余觀軸末。有謙齋所自題。識謂其据宋懷川詩語爲此圖。而其詩全篇四句。實載在洪木齋遺集。又有古今傳說可据。此爲木齋詩明甚。而謙齋所云乃爾。不能無疑。余與五也嘗說此。故今爲一言申勉。而因附論及此。當俟知者一卜爾。

張達山實蹟卷後跋

不佞惟達山張公大節卓然。宜與冶隱，籠巖兩先生并美齊光。當前代革命之際。其能辦此者幾人哉。時代已遠。固無以詳公之事實。然而念其以前朝世臣。位躋台宰。聖祖龍興。特以厚幣三徵。是必有德望才器爲當世所推重矣。向使一出應旨。贊揚休命。豈不安富尊榮。共享天祿哉。然而終毀形入山。託於空門。甘心枯死。不肯以彼易此。噫其難矣。所慨然者。冶隱籠巖俱爲聖朝所褒顯。舉國至今尊慕。達山公獨昧味無稱。豈其嘗滅跡窮山。無復形影故歟。顧籠巖之逃之荊楚。乃亦與之泯其聲迹。而其顯晦爾殊。亦未可知也。不佞見金掌憲聖民父嘗宰昇平解歸問之。謂其府南。果有建達山。而山中有公遺墟。至今父老相傳。張氏居境內者甚多。未聞有爲公後者。遺墟鞠爲茂草。無人典守。不佞聞而興傷也。噫。世或有尚節義者。欲爲公表章之。當以昇平志及文忠公永慕錄爲据。而遺墟傳稱。亦足指徵。此當俟嘉會於無窮耳。公之裔孫。在屏山密州者不少。始相與蠢然興慨。欲有以發揚之。顧文獻無徵。未詳其生卒履歷。乃以誌錄所載若干語。屬不佞編輯。要爲一言闡幽。不佞固陋蔑識。無由廣攷。只以所來文字第列之。名曰達山實蹟集略。因略述私見附後。覽者亦將有感於斯焉。請編集者名大鳳。於公十三世孫也。歲辛丑三月下浣。鵝洲申體仁謹書。

南溪實紀跋

右南溪李先生實紀廩二卷。以世系年譜逸稿爲原編。師友寄贈。頌德碑銘。祭文誄辭。狀碣誌銘爲附錄。體仁既妄加校讎次輯。因仰而言曰。嗚呼。先生以聰明端秀之姿。挺儒賢輩出之際。以西厓柳文忠公爲師。以守拙齋，五峯諸公爲同堂諸父。以旅軒，愚伏，梧峯，修巖，訥齋，敬菴，西潭諸賢爲友。出入講討。日夕琢磨。其淵源羽翼。蓋足欽想。而自廬墓讀禮之日。以至桑榆既晏之年。所嘗專心致力

。俛焉從事者。固不出於聖謨賢訓之中。必以易，詩，書，春秋，近思錄，心經等書爲主。而又喜讀朱子書。不輟講誦於南溪泉石之間。若是者可謂沒身涵泳於義理之中。而味人所不味者矣。其服行需用之實。豈曾無可言者哉。故處於家而爲孝友敦睦之至。需于世而爲撫摩捍禦之勤。迨其歸臥林泉。發蒙育材。墳箎相唱。嘉惠一方。而乘化歸元之日。又能以禮謹終。遺戒丁寧。此固爲行事之著明。而若論其旨訣之微。則其場屋之作。雖出於一時應舉之技。而能痛說於未發已發中^P和性情之妙。貫動靜該體用。而其工夫義理。明白有下落。所與晚沙公書。雖惜其未見全篇。然而殷勤勉學之意。必以收放心爲本。非平日體驗之工。自有所實得於中者。曷足與議於此哉。噫。公實厓翁之高第弟子。而南溪。實公之所嘗卜築藏修者也。當厓翁之奉享南溪。而乃不并舉從食之儀。後人於此。亦不能無恨。公之遺文實蹟。亦嘗始佚於兵亂。再蕩於回祿。存者無幾。爲子孫者。安得不深唏也。公之后孫廈樑致中父。袖公遺文幾篇及前後事實若干。屬體仁編校。因要一言附後。體仁實梧峯先生六世孫也。追念先誼。不勝景慕。遂不敢以^P不文辭。因并附慨恨之意。以俟知德者採焉。丙午月日。後學鵝洲申體仁謹跋。

書杏堂稿後

嗚呼。余讀杏堂稿。將何以爲懷也。余亦有愛子如束堂子者死。先師大山先生嘗勸余收拾遺蹟俾不滅。而悲哀慘毒。不忍爲也。及今觀是稿。而乃奉讀先師之所爲序者。余固以衷吾兒者哀之。始知杏堂子之翁。其賢於吾兒之翁遠甚。嗚呼。天苟生之。何故奪之。苟欲奪之。何嘗賦以非常之才性歟。是關於氣數之升降。而有不容人力者。爲其父者實無如之何。哭亦奚爲。杏堂子內舅^P杏陰翁。持冤稿示余。要爲一言識之。余不忍辭。乃以余之所自解者題卷末。俾遺杏堂子之翁而解其悲。噫。同懷者一言。或萬一有力焉。丙午孟秋閏月日書。

尹司直戊申日錄跋

戊申之變。天祐宗祚。梟獍授首。不日獻捷。當是時也。內自將相諸臣。外至藩屏守宰。其奔走率職。隨分効力。紀功太常。登名彝鼎者。蓋可數也。若以匹夫無官守。直詣戎壘。自請赴敵。沫血誓死。爲衆先驅。凜凜有烈丈夫之志者。惟善州義士尹公。未知當日將相守宰。能真有此意象者凡幾人也。故其臨賊應變。奇謀迭出。馳檄呼^P諭。攻心挫鋒。以能辦一方之勳者。實有志事竟成者也。以其志也。假令不幸而無所成。固不失爲烈烈奇男子。而令人聞之。有足想見其爲人。况追奔逐北之勞。斬將刈旗之功。既嘗略獲陳聞。論賞受資。而當日教旨中。特題以自願從軍追兩賊加資。非所以壯其志而表厥義勇者歟。班師奏凱。急於省親。奉身卽退。不肯少留者。殆近於馮大樹之獨屏避功。而臨行面命。據義割恩。許一子赴難殉國。而斷斷無難色。乃其母亦賢也。公之忠義奮勇。豈曾無所本而然者耶。所可恨者。前後忌功媚能之徒。相與掩遮沮撓。不樂成人之美。落在下列。^P未盡褒顯此惟埃公議於無窮耳。公之孫相麟雲章以公日錄示余。要爲一言附尾。余竊謂公之功固可紀。而其志不可不揚也。遂略題數語以歸之。再戊申翌年己酉仲秋。申體仁書。

先祖梧峯先生別集改編後小識

記昔年刊畢先祖文集。從祖上舍公追拾逸稿若干編。因草成年譜一通。求識跋於青田金公。擬續刊未果。後公歿幾年壬寅夏。體仁以從叔命。不揆愚妄。覓出公所藏逸稿。序次謄載。爲別集一卷。就年譜草本。旁搜曲採。考實釐正。與別集合爲一冊。略成編例。蓋嘗與宗姪鼎^ㅁ沃共事。始終致力。未幾。沃忽冤化。從叔下世。沃臨絕時語其弟鼎五。我且死。若承吾志。惟盡力先事是圖。五葬其兄。請更就別集卒業。要作定本。體仁疾病衰頹。因循逮今。迄未下手。今年春。五又請不已。體仁始力疾強起。搜出舊本。更加校勘。繕寫得成完篇。蓋逸稿編載。固以上舍公所拾爲本。而以所自新得諸篇并編。若癸亥辭承旨疏。此爲吾祖末年大節。而元集逸未收。幸今得載。顧年譜草本。不無合商量處。規模色面。有不得不展拓更張。依實修潤。遂不嫌僭猥。分條立綱。用大字標題。輒以細註雙書。稍換舊例。若可恨。然顧惟此事。適所以承^ㅁ公之草本而欲卒成其事。得以追副從叔宗姪之意而俾無遺憾。何嘗別立爲一本哉。故必一依草本所載。仍載金公識文于卷末。俾後人得有所攷而不沒其實云。歲己酉元月丁丑。六世孫體仁謹書。

梧峯先生辭承旨疏後識

先祖梧峯先生。值昏朝政亂。無意仕進。屢除拜不起。及癸亥改玉。間廢主遜位時事。爲之潸然出涕。未幾拜承旨。遂辭以疾不赴。短疏只陳病狀。不一言及新化。從容婉轉。不迫不露。當日知友。惟五峯李相公及敬亭李公識其意。五峯輓先祖詩曰。銀臺新命辭嚴召。敬亭^ㅁ祭文有曰。出納惟允之才。將施之新政。而公則不起。此爲吾祖一生出處大節。而事係時諱。有難明言。按行狀實。略舉其端而不詳載。如誌碣等文。初不槩說。子姓後人。恐無以識得真面。先師大山李先生嘗見體仁說及此。謂梧峯辭承旨一疏。此君子末年大節。而恨不載文集中。聞其嘗亡失而復得之。幸孰甚焉。似當汲汲續刊。以傳於世。其言尙耿耿在耳。今不肖後孫體仁。僭不自揆。爲附數行語。略錄顛末。以補狀碣之闕。後之尙論者。若因此而取攷疏語。得會微意則庶或有肅然起欽。欲爲之發其幽光者矣。

世牒卷首小識

鵝洲。巨濟屬縣。今巨濟府鵝洲縣。尙多有姓申者云。或謂韓山舊號鵝州。申之先。疑出於韓山。而州與洲字固不同。按退溪李先生嘗撰申參奉諱椿年墓碣曰。公巨濟人。我先祖孤松府君司馬榜眼印本。書曰本巨濟。鵝洲之爲巨濟地無疑矣。故觀故籍。或書以巨濟。或書以鵝洲。未嘗不迭用。而今闔族無或以巨濟書本。但稱鵝洲。若相謀然。未知始於何代。又觀先輩手書。如詩牋題名等帖。或稱梅城後人。或巨濟縣。一名又稱梅城歟。亦未可知也。按吉冶隱夫人。是鵝洲申氏。而洲字或書以^ㅁ州。圍隱集。載圍隱文科榜目。有曰申仁甫。擢丙科一人。其實曰鵝州。而州字亦不從水。未知是亦巨濟鵝洲。而洲與州音同而字相近。故乃未免錯書歟。抑別有一申姓出於韓山。而自以韓山舊號爲貫歟。或云鵝洲氏是本自平山分出。俱爲壯節公後。其說亦無怪。而無信籍可據。宜并埃博雅君子更質焉。歲辛亥月日。鵝洲後人申體仁衰病垂死。追惟本始。爲修世系一通。略附以事實文字。因究論所貫鄉邑。俾後人得有所攷云爾。

鷹巖血書拾錄識

鷹巖血書者。我從先祖處士公壬辰亂中臨絕手書也。P公諱之孝。嘗居義城新禮洞。乃我六世祖考梧峯府君兄也。壬辰五月。倭寇猝至。時梧峯府君以宣城宰在官。公奉母夫人吳氏。避亂隱于鷹洞巖穴間。鷹洞卽今之泉洞也。倭四出攜突。逼公所棲。遂劔擊公左肩。血淋漓以歿。公臨絕。神思不亂。從容若平常。乃嚙葛濡血。脫紬衫手寫爲書寄宣城。首言其遇害垂絕。惟母氏幸免。且申勉梧峯府君欲必委身殉國。乃欲識諸足掌。俾卒尋屍。辭意激切。有足動人。府君在宣城陣中。見是書。不勝驚痛流涕。乃卒忘身誓死。盡節樹勳。此血書始終實蹟也。以其出於鷹洞巖穴。故謂之鷹巖血書。而其後血書。P不幸爲灰燼。無以記其全文。惟首尾數句。表表傳稱。乃將因此攷據。得徵懿蹟。百世寢遠之後。若終并此無記之者。將于何攷信。乃敢不揆愚妄。掇拾句語。謹錄揭之如左。

血書拾錄卷後跋

體仁謹編成鷹巖血書拾錄既訖。乃爲公諸后孫。復以所感于中者。敬書卷尾而爲跋語曰。嗚呼。昔張巡與南霽雲共被賊喝脅不屈。巡臨死。乃呼雲曰。南八男兒死耳。不可爲不義屈此壯矣。至今千載之下。尙令人凜然豎髮也。雖然。余謂同舟遇風。雖胡越必同心。況一體被P脅。誓心同死。其忠憤所激。乃不覺一聲呼語。卽地相勉。此慷慨者能之。若夫以家居無官守者。猝然被賊鋒臨死。方奄奄垂絕。而乃濡血作書。遠寄百里外。以勉其殉節者。此雖在骨肉弟兄間。豈容其暇念及遠哉。非平日定力卓然有立于中者。能如是乎。顧我梧峯府君。旣血心憂國。守死封疆。固若不待勸勉。然而紬衫血字之寄。有足令神鬼感泣。兄弟孔懷。豈曾無痛激增勵者哉。然則今雖以公之血書。謂不無當日隱功。亦可也。豈直爲一時臨絕之善言哉。抑又惟韓文公嘗以李翰所爲張中丞傳。爲有關而叙其後。記臨死呼雲事甚詳。爲恐其P或湮沒不揚也。然則今公血書。不幸見燒於火。而其首尾數句語。且將寢遠易泯者。豈非仁人志士之所宜興慨者乎。使今之世。復有如韓文公者出。所以鋪張叙述。欲得以發其幽光者。必不後於中丞呼南八一事。而顧茲衰病蔑識。僅有所述錄。而無以發揮萬一。亦可愧也。雖然。使爲公之后孫者。有能持此錄。就當世能言之士。求其爲序若詩。以稱述而歌詠之。區區編錄。未必不爲原本可據。而百世之後。有足傳信。顧非幸歟。諸君其勉之哉。丙辰仲冬月日。從后孫體仁謹書。

陽坡實紀跋

P陽坡洪文正公。當麗季板蕩之際。以勳戚世臣。位躋首相。旣嘗殲滅賊徒。再安宗社。卒也正冠服出門罵賊。不事苟避。甘心殺身。勳名震一代。忠貞貫日月。有足輝映竹帛。傳誦今古。若是者。豈曾無平日所由得力而直出於其智謀血氣者哉。公少好讀書。與李稼亭，鄭雪谷諸賢結爲書社。日以焚香誦讀爲事。時人稱爲焚香會。公嘗自云。近日胷中。若有主宰。是其日夕講討之功。朋友切磋之益。固將爲異日勳業節義之所由本。而爲能樹立得辦。豈不凜然豎髮哉。抑又惟當時君臣上下之相與尊信佛教。崇奉不已者。殆將滅其天彝。而觀權陽村P所述東賢事略。謂公以天質之美。輔以學問之工。處事直而能

斷。接人嚴而有威，確持正論。力闢異端。噫亦遑矣。非平日義理之明。持守之貫。能卓然自立於頽波之中。而不爲邪世亂者。曷有以至此哉。是其有功於斯文。維持乎正脈者。不止爲一時扶社之勳臣。殉亂之毅魄。而惜其時代寢遠。文籍不具。無由攷認其闢異之實蹟。正論之一二。得以嘉惠後學。扶植世教。而其所存者。有六首詩律尙傳耳。寂寥篇章。落在人世。不翅若泰山之一毫芒然。而其詞旨高雅。韻響清遠。令人諷誦。足以驗其流出於忠肝義腸。而絕不類末俗浮華口氣。非所謂大鼎之一爨乎。公有苗裔在赤羅。衣冠甚盛。既歷世累百餘年。而慨然有追報之意。始相與立社妥靈。與后孫西潭公膾享一祠。而又傍求公遺蹟之散佚者。片片拾錄。以其六首詩。特首揭爲逸稿。而又以史傳及前後諸賢記述附其下。合之爲實紀。欲必錄梓廣傳。噫亦孝也。公之幾世孫亮國宇正諸契。爲奉實紀。來訪山扉。責跋語甚勤。有不敢以不文辭者。遂書此以歸之。

龜巖實紀卷後跋

古語云。觀人必於大節。不佞讀近故龜巖金公實紀。而論其大節。壬午中營一哭。乃非公大節之可觀乎。嗟乎。論其蹟則所當論其時也。雖山野愚氓賤隸。苟同有秉彝之性者。誰不欲一聲號天以訟其冤。乃莫不屏息潛涕。中夜椎膺。未敢發口言者。顧公時以嶺伯中軍。坐在營壘。名跡表著。觀瞻如堵。而乃敢發聲長慟。流涕滿面。當食不肉。略無忌諱。以其嘗職兼侍衛。分義自別。有不能自抑。自謂雖以此獲罪無悔。若是者豈曾以死生禍福動其中者哉。噫亦壯矣。公自是泊然無仕進意。解歸壠畝。沒身謝世。至拜鎮將不赴。不亦可欽哉。蓋公以儒賢雲仍。發迹弓馬。間識志操。不類常調。所至輒有聲績。庚午進對。特蒙天褒。固多可記。今公之孫英鐸。以公實紀一卷。屬不佞要爲一言發揮。所以特論大節而不暇他語者。乃欲以淑人心扶世教於無窮。豈但爲公地者哉。

箴銘

元日箴 己酉

天地之間。一元流行。貫徹四時。發育生成。舊歲既除。新元卽續。循環不已。既貞必復。正月初吉。實維元日。三陽回泰。一氣肇革。春夏秋冬。於是權輿。日月星辰。從此推舒。一機滾滾。大化常新。生生不窮。萬物同春。顧惟吾人。亦有此德。仁之爲德。包四德悉。渾涵純粹。寂然不動。一心全德。萬善是統。惻隱之發。實原于茲。羞辭是非。次第以施。充拓得此。四海可安。苟未充之。事親亦難。不是死物。生理藹然。隨事感通。體用固全。日用動靜。出處語默。和條是貫。若泉斯達。遠而古今。廣而六合。活絡通透。周徧普洽。宛一乾元。卽在我身。在天爲元。在性爲仁。天人一理。上下無別。賢愚同得。坐也本直。誰能保此。寔體厥躬。或間以私。不與天同。天行固健。萬古不易。相古先民。至誠於穆。以仁體元。全體不息。堯欽舜恭。禹祇文翼。湯銘浴盤。武警几席。周思待朝。孔憤忘食。煌煌厥心。新新其功。與天同軌。一體并隆。越有羣賢。繼開相須。顏曾思孟。周程張朱。克復戰兢。戒懼充擴。存誠主敬。德崇業博。剛健日新。俯仰無忤。前聖後賢。同歸一極。凡欲自新。盍體元化。體元之本。反求在我。賢聖既遠。成法可稽。欲仁斯仁。學與之齊。顧我今年。六十除一。冀六十化。進進不輟。念昔王考。錫我嘉名。欲必求仁。體之以誠。年齡既晏。餘日蓋寡。猶有一心。炯然如

火。心苟不死。雖老益勵。庶幾竭力。追補已逝。匪敬曷存。匪誠曷以。勉焉孳孳。斃而後已。寂寥孤居。三元載迴。餞故迎新。感懷難裁。思或體乾。以勉新工。作箴自戒。我言由中。

元日箴。贈族子鼎周。并小序○丁巳

族子鼎周。移居窮隅。謂無師友警益。欲余一言以發之。疾病衰頹。含意未就。頃於除夕前數日。鼎周來訪江皋。更申前請。余不忍終默。乃作元日箴一篇以貽之。庶幾有補於其志業萬一云爾。

天地生物。其心孔仁。流行發育。萬類同春。日惟吾人。以是爲心。賢愚共得。無古與今。心惟活物。其用不窮。爲一身主。隨事感通。有或不謹。私慾交熾。哀哉厥心。未免忽死。頹墮頑蔽。生理中絕。七尺雖存。與屍奚別。念君孤寓。傍無疆輔。安知一心。得免放倒。屬茲新元。大化更始。庶將自勵。與物偕起。顧惟天道。陰合陽開。當春發生。自冬胚胎。靜常涵動。動惟資靜。天人一理。盍亦反省。我愛景伯。才性極美。慈良恭遜。聰明強記。第惟氣象。稍欠凝重。言不必訥。體或輕動。臨事通敏。懼疎審度。看文不滯。恐未玩索。究厥病根。靜養無素。以是爲學。恐亦難固。不有翕聚。曷以敷施。非能專一。直遂難期。宜爾自今。特加新意。默存乃心。克體此理。沈含在中。婉轉致思。濬源導流。培根達枝。存之者固。發之有力。體之者深。守之愈確。止水澄涵。生意日篤。邪私漸去。善端可擴。逐歲增新。春德在躬。欲仁斯仁。卒與天同。非誠曷有。非敬曷持。知行交做。沒身孜孜。新正回泰。病懷崢嶸。作箴警爾。要與共貞。

固齋銘 并序○壬寅

固齋翁。吾鄉之宿儒也。少有才。讀孔孟程朱之書。欲必有爲於世。今年五十有九矣。髮白如雪。齒牙盡搖。乃未能策成一名。坎軻貧困。麤糲不厭。噫信窮矣。惟其自修之志。不能無慕於古人。取君子固窮之義。以固名齋。欲固守其窮之意也。余嘗觀翁之室。詩書盈案。筆硯淨潔。無俚俗營產之象。而有閒居清修之趣。知翁之常端坐其中讀書。此所以必用固守自勵。而不以窮窶易其心者歟。翁嘗邀余入于室。既坐語移日。臨別指齋扁。請爲一語以相之。蓋以余爲知己故也。銘曰。

君子學道。志在達施。落拓窮居。夫豈所期。時命或乖。不遇故窮。其如命何。固守以終。余惟固字。萬善所立。擇乎中庸。亦惟固執。志立而固。外物不誘。學成而固。自樂無苟。以此處窮。安得不固。動忍玉成。坦然履素。心苟無愧。餓死不恨。如其非義。萬鍾豈願。是之謂固。其固如石。我守我義。誓終無斁。顧惟我居。圖書滿室。賢聖遺訣。道義真實。啗蔬喫糲。日處其中。載歌載咏。我學加工。周孔我儀。程朱我師。一牀相對。黃卷日披。我飽而飫。義理充積。我潤而肥。德輝宣爍。於是自得。無入不臧。不守而固。與窮相忘。環堵蕭瑟。處若瓊樓。短褐風淒。著如重裘。曾歌顏樂。由此可希。履缺瓢空。於我何虧。我心孔安。我守自確。窮我者誰。我且自適。吾友固齋。得見此意。年老而窮。以固自矢。我謂斯翁。少也有聲。豈宜窮者。不幸無成。顧惟其志。欲自固守。窮非子病。德固而厚。我作銘詩。以勸其操。由固而樂。庶幾忘老。

座右銘 甲子

八耄垂死。志業荒頽。遂掇集古訓句語。爲座右銘一篇。略次聖賢工夫事業。表裏節度。可欽可法。得四十六句。閒居養疾之暇。往往吟諷歌詠。自不覺激昂興起。反躬含愧。知所警勵。銘曰。

強學力行。進德修業。操存省察。戒懼謹獨。懲忿窒慾。遷善改過。主敬集義。直內方外。格致問辨。體驗踐履。明誠并進。博約兩至。剛健篤實。樂易溫恭。克己復禮。閑邪存誠。弘毅任重。精一執中。動靜交養。體用無闕。盡心知性。成己成物。上帝臨汝。其敢或貳。日乾夕惕。斃而後已。積累涵泳。深造自得。勿忘勿助。鳶飛魚躍。妙用流行。默契無言。日用優游。左右逢源。樂天循理。心廣體胖。存中著外。盎背碎面。不知不愠。用行舍藏。一源瑩澈。萬理融通。明鏡止水。霽月光風。俯仰無愧。存順沒寧。

上樑文

先廟移建上樑文

先父兄未遑之事。一朝始成。我祖宗如在之靈。百世以妥。應有待矣。豈非幸歟。竊惟吾家。詩禮名門。簪纓故族。累仁積德。疏太傅之世業遺安。毓慶垂休。王晉公之家福未艾。粵至王考。規模增新。始移先宮。制度盡美。朱甍耀日。依稀脩竹之間。畫簷凝香。寂歷蒼山之際。春秋時享。灌薦孔明。內外諸孫。瞻拜克敬。不幸門運之中替。慘見宗支之繼亡。乃遂命龜。日且移廟。謂其基必有不利。謂其方必居非宜。其基不遷。難逃其禍。其方不易。難慰其靈。雖其言誕妄無徵。亦其事重大難已。幸今纔冠宗冑。遂與合謀族人。凡爲吾祖之孫。誰日不可。無非一口之議。惟恐或遲。於是相土正寢東。然後伐木先丘下。工匠殫技。因舊材而添新。僕隸趨功。依本制而無改。層階幽戶。便陟降開闔之時。曲牆方除。宜折旋進退之地。四龕之昭穆相繼。百代之香火久延。宗子宗孫將世守而無怠。諸支諸派盍同護而殫誠。聊賦一言。以贊六偉。拋樑東。畫棟晴霞射旭紅。一陣和風吹習習。四時佳氣繞蔥蔥。拋樑西。樹影扶簷落照低。樂善堂中歌世業。百年衿佩耀華題。拋樑南。天放高峯雲影涵。遙望不禁追遠意。尙傳吾祖讀書菴。拋樑北。側石亂松青未極。從此斧斤戒勿侵。當簷鬱鬱遮如翼。拋樑上。永世蒼天臨怳怳。芬苾以誠百福臻。古今此理何曾爽。拋樑下。滿眼耕桑春與夏。家業勿隳守祭田。粢盛自足衣無假。伏願上樑之後。祖考嘉悅。子孫蕃昌。禴祠烝嘗。供四時之廟享。道學文藝。繼百世之家聲。終焉允臧。永以無害。

一區之形勝自足。得樂土於晚年。數椽之藏修粗完。愜素計於閒養。奚亶做自家之境界。聊以待同人之往來。主人竊惟。景迫桑榆。學味糟粕。聲名利祿。本非心於強求。魚鳥林泉。早識趣於閒臥。顧茲錦淵一帶。實爲龜洞合襟。斷麓面陽。壓水潯而橫繞。鳴灘響月。鬪石間而爭流。蓋吾先人之所嘗盤桓。爰有古迹之可以傷感。逍遙來往。幾思菟裘之是營。躑躅登臨。亦要堂構之肯述。苦貧病之無暇。慨

歲月之如流。霜雪滿頭。知無幾於餘日。詩書在案。恐難得以專工。所以一朝募工。不計歲侵力屈。惟冀數朔畢事。終要心安室寬。鳩材柁基。宣賴親知^P之合助。蒔花種樹。幾多童孺之懽趨。軒楹敞明。不出青山影裏。枕几蕭灑。長在流水聲中。傍魚梁而有釣磯。橫石橋而渡沙渚。雙棧從水濱登岸。二川落臺下成淵。長郊之物色盈前。枕席可望。一壑之風光在背。庫藏非貧。樂林丘之寬閒。專水石之清絕。賓朋肯或相過。冠童與之共棲。爾月斯邁。我日斯征。豈敢或怠。古人與稽。今人與處。庶將自娛。陳編會心。閉門潛究。佳景引興。攜杖行尋。蒼壁背暉。荷釣之漁翁或至。芳草連岸。渡江之牧笛時聞。臨川流之不窮。覽鳶魚之自得。滄洲歲晏。慨絕響之難追。花鳥春濃。覺太平之斯在。爲終身送老之計。多^P怡神養性之資。山樑既摧。雖莫追於杖履。金蘭共勉。庶永照於襟期。滿川之狂濤日頽。是將誰遏。中流之一葦難濟。恐遂同淪。賴天之靈。庶幾追補前過。得地之勝。惟將收拾殘齡。賢聖之遺訣尚存。將我歌而我詠。江湖之間興自在。復誰爭而誰禁。聊賦一言。以贊六偉。拋樑東。極目江源一望通。靜坐明牕朝日上。依然本體露天衷。拋樑西。短峯容易夕陽低。一心存警須無間。嚮晦工夫恐自迷。拋樑南。斷岸崩沙手自探。栽得名花開戶坐。一般春意靜中含。拋樑北。仰止高山青未極。復有景行行不休。聖師一語須長憶。拋樑上。上穹無語人咸仰。分明^P體物不容欺。一出一遊及爾往。拋樑下。聊向芳洲采杜若。一掬幽香欲贈人。問君誰是同心者。伏願上樑之後。松桂漸密。江山益清。朝往夕來。一丘之玩適無限。唱余和汝。百年之講討有功。

梧溪里社廟宇上樑文

先覺奄忽以歿。幾切鄉里之興悲。新祠突兀乃成。幸遂羹牆之寓慕。公議不待百世而定。盛事得與一邦而同。伏惟我剛窩任先生。稟全淳龐。資挺豪傑。聰明絕類。少也淹貫乎羣書。詞翰若流。中焉聘鵞乎當世。逮晚年藏修之得所。致一生問學之專工。孝友忠信以爲基。平易^P愨實以爲路。不待師教而起。爲得不傳之緒。於遺經。實由天賦而然。特鍾一元之和於季世。汲汲乎隱惡揚善。眷眷於發蒙育才。花鳥繞山。樂我歌而我詠。圖書滿壁。對是聖而是賢。語工夫則不敢妄窺淺深。論德性則可謂罕覩今古。和煦育物。卽之斯溫。醇醪薰人。飲者皆醉。四時絃誦。列髻鬣而滿堂。一床講論。集中珮而繞座。衣冠朴野。不妨近乎古而違乎時。容貌真淳。可知存於中者形於外。遠近才俊。幾多聞風而興。左右從游。舉皆觀感而化。實爲吾鄉正學之先倡。豈獨一時孺蒙之是開。一方之功化難忘。百年之崇報宜謹。門生學子之擬議^P已久。鄉黨朋遊之協助且多。顧茲梧溪一區。爰有杖履遺躅。堂齋蕭灑。依稀講誦之尚聞。岡巒拱迴。彷彿揖讓之餘態。周茂叔襟懷。可想月上梧桐。程伯淳氣象。若存春濃花柳。况連桑梓里落之相近。粵瞻堂封。冠佩之攸藏。地不他求。卜既得吉。事無更待。時恐失宜。山之下洞之中。拓半畝而開址。溪以西堂以北。築三間而爲祠。氓隸趨功。疇敢少懈。工匠殫技。惟恐或遲。鳥跂翬飛。起朱甍之翼翼。雲護松蔭。映碧瓦之依依。春秋令辰。籩豆是薦。鄉坊盛禮。衿珮畢臻。由今日至于永年。始終虔報。自一隅暨乎闔郡。遠近齊心。在平日實德精微。固無加損。^P念一時斯文興替。與有光輝。是所謂鄉先生祭於社者。今而後吾黨土尸而祝之。爰賦一言。聊贊六偉。兒郎偉拋樑東。朝日玲瓏上碧峯。恍惚九原如更作。一團心法照天衷。兒郎偉拋樑西。夕陽催下短峯低。欲知君子存誠處。惟恐工夫嚮晦迷。兒郎偉拋樑南。百丈山高雲影含。寥落空臺丹鳳遠。一川流水繞淡淡。兒郎偉拋樑北。簇

簇羣巒拱一極。直泝溪流窮本源。須看活水出山側。兒郎偉拋樑上。萬古長空星日朗。上帝尊嚴誰敢欺。皇皇及爾且同往。兒郎偉拋樑下。浩蕩春光臨遠野。欲采瑤華寄所思。問君誰是同心者。伏願上樑之後。一邦歡踊。多士駿奔。崇其德報其功。勿替常式。興於詩立於禮。遙遵舊規俾也可忘。永言無斃。

西山精舍上樑文

膺德垂裕後昆。百世之追報無怠。傑宇載成新構。一區之藏修有光。溪山爲之益明。花鳥與之同喜。竊惟韓山望族。猗歟海東舊家。文靖公之德業文章。照映後代。睡隱翁之風標行誼。繼述先休。福州三年扈駕之舊烈可記。院洞當日肇基之往跡尙傳。雲仍永奠厥居。彬彬文學。羹牆特寓其慕。秩秩規模。粵在英宗辛卯之年。爰有西山影堂之作。丹青一幅。鼻祖之英風颯然。耐食同堂。令孫之遺範儼若。惟是堂構之未盡。幾恨制度之乖宜。父兄子弟。積歲經營。要待時而興事。金穀材瓦。竭力措辦。擬同心而收功。迨茲日長而春和。不計學羸而時詘。撤故宇而扞新制。招鉅匠而役衆夫。黃髮翩翩渡江。父老并起。彩袂紛紛登岸。英妙齊聲。華構翼翼而倏成。脩棟巍巍而并峙。涼堂煥室。面勢尊嚴。層階廣庭。排鋪宏敞。突兀廟門之外。影若雲扶。煒煌澗谷之濱。望如鳥革。自是俎豆之淨地。宛若庠序之宏規。凡今之人。疇不瞻仰景慕。從是以往。庶容信宿齊明。花樹團圓。將興孝悌敦睦之俗。詩書講討。亦期絃誦揖讓之風。一堂之功。效無窮。豈惟報本追遠而止。百年之需用甚廣。要盡興學設教之方。莫非先訓之遙追。可占餘慶之攸及。登是堂而瞻是廟。曷不以先民是程。服舊訓而率舊章。宜各以當務爲急。庶不負經始之意。要勿替追報之誠。爲賦六偉之詞。聊贊雙虹之舉。拋樑東。晚玩空齋入望中。賢祖遺光增一倍。中興基業士林宗。拋樑西。一髮青山影不低。爲錫嘉名曾有意。高風暗與首陽齊。拋樑南。簇簇雲巒淑氣含。百世家聲應不替。一堂巾珮集奇男。拋樑北。疊巘層巒青未極。本色千秋應不渝。摩挲先蹟增追憶。拋樑上。昭昭星日垂天象。此心何處敢容欺。及爾出遊及爾往。拋樑下。緣溪采采雜蘭若。幽香滿掬贈無人。須向先宮薦一罌。伏願上樑之後。地祇陰扶。山靈冥護。芬苾灌薦。挹遺馥而愈虔。文學講明。仰先範而靡懈。裴相國之眞容不沫。王晉公之後福未窮。其始自今。惟以永世。

哀誄

韓山李公 學靖 哀辭

李公師文父。體仁之姊壻也。容完而體厚。性醇而氣和。行之家庭鄉閭。或病其寬緩不猛。而視其志。介然有守也。周旋於同堂之內。優游文學。濡染既久。堇堇守節度。不躓。衣冠必正。步趨有常。念其嘗在聖廬可觀也。字畫詞采。亦頗精雅。爲若以此成名。而未究其業。有兄嘗知名士友。不幸早殞。遂以是悲居慘處。對人興涕。病之積於中而暗消者。未始不由是益深也。終兄喪數月。而以年五十一歿。豈不悲哉。有一弟。子立無依。病妻奄奄難保。子男三人。長也稟質頗不固。其次愆婚失時。又其次挾

冊迷歸。此爲可念已。體仁早喪母。有同母姊妹三人。惟公相距不遠。未嘗不相從以樂也。今又至此。余將何以爲懷也。來往視疾。既不能救其將絕。葬也又未臨穴。相負多矣。遂略述哀辭一通以遺之。愧無以塞土中之^P悲也。辭曰。

伯也有才而無命兮。人至今猶含涕。何吾兄之信直兮。若相期而共逝。哀孤寡之孑子兮。悲阿季之獨立。公臨絕而眷眷兮。若不忍其瞑目。咨余生之惻怛兮。傷姊妹之遠適。樂與公而源源兮。地不遙於南北。或鞭驢而相訪兮。或寄音而時訊。情網繆而不窮兮。踰骨肉之相信。憶并轡而西遊兮。路玄冬之風雪。遇夷險而不忘兮。在飢寒而相恤。惟素心之可見兮。謂悲歡之相恃。外不病其寬緩兮。中有守之可貴。由孔懷之促命兮。遂奄忽若影滅。疾沈劇而日臻兮。余來往而無益。空山兮寂寂。春^P草生兮淒淒。魂一逝而不返兮。傷余心而悲啼。違臨穴而一訣兮。題短詞而含悽。

趙成伯 錫愚 哀辭

余在童子時。聞先輩長者論知舊後生。舉其能年少博識。聰敏記故事。憤達時情。能適用於世者。必首稱成伯父爲一人。余已傾心慕之。二十六年冬。余始冠。娶豐山柳氏。公之前夫人。與余亡婦爲從祖兄弟也。出入同門。遂與從公。見公實通敏穎銳。斐然夙成。明古今治亂之蹟。當世得失之機。旁涉外家衆流。與人語。問無不應。狀貌端厚緊雅。不長不短。聲音鏗然若叩金。蓋不謬雅聞^P焉。後數年。公忽踴躍成名。登增廣文科。爲注書佐郎都事。入侍清燕。累蒙寵褒。眷注日隆。上自公卿。下至百執事。無不交口稱譽。愛其爲人。華聞日彰。遠邇欽誦。去年冬。余北抵太白山下。徘徊知舊家。忽有人以公訃來傳。謂公以腫疾不起。余時方食。不覺棄匙筋退坐。愕然喪心。以爲必妄也。及歸而得其詳。乃信也非妄也。嗚呼。成伯父果終於是者耶。去年夏五月。嘗以匹馬短僮。來訪余于龜水之上。坐語移日。吐隔歲離曠之思。贈懋學不怠之言。懽然極情而歸。誰謂其一別千古耶。公嘗再喪耦。有新娶夫人。芳年灼弱。遽失所天。又有幼子未^P及冠。是固可哀。然顧余所悲。乃不在是。以公之才之識。苟不嗇其壽而得大用於時。爲守令。爲諫官。爲公相。其治行建明。必有焯然可觀。而奄忽至此。譬如千尋之材方聳壑干霄。而風霜忽摧。豈不惜哉。公之歿數日。朝家又以公爲持平。方有旨及門。而殯殮已訖。家人相與號慕如始喪。遂還旨于朝。其爲慘恨何如也。公有子男四人。而其伯仲皆已授室。才華夙達。士友稱奇。天之報施。將於是可矣。遂作哀辭一通以吊之。辭曰。

通才敏識兮。斐然早成。年踰壯歲兮。攀桂騰名。堂後騎省兮。始歷顯清。昵侍丹禁兮。聖意屢傾。始若有爲^P兮。終未大鳴。遂及始仕兮。如夢忽驚。哀哀少婦兮。曷慰其惻。有子四人兮。庶繼家聲。余作哀辭兮。要叙不平。言不盡意兮。流涕縱橫。

崔仲久 恒鎮 哀辭

崔仲久世居達城之東。以儒名家。伯父處士先生篤行古道。維持頽俗。爲時模範。仲久以其從子。生有

異才。自幼少固已不出家庭。而服行成訓。既又北學於大山李先生之門。聞古人爲學之方。不幸中罹病故。不能專意用力。而其所就亦已不少矣。顧其年方渺然勝冠。而能通於義理之說。上自論孟庸學。下逮濂閩諸書。無不潛心玩會。欲究微旨。文辭筆法。妙絕流輩。余嘗愛其書疏婉戀曲盡。情文則若出於老師宿儒之手。寓興言志。軟雅成章則不苟爲夸詡無實之詞。旁治公車業。以從進取之路。則天才敏妙。不勞鍊琢。大字細書。往往逼於古隸。有足取法。年二十八。遂以此得志。早中司馬。知友已傾心嚮之。而其行之實於身則事親盡孝道。居喪致哀敬。好讀書。不以貧窶易其志。此固外人未能盡知也。年三十四。當今上辛卯。既畢其尊府君之喪。鬱鬱無聊。欲一出遠遊。與弟士矩父往東都。欲登臨瞻星。歷五陵。觀三姓興亡之蹟。南走海浦。登沒雲海雲。望馬島之縹渺。大泛滄溟。極遊以還。遂先造節制營。既數日。忽病劇以沒。四顧無親族。惟一弟在旁。聞其病時。喉竅填塞。絕不飲食。察其意。切切然若顧戀慈闈。而不得一言以絕云。嗚呼仲久。豈易得哉。使仲久而若天假之年。得發憤肆力於格致誠正之學。使義理浸潤而德基深厚。存養純熟而英銳斂藏。則以其家學師傳之正。聰明才氣之高。必有得以擴充造詣。終究大業。而斯文一脈之保。未必不有賴於此人。豈不深可哀惜哉。今其歿。其偏母已老。妻子無所依。斯固可哀。然而余之所恤然而深悲者。亦不在是。言念師門。吾黨無幾。耳中不復聞相愛警切之言。日月逝矣。寂寥荒郊。抱病孤吟。無可與語此事者。此可淚也已。士矩父亦佳士也。喪其兄。不忍才志之湮滅。以吾與之相好。而欲有以誄述之。其意亦悲矣。爲之作哀辭一通以遺之。恐無以發揮萬一云爾。辭曰。

維崔之氏兮。月城攸源。策馬東爲兮。命迫歸元。大化驅送兮。誰遏行轅。家鄉夙阻兮。鶴髮倚門。室人寧母兮。傳訃來奔。遠遊中斷兮。蜀魄叫冤。病未一語兮。命絕恨吞。蹟君之生兮。天資超羣。詞采筆精兮。玉質溫溫。蜚英國庠兮。妙年被恩。顧惟其志兮。不於是存。家法自正兮。明師付言。寤寐古人兮。願言追跟。潛心黃卷兮。朝夕討論。與我同心兮。相勛不諼。誓共扶策兮。培植本根。風燭不待兮。若夢無痕。嗟我孤行兮。誰與爲援。風雪東都兮。歸旆翩翩。一弟隨櫬兮。飄蕩孤魂。我招爾魂兮。盍返故園。桑梓依依兮。族親攸蕃。肆筵陳几兮。象生薦殮。幽宅既卜兮。築土封原。歸兮歸兮。莫如我故村。有子成行兮。有女嬋媛。庶永來護兮。以殖後昆。

都竹泉 吉模 哀辭

竹泉處士都公。居丹溪之上。丹與湖南爲隣。風氣習尚。與江左絕異。數十年來。一變成俗。蔚然多雅勅之士。知以德行爲本而文藝爲末。公蓋其先倡也。公之少時。倜儻不羈。不肯屈首讀書。一朝忽斂然退縮。反躬勅行。慨然欲學古人之道。乃取小學書讀之。必以躬行爲務。而又循序而進。讀大學中庸。日講其微旨。有不自信。乃東走達城。謁崔處士先生而問業焉。又北遊花山。登大山李先生之門。而反覆質疑。年老而志益厲。動靜語嘿。斬斬有節度。兩先生既深許其勇。而遠近交口稱賞。舉推以長德君子。去年冬。李先生奄棄後學。公既賈奠遠赴。痛哭失聲而歸。越幾月。以其年六十一下世。噫其悲矣。體仁。昔年始拜公于丹。知公惟屹然一丈夫也。後幾年。族子鼎梅與公爲隣。稱公晚節。委身問學

。一日。公忽冒寒遠來。謂將請教李先生門下。而視其外。已儼然若別人也。體仁斂衽起敬。試與論庸學誠敬之旨。知行交做之說。雖未一一相領。然顧其本領已立也。去年冬。又惠然肯來。謂復向師門而遂與共宿。眉睫辭氣之間。可見所養不少。叩其學。知得力已深也。公既歸。體仁乃上書李先生。語及公。以爲知行偏重之說。亦換其舊見。大抵南土人物。氣象自別。多在躬行得力。故牢固確實。無流俗脂韋之態。爲可敬也。及先生之葬。體仁纔到彼。公已先事來奠。歸已久矣。覓祭文讀之。縷縷數百言。蓋有見於淵源之正。門路之端。益信其實有所得於平日也。南^P北^P復阻。行塵已遠。恨未得拚拜也。至今年冬初。忽得鼎梅書。謂公以孟秋月日不幸。噫。若公者豈不誠豪士也哉。以激厲颯發之氣。折之爲見善能遷之勇。彊忍無懼之質。抑以爲確實自立之操。留心於傳訓而就正於有道。體仁每見公之來往。輒有所進。若使公益享遐壽。得究大業。其不能融熟而或未免滯澁者。庶將與心俱化。活絡流通。無復遺憾。而惜乎其止於斯也。鼎梅謂孝子欲必得體仁誄語。亦可悲也。略述哀辭以歸之。辭曰。

丹之土。在湖南之境兮。丹之俗。紛華相競兮。公起而倡兮。舉勅其行。念公少日兮。其氣傑而橫。何倏變乃爾兮。^P儼然篤敬。服膺古訓兮。得師以就正。痛祛習累兮。不復爲病。汲汲力行兮。誓復本性。公之勇兮。在古人猶爲盛。公之志兮。年逾六十歲愈勁。山樑奄頽兮。傷吾道之不幸。哭奠催歸兮。道路脩曩。嗟我懷人兮。寤寐耿耿。何奄忽以逝兮。志業未竟。俾享遐祿兮。庶解堅硬。吾黨日孤兮。誰與遠聘。悵顧南思兮。憂心炳炳。志行蕪沒兮。恐未傳永。我作誄詩兮。躑躅歌咏。

姜上舍 必勉 哀辭

姜上舍敬庵公。故徵士寄軒翁之少子也。寄軒翁生長漢城。家世簪組。顧不樂居芬華。挈妻子南躡烏嶺。居漆^P城之西大江之濱。屏跡荒野。絕意名利。白首窮經。清苦自修。敬庵公服習成訓。克承令緒。體短而容厚。志高而行篤。居家盡孝悌。接人尚忠信。奉身儉約。不喜浮靡。與人處。終日談討款款。間以諧笑披腹心。不事文飾。顧其中介然有守。不與同流。博通經史子集。挈綱鉤要。或評時務。解說緩急。爲文辭。健雅不放。自中尺度。遂以是擢魁蓮榜。名聞中外。不以此自多。沒身委巷。歌咏書史。不肯屈首治生。食不繼羶糲。居不庇風雨。處之晏如也。不以一毫求於人。居喪盡禮。三年不解經帶。晨起盥漱。輒日見家廟。愛兄如愛父。朝夕左右。相守不離。對局彈棊。^P歡笑竟日。性愛酒。亦不喜羣飲亂譁。閒居高臥。倦極而睡。睡覺。輒手古書看讀不暫捨。乘興取適。輒攜朋荷釣。來往烟洲柳陰。占磯垂綸。容與忘返。韶顏雪鬢。望之如鶴上人也。始余年二十餘時往京城。知公而未接款晤。其後以公之女爲吾兒鼎辰婦。來往從遊。始得公志行之詳。而知其胷海坦蕩。不少芥滯也。聞公晚抱奇男子。若龍駒鳳雛。而生甫八歲。倏爾影滅。皓首窮獨。弟兄同悲。百年家聲。一朝殆絕。公之脫略世務。漁釣以自娛者。人或疑其哭子摧傷。托跡浪漫。而余謂公之志不然耳。士之不得於時則江湖而已。顧亦何傷哉。公病風痺。卒^P以年六十九終。余恨不能就診牀褥。一面以訣。今其葬也。又未得臨穴。固可悲矣。爲作哀辭一通。述懷以送。或有知我情者。持此一大聲讀而告之。靈之聽之。未必不許我相知。而或爲之莞爾一哂也。辭曰。

柳下惠之不恭。而不以三公易其介。和而不流也。伯夷之若浼。而不念舊惡。清而不隘也。聖之清。聖之和。雖未敢援比。若論其不隘不流。尚庶幾乎。聞其風而興起。冥冥兮夜臺。公一去而無迴。洲有遺磯。案有陳編。想平日逍遙歌咏。重爲之觸境而涕漣。

金弘輔 宗燮 誄文

金弘輔之兄弟四人。同遊湖上。聞古人爲學之方。蔚有令望。弘輔於倫爲季也。少有才志。年甫弱冠。成進士。以恭謹穎敏見稱於師門。論文講義。見解精到。一時儕友。莫之相先也。余少與弘輔之伯仲氏遊。既同門相善。晚而相期益深。顧弘輔年稍下。故每推余以丈人行。余辭不居。并許以知己。書疏往復。酬贈題名。輒并列齊視。研究講討。各以所見畢陳。未嘗少隱。或命酒賦詩。挑燈列坐。更唱迭和。每令弘輔攜筆坐前席。隨諸人口號輒書。應聲揮灑。字法敏妙。所自吟諷聯題者。往往璀璨濃麗。聲韻鏗然。不淪常調。蓋尙有詞氣可觀也。其仲氏持憲兄。嘗以清朝雅望。進途方闢。中外加額。而一朝奄忽。令人嗚泣不已。惟弘輔與二兄無恙。年尙少。志業方進。爲二兄者嘗以是自慰。隱然若有所恃而無憂。知友之屬望於弘輔家者。蓋亦期以無窮也。嗚呼。今弘輔又不幸矣。弘輔之生於世。僅四十有九年。法門摧敗。吾黨日孤。同志中聰明篤實。可期以遠大如弘輔者。豈易得耶。學不能究其志。才未得售於時。蓋與仲氏同恨。而顧伯氏今年已七耄。叔氏又抱病呻嚙。意象憔悴。顧其可悲豈不有加於前日歟。聞弘輔於臨絕之際。神思不亂。顧語二兄。丁寧勉戒。謂勿過悲。其平日所養。於是可驗。未

知其爲二兄者乃能安命順受。節抑自愛。不與化者相欺否。意二兄之講此已久。爲朋友者亦非必深憂也。窀穸告期。想遠近親友或爲之題詩寄誄。以述悲哀。而顧余殘喘。病寒龜縮。無由躬起臨穴。又新有功衰之憾。不宜歌詠爲詩。乃以寂寥數語。略紀其志行萬一。以遺其二兄而塞土中之悲。冥冥有靈。亦足以知我情矣。噫其可惜也已。

祝文

梧溪里社奉安文

梧山之下。溪水清瀉。孕祥毓精。篤生儒者。豪傑之資。醇和之鍾。聰明絕倫。詞翰溶溶。朱書溪訓。誦如己言。小學家禮。教人法門。成之在我。孝弟忠信。推以及人。獎許誘引。歲晏溪齋。絃誦相連。圖書滿壁。靜坐儼然。窮通有命。美器虛老。甘我簞瓢。樂在講討。不假修爲。至誠任真。狡僞含愧。暴悍自馴。和煦育物。功施斯普。不有崇報。曷以寓慕。書堂之北。爰拓一區。溪聲在左。霽月昇梧。遺躅宛然。盼嚮斯宜。同志齊聲。肇建新祠。春秋時享。衿珮鏘鏘。籩豆迭薦。牲酒維香。百世無斁。永妥厥靈。斯文增色。宜聳瞻聆。因時循議。非敢妄作。迨茲始事。聊薦河酌。

常享祝文

豪傑之姿。純實之學。和不同流。永世敦薄。

早谷世德祠奉安文

粵在麗季。寇賊乘釁。兇新既誅。繼以紅亂。廟社陸沈。鑾輿播越。是時邦命。蓋若旒綴。天降忠勇。始終盡瘁。桓桓我公。功蓋一代。羣英協謀。既平內亂。逮赴中朝。摧陷巨患。威振萬里。奉還恩賜。曾未幾歲。鐵騎驟至。紅頭渡江。百萬其卒。蹂躪三韓。逼迫京闕。于時大勦。匪公伊誰。中幸班師。再剿益危。始搏之鐵。復躡于宣。日价日博。邊境賴全。草薶禽獮。奏凱獻誠。宗祏再安。舉國全活。豐功盛烈。日月齊高。一時封爵。豈足酬勞。彼忌勳者。視猶仇敵。設機謀陰。爲狼爲蜮。囊書未獻。血濺公門。忠良何辜。慘矣三冤。左右不言。哲王莫悟。蒼天蒼天。曷由仰訴。猶有不泯。竹帛名長。凡我後人。孰不含傷。顧惟苗裔。居同鄉井。夤緣誦說。興慕起敬。聖岑之下。早谷之裏。立祠妥靈。爰卜吉地。賢孫齊美。有如文靖。一體并享。公議攸定。茲涓吉辰。祇薦沔酌。籩豆秩秩。衿珮肅穆。自今伊始。永世爲期。豈敢阿好。式出秉彝。 **龍城君**

龍相間孫。梅翁高弟。赫世家聲。卿宰相繼。匙箸奇偶。易數妙契。蜚英太學。重擢金榜。提衡文苑。集賢雅望。龍飛御天。贊述歌詠。斂迹權門。羞與爭競。中被論貶。優遊貫鄉。逮既還朝。恩眷出常。設宴對舞。寵賜衣領。一堂風雲。際會隆盛。進酒獻詩。太平同樂。磊落羣英。廣載一席。圖畫勝蹟。輝映百世。逮晚謝事。寵利是戒。一區林皋。靜養深摯。年高德邵。玩物觀理。發爲文章。嘉惠後人。片言隻句。惟恐或湮。歲遠代逖。文籍散逸。殘篇零落。什不存一。桑梓舊鄉。遺蹟可記。橋有皋隱。野稱恩賜。指點行過。孰不加欽。秉彝好德。無間古今。渺茲末學。生晚窮鄉。尙德尊賢。識淺思長。茲因立社。祇享龍老。爰及令孫。一體崇報。輪奐告功。籩豆靜潔。衣冠齊會。辰良日吉。永世爲常。益虔不懈。洋洋在上。庶幾永妥。 **文靖公**

常享祝文

貫日精忠。振世隆功。百代山仰。興慕無窮。 **龍城君**

學有淵源。業承勳閥。一堂賸食。增光前烈。 **文靖公**

晦屏先生文集卷之九

祭文

祭從伯兄文

歲庚午四月初吉。我從伯兄處士公將就窀穸。前一日壬申。從弟體仁操數行文。崇酒酌出錢于江之滸。遂痛哭而告之曰。嗚呼兄乎。兄之命果若是其奇且薄。以兄溫良美質。豈弟高行。生不見一種樂事。死而作羈旅魄。廿九浮生。猶燈蛾風燭。嗚呼兄乎。兄之命果若是其奇且薄乎。已而已而。痛矣痛矣。其如宗事何。重闈何。弱妻穉子何。兄自幼天資穎悟。比長。趨尙超凡。能痛斷去習累。收心爲學。篤踐力行。沈潛恪勤。律己嚴。處事正。言語有時。動靜有法。居家仁孝。奉先誠敬。宗族睦。友賓款。樂養童蒙。提誘不倦。好讀書。不出典訓。襟期飄灑。無塵俗氣態。風骨端秀。彌露精彩。爲文不用學子尺度。華聞早彰。遠邇欽服。卓然爲嶠南奇士。平居輒淨掃房室。閉扃對案。或觀書。或默坐。不喜煩鬧。至於親戚滿堂。友朋同榻。鼓唱琴歌。討談詩書。亦兄所樂也。早歲承家。家務叢脞。多有所惱撩者。亦不以是自汨。好哦詩以自遣。典雅清婉石撞金縱。有古人體度。且留意禮書。擷節成文。以糝點門戶。屹然若大廈棟樑。吾數百年祖宗舊業。固可有所賴而張大焉。孰謂天道無知。造物多猜。一旬他鄉疾。使斯人不返。嗚呼。兄之事親高行。尤有所未易及者。上侍重闈。一以養志爲務。亦能和夫婦友兄弟。苟非性出天賦。充養有素。何以及此。吾嘗學兄萬一。粗知處家之道。惟兄之事。惟兄能行之。惟我能知之。世之稱兄者。或以文辭。或以清操。曰某賢某賢云爾。皆外也未爲知也。往在至月望。兄帶季姑于歸往金陵。遂適贅館于商山。觸風雪。迤道里數百。病發不能歸。遣奴先來報甚急。驚遑踳踳。骨凜心寒。已而痊可報到矣。室家踳。宗族蹈。相與慶賀。僖其蘇歸。竟爲風邪所祟。惡音來到。天乎天乎。兄何負於天而天其忍是。兄嘗苦讀書耗精神。累歲居憂。積毀成疾。雖固慮其不得永年。今日而至於是。雖夢寐豈曾到焉。邇來吾之家。大不吊于天。壬戌。伯父逝。乙丑。王考歿。今年兄至斯。嗚呼已矣。門戶已矣。世事其已矣。芬苾誰托。宗族誰恤。小子後生。誰將警厲。天若假兄以年。吾之家其庶幾矣。昔伯父以碩望茂德。不享遐壽。宗族痛恨。鄉黨慨惜。而自今視古。古猶愈今。時則王考在堂。宗事有主。兄又冠已久。有子若女。今兄以芳年。奄忽旅館。病不賴親黨救。歿不得與妻孥訣。離家不一月。遽以櫬歸。老母倚門椎骨。穉子仰天呼爺。人生窮閔。復孰如是。遺腹得男。風骨甚殊。足慰泉下冤魄。人生斯世。不識父子恩情。重可捩泣已。自我兄歿後。生期擬者。惟從弟孝得在耳。兄嘗十年教養。其文辭性行。賁然已成人。他日門戶業。固有所可賴者。天不悔禍。又以數日疾歿逝。年十有七。已埋龜山之陽。骨肉隨沒。手足斷折。回首人世。萬事如夢。已而已而。奈何奈何。死者無精靈則已。有之。泉下相隨。更續昆季恩情。却勝此世。日事椎泣也。吾生鮮兄弟。年少性戇。無所聞識。粗知古人可學。學古爲可貴。於堂從昆季中。最嘗敬愛于兄。有事必謀。有疑必正。恃之如父。仰之如師。而兄之於我。亦親愛篤。有善必教。有惡必戒。無纖毫物我意。吾所以綴章緝句。得齒人數中。免於大戾者。皆兄之賜。外講兄弟輩行。內許朋友心期。或同被。或同榻。或同螢雪。或同樽酌。看書必同卷。賦詩必同韻。山水同玩覽。風月同吟弄。如手如足。如鷄如鴈。未嘗一日相離。亦未嘗一日相忘。雖同腹昆季。何以加此。去年冬。兄將行金陵。前一日夜。兄出所著近體詩二首。示余問可否。遂對床做一場清話。翼朝將發。吾送于門。兄指阿曾顧我。言此兒無所受學。汝可教。遂笑而歸。豈意此別。遂成萬世長訣。吾自兄之歿。如狂如醒。如飢如病。如劒割膚。如火焚中。如鳥之失翼。如水母之失蝦。如倚大樹而摧折。如懷重寶而墮地。入則忽忽若無托。出俛俛迷所適。昔者與兄相

對。話古談詩。雖萬斛深愁。可與相忘。今也則無。我懷鬱悒。何所可解。倘使兄病于家。吾得親視藥飲。極力調診。比歿。得與握手相訣。斂得親綵。雖慟乎云爾。豈若是遺恨刻骨。極冤在心。積思成疾。往往若髣髴相見于目。而卒亦無有。夢忽相接。覺來無見。中夜起坐。涕泗滿襟。尋常間忽忘兄之歿。若將朝暮歸而相見。出門西望。遲回久之。忽復自覺。拭泣以返。或偶閱詩書。至曾與兄同覽處。自不覺心驚骨死。投卷攬涕。蹶然起立。徘徊古堂。月幔風簾。形影永斷。軒牕几案間。蝙蝠出沒。架書三百卷。皆爲蠹魚所侵。素壁詩筒孤掛。老松瘦竹。寒影上壇。殘梅寂寞。無主自發。龜湖春水方生。桃花漲浪。今渾作西州花樹。吾不忍復到其間。俯仰陳迹。寧不腸摧。兄所著詩篇固不尠。今皆散失。存不滿數卷。吾當極力攬摭。不使沈沒。兩孤兒。長已十歲。多才善讀書。次在襁褓中。耳目明達。失學非所憂。哀哉兄乎。惜哉兄乎。已矣哉兄乎。此世何處。更與相逢。世間萬事。一至此耶。我恨無窮。我言難盡。嗚呼慟哉。

祭鄭上舍晚晦公 僞 文

[I]ITKMOXML | 복사 URL복사

P 恭惟我公。重望江南。公守清剛。公德渾涵。鳳沙之濱。花木攸鬱。公隱在中。圖書滿室。青袍不遇。白首樂天。婆娑江湖。皓鶴癯仙。公好古學。秉燭夜明。公好吟詩。擊金鳴箏。良孫讀書。詞法波噴。鄉閭請教。童孺溢門。惟我小姑。孀于公孫。婚姻之故。獲探門藩。粵昔吾兄。玉樹琅玕。冰心繡句。騰頌友間。帶姑登堂。公許忘年。青燈白雪。意氣超然。酌酒賦詩。球瑟相宣。嗚呼吾兄。客歿商山。冰江鼓浪。孤舟載棺。不忍錦囊。紅旒繞還。中猶貯詩。公所贈兄。寂寞短箋。網繆含情。我懷亡兄。心骨沸煎。時發囊笥。撫玩遺編。公詩璀璨。感泣傷中。忘兄則已。不然忘公。越在P往年。秋孟七月。登門進謁。公久寢疾。當牖默臥。神氣沈眩。猶有眷愛。啓眼暫眄。秋潦滿浦。歸馬路隔。累宿將辭。牀下就伏。公疾少間。公命愍懃。公曰嗚呼。久矣懷君。顧歎黃嶽。恨不攜遊。喉音不周。吞語遽休。聞命踟顧。我懷鬱悠。稽首獻祝。願公終寧。祝曰百年。神佑德馨。公色不樂。不忍相釋。出門將行。追召者數。晚生蒙劣。才行無長。君子奚取。懿德難忘。公遽乘化。南郡其空。親友雨泣。閭黨無宗。嗟我思公。曷爲增傷。感念吾兄。不忍公亡。仁壽宜長。八臺非隆。風儀永邈。泰清無窮。嗚呼已矣。尙復何望。有孫孔肖。庶與翱翔。

祭外王母務安朴氏文

[I]ITKMOXML | 복사 URL복사

念昔吾母。秉心貞淑。君子誦義。婦人懷德。余之不孝。實惟禍源。生年八歲。遽違慈恩。一男三女。危命苟存。幸皆無死。迺嫁迺婚。遭歲丙子。餘殃未窮。嚴君棄孤。大恩遂終。家人繼殞。伯姊報凶。盡奪親愛。獨遺其躬。抱哺幼子。痛哭號穹。爰瞻渭陽。猶有祖母。童顏若仙。九旬黃耆。不忍殘孫。孤露無婦。日衣日食。眷愛偏厚。外出無益。竟自孤負。念吾少妹。特蒙率育。方幼喪母。遂焉來托。彼婉孌者。將何爲報。結髮從人。卒如行道。嗚呼痛哉。在歲丁丑。余服父虞。哭姊于英。來拜堂隅。

深冠黑衰。哀容樂棘。眷言銜悲。以拊以哭。一歸幾歲。更來今春。三元纔迴。歲慶祝新。時我季姨。亦方歸寧。載色載笑。日夕帷屏。迨其既歸。纔逾旬朔。因便得音。日欠寧迪。意謂宿疾。偶失將息。先以佯告。我且繼作。童奴逋去。越期無還。方苦凝竚。訃音遽傳。殮含之夕。我來號咷。使床寂寞。已掩素袍。諸姨在位。髻踊如禮。獨無吾慈。我哀焉制。天罰我辜。并奪斯依。不能湯藥。母意是虧。嗚呼痛哉。興衰起替。再造舊家。恤窮濟艱。宗族合和。功深德茂。宜載傳史。雖古賢婦。何以加此。第祿類應。將厚報施。歷盡慘憂。孰究其崇。冤孀失依。欲追無緣。嗣孫抱恨。病未終天。彼丹之丘。我姨先歸。竟諱以歿。孰不涕揮。鬱鬱綿谷。諸娣所遷。靈輶載駕。曷月方旋。一杯長辭。萬古重泉。

祭九思堂金先生文

[I]ITKMOXML | 복사 URL 복사

錦水之陽。葛爺唱學。爰有霽山。寔踐閭閻。公實其胤。淵源正脈。是繼是述。爲我先覺。謙虛退讓。慈良溫穆。聰明敏悟。涵容淵默。發之能勇。守之自確。天資近道。不假修飾。至論成就。蓋深學力。精如四傳。奧如六籍。周張之訓。程朱之錄。靡不貫穿。以鈎以覈。粵自趨庭。講習已積。知友來往。亦須鍊琢。知行明誠。思必造極。精粗本末。或戒偏落。義理灌浹。既精而博。日用無碍。動遵常則。至孝出天。神明所識。居窮苦節。末路罕覲。接人之際。情文委曲。衣若不勝。言若不足。仇怨相對。猜疑冰釋。才子驕傲。聞風羞縮。發之爲文。亦極磊犖。傳詠一時。無非警俗。中罹禍故。吾黨運塞。炎海迷茫。鶴髮遠斥。孝子銜痛。匍匐隨側。淹滯幾年。扶櫬還宅。時事漸非。極冤難暴。杜門養母。甘心晦跡。艱虞窮苦。疊臻繼縛。天於夫子。報施何錯。動忍玉成。蓋多增益。歲晚巾珮。優游丘壑。養宜益專。造宜益熟。庶幾永年。以詔冥植。云何不幸。奄忽易簣。修短有命。與化消息。一理自明。九原非憾。山樑既摧。無可攷德。遺緒茫茫。誰更尋繹。小子不仁。偏蒙眷辱。戚親之切。舊誼之篤。幼少狂妄。擬學班穀。謂若可與。評許不薄。及自改圖。棄前所樂。留心經訓。欲更研索。書教頻投。眷眷提掖。念昔登門。從容同席。或連日夜。或過旬朔。論文講義。對卷燃燭。韓碑馬傳。孔編朱牘。義有未會。剖辨懇惻。言或可採。亦頗聽諾。今焉已矣。於何更覓。去歲之冬。聞公不淑。時顧有碍。未卽赴哭。今年春夏。二子遘疫。迨告葬期。賤疾又劇。衣冠入土。終違一哭。今者之來。痛恨曷抑。一杯追酌。萬事已寂。

祭剛窩任先生文

[I]ITKMOXML | 복사 URL 복사

俗學孔熾。斯文日孤。矧惟吾鄉。久絕師儒。學無所傳。士靡定趨。不有豪士。疇拔俗汚。惟我夫子。勃興一隅。上無所承。傍無所扶。天姿既醇。德性自殊。聰明勤恪。感發訓謨。荒逕獨秀。衆啾孤燭。心耽性理。口誦程朱。陶山格言。貫穿涵濡。小學教人。發軔初途。成己成物。斯厥規模。門路平實。大德不踰。言貴近仁。持不太拘。接人以誠。和氣薰敷。當事盡心。不憚勞劬。澆漓不染。中外相符。

。觀者心醉。如飲醇醪。詞源若決。菽粟平鋪。文苑高名。大筆長驅。時命蹉跎。櫝玉難沽。白首窮廬。
。甘我蔬盂。溪堂蕭灑。左書右圖。衣冠端坐。儼若跏趺。四時絃誦。童冠與俱。才俊聞風。願歸爲徒。
。方俗一變。醇謹相孚。一時功化。百年難^P誣。嗟余小子。天質極駑。先君所屬。特蒙眷紆。中緣洶
汨。聲跡若逋。晚益傾嚮。情思倍輸。念昔從容。冠珮臨吾。提論格致。移日及晡。談討未究。歸僅催
呼。拜送悄坐。愚意區區。凡論天賦。貴克和愉。其於爲學。已成郭郭。欲造于道。講讀是須。講讀之
法。戒探皮膚。精思體會。如竹斯剝。蹊徑節次。不容含糊。析極不亂。終合精粗。草草領略。懼或荒
蕪。思更奉質。以破昏愚。愧我纏繞。未及進讞。寂寥丘園。歲月川徂。誓永周旋。歌咏唐虞。一朝不
幸。萬事興吁。其如後學。摘埴昏衢。彼溪一曲。舊堂網蛛。周草繞庭。邵月升梧。悠悠我思。曷息須
臾。先覺奄忽。志業易渝。惟^P在同志。各勉昏懦。

祭趙謙甫文

[I]ITKMOXML | 복사 URL복사

渭水之濱。柳氏家焉。育女簡壻。次第及年。我繼兄至。踵武相連。瓜葛之誼。彌路之緣。我愧駘劣。
兄惟琰瑄。黔翁種德。慶昌雲玄。氣峻心激。稜骨嶄然。顧惟年少。露極或偏。彼不諒者。指爲太嘗。
余竊相規。勉加精研。韜鋒斂鐔。務就平平。兄或樂聞。知過卽俊。惟自剛勇。是以能遷。及既晚成。
強半治湔。寬裕忠信。周徧沈淵。苟資學養。德性終全。誰如我知。一心相穿。相逢初載。勝遊無前。
青龍寺中。自天臺邊。東風朗月。芳草啼鶉。兄把我袂。我比兄肩。^P攀厓踏雲。擊汰挈船。恨別相思。
。寄書投牋。江雲渭樹。魂夢時牽。記昔挈家。寄寓窮阡。孤吟索居。短扉寒烟。是時兄旆。慰我愁跼。
。展墓龜城。羸馬涉川。我起呼酒。細君供鮮。青燈茅屋。達宵忘眠。我忽無耦。叩盆歌憐。瞻彼渭墟。
。亦移新廬。東床舊蹟。草沒鳥翺。我昔感此。寄兄詩篇。兄書惻怛。念我心懸。悲歡相訊。不較後先。
。近頗夤阻。願言心綿。去年維夏。忽驚遞傳。舅翁適至。得實心填。相對揮涕。百感糾纏。每念吾兄。
。太剛難延。豈意風燭。如是極端。偏慈垂雪。少婦尙娟。襁褓告病。亦云難痊。何以慰兄。命實連
。愧我負義。尙遲哭筵。一抔空山。宿草將芊。豈曾^P所期。遠路無駟。昔我來斯。棣萼踟躕。今我來
斯。塵牕拂蠅。問孤吊嫠。我心如燃。兄昔憐我。喪憂疊聯。今我於兄。永隔重泉。兄心行行。兄儀翩翩。
。一去無歸。何處盤旋。欲詰冥冥。執酌涕漣。

祭外舅豐山柳公文

[I]ITKMOXML | 복사 URL복사

文忠故家。修翁名門。公承成訓。典刑猶存。金莖特秀。玉質無痕。忠信爲主。孝慈爲根。內自親族。
外暨姻婚。凡厥有事。必待稟論。和不同污。怒不疾言。所至欣邀。誰不駿奔。龜巖之下。氓俗淳全。
晚營菟裘。來自渭邊。村翁野叟。牆屋相連。養雞盈埗。種豆籠阡。蓋將優游。以卒餘年。云^P胡不永。
。倏忽登仙。鄉隣共咨。若撤藩然。自惟無似。偏蒙眷慈。昔公仲女。容行無虧。許我爲壻。公實遠期。
。忘厥庸愚。謂或光楣。或飯檢哺。或寢撫肌。情愛出常。處若友知。中罹不幸。我忽喪耦。不忍蕙姿

。入地以朽。綽約芳齡。一塊遺後。曷以慰寃。最念姑舅。誓自盡道。九原勿負。來往省謁。務益勤厚。公德不替。恩念逮久。我姑之喪。公無饋中。寂寥孤寓。居養稍窮。迨既冠子。晚計融融。有婦養老。有孫覓翁。年老體康。雪髮童顏。時進以賀。謂壽當隆。前秋鳳塾。疋馬進拜。冠珮盈堂。微雨飄灑。款語未洽。歸驂催我。啣情告行。公歎以喟。及冬復來。拜公在室。垢顏異昔。忽陷而突。公曰近者。新經寒疾。明日之歸。謂極悵別。賢胤馳書。繼告不櫛。送奴急還。謂間數日。意因無憂。終至平吉。誰謂一朝。遽告云歿。我懷之悲。蓋亦難耐。家人雖亡。有舅氏在。自今以往。曷慰永慨。念吾迷兒。公所憐撫。新經大痘。體質方臙。何不少矣。以見冠娶。計至之夕。父子對哭。馳馬急來。思及就木。中途疾起。三日滯迹。歿不得訣。殮不致力。日月有限。靈輻啓行。我姑攸葬。樂與同塋。愧余多負。尚復何爲。誓從賢子。不相忘遺。

祭姑壻鳳洲鄭上舍文

[1]ITKMOXML | 복사 URL복사

黃嶽插天。鑑川清駛。自古毓精。作者凡幾。顧惟我公。亦自鍾靈。天挺美質。玉秀蘭馨。維溪一曲。鳳來暫停。惟號晚晦。是公賢祖。教育成材。八耄抱撫。以公天姿。早承家訓。文章筆藝。蔚然播聞。昔歲黃龍。白雪填衢。公年十七。來娶我姑。法服稱體。玉容徐趨。公祖帶臨。笑語在筵。牢禮纔訖。召出使前。曰汝來時。路出金烏。吉子遺躅。清飈一區。汝遂賦詩。鏗響瓊瑤。汝其書哉。客盍觀諸。公笑承命。退坐衆中。抽筆臨牋。揮掃若風。奇詞彪炳。活草蛟掣。觀者若堵。滿堂驚嗟。時維我家。喪威未酷。惟我從兄。若蘭方郁。我猶童行。未及冠首。其生間歲。我先公後。來往相迎。三人輒隨。一榻鼎坐。觀書賦詩。山岫杜陵。波漾龍門。莊經傲物。屈騷啼寃。年少氣豪。妄意追跟。縱橫一場。馳騁評論。爲歡幾時。悲哀遞臻。兄殞若夢。我姑迹陳。兩家憂慘。從此相因。公或顧我。我又尋公。共閱桑海。摧剝成翁。雙鬢若雪。相顧興哀。恐遂泯汨。志業全頽。顧我中年。稍自反求。忽惟詞藻。無益漸渝。服膺經訓。無圖新工。冀勿自棄。痛革前功。猶係一念。眷言南悲。懷我同心。終安適歸。珍緘忽投。疋馬仍赴。看書對語。略窺所慕。思孟我儀。程朱我傳。初愧相欺。晚復同趣。鞭辟做實。未必無憾。大體不謬。斂華就淡。天若假年。得遊大方。窮格力行。庶見日章。餘事文藝。舊工既深。澤以儒雅。若協笙琴。豈惟一郡。惟嶺之特。論厥才志。無愧今昔。物忌特秀。名怵早播。運係隆替。其如命奈。年未半百。共殞賢季。疊哭良耦。惟有一子。弱冠登庠。非足爲名。白首空餓。未據鵬程。遺文恐散。芳躅殆滅。誰肯搜待。得傳萬一。欲述其行。責惟在朋。黃友景初。與吾說同。庶思共勉。不忘致力。惟恐自拙。終負冥漠。我來苦晚。我懷誰知。追述誄詞。惟愧後時。虛堂寥落。痛哭言旋。溪疑益咽。山若含憐。嗟我懷人。曷月方來。我行如俟。中道徘徊。

祭大山先生文

[1]ITKMOXML | 복사 URL복사

鳥嶺之南。師儒久寂。陶山已古。俗學充塞。環顧一世。眞面難覲。匪無豪傑。拔出流俗。或專躬行

。不急講理。或先文雅。主容易置。或窮經訓。貫穿成誦。鞭辟著己。樹立亦鞏。顧惟門路。或未平實。經約近險。枯澀多窒。惟我先生。折衷得全。明誠并進。博約無偏。外氏家傳。發軔初程。文純成法。服膺一生。潛心四子。旁究羣賢。龍門奧旨。考亭遺編。精微親切。語類心融。流通圓活。節要收功。蹊級極明。人或知然。規模甚大。世孰覩焉。道在日用。學求平易。一善成名。非我所志。天資穎敏。不勞自得。學力既至。粹盜難匿。聖主思賢。恩命疊臻。九條獻忠。志切君民。畢命林野。行藏素定。甘我簞瓢。優游歌咏。四方雲趨。樞^P衣請學。因材施教。至誠樂育。銘碑并卷。所重不在。功用之大。發潛闡昧。巖軒蕭灑。衿珮繞席。亶亶不倦。講說終夕。爲學之方。先立本領。義理之真。頭臚必正。剖析漸細。王伯毫忽。體驗欲密。未發已發。分開渾淪。勘破四七。動靜心體。圖象精切。學絕復興。賴誰倡明。凡我昏蒙。獲知重輕。先生之學。體用無闕。求之今世。殆寡其匹。顧余無似。晚忝門庭。來往質疑。歲月屢更。不以愚駑。提誨多方。或面或書。若不忍忘。記於昔時。顧余興咄。真儒不作。一脈將絕。誰肯奮勇。直前擔夯。脊梁須硬。問架宜廣。說得非難。做處易差。靜時或存。動輒難持。中夜侍寢。勸戒盈^P耳。迨茲感誦。懼或失墜。若虛之訓。韜鋒之戒。特下頂針。對病投劑。雖固不敏。敢不自力。庶幾無怠。終身佩服。前秋告歸。復期冬深。繼致一書。未承回音。忽聞愆節。彌留經朔。蒼黃馳至。入診侍側。蓋於其時。證候已劇。同志齊會。惶惶視藥。臨訣加衣。遺命丁寧。列伏床前。攬涕以聽。誰謂斯文。天卒不相。一朝不慙。朝野氣喪。豚兒請教。日月未多。亦有少姪。及門含嗟。我懷之悲。曷有其涯。存順沒寧。與化消息。仁壽匪偶。亦同雲谷。全體始終。無疵可覓。前無所愧。後無所作。如是而足。尙復何憾。後學失依。只裂心膽。

祭宗姪鼎沃文

[1]ITKMOXML | 복사 URL복사

世運漸降。元化若竭。一氣之賦於人者。往往多浮躁淺露。飄揚輕薄。而顧汝風骨之粹。若濯諸秋水而無累。氣象之儼。若鎮以山嶽而難拔。府庫淵深。若不可窺其志意。樞機慎重。若未易得其然諾。實行內修而弟妹無異言。風彩外著而儕類鮮與擬。蓋由其天稟之美。而得力於文學不少。見解之明。而自守以義理有素。若其詞藻筆札之華。紆餘夙成。施用不滯者。此特其餘事末技耳。舉而用之當世。若可以鎮衆情之憂危。決大計之然疑。辦一代可觀之業。而視庸夫如嬰兒。若此者。可謂略得^P上世之渾元。而非一切淆漓之鍾。當世衰化竭之日。人物渺然之際。而幸得此以主吾七世之宗。夫孰意其連三世而無命。結遺恨之重重。嗚呼其惜哉惜哉。汝生九歲失怙。屬我教育。以至成立。以承先祀。人皆知汝之於我。有子父之義。而不知我之於汝。實多賴麗澤之益。箴規之切。我不謀汝。未嘗自決。我有不逮。汝警而發。其使我得自立於衰頹之境而不至失墜者。非汝而誰也。汝嘗欲俟五六年之後。年紀向晏。誓將斷棄學業。從我棲遲於泉石之間。討論經旨。收拾桑榆。以從所好。此於錦淵之上。所以嘗助我致力。結構數椽。以粗成平生之計。^P而屬我逍遙。嗚呼今其已矣。有不忍獨處其間矣。有不足自娛而可悲者矣。故吾於汝之逝。乃不論先祀之重。偏堂之情。孤寡之哀。門戶之替。而特憐其才之未展。志之未遂。徒使我孤寄淵亭。摩挲釀涕。有事無與議。有懷無與語。顧奚由以自慰也。李上舍仲則誄汝之辭曰。惟晦屏之獨處。孰知其心之永傷。金上舍弘輔之誄曰。可會屏翁心知我悲者。可謂知汝志。已而已而。痛矣痛矣。汝之葬也。我以亡婦病劇未臨穴。喪耦殯葬。穉兒盈室。未曾出門一步。曩也從羽谷歸。歷路登山。躑躅繞墓。臨風痛哭。若相招遇。而一抔無語。衰草荒涼。攬涕言返。十^P步九顧。汝其知之

乎不知乎。昨年此時。汝疾方劇。吾日夜守視。焦煎心思。冀或萬一救起。畢竟無奈。一哭即去。閉門不出。及婦病蒼黃。移寓錦淵。不忍不告行於汝。故乃復就哭靈筵。數聲即止。及今中祥忽屆。不忍無一言。匍匐寒江。扶病強來。無意經宿。奠畢即還。我之情固亦憾矣。雖然。死生之理。終非人力可容。我於汝疾革之時。既以平日所相講論者告之。而汝遂諾而領之。今日之來。吾又奚悲乎。惟將歸臥淵亭之上。不復以死生爲念。歌咏聖賢。懋養天和。以終餘年。汝於我豈不以此相望乎。我之於汝。亦無可言。歸薄太清。浮游乘化。而顧此衰朽。早晚同歸。其有知乎。庶更相依。無知乎。亦終於冥漠。吾與汝更無可悲。

祭金直甫文

[I]ITKMOXML | 복사 URL복사

圭璋令質。瑚璉美器。早遊大方。得聞爲己。資性穎敏。見解精明。才兼體用。工並知行。推諸日用。心法可想。英銳時露。亦見氣象。內外主客。輕重虛實。節度極明。條理不錯。方要密察。縱未融會。百尺進步。卽更脫灑。墳箎齊唱。蓮桂播馥。行自家庭。略驗鄉國。殘郵一試。駿騎初程。栢府清銜。前路宜亨。那知一夕。奄告不起。位不稱才。學未究志。猿腸恐摧。大耋其嗟。鴈行中斷。伯也鬢皤。矧惟阿咸。同時埋玉。全家方旺。一朝缺落。粵自山頽。斯文無托。凡有憤悱。啓發誰靠。同志相勉。惟共扶策。桑榆晚懷。傾嚮倍劇。客歲窮臘。兄旆自南。訪我新居。入谷停驂。攜出淵亭。徘徊登臨。謂我爰得。期我重尋。峽蕾將綻。江花正燃。逝將占此。踐約無愆。良朋有期。我懷如渴。庶復盍簪。得與磋切。越逮春暮。花落柳陰。洲有游鱗。岸有啼禽。所懷伊人。一去無緣。延竚江曲。日夕心懸。忽聞二豎。沈淹經朔。伯兮過憂。或至淚滴。家有祥祭。恨未馳診。方期休復。卒也告殞。我哭臨江。鳴灘共咽。父子相對。慘慘竟日。我懷之悲。誰將知此。非重年隊。豈緣鄉誼。兄歿之後。僅一句疆。商山黃兄。亦告云亡。清安雅識。于何更覲。一運所驅。若與相逐。存者廓落。喪朋殆盡。白首孤畸。何以自振。惟追伯季。毋替舊工。懼終無面。歸見亡朋。

祭黃景初文

[I]ITKMOXML | 복사 URL복사

玉溫蘭馨。兄之資也。鵠峙鷺立。兄之儀也。心雅而志潔。學勤而行篤。惟天賦之自美。蓋充養之有得。顧余自在童穉。不面神交。及皆冠首。兄來我邀。園林之靜。草堂之寂。鑪惹香烟。架插墳籍。或聯狀而討話。或張燈而開卷。出入性命之微。探究經傳之蘊。大而經綸參贊之業。細而格致存養之功。興亡治亂之相懸。王伯儒釋之不同。或鉤其幽。或提其要。論無不建。旨窮其妙。酬酢萬變。間以笑謔。顧意氣之不俗。亦警發乎昏塞。半世公車之累。雖未免枉費寒暑。桑榆填補之工。爲不負師友所許。粵遭樑摧之痛。同赴鶴麓之葬。哭罷言旋。相視惘惘。同志所以策勵相勸。惟恐或墜者。倍平昔之傾嚮。先師之喪纔畢。而金兄直甫忽不救。直甫之柩未窆。而兄又相繼以亡。惟一運之所驅。覺吾黨之悲涼。嗚呼痛哉。平婉不激之論。精明獨照之識。典雅夙成之文。清粹出倫之格。今不可得以復見耶。往歲

維夏。江花初落。兄來訪我。一宿錦谷。嘗未料兄之大限已迫。謂趁秋而再合。送別臨^P水。丁寧留約。曾座香之未歇。奄訃音之告惡。哀孤寡之抱恨。憫伯氏之孤特。惟兄之生。幾滿六旬。而我亦下兄惟四歲。顧奚足以深悲。知早晚之同逝。所悲者。斯文寥落。一脈殆絕。獨立暮途。誰與提挈。恐無以歸見師友於地下。副素期之萬一。嗚呼痛哉。宗君玉碎。尊嬖繼歿。私家禍酷。我懷焉極。喪威摧剝之餘。百念俱空。惟躑躅思兄。如或接容。想原草之再宿。悲歲月之恩慙。豈不欲抽身一往。哭酌筵前。少洩我滿襟之悲思。出無驢馬。病伏江涘。倩人替奠。綴辭遠寄。臨逝水而送罷。嚮西風而涕泗。

[주-] 狀 : 牀

祭數咎庵崔先生文

[I]ITKMOXML |복사 URL복사

學務躬行。道由心得。豪傑無待。勃興南服。孔戡嗜義。不顧後前。王凝御家。常居慄然。孝弟爲本。忠信爲質。魯齋剛勇。丹溪嚴密。頽波砥柱。屹立中央。維持世道。扶植倫常。如有用我。純王可做。吾衰已甚。奈絕外慕。粵我先師。大山夫子。情猶伯仲。契深道義。一朝山頽。斯文墜地。賴有考德。南路攸仗。剛健日新。八耋無恙。旌招屢至。朝野想望。灾疊木稼。星晦少微。山林寂寥。吾黨益悲。顧惟愚蒙。誠淺向德。相望幾舍。趨謁不數。念昔登門。暫瞻顏色。終違侍教。拊躬悼責。擿埴冥途。先覺俱遠。嗟我孤行。^P誰警鈍蹇。喪不視殮。葬未相紼。中祥奄屆。病伏山岬。憑人替奠。罪積逋慢。敢冀顧歆。祇增慚赧。

祭金士濬文

[I]ITKMOXML |복사 URL복사

大江之濱。風氣磊落。才後并驅。迭蕩相逐。公在其中。獨守窮約。清修苦節。始終不易。松風一壑。有塘有石。清齋蕭灑。圖書滿壁。鶴爺遺風。遁翁高躅。閉門塊坐。潛心經籍。風馳浪奔。咫尺相隔。八尺頎然。衣冠儼若。風流談諧。意氣不俗。顧余從遊。幾資警益。每欽嚴謹。古家遺色。以厥資性。與其才格。苟得依歸。肆力問學。格致誠正。隨分充拓。斯文或賴。得扶一脈。公車逐名。此豈所樂。一笑退^P坐。非愧別足。記葬先師。聯轡鶴麓。校書湖齋。又與同席。趣尚之正。見解之確。同志推重。往往欽服。銅井晚計。擬老一谷。事未諧心。惟龜不食。玉山歸馬。路緣江國。歷叩荆扉。暫接面目。誰謂一別。奄告不淑。追惟往事。頽如前夕。客土羈寓。連世禍酷。壽何不延。賦何不薄。吾儕近日。陽九運劇。同心繼殞。若與相速。我懷之悲。非惟懿戚。獨立暮途。誰共扶策。旌嬰入地。客遊纔復。感疾在床。未臨窆窆。今者之來。爲酌一酌。哭罷言旋。萬事陳迹。

祭磨巖趙公文

[1]ITKMOXML | 복사 URL복사

夫以大君子風節文章之盛。負一世山斗之望。而使之^P嘗不容於聖朝。擲明月於黯昧。指鳴鳳爲鷓臯。斥絕廢棄。歿世寥寥者天也。一朝而遭遇新化。洞照覆盆。蕩滌昭洗。旋乾轉坤。使枯木生春。冷灰復然。山川爲之增輝。神人感激涕漣者亦天也。於是而嘗生出一令孫於其門。以其軒昂之氣。出羣之藝。得大闡於家聲積鬱之際。唱臚龍墀。榮耀當時。爲若有爲者。乃何意也。至若恩光未洽。威命繼下。使一路加額之慶。倏然若落花之風飄。春夢之奄過。名色由是危疑。意氣未免頓挫者。顧何意也。當一運潛轉之際。臨千一嘉會之至。而使公忽先時促化。不肯少埃。黃麻再降。恩牌還賜。而^P窀穸纔閉。九原難起。孤子曳衰。跋涉千里。奉牌言旋。呼號道次者。抑何意也。嗚呼。謂天不可必也。君子之道。未嘗終塞。謂可必也。顧其意茫昧難測。余於此勿論而已。痛矣痛矣。雖然。吉凶禍福之由於天者。君子固無與於其間。惟義之在我者。公亦無嫌焉。方公之入山自貞世。屏跡雲林之中。托契魚鳥之盟。忘世間之榮辱。樂一區之太平。抱書歌詠。高臥先亭。何嘗以外物自嬰也。及夫歸元之後。天日回光。家聲再振。子弟無窮之業。固將由此永引。顧爲風爲雷。爲山岳爲江河。磊磊落落。不滅之氣。乃或興祥禳災。爲國藩紀。圖報恩休。與化無既。^P於公奚用重歎也。顧余無似。義惟知己。情踰骨肉。四十年男妹相與之意。誰能盡識也。往歲溪庄。策馬窮尋。蓋欲得十餘年前顏面風儀。聊更討心。而言歸未幾。遽報凶音。當日溪亭之上。水聲之邊。四十韻更唱迭哦之篇。奄成陳跡。手墨依然。人事之不可知。固若是焉耶。今我之來。原草已荒。萬事如夢。顧惟吾姊之亡。已三十有餘年。寂寥窮山。一抔無言。今公之沒也。想相遇於冥漠之中。而懽若平時。其有知乎無知乎。有知也。幸爲我傳一語。謂吾歷盡喪憂。抱疾衰謝。朝夕且化。若無知也。固無可論。雲山無際。春景方麗。嗟我懷人。感時增涕。

祭嵩南申公文

[1]ITKMOXML | 복사 URL복사

嵩南丈人東陽申公歿而殯。未一月歲庚戌新正月日。契下鵝洲申體仁。遣家兒生員鼎辰。以片魚串果。痛哭敬告于靈几之前。記客臘初四日。修付覆書于同縣申生漢朝。并賈慎生文篇。未及傳達而繼承臘月初七日賜書。謂一朔毒瘧。兼以六瘡。絕食漸盡。恐未更奉。辭旨悽愴。殆異平昔。亦違便未克報。怛然驚歎。不多日。李丈人臥雲翁忽寄書而來。說及公不幸。重嗟屢喜。謂斯人也至斯。吾儕之悼惜可言。聞之必同此懷。書未謂以訃狀付送而逸不來。遂未知以某日某時屬續。而槩料其^P後於初七日不遠矣。七日之書。乃知其爲絕筆永訣矣。果終以毒瘧六瘡至斯耶。抑添作別證而然耶。顧春秋殆近八耋。而上有伯仲二丈。下有嗣孫疊哀。外有知友之不相忘。而詩韻禮說之朝夕俯仰吟玩者。積之在几案。屬續之夕。或有言歟無言歟。神識了了如平日否。抑昏昏無省記否。言至于此。痛矣已矣。顧惟愚昧。托契下風。操持之確。識趣之潔。情意之懇篤。書問之陸續。固已欽感不已。而秋間進拜。從容數夕。陟降林丘。吟詩命酌。豈料一別之竟千古耶。抱疾龜縮。未卽赴哭。茲令豚兒替告。前春往石田。馬病未得歷謁徑歸。屢教爲可恨者。^P實此兒也。今日之進。或有知乎無知乎。無知也。言固無益。有知也。或鑑此情曲。

祭柴里柳丈文

[1]ITKMOXML | 복사 URL복사

四十年出入來往。雜悲歡之如夢。八十餘年風範威儀。奄難追於仙踵。家世闕閱之舊。書之在國乘烜赫。孝友忠敬之實。行之如一日無斁。豈敢阿好。不欲煩述。昨年南遊之馬。歸自一善。逮到屏山。橫出西轉。謂一拜之慙慙。庶更承乎款晤。尋真不遇之歎。至今頽頽然如有所失。竟幽明之殊路。今來筵下。巾烏已藏。一室三殯。桑海迷茫。哀孝子之既老。垂白鬢之纍纍。上疊巨創。下瘞愛子。哀痛窮苦。極天無比。顧此平日相愛之切。握手相吊。安得不失聲而揮淚。溪山不改。庭戶宛然。萬事長已。一哭言旋。

祭李致道文

[1]ITKMOXML | 복사 URL복사

古語云。人樂有賢父兄。得此樂者蓋寡。疇不願於常情。竊惟我先師先生。以學問之正。淵源之的。唱道東南。勸引後學。一時英俊之遊其門者。如入鑪鞴之中。同受鎔鑄之功。弱或扶而爲彊。昏亦喚其盲聾。於是家有賢子。生質既美。朝夕膝下。唯諾燕侍。孔孟程朱之書。日陳乎其前。道德仁義之訓。日入乎其耳。漸漬融化。繩約鞭起。其鍊琢成就。豈有窮已。故以穎慧通敏之才。發之以義理之見。端詳恭雅之質。飾之以賢聖之典。其周旋揖遜。詞理筆札之粲然日見于外。而不出成法者。見之若丹穴之奇毛。崑圃之良玉者。此蓋本之家庭薰濡以得之。非人所願慕而可樂者哉。故知名鄉曲。爲遠近儕友之所屬望。擢第登仕。爲聖君賢相之所眷嚮。王伯義利之說。既嘗熟講於平日。格致誠正之訓。沒身嚼之如茶飯。庶幾發明家學。報答恩渥。卒有如文定之有明仲。西山之有仲默。循名責實。中外加額。而一疾京邸。中途折軸。若夫惡域妖狐之徒。爲藉名售奸之計者。雖欲弄我爲水上之苴。風前之草。而一疏披肝。聖批渙發。要不疚於內省。尙奚恨於冥漠。顧余相期。愛深骨肉。死生之際。情文俱闕。旅櫬南歸之夕。未得迎哭於路側。旌窆入地之日。但遣迷兒而臨穴。終祥不遠。來薦一酌。冥冥有知。謂我何若。先師之遺集未完而整頓無日。高山之脩櫟已舉而家聲寥落。言念至此。曷任痛惜。文不盡意。惟冀一格。

祭春睡齋李公文

[1]ITKMOXML | 복사 URL복사

金城嶄嶄。元氣攸屯。際茲衰季。特降巨人。簪纓舊閥。奕世遺光。初年步武。從遊大方。氣象頎偉。鶴峙鷺揚。襟懷曠遠。川闊雲長。涉難窮海。談笑來往。養德林野。神精日旺。儒先古蹟。誦說如流。禮訟疑案。提證隱幽。黃耇康寧。仙籙無疆。風標動人。德義超常。奇材落拓。時命匪亨。天爵名位

。豈足云榮。顧惟無似。獲幸始終。追念先契。竊附下風。獎許之謬。眷愛之敦。或款面教。或勤書存。經年一疾。久違趨拜。寤寐懸慕。如水注海。誰謂新元。奄忽乘化。病伏淵齋。驚號涕瀉。窀穸告期。旌翼臨行。聊遣豚兒。替伸微誠。風儀在目。手札盈箱。依依一夢。何日敢忘。天年考終。蘭玉濟美。長逝無憾。哀此孤寄。自惟殘喘。料未久延。惟冀朝夕。歸拜重泉。

祭李后山文

[1]ITKMOXML | 복사 URL복사

嗚呼痛哉。當師門倡學之日。而公以穎悟確實之資。生在一洞咫尺之間。登門請教。日侍燕閒。從幼逮晚。屢歷年紀。所以周旋唯諾而親炙之者。若淪肌浹髓而無不至。及山頹講廢之後。而公以先進老成之年。特爲同門儕友之首。工夫到熟。用力已久。見解論說。發明旨訣。所以講究存省而進修之者。有日乾夕惕而不敢忽。故凡隨時應接之宜。居家日用之常。微而中和體用之妙。顯而儀文品式之詳。細而爲動靜語默之節。大而爲屈伸趨舍之方。明誠敬義之所以交做夾持。公私義利之所^①以剖析毫芒。所嘗得力於師門而需用於一生。講熟于平日而體驗于自己者。蓋已儼然樹立。綽有成就。有同志觀感之端。爲後學矜式之地。逮桑榆旣晏之年。當清齋燕養之際。圖書滿壁。花藥繞砌。潛心古訓。寤寐前世。優游厭飫。漸到活界。若日用鳶魚之著。靜中流行之體。所以左右逢源。俯仰默契者。雖未可容易窺見。得論深淺。然而顧師席薰濡之力。始終發揮之功。殆若勉齋之於考亭。艮老之於溪翁。一方之尊信益深。士流之依仰莫過。有不得不以一時淵源的傳。畢竟於是屬望。斷不在他。顧余愚慵晚學。無得契忝同門。情惟懿戚。念平日^②狷隘之性。未盡融化於大冶鎔鑄之日。暨中年粗淺之工。卒無所成於操存涵養之實。年齡遲暮。舊病猶滯。從遊往復。言或未契。惟前後眷知之出常。多賴頂針之砭骨。曾滯湖上。恨未造謁。往冬垂覆。特感警切。誰謂龍蛇一運之所忌。奄至今日而罔極。東巖之墓草纔宿。川沙之旌翼已邈。吾黨相吊。餘涕未盡。豈料此際。又哭不慙。逐歲連時。若與相引。自惟衰病。朝夕且死。哭盡同人。將誰依倚。杜門江曲。塊坐無語。悼長德之俱逝。懼橫流之難禦。粵瞻師門。事多未遑。幽明一理。想亦含傷。窀穸告期。病未臨穴。送子替酌。臨風嗚咽。

祭金川沙文

[1]ITKMOXML | 복사 URL복사

兄固有豪宕不局之氣。而乃卒自以爲可懼。兄始有應俗特達之詞。而乃反自謂非本務。興起古人之學。從遊大方之門。舍舊圖新。用力特勤。蓋嘗以其雋異之姿。出羣之藝。勃興於世德旣遠之後。家聲寢衰之際。勇赴師門。屈首請業。以平日氣槩之豪。折之爲沈潛專一之學。以半生詞藻之華。斂之爲心身實體之德。本領旣固。頭腦極正。措諸行則孝友忠信之道。欲必無憾於日用。存之中則嚴敬寅畏之工。欲必該貫於動靜。講究不怠則凡聖謨賢訓之旨。節文損益之宜。欲必各致研窮。論辨^③不差則若王伯儒釋之別。義利邪正之界。欲必剖析異同。積以歲月之久。漸期德業之成。寧做全體而未盡。不欲以一善成名。在師門則見許以確實。處末俗則爲有所矜式。何莫非一變至道。卓然自立者哉。蓋其發憤向道。刷

滌自新。逮桑榆望八之年。在燕閒獨處之時。亦必肅容端坐。正冠勅衣。未嘗以衰倦或弛。是則雖行年九十有五。而猶不廢箴傲者。亦將由是可期。雖嘗以晚悟無成。自視欲然。而視其氣象之弘重。節度之嚴謹。亦足以驗其所進。日用文句。或若未出平易。讀者往往艱滯。然而手法練熟。儼成一體。何莫非學力攸逮也。顧余無^P似。生同鄉邑。始終相逐。義惟朋知。情踰骨肉。自童^卅公車之藝。暨同門進修之工。未嘗不一心相謀。趨舍與同。或并轡而遠遊。或聯榻而賦詩。道途行邁之際。呼燈唱酬之時。固不無意氣之相許。韻趣之暗契。而及中流回棹之後。論臨涉相須之義。臭味自別。情念特至。疾病衰暮。各據一方。雖未得源源相接。然而寄書相訪。往復重疊。或討疑難。或寓箴責。至往歲東巖之逝。各有文字之叙情。乃相投示。增感涕零。誰謂其未及一年之周。兄遂奄忽隨歿。後兄之葬不躡旬望。而且告后山不淑。斯文廓落。一路全空。後學迷方。于何適從。兄始入土。我疾添^P發。送子替酌。文未究述。要俟中祥。庶更發揮。今始略陳。非敢阿私。願惟冥途。師友并會。或更從遊。有不永昧。嗟我懷人。曷以自抑。獨立滄洲。西景且迫。欲採芳杜。伊誰云贈。臨江紀哀。言盡意剩。若鵠原埋玉之歎。西河喪明之悲。聖朝旁招之美。末年優老之資。非德損加。不論及茲。

墓表

從兄處士公墓表

[I]ITKMOXML | 복사 URL복사

聞韶治之西南四十里。億谷之坂溪水之上。有墓臨脩路向巽東南望板反谷口。是吾堂兄諱重仁字君任幽^P宅也。吾兄以肅宗辛丑四月日生。英宗己巳十二月日歿。享年二十九。年少而行高。無位而有學。歿之日。親友相吊。謂斯文不幸。及葬。奠而誄者甚衆。使後之過是墓者。若知其賢而無命。有志行可惜。乃或有躑躅興悲。駐馬不忍行者矣。嗚呼。兄之天稟豪邁。氣象清俊。自在童幼時。始驍勇不羈。能手捕飛鳥。超越林屋。既冠。忽折節韜鋒斂鍔。儼然爲端士。從剛窩任處士遊。讀朱子退溪先生書。篤踐力行。每日晨起。盥漱飭衣帶。入見父母。事祖母極其誠敬。有王祥之行。事諸父諸母如所生。居喪盡禮。奉先以誠。處宗邨待賓友。恭謹仁愛。誠意藹^P然。教授髻鬣。絃誦盈室。喜吟詩。韻響清絕。往往逼唐宋風雅。好遊佳山水。過泉石名區。輒登眺歌詠。清夜月朗。攜童冠徜徉詠歸。或鼓琴誦詩。唱歌以散幽鬱。書疏夙成。辭理俱到。日用無碍。筆畫杈枒適勁。自成一體。居第之北。竹林蕭疎。七松臨溪。每攜我逍遙。欲待時築壇結廬。名其壇曰雙節。又嘗愛沙阜谷裏溪石淙錚。欲結小亭。爲詩若序。略述其志。亦足以見平日雅想高致也。體仁。少與兄同處一室。生年間十歲。顧相許若知己。或聯牀讀書。或對榻論文賦詩。己巳仲冬。兄適金陵。臨發。出示其前夜所賦近體詩一首。屬檢教幼子。遂鞭馬以行。^P不一月。客歿于尙之中山。族親隣里爲之痛哭并走。以其喪還。越明年四月日葬。顧兄之生未滿三十。而行義文學。已蔚然可稱。若又假之以年。卒究大業。其成就固不止此。而風燭奄滅。百夫難贖。嗚呼豈非天耶。兄姓申氏。系出鵝洲。有諱祐。高麗按廉使。爲兄遠祖。諱之悌。承旨贈吏曹參判。爲六世祖。諱弘望正言。爲五世祖。正言生宣教郎諱漢老。宣教生諱叔範。爲高曾祖。祖諱黃龜。考諱道三。成均生員。妣宣城金氏諱亨萬女。亨萬以司諫諱兌一子。爲兄承旨諱海一后。兄娶長水黃氏。故相國龐村諱喜之後。諱道重之女。生戊戌。歿乙巳。聰明^P識事理。誦說今古。有士君子風。祔葬兄墓前。有二男二女。男長鼎沃。兄歿時年九歲。次鼎五。兄歿未返喪而生。女長適李有慶。次適洪

氏。無后。鼎沃以年四十三歿。有一子未冠。一女姜長欽。鼎五有子女。皆幼。李有慶三女。柳翊文，安會應，權日東。鼎沃以兄遺命從余學。雋異有文行。嘗泣而言曰。吾父不幸無命。志行湮晦。願爲之一言以詔後。體仁相對興喟。未忍下筆。因循屢歲。今沃又死矣。吾亦朝夕垂死。其忍終默無言。以負其意。遂略述兄平日志行萬一。以遺鼎五。使之表諸墓道。以圖不朽。使沃也有知。將少抒其遺恨矣。噫亦悲矣。歲辛亥月終^P辜堂弟體仁謹撰。

從姪鼎沃墓表

[I]ITKMOXML | 복사 URL복사

近故碩士號以餘申鼎沃。以鵝洲氏七世宗胄。雋異有文行。不幸早歿。葬義城佳道谷已向原。其上有先曾祖考處士公及曾祖妣孺人載寧李氏墓。又其上幾步。有先五世祖妣漆谷都氏墓。以餘生九歲。從其堂父體仁學。視體仁猶父。其將死前一日夜。體仁抱持在傍。以餘自知其不可起。執手咄咄語曰。父事四十年。無一報効。卒貽憾無限。明日乃死。體仁哭過時而悲。重哀其志行蕪沒。陳迹日遠。謂知吾鼎沃最深。蓋莫吾若。吾今朝夕^P垂死。若不一言以圖不朽。是我不能視猶子。遂扶病強起。召聚神思。略錄其志行大槩。以遺其弟若子。使之歸刻墓道。所以述其悲也。嗚呼。以餘以英宗辛酉六月日生。始名伯憲。字曰斌卿。後改鼎沃。字以說卿。生而清粹。如明珠鳳雛。幼與羣兒遊處。岐嶷特秀。炯然若照人。及長。謹厚嚴重。無一毫驕矜自夸意。與人語。沈思慎發。不輕吐底蘊。聞人規責。屈己虛受。不屑分疏。威行一室。妻孥嚴憚。年十五六時。隨衆赴縣邸試藝。多士迭逐擾擾。以餘以眇然一童孺。凝立樓下。不移尺步。或被人拂觸不少動。氣象儼然。見者無不稱異。目以大器。比新冠。^P清揚美目。威儀棣棣。動止有度。宗族相與稱賀。晚經痘疾。朱顏若酤。燦然帶癍痕。九歲失所怙。哀毀如成人。以父遺命。就堂父學。日夜在側不少離。醇謹愨實。惟所教是從。事母無違志。日見家廟。齊沐承祀。愛諸弟妹無私貨。有妹適人無可依。取來置母側。惻怛憫恤。始終如一日。追惟先烈。周旋致力。欲必發揮之無遺憾。蓋一心炳然。至死不已也。自幼才思峻發。比長。學爲時文。屢占鄉解。詩章筆札。斐然夙成多可觀。矻矻射策不已。欲待時一據。蓋其志氣拳拳。不忍寂寥死巖穴。平居自許。輒喜論前世英雄豪傑出處得失。國家治亂興亡。馳騁上下。^P隱然若慕諸葛武侯，韓富軌範。欲與追躡。而亦必準以道義。服膺經訓。篤信師說。欲得研究體驗。乃取餘力則以學文之義。自號以餘。又取中庸闡然日章義。扁其室曰章舍。亦足以見其反本務實也。嘗以其先君處士公愛沙阜溪石。吟少陵詩何時一茅屋。送老白雲邊之句。而欲與體仁共結廬居之。故以餘適追其意。欲卒肯構而扁以老雲。乃以老雲精舍四字書揭壁上。以寓其志。體仁晚占江皋。欲作小亭以自棲。以餘力主其事。料理區畫。謀所以必成其志。而力役未半。奄告病甚。蒼黃往視之。已革矣。扶抱經數晝夜。臨絕。體仁呼而語曰。某乎。^P死生有命。汝豈不素講乎。以餘忽開眼。應聲曰諾。遂絕。是實癸卯十一月一日也。嗟呼。天地之間。固有婉孌清淑之氣磅礴流行。或鍾於人。或鍾於物。在人爲賢俊爲君子。在物爲名花異草。珍禽奇獸。雖在叔季淆漓之世。此氣往往亭毓發見。有不可掩。今夫以餘之生。非所謂賢俊君子徒歟。非與名花異草。珍禽奇獸類者歟。知其必鍾得天地間婉孌清淑磅礴流行之氣。而亭毓發見。固有不偶然者矣。一元既衰。太化蕭索。善類未能久保。亦將如之何哉。申氏世有聞人。有諱之悌。承旨贈吏曹參判。號梧峯。爲以餘七世祖。諱弘望。正言號孤松。爲^P六世祖。祖諱道三。成均生員。考諱重仁。妣長水黃氏諱道重女。故相國翼成公後。蓋自生員公以下。連三世有德無命。相繼含恨。固亦異矣。以餘娶韓山李氏。通德郎

회병집(晦屏集) 신체인(申體仁)

敬和女。文靖公牧隱後。外祖營將申益欽。孝友勤慧。克配令儀。亦以歲辛酉生。己酉終。葬佳道谷丙向原。有一子祖應。一女適姜長欽。一女幼。以餘疾既革。丁寧囑家人。我且死。必移居勿少遲。今其弟鼎五。挈孤兒奉祠廟。方寄寓荒野。百計新造。惟冀其終焉允臧。永錫祚胤。歲辛亥季冬月日。堂叔體仁拭涕而書。

晦屏先生文集卷之十

墓誌

故承訓郎眞寶縣監松塢李公墓誌銘

[I]ITKMOXML | 복사 URL복사

松塢李公之歿。今已百八十餘年。遺文實蹟。散佚殆盡。墓道闕顯刻。雲仍居在赤羅地者不少。相與感慨興歎。懼終湮晦。以公逸稿若干篇。行錄一通。諸賢寄贈諸篇。屬體仁請序次爲實紀。繼爲誌。書幣屢懇。謹按公諱軫。字君任。號曰松塢。延安人。鼻祖諱茂。以唐中郎將。從菴定方來征百濟。留貫焉。後有諱係孫。仕高麗爲工曹典書。又有諱未丁。我朝禮賓寺少尹。贈左贊成延城府院君。移居知禮。是生諱淑璜。文科直講。贈判校。判校生諱亨禮。教授贈參議。移居赤羅。參議生諱國樞進士。是爲公會祖。祖進士生諱貞孫。吉州教授。娶陽城李氏司直元守女。參判拱孫。中樞府事靖平公純曾孫。是爲公考妣。公以嘉靖丙申八月十三日生。庚戌十一月二十五日終。翌年三月。葬松峴坐酉原。享年七十五。公與弟南溪公諱輔。俱以文行聞當世。始薦爲習讀。再薦爲寢郎不赴。當壬癸倭寇。爲本縣守城都監。與安東義兵合。區畫多方。言論激切忼慨。安集使啓薦爲直長。乙未爲主簿不赴。時朝廷特選廉謹有才行守令。兄弟一時登選。南溪公除唐津。公除眞寶。尋以治行陞資。除開寧。公辭以疾。歸而葺精舍于南溪之上。伯仲湛樂。抱書歌咏。養眞修潔。優游終老。蓋其孝友之篤於內者。嘗藥嘗羹。晝宵不解帶。三年廬墓。號慕昕夕。而勸弟力學成就。卒爲聞人。其才德之著於外者。謀聚鄉兵。畫計捕倭。當亂蒞縣。不忍嘗珍羞。政懋寬厚。一境安堵。操之清者。解官將歸。乘牝留其駒。既還。室如懸磬。至被嘲笑無悔。趣之高者。白首林泉。絕意名利。婆娑初服。自適無求。顧奚從得此哉。公嘗從遊西厓。五峯。守拙齋諸賢之間。惟詩書經訓是究。義理是資。諸賢之屬望期擬固不淺。而公之自處不苟。遂以是行之一身而授諸後人。至今一方禱慕。餘教可驗。豈曾無所本而然哉。公娶安東金氏引儀世佑女。松隱公光粹孫。先公幾年沒。與公合窆。生三男。曰宗可都事。曰忠可生員。曰從可承仕郎。二女適李舩參奉。李挺南。宗可三女。適洪重慶。權瑛。南礪。嗣子重美。忠可三男。東美。重美。弘美。從可一男昌美。餘未盡錄。銘曰。

閎閎之華。蔚文獻也。賢彥之交。資警論也。血淚廬墓。行謹愿也。銅章著績。邦無怨也。魏苗留犢。警貪溷也。碩人在澗。志嘉遯也。鄉隣問業。誨繾綣也。墳笈終譽。沒無恨也。聲塵莫追。恐日遠也。刻銘埋幽。來世勸也。

故龍驤衛副司直尹公墓誌銘

[I]ITKMOXML | 복사 URL복사

有山號牛頭峙者。在昌禮兩邑之交。谷狹多阻。爲南路咽喉。往在英廟戊申。善山義士副司直尹公。以金烏鎮先鋒。破劇賊其間。原陸不改。遺躅如昨。爲將髣髴公之影響。公諱重邦。字任卿。氣宇宏偉。身長七尺。少從事弓馬。亦博洽善書藝。個儻多大略。早喪父。事母孝。未嘗一日暫離。逮戊申兇徒猖

獬。金烏鎮帥朴公。馳檄鎮下。募取義士。公蹶然起曰。生爲丈夫。稍解組練。不遇盤錯。無以別利器。國難之謂何。敢以疾辭。挺身躍出。手劔詣軍門謁鎮帥。自請赴難。帥大喜許之。時公母年八耄。疾病奄奄。公詣母告行。遲回不忍發。母正色語曰。君親一致。其如國危何。汝往哉。無念老母爲也。公拜辭出。時主帥已出陣金陵。公疾馳往入謁。獻策曰。我軍不慣兵革。賊謀難測。地利不便。恐易致奔潰。莫如先遣數人。察賊勢虛實。諭以逆順禍福。以撓其心。我且以大衆壓之。兵可無血刃而破也。主帥曰諾。遂帖公爲先鋒將。公奮起以立曰。戰陣無勇非孝也。老母臨別之言。其忍負諸。吾不殺賊。不歸見老母。遂誓于衆曰。一乃心力。連次發炮。有進無退。不者用一劔殲之。乃與都指揮黃公道熙。同心決死生。鼓行前進。抵牛頭峙下。與賊相遇。望見山上旌旗羅列。衆皆惶懼。公令麾下一人。詐爲降卒。夜投賊陣。誘致賊卒。賜之座。撫詢賊勢。與黃公草諺檄八帖。備論逆順禍福之理。賂所致卒。持諭賊中。令人登高向賊陣。大聲呼諭之曰。若等均王民。爲兇賊所脅。自陷誅戮。可哀也。今巡撫使方率大兵西下。善山尙州兩鎮。自北挾至星州。晉州。自南而來。若等命如朝露。欲自圖生。盍亦速斬賊魁頭來乎。賊衆聞之。錯愕喪心。於是策馬勵兵。整敕部伍。擊鼓揚旗。且前且呼。賊皆望風自潰。勢若土崩。捐旗鼓輜重。禽駭獸竄。賊魁熊佐崇坤走希亮素莎陣。素莎賊亦遂駭散。於是公命軍吏收賊旗鼓。獻捷于主帥。遣壯士數十。追奔至素莎。賊衆自相蹂躪擊刺。縛致三魁。爲晉州鎮所奪。南路遂平。黃公恚晉州掠取人成功。欲馳往推賊首。公曰。賴天之靈。幸了國事。顧我方急於省親。不宜曠時日也。謁主帥請歸。帥曰。賴子先登戮力。獲殲兇酋。顧乃脫然不以爲功。急於返面。若子可謂忠孝兩全。公歸拜母。母方呻吟在牀。欣然起坐曰。不料今者得見生還。母子重逢。家國同慶。公嘗自爲日錄一通。記其事甚詳。蓋當日嶺下破賊之功。當以金烏陣爲最。舉一陣之功。當以牛頭峙先鋒一捷爲首。至今山下父老。相傳誦公名不衰。朝廷錄其功。加公折衝階。拜巡將副司直。論者謂未足償其義也。後公歿四十餘年。當今上戊申。以舊甲重回。訪前日倡義人。府輒以公名聞。子孫呼籲。道儒陳疏。而以已蒙褒典見沮。爲可恨已。公以肅宗丙寅九月十二日生。英宗乙丑八月十五日卒。葬開寧松川坐亥原。尹氏系出平山。鼻祖諱巨臣。高麗紫金魚袋。有子諱義輔。孫諱尙著。皆我朝判書。有諱弘宣進士。號墳齋。爲公高祖。有諱義傳。諱商老。爲公會祖。祖。考諱東藩。妣昌寧成益昌女。據義割恩。送子剋賊。議者謂乃母與有功焉。妻淑夫人玉山張氏應辰女。生癸亥九月初二日。卒戊辰八月二十二日。祔葬公墓。有三男二女。男汝欽，汝鎔，汝鐸。女金一壽，張趾行。汝欽有三男。相麟，相烈，相穆。二女適司諫趙錫穆。佐郎金振久。汝鎔有三男。相五，相和，相衡。三女適金復和，別檢李昌胄，盧復文。汝鐸有二男。相民，相東。一女適丁載樑。金一壽六子一女。夢兌，夢履，夢觀，夢齡，夢駿，夢。女適李安禎。張趾行二男。壽民，壽坤。餘未盡錄。銘曰。

牛頭之山。遮截湖嶺。厓谷崎嶇。惟公義勇。與山齊屹。行路起欽。刻銘埋幽。于壙之前。百世可尋。

亡友李立齋墓誌銘

[1]ITKMOXML | 복사 URL복사

聞韶縣南盤龍山庚向之原。蓋有吾亡友立齋李公仲休之墓。公之歿且葬。殆二十年于茲矣。體仁願以平生舊交。相愛重如骨肉。苟吾爲一言刻其幽堂。得不朽吾亡友萬一。吾雖無文。其忍辭諸。公諱夢靖。字幼覺。仲休其舊字也。公始名徽靖。後改名若字。願以仲休行之久。故人輒以是稱之。不能變也。公

以景廟甲辰八月三日生。英宗丙申十一月二十三日歿。享年僅五十三。嘗受學于大山先生。先生於公。從祖兄也。欲公振拔自立。命其齋曰立。公既沒。其堂兄華巖翁仲則父。謂公之賢。不可無號。爲修行蹟一通。名之曰立齋遺事。遂以爲號。亦古人貞曜義也。公生三歲母歿。鞠于其庶祖母。自幼端靜沈厚。不與羣兒戲嬉。及就學。始若魯鈍。卒以勤得之。才思日進。實行著於家。事繼母如事所生。侍先公和怡順志。唯諾必謹。及遭喪。執禮三年不懈。處弟妹無間言。待庶祖母庶叔。不以分義或間。其篤於倫理蓋如此也。年十四。登師門。遜志請教。日夕燕侍。聞下學上達之旨。凡灑掃應對進退之節。與夫天人性命之說。無不服習而熟講之。濡染既久。游心浸厚。特見許以深沈有味。傍治舉業有能聲。歲庚申。以童子赴荊園。對西銘策。淋瀝不停筆。見者嗟異。屢捷鄉解。屈省試。不以得失動其中。惟讀書敎行。取心經，近思錄，朱子節要等書。手抄口誦。服膺體驗。必要其實得于中。閒居獨處。莊敬自持。無惰慢邪僻之氣。俚嫫之言。不出諸口。晨興謁家廟。退而開卷端坐。諷詠潛究。几格之間。不見雜物。待人接物。溫然和易。無厓異斬絕之行。亦不肯屈己循人。人亦不敢以非義相加。文詞筆翰。藹然夙成。其少時所著毋自欺。自強不息。時習等說。勿忘勿助與鳶飛魚躍同意辨等篇。及與同志往復諸書。皆平正淳實。交相警勵。讀之足以驗其所志。往往發爲詩歌。亦出於性情。多可觀。年齡向晏。操履益確。庶將飽飫墳典。講究存養。日就崇深。而吾儕不幸。天未假年。奄忽以逝。惜乎其遊於羿穀而未及盡其數率也。李氏系出韓山。遠祖諱穡。號牧隱。高麗門下侍中諡文靖公。高祖諱弘祚。號睡隱。官縣監。曾祖諱孝濟。祖諱碩考。考諱晟和。皆不仕。妣鐵城李氏諱時綱女。繼妣眞城李氏。有二弟一妹。公凡再娶。前配南陽洪氏。考諱起東。見公嘗入圍射策。異之。妻以女。生一男不育。後配眞城李氏。退溪先生八世孫。無子女。乃取弟基靖子垵爲后。垵未冠而公乃歿。有詩文若干篇藏之家。乃仲氏學靖師文父所嘗收拾也。師文父又不幸早逝。基靖士構父續拾成卷。持以屬華翁述遺事。垵既冠。又克繼其緒。以體仁知乃翁最深。費遺事若遺文來。托請誌諸墓。噫亦孝也。體仁既拊卷興悲咄。再三不已。略叙始終而系以辭。辭曰。

何志之篤。何行之力。何壽之畜。何命之鞠。生也得力問學。歿也不必深憾。後有過其墓者。爲諡往蹟。或駐馬不行而興感躑躅。

故通訓大夫迎日縣監龜巖金公墓誌銘

[1]ITKMOXML | 복사 URL복사

金氏之貫慶州而祖新羅敬順王者。居屏山治之北十里道樂村。衣冠數十餘人。有日龍雨。袖其先祖龜巖公碣文一通。謁體仁錦淵之上。拜且言曰。慶州氏布在國中而顧居道樂者。獨以故縣監龜巖公爲中祖。公之歿。于今已二百七十餘年。墓在長湍花莊山負坎之原。故郡守金公世良。爲述公行刻墓道。金公亦慶人也。嘗以行義文學。見許於晦齋李先生。是其所述。固宜傳信永世。而顧幽堂無誌。時代既久。恐遂湮夷。敢以郡守公所爲碣文。以介於夫子。幸辱惠一言。使之歸瘞墓前。是數百年幾晦之蹟。乃得賴以復明。敢拜手以請。體仁辭不獲。謹按公諱謹信。字孝兼。實敬順王裔孫。五世祖諱球判書。高祖諱牧成參議。曾祖諱善周承旨。承旨生察訪諱泰益。察訪生諱德亨。於公爲皇考。妣宜寧南氏。持平慶祖女。公以正統戊辰十一月十一日生。幼端慤有至性。生五歲。拾園果。輒歸獻父母曰。念父母未敢先嘗。八歲。受童蒙先習。至人不知五倫近禽獸之句。書揭壁上誦之曰。人子於此句。可不知懼哉。下

堂傷其手。蹙然曰。身體髮膚。受之父母。今吾不謹致此。宜受不孝之罪。折楚請笞。十歲。母病飢。血指和藥以進之。焚香祝天。請以身代。居喪。哀毀如成人。母病時思西菰。非其時不得。故終身不食西菰。及長侍父病。又嘗糞血指。及喪。年已始衰。號踊歎粥。盡禮無憾。葬與母同塋。廬墓終制。西菰自^P生墓前。結如盆大。虎日夕來護廬側。人以爲孝感。喪既闋。日上墓躑躅哀省。不以微疾或廢。祭必齊沐監辦。達夜哀慕。待宗族鄉隣。誠信溫柔。救菑恤患。各得懽心。義利之辨。斬釘截鐵。不依違兩端。人有過失。誠心曉誘之。無不感悟。歲甲子年五十七。道臣薦除迎日縣監。居官數載。清白勤謹。刮祛俗習。頌聲載路。未幾解歸。就花莊山敬順王墓下。結草廬居之。教授子弟。徜徉終老。簷前有巖龜伏。扁其廬曰龜巖齋。仍以自號。正德丁丑正月十七日卒。享年七十。以是歲四月日。葬從先兆也。配海州李氏。進士宗國女。墓與公同穴。有一子名侑。參奉。道^P樂之族。皆由是出焉。龍雨於公九世孫也。銘曰。

雞林苗裔。續簪笏也。沒身孝思。天賦出也。拾園歸哺。類懷橘也。於菟守廬。感曩物也。割雞著聲。服廉潔也。棲遲楸下。樂晚節也。衣冠永闕。堂斧屹也。雲仍瞻慕。路寔絕也。刻銘埋幽。名不滅也。樵牧相傳。戒侵伐也。

先考處士府君墓誌銘

[]ITKMOXML | 복사 URL복사

府君諱道萬。字大原。姓申氏。鵝洲人。遠祖諱允濡。高麗版圖判書。是生諱祐。高麗按廉使。至孝廬墓。有雙竹之異。載三綱行實。越九世而有諱之悌。承旨贈吏曹參判。號梧峯。是爲府君五世祖。有諱弘望。正言號孤松。是^P爲高祖。諱漢老。宣教郎。諱叔範。是爲曾祖，祖。考諱貢龜。妣載寧李氏。通仕郎穩女。府君以肅廟壬午二月日生。以英宗丙子五月日歿。享年五十五。葬義城金磊沙阜庚向原。府君容顏魁俊。身短體豐。性嚴重。臨事取辦。不動聲色。或沈默良久乃發。凝然執大體。不曲循情私。有氣力把握維持。子弟皆嚴憚之。好古尚德。樂與豪傑從遊。個儻有大志。欲必有爲當世。既不得則家居養威重。不循俗浮沈。喜賓友迎送。或殺雞置酒不倦。訓子弟。不屑小成就。要做巨儒。盡力宗事。以扶衰振頹爲己任。奉身儉約。雖弊褐羸馬不恥也。嘗築小齋于龜湖之^P岸。扁曰敬松。爲先祖孤松府君所愛古松在後也。未幾。松爲風雨所倒。齋亦不保。晚年。又移居錦山之陰。結草廬在谷。每步履登臨東麓。欲置一小亭。未就而歿。長子體仁。奉喪還龜湖舊宅。府君前後凡三娶。前配義城金氏。以淑哲稱。考諱敏行。妣務安朴氏。以庚辰八月日生。戊午三月日。先府君十八歲歿。葬義城羽谷蓀義洞丁向原。別有墓誌。繼配河濱李氏。考諱繼新。妣仁川李氏。以辛丑六月日生。壬戌十一月日。先府君十四歲歿。墓在府君墓前。坐巽向乾。後配英陽南氏。考諱胤星。妣東萊鄭氏。以壬寅正月日生。壽今七十。金氏生一男三女。^P男卽不肖孤體仁。女權知注書趙進道，李學靖，金百能。李氏無子女。南氏生二男二女。男顯仁，世仁。女尹相烈，李淵愚。體仁有長子鼎辰。生員。次日鼎來，鼎鄰。俱有才性。未冠冤折。季曰鼎彬。未冠。顯仁早歿。有一子鼎吉。世仁新生一子。有一女幼。趙有二子。居信，居讓。李有三子。垆，垆，垆。一女權冲度。金有一子宅潤。二女柳洛文，趙崇復。尹，李子女皆幼。鼎辰年晚無子。只有幼女。後當有嗣。體仁亡婦柳氏張氏。亦繼窆階下。體仁終當與之同歸。歡侍如平日。遂泣血而爲之銘曰。

靡瞻匪父。昊天罔極。幽宅永寧。更千百億。庶終歸侍。歡^P如平昔。

先妣孺人義城金氏墓誌銘

[I]ITKMOXML I복사 URL복사

先妣姓金氏。以新羅敬順王子義城君諱錫爲始祖。遂以義城爲氏。七世祖諱克一。官牧使。與弟文忠公鶴峯先生同遊退溪門。號藥峯。五世祖。崇禎處士諱是楹。參奉贈執義。號瓢隱。祖諱之鐸。考諱敏行。并有重望。妣務安朴氏。諱震相女。退溪李先生玄孫誠哲外孫。先妣以肅宗庚辰八月日生。年二十一。歸于我先君。先君姓申諱道萬。字大原。個儻有大志。承旨贈吏曹參判。梧峯先生諱之悌五世孫。正言號孤松諱弘望玄孫。宣^P教郎諱漢老曾孫。祖曰叔範。考曰貢龜。先妣生長禮法之門。獲相君子。淑哲嫵婉。蹈仁持禮。節度嚴謹。明達事理。有女史風。事舅姑盡孝道。處妯娌無間言。教子女有法。御婢僕。恩威併至。覃及閭里下賤。無不欽誦畏服。歲戊午三月日。以痘疾捐世。享年三十九。葬義城羽谷坊蓀義洞丁向原。與吾曾祖祖妣墓實相近。記體仁嘗幼失母。伶仃穉駮。或出遊街巷。適鄰舍。諸父諸母及里中男女老少無不顧余嗟傷。或至泣下。娓娓誦說先妣行蹟不已。尚^炬然如昨日事。先妣歿後越十八年丙子。先君下世。葬義城沙阜庚向原。與先妣墓相距五十里。先^P君始卜壽藏。欲必先移先妣墓葬之。卒與之同穴。而輒爲堪輿家所沮止之。每以爲恨。先妣生一子三女。子卽不孝體仁。女長適權知注書趙進道。次適李學靖，金百能。體仁長子鼎辰。生員。次鼎來，鼎鄰。并有才性。未冠冤折。季鼎彬。趙有二子。居信，居讓。李有三子。垆，垆，垆。一女權冲度。金有一子宅潤。二女柳洛文，趙崇復。先妣既歿後幾年。先君又晚娶。有二子顯仁，世仁。二女適尹相烈，李淵愚。當并與爲三男五女。顯仁早歿。有一子鼎吉。世仁及尹，李。子女皆幼。體仁惟兩親塋域異所。林麓迷茫。不孝一子。衰病垂死。若不爲一言以誌幽堂。恐百世之^P後遺恨無窮。用是憂懼。謹略述大槩如右。係之以辭。辭曰。

窮山亂峽中。一墓寂寥在萬疊松檜裏。南望先考幽宅。邈然相隔以五十里。想魂魄恍惚。來往無遠邇。懼淑行懿範之終湮沒無傳。遺子若孫。叫泣瞻慕不已。

先王考處士府君墓誌銘

[I]ITKMOXML I복사 URL복사

府君諱貢龜。字顯叟。姓申氏。鵝洲人。有諱允濡。高麗版圖判書。子諱祐。高麗按廉使。至孝廬墓。雙竹生墓前。載三綱行實。於府君爲遠祖。高祖諱之悌。承旨贈吏曹參判。號梧峯。曾祖諱弘望。正言。號孤松。祖諱漢老。宣教^P郎。考諱叔範。妣義城金氏。宣教郎燮女。經歷是樞孫。鶴峯先生諱誠一玄孫。府君以肅廟丁巳三月日生。身短體弱。顏貌皎潔。朗然有精采。少受學于護軍南公碩賚。博習經史。爲文詞。紆餘醇渾。不事雕琢。獲選鄉解。不利省試。絕意名利。閒居燕養。絕不與鄉里是非。養親奉先。課訓子姪。列植花藥。滿園松竹蕭森。岸幘搖白羽。日偃仰其間。惟意所適。非大疾病。必晨

起盥漱。歲時令節。入見家廟。退坐于堂。諸子諸姪及衆婦女以次更進拜謁。慈天均覆。色笑溫溫。和氣盈室。六十年如一日。鄉鄰知友無不欽誦。歲乙丑二月日。考終于寢。享年六十九。P葬義城佳道谷已向原。從先兆也。配孺人載寧李氏。通仕郎穩女。參奉尙逸孫。參奉贈吏曹判書時明曾孫。晦齋李先生玄孫洸外孫。孺人孝友淑婉。著稱鄰里。妯娌娣姒之間。人無間言。有府君祭文可攷。生丁巳。歿庚寅。墓在府君墓後。後配沃川全氏。考諱益相。祖諱是恒。曾祖生員諱有欽。外祖金喬齡。生丁卯。歿甲戌。墓在府君墓西麓卯向原。李氏生三男。長道三生員。次道九。次道萬。全氏生四女。適權灑，柳聖宗。生員柳載春。生員鄭履寅。道三三男。重仁有文行。早歿。近仁通德郎。好仁出繼。二女權正鄰，金宗泌。道九四男。輔仁，就仁，述仁，益仁。P四女。李穰，朴尙坤，姜世慶，崔興達。道萬三男。體仁。顯仁早歿。世仁。五女。注書趙進道，李學靖，金百能，尹相烈，李淵愚。權灑一子以璣。一女回回回柳聖宗無后。柳載春四子。胤祚，觀祚，洛祚，禎祚。鄭履寅一女姜必名。重仁有子鼎沃。亦早歿。繼窆階下。鼎五權攝宗事。近仁有子鼎凝。鼎年出繼。好仁有子鼎文，鼎武，鼎忠。輔仁嗣子鼎德。就仁有子鼎德。出繼鼎祿。述仁有子鼎夢。益仁有子鼎福。早歿。鼎乃，鼎才。體仁有子鼎辰生員。鼎彬未冠。顯仁有子鼎吉。內外曾玄不能殫記。銘曰。

先兆之下。神劍重會。越瞻西麓。瑩域相對。賢胄歸侍。繼P窆其側。庶幾永寧。更千百億。

曾祖考處士府君墓誌銘

[I]ITKMOXML | 복사 URL 복사

申氏貫鵝洲者。皆祖高麗按廉使諱祐。雙竹著異。揭蹟圖史。自是逮我朝。簪組相望。有諱之悌號梧峯。官承旨贈參判。爲府君曾祖。有諱弘望。號孤松官正言。爲府君祖。諱漢老。宣教郎。爲府君考。妣豐山柳氏。參奉諱元慶女。府君以仁祖戊子閏三月日生。肅宗癸巳十二月日歿。葬義城西寺洞丙向原。與孺人金氏同穴。其階下蓋有子生員墓。孫道濟墓。以次繼葬。府君諱叔範。字國模。生而天稟重厚。家訓有方。孝友勤儉。忠信剛P嚴。生甫十五丁內艱。二十九丁外艱。哀毀踰制。事繼母都氏。盡誠無憾。撫育諸弟無間言。爲諸弟擇師。築室居之。使之講授。奉先祀極致誠敬。齋沐將事。不以衰病或懈。冬至服黑團領。率子弟行祀。好施與。不計家之有無。妹壻遠謫。脯巨犒賣送助饌。又送奴造鞋資糊口。恤親族窮匱。婚姻喪葬。竭力辦助資。族子宿舂具奴騎。千里應舉得雋。族兄有以其亡奴田來賣。既買而奴有子來推。笑而許之。族兄乃欲割土償之。責不受。相對火其券。有庶從弟畜婢生子。謂不忍奴骨肉。不一錢許贖從良。外親有以非理推還田人。許之無難色。沒身不一言。輪P蹄滿門。欣然迎送齋資。凶年待別穀待丐兒。家或匱乏無悔。歲貯墨數千丁。寄族親賓友殆盡。甫斲。適隣舍。有客服衰臨珍羞。以雉腳遺之。辭以祖父有訓。不食肉有喪之側。晚遊京城。辭銓官勸留注擬。以鄉人代薦入場圍。知主司覓己。不親呈券。勸子弟課學不怠。爲先墓刻石表隧。爰逮三世。肇拓門閭。扞起傑宇。永鞏基業。爲外氏涕泣乞哀立嗣。功存內外。業著重恢。而宗胄繼殞。時代迭促。行將遷主出廟。豈不悲哉。孺人金氏。系出義城。考諱變宣教郎。祖諱是樞經歷。曾祖諱澡洗馬。鶴峯先生玄孫女也。生丙戌。歿乙巳。閨範夙著。獲配君子。敬於P夫黨。厚於鄰里。柔而貞。婉而莊。有女史風焉。生四男二女。男長賁龜。次復龜。次震龜生員。卽繼葬階下者也。次泰龜通德郎。女長適張東棊。無后。次適呂屎賁。龜三男四女。男道三生員。道九。道萬卽吾先人。女權灑。柳聖宗生員無后。柳載春生員。鄭履寅

生員。復龜一男三女。男道天。女孫雲述，李熙采，全益濟。震龜三男三女。男長卽道濟。早歿。道海，道河。女姜日復，李桂臣，張命穆。泰龜二男一女。男道通，道亘。女權大升。呂辰一女李鴻臣。嗣子齊璜。餘未盡錄。體仁以渺然末孫。未得承顏逮事。潛德幽光。欲述無因。只據從祖生員公所撰行錄一通。謹序^P次之如右。繼以銘。銘曰。

按廉之後。梧松繼起。傳及令胄。德茂功懿。承前裕後。澤流支宗。賙隣恤族。義急濟窮。科宦若浼。苟求非心。芬苾是謹。禮容欽欽。賢配同兆。幽宅允臧。從子若孫。永寧無疆。

從祖成均生員竹厓公墓誌

[I]ITKMOXML | 복사 URL복사

從祖竹厓公生員府君墓。在羽谷坊寺洞丙向之原。曾祖考處士府君階下。與宜人南氏同窆。內外世系。實詳載處士府君墓誌。公以肅廟庚申九月十六日生。諱震龜。字文叟。幼聰明強記。才思穎發。長益刻苦勵學。日^P有聲儕友間。爲文詞。軟雅敏妙。適用不滯。筆札燁然。令人奪目。嘗受學於護軍南公碩賚。背誦經史無礙滯。遊甥館。做賦義策。操筆立就。未嘗苦吟沈思。外舅博士南公嗟賞不已。言論堂堂。與人論事。當否得失。辨成敗利害。崢嶸颯發。鋒穎凜凜。見少不可。輒面折之。如摧枯拉朽。不少饒。儕類憚之。做事勇進擔當。不逡巡顧疑。斷斷力主大義。斬釘截鐵。無少回互。雖終落魄不遇。沒身草野。未能少施當世。然居在鄉曲。隨事効志。凡係家鄉民國日用大小大事。無不隨分致力。焦竭心思。必竣結乃已。多焯然可稱。庚寅。中生員遊國庠。業明經學。所與交^P皆一時才俊。癸巳在頓齋。聞處上府君喪。千里奔赴。遘瘡中途。幾危得甦。戊申春。參別試鄉解。赴京城中途。聞逆變猝起。還抵稷山縣。縣宰全公。姻友也。未及聞賊報。見公。歡笑出迎。公語以變。全公。書生也。倉猝惶懼。公乃畫贊方略。鳴笳聚卒。守城報營。俄有一郵官被賊掠。來投本衙。公據義論責。謂不可離所司。郵官慚謝卽還。公既歸。乃糾率一門親族。首事倡義。與鄉人同志相應。欲必赴矢石一死。聞賊伏誅乃罷。晚乃卷懷林野。絕望當世。就居第之傍築小窩。種竹繞階。扁之曰竹厓精舍。因以爲號。日治文攷書其中。冬夏。聚鄰族子弟。勸課不輟。^P掌一鄉學校文獻。修繕唱勸。不以爲勞。刊先祖兩世文集。廣鋪傳後。爲先考先祖考。撰銘碣行錄。爰及傍祖無遺。伯氏喪畢。胄孫年尙少。懼宗業或替。乃會同堂諸族。令胄孫執筆。并籍前世土田臧穫。成約辭載之。共署名其下。爲券以藏之。若此類不能盡記。曷不足以略窺公志業萬一歟。甲戌二月十七日。終于寢。享年七十五。所編著有家乘。奔喪日記。羣書彙覽等書。遺稿若干篇藏在本家。宜人南氏。系出宜寧。考諱圖翼。卽博士公。祖諱屋承旨。外祖縣監諱允協。漢陰李文翼公後也。宜人以甲子正月十六日生。年甫十五歸公。儀容清婉。德性和^P厚。偕老五十餘年。始終無違行。癸未十二月一日。歿而祔。公嘗自言。始余喪長子。泣請伯氏曰。吾兒才行。先君所鍾愛。願從葬先君墓下。虛其後一坎。待吾夫妻死葬之。歸侍父母無憾。亦以慰孤魂相依。伯氏憐而許之云。公有三子。道濟，道海，道河。三女適姜日復，李桂臣，張命穆。道濟有才行早歿。以吾伯父生員公諱道三第三子好仁后。實主公祀。道海一子守仁。四女。進士崔恒鎮，金俊臣，鄭重燁，朴來彥。道河一子木仁。二女崔宗燮，鄭台煥。姜日復四子。宅文，宅揆，宅齊，宅和。李桂臣嗣子奎運。張命穆二女。權[□][□]，尹相和。好仁有子鼎文，鼎武，鼎忠。^P女姜浩淳。守仁亦早歿。以吾伯父孫鼎年后。木仁一子光鼎。女幼。崔恒鎮三子。濩，洵，潑。鄭重燁嗣子來望。崔宗燮有子琇壁。文科佐

郎。餘未盡錄。木仁端潔有文行。追念先蹟。恐久遂湮晦。以體仁嘗逮侍杖履。請爲誌。謹叙次之如右。係以辭。辭曰。

嗚呼。使公得早置之館閣臺省。少售其風稜之峻。言論之正。足以鶚立朝端。斥邪討不軌。振肅綱紀。扶尊大義。爲殿上虎。鐵面御史無疑矣。雖然。卒不踐嶺海之險。而得保我家族。考終先廬者。未必不由其沒身坎軻。矢志窮居。謂公幸歟不幸歟。羽谷之原。松檜鬱蒼。庶終挈妻P子從父母。更千百歲以徜徉。

伯父成均生員府君墓誌銘

[1]ITKMOXML | 복사 URL복사

府君諱道三。字士達。姓申氏。系出鵝洲。高麗版圖判書諱允濡生諱祐。高麗按廉使。至孝廬墓。雙竹生墓前。是爲府君遠祖。有諱之悌承旨贈吏曹參判。號梧峯。是爲五世祖。有諱弘望正言。號孤松。爲高祖。有諱漢老。諱叔範。是爲曾祖。祖。考諱賁龜。妣載寧李氏。通仕郎櫟女。參奉尙逸孫。晦齋李先生五世孫洸外孫。府君生肅廟乙亥。英宗丁未中司馬。歿壬戌。享年四十八。生而儀容博大。氣象和厚。對人言語。風流動盪。所至傾仰。無P不心醉。性至孝。事父母極其誠愛。繼母全氏性甚嚴。常以婉容色笑承其意。先王考間居養疾。春秋漸隆。藥餌奉養之資。必先意營辦。無不備具。裘褐甘旨之外。或設琴歌以娛之。或置屏障圖畫。名花異卉。木鶴盆魚。奇技雜物。以供寢處玩好。與諸弟諸族日團會。談笑津津。窮日夜不厭。下至閭巷賤僕。無不接以和好。心悅誠服。未嘗以疾言遽色加人。晚喜鼓琴。或夜深月朗。四隣俱闕。獨坐按絃。彈數曲冷冷。唱短歌自和。以散幽鬱。在親側。或命之絃。輒欣然以彈之。在宴集紛擾。賓客稠坐中。絕不手其絃。漠然若無與也。賓友滿門。輪蹄沓至。和氣灑P灑。春風滿面。未嘗少懈。爲養親。旁通。醫藥鍼術。雖閭里賤隸。中夜告急乞哀。亦不辭親往按視。節度又極嚴密。奉先祀誠敬備至。子姪有過。始用和顏開曉。甚則或嚴撻之。見人不可。輒面呵不少饒。人之慕其德者。亦必畏其威。嘗築室于村之西谷。名曰養神堂。種樹成林。歌詠其中。遇事或極艱險難濟。不費力。容易措辦。盡心先事。不憚賢勞。始終不倦。筆力優餘神速。應用無滯。見之可知爲有德心畫也。歿之年冬十月。始葬義城羽谷雲坊山中移泉洞。卒安厝于黑石辛向原。歿之日。先祖考七耄在堂。推曾而哭曰。孝子亡矣。宗族號于家。僕隸叫于P途。以至桃源市人。多驚慟失色。或爲之舉哀。親友聞者。莫不怛然喪心。謂君子無祿。及葬。會者百餘人。奠而誄者。不能殫記。府君娶宣城金氏宣教郎諱亨萬女。宣教以司諫諱兌一子爲兄。承旨諱海一嗣。金氏生甲戌。歿癸未。墓祔窆。享年七十。愛諸從子。如己出無間。體仁生八歲。喪母嬰痘。金氏竭力救護以生。府君有三男。長曰重仁。力學能詩。孝友天出。不幸早歿。有子鼎沃。亦早歿。鼎五攝宗事。女李有慶。次曰近仁。有子鼎凝。鼎年出繼。女金胄範。李鼎復。呂思直。李之炫。次曰好仁。出繼。有子鼎文。鼎武。鼎忠。女姜浩淳。有二女長適權正鄰。有子思P默。思點。次適金宗秘。有子礪進。女生員黃莘老。李巖淳。閔昌魯。餘幼未盡錄。銘曰。

元氣之會。醇和之鍾。胡不永年。一理難窮。幽宅孔安。三遷而得。其吉神劍。重會生同。室死同穴。

仲父處士府君墓誌銘

[1]ITKMOXML | 복사 URL복사

申氏出鵝洲。爲麗季著姓。有官版圖判書諱允濡直節比唐介。官按廉使。諱祐。至孝廬墓。有雙竹之異。父子相繼有聲。逮我朝。簪組不絕。有諱之悌。官承旨贈史曹參判。號梧峯。享書院。是生諱弘望。官正言號孤松。是生諱漢老。宣教郎。是生諱叔範。是生諱賁龜。賁龜娶載^P寧李氏通仕郎諱穩女。參奉諱尙逸孫。晦齋李先生五世孫洸外孫。生三子。第二諱道九。字潤九。是爲吾仲父。吾家學未壽。伯父僅以年四十八歿。先君以年五十五歿。惟仲父享近七十。生己卯。歿乙酉。仲父生而羸弱。體輕性極靜。語聲不出戶外。與人處。不爛熳談笑。在傍若無。內剛有操執。如精金鍊鐵。志潔如水。行清若水洗。見人非義。唾棄若浼。養拙守約。不喜聲色浮華。年老家貧。不以一毫苟求。工書藝。字法端妙。未嘗一畫胡寫。葬義城億谷坊龍臺辛向原。始娶豐壤趙氏。諱彥綱女。生一女適李穰。再娶善山金氏諱在鎔女。生四男輔仁，就仁，^P述仁。益仁。三女適朴尙坤，姜世慶，崔興達。輔仁嗣子鼎德。三女李培春，南宅海，朴禎箕。就仁有二子。鼎德出繼。鼎相。長女李禎九。餘幼。述仁有一子鼎夢。益仁長子鼎福。早歿。餘未冠。李穰嗣子東燮。二女申^{□□}，柳瀆。朴尙坤一子善謙。三女盧光復，鄭^肅，李忠延。姜世慶二子。稷欽，高欽。二女李敬培，崔柱石。崔興達三子^{□□□□□□□}一女李培昌。趙氏生乙亥。歿辛丑。墓在義城石塔[□]向原。金氏生辛巳。歿丙申。墓在義城安平甲向原。爲方術所拘。未得耐葬。子孫常以是爲恨。銘曰。

清而潔靜而約。百世衣冠所藏。想儀容如平昔。尙胥戒^P牧與樵。永護其幽宅。

亡子成均生員鼎辰壙銘

[1]ITKMOXML | 복사 URL복사

錦山之陰。有淵有谷。錦淵翁父子分處淵谷。父棲淵上。子在于谷。每日晨夕。子來淵上省父。相對怡悅。質難講討。退而入谷。讀書竭力。供滄瀨無闕。忽病于谷。終于谷。葬于谷。一身生死。不離此谷。葬之日。父哭之曰。天喪余。號曰錦谷子幽宅。魂魄千秋兮永托些。

墓碣銘

申子純墓碣銘

[1]ITKMOXML | 복사 URL복사

東陽申子純。生而資性仁孝。氣貌溫粹。志遠才高。未及^P齒。事繼母無間言。甫就學。聰悟絕倫。成童。通小學經史禮書。十八加元服。不須與離父側。辨義理詩文利病。論古今治亂得失。旁逮醫方籌數。響響可聽。爲親致美味。遇諸塗。輒買而歸。父有過必幾諫。爲亡妹乞誅闈閨嫩。爲病妹吮腫。千里

省遠祖墓。鸞裝豎踏碑。慨然以古人自期。不願一藝成名。常激昂自奮曰。恥惡衣惡食。奚足有爲。重違親意。黽勉就學業。然非其志。三占解額。屈省試。不悒悒也。父嵩南逸士光翼。高雅有文識。嘗以子純爲知己無他子。妣達城徐氏。翰林彭名後處士至均女。生子純。六歲歿。子純以英宗辛酉二月丙辰生。名宅^P誠。子純其字也。甲午五月癸亥。以疾不救。年三十四。葬善山治之東石積山先兆下向亥原。世系在先碑可攷。子純娶驪江李氏。實晦齋先生之后湜中女。無子。以從祖兄子胄應爲後。有四女。文正儒，張時鼎，金弼基，李東發。銘曰。

學不究其志。才不充其全。名不揚。歿不年。吾匪哀子純。惟嵩南翁可悲。石積之山。五世連兆。是子純攸歸。

故成均生員梅墩金公墓碣銘

[I]ITKMOXML | 복사 URL 복사

金氏貫一善。自鼻祖高麗壁上功臣諱宣弓以後。世家一善。因以爲氏。有諱完湜。我朝開國功臣。於公爲六^P世祖。有教授諱伯卿。參奉諱璧。於公爲曾祖，祖。引儀諱夢丁。於公爲考。妣大丘裴氏。故孝子著作諱叔綺女。公以嘉靖辛亥。生于善之延鳳里。諱蕃。字昌仲。號曰梅墩。幼有異質。儼然若成人。引儀公嘗器愛之曰。吾家叔度也。及長。慷慨有大志。好讀書。常曰。君子進修之方。經濟之業。盡在於書。沒身行之不逮。讀古史。或至奸小誤國。善類竄逐。輒拔劍斫案。泫然泣下。有不能自己。從遊月川趙先生之門。得聞陶山遺訣。以德業文章自期。篤信師說。講論經旨。或有未契。輒發憤忘食。潛究默會。必得其要歸而後已。常自謂無口過易。無身過難。無心過難。^P無心過難。學必以不欺暗室爲本。擴以充之。可至於無心過。趙先生嘉賞之曰。異日斯道之托。當在此也。所與交。皆一時弘儒。與鄭寒岡，崔守愚，高杜谷，朴喚醒，諸賢最相善。來往琢磨。論學講義。詩文之作。往往流出性情。藹然有德之言。歲戊子中司馬。翌年當權奸釀禍。遂作陳情辭以自況。絕意進取。築小齋于丹溪之濱。以擊蒙訓後進爲己任曰。既未能舟楫大川。黼黻皇猷。莫如開導後學。與入堯舜之道。此吾志也。壬辰。避倭入青松。癸巳六月日病卒。歸葬于鳳溪之筆洞卯向原。享年四十三。所著有天人上中下圖。二五分排圖敬義八憂等圖。^P五要箴。自誓自警等章。其學蓋以窮格致知爲先。存省力行爲急。本末一致。體用無闕。而卽圖究旨。因文逆意。有非後學所敢窺議。故府使河陰申公楫。嘗從公之仲子活溪公遊。得公始終甚詳。遂狀公之行。其言曰。姿稟卓異。性行純實。濡染於師友而探蹟乎經史。其治心也。以主靜爲最初工夫。制行也。以忠信恭儉爲元符。不以人所不睹而戒懼之工愈嚴。不以己所獨知而省察之方愈密。名利之累。不留於心。惰慢之氣。不設於身。動止不苟。語默有則。行於家者和睦。而接乎人者款厚。教子弟以義。而責朋友以善。窮乏者極力調之。而患難者極^P力救之。其論道則研精覃思。鉤深索幽。窮造化性命之微。達古今治亂之變。纂圖立言。理明義著。推其有。足以律己治人。出其餘。足以範俗垂世。後之人苟能讀是文而知所裁焉。庶幾影響公萬一焉。公娶商山金氏參奉諱蘭秀女。生二男。長曰震韶。號春庵。次曰震護。卽活溪公。春庵早卒無后。活溪有四男。曰培號玩睡。曰埤曰堡曰塾。培有六子。九夏，九成，九章，九叙，九功，九儀。埤有四子。九齡，九鼎，九容，九遷。堡有四子。九獻，九命，九就，九奏。塾有四子。九有，九牧，九澤，九河。九成之季子善初。又號慕華。春庵，活溪，玩睡，慕華。俱以文學世其家。公之後孫。^P始收拾公之逸稿圖說。又以其下諸稿并附。爲

世稿幾卷欲傳諸後。噫亦盛矣。餘未盡錄。銘曰。

陶山之緒。月川之傳。岡爺守翁。杜喚諸賢。師友箴規。淵源相連。知行敬義。用工不偏。畫爲圖子。發微鉤玄。五要八憂。體用則全。莠參悅口。名利蹄筌。啓迪垂裕。家學綿延。惜未大施。伊不永年。鳳溪之北。筆洞之阡。雲仍追思。斲石墓前。刻銘詔後。閱世百千。

故節制使張公墓碣銘

[I]ITKMOXML | 복사 URL복사

玉山治之東二十里。有故節制使張公之墓。在長川村後背丙向壬。公之歿而葬。已百十有餘年。墓道尙闕顯^P刻。公之五世孫尹燮殷弼父。就余請碣銘甚懇。余辭不獲。顧惟公之諸子弟相繼早殞。家室奔迸。無舊蹟留存。雖欲略述事實以圖不湮。將孰從而求之。謹按譜牒。公諱宇遠。字梯天。系出玉山。遠祖諱金用。高麗三重大匡神虎衛上將軍。有諱安世。麗季德寧府尹。以我聖祖潛邸舊交。屢徵不起。子諱仲陽。我朝漢城左尹。子諱修。掌令。於公爲十一世祖。高祖諱士瑛。判決事。曾祖諱乃範。遊寒旅兩先生門。號克明堂。贈工曹參判。祖諱慶遇。進士。又受業旅翁門。號晚悔。薦授寢郎不赴。後贈左承旨。考諱凝。生員。亦受業旅翁門。號三優。妣廣州^P李氏。宣務郎諱文雨女。左承旨諱熙復孫。公以崇禎丁丑正月日生。肅宗乙卯。登虎榜。歷踐宣略宣傳，振威宣傳，訓練主簿，都摠府都事，經歷。辛未正月。爲全州鎮節制使。是年十一月八日。卒于官。享年五十五。遂以喪歸葬。此爲其實蹟大略。他無可據。惟一時知友誄述文字爲可徵。上舍張公善興誄詩云。軒昂好風裁。春溫秋復慄。天然去邊幅。純淑守本質。早遊翰墨場。畫傳鍾王律。東陽申公益恒誄詩云。壯質兼豪氣。全才武亦文。苞山郭公壽梓誄詩云。氣槩堂堂蓋海壖。正當明朝急親賢。身爲保障中丞弁。志篤貞忠翼德肩。統相沈公樸^P誄詩云。投筆當年感慨多。西山懿望世無加。誓清沙漠心彌壯。圖報涓埃鬢早華。張公萬容誄詞云。氣槩雄局量弘。持己正處事公。右詩若詞。蓋各以平日所相許者稱述。而至今百載之下。令人吟諷想像。豈不足以影響公氣槩才志之萬一乎。配淑夫人務安朴氏。宣教郎諱文度女。兵使贈判書武毅公諱毅長曾孫。後公八年以歿。墓在軍威山月洞午向原。公有五子。曰次奎。曰次斗。曰晉璧。皆通德郎。曰嵩。出后繼祖宗。亦通德郎。曰夏璧。未冠而歿。三女。適士人金汝澤，朴聖任進士。郭在一。次奎有一男錫三。次斗有一男錫朋。晉璧有二男。錫鳳。^P錫疇又出承宗祀。錫三一男漢師。錫朋以從姪子光玉爲嗣。錫鳳四男。光國。光玉出繼。光胤光旭。餘未盡錄。銘曰。

家世問學。發迹弓馬。行己處事。不出儒雅。才全文武。用無不可。字畫逼真。鍾王之亞。惜卒于官。懿蹟難追。刻銘表隧。得其實者伊誰。

碑文

三烈士歲祭壇碑

[I]ITKMOXML | 복사 URL복사

出聞韶縣西十里。爰有古洞。稱粉兔山之阿。築土爲壇。繚以短垣。斲石豎其中。刻之曰三烈士歲祭壇碑。烈士^P爲誰。金姓。名曰燁。曰煜。曰燦者也。兄弟三人。嘗同登虎榜。同赴國難殉之。是爲三烈士。烈士自鼻祖諱子延封義城君。因以爲貫。十一世祖。高麗贊成事諱成丹。國革。歸鄉降爲縣吏。至父振古。業武出身。始卜居是洞。三人者生有大志。屹屹善騎射。既登第。心常慷慨。以爲父子四人。幸並擢第。酬國恩無地。丁卯胡亂。領衆至烏嶺。聞講和。痛哭乃歸。丙子圍城之變。聞鑿輿播越。共扼腕揮涕曰。國亂之爲何。敢食息在家。卽日尙馳西上。到雙嶺。虜兵驟至。勢若風雨。三人者揮戈奮呼。爭進逆擊。殺賊數十級。奪胡馬騎之。乘勝且戰。忽因所騎馬^P橫突。躍入賊陣。俱陷重圍。於是知事不濟。且相顧語曰。吾輩死得所矣。並喝賊不屈死。有卒隸從賊中逃歸者傳之。事聞褒加。特贈三人主簿。加贈燁僉正。振古以三子殉節。除滿浦僉使。有贈帖官教可考。時代已久。往蹟寢湮。殆不復記。近值朝家搜訪丙子節義。得並載尊攘錄。聞者榮之。嗚呼。自古忠臣義士。捐身殉國者亦何限。曷嘗有一兄兩弟同時并烈者乎。我國與中朝較異。揚善褒媿。或不免以地望輕重之。甚則一視子孫顯晦。余竊惑焉。若三人者。忠魂毅魄。烈烈橫在穹壤。爲風爲雷。相隨不滅。不以古今隱顯爲加損。况一朝登名玉牒。與日月并輝。天理固應如是。豈終湮沒乃已耶。三人俱有子姓。爲僉正后者。世家本洞。餘多移住隣縣。僉正之六世孫鳳五。鳳來。袖乃祖遺事。謁余錦淵之上。拜且語曰。先祖無墓可祭。設壇于祖妣墓傍。以歲享之。請惠一言載碣。以著其實。余謂無墓而豎墓碣。恐無謂。莫如別設一壇。合祭以表章之。曷不相與增重乎。拜曰諾。遂築壇建碑如儀。所以像虛墓也。乃略紀其本末如右。使之刻碑後。因爲賦雙嶺三章并刻之。俾歲歲招魂以祀之。詩曰。

雙嶺嵯峨。烈士殉義。維兄及弟。骨肉塗地。魂兮歸來。繞^P故里些。

雙嶺嵯峨。烈士殉國。維兄及弟。骨肉填壑。魂兮歸來。繞舊谷些。

翼翼靈壇。赫赫三烈。雲仍追思。歲享聯設。魂兮歸來。臨恍惚些。

崇禎丙子後三丙辰。晦屏申體仁述。

故資憲大夫同知中樞府事野隱李公墓碑

[1]ITKMOXML | 복사 URL복사

記余嘗吟病江曲。客有李君名應洙。自永陽來。納拜致禮。因言其曾祖野隱公嘗受業于墳篋鄭先生門。有潛德隱行。不宜湮沒。欲乞銘以賁墓道。既歸未旬日。忽得^P疾不起。越三年癸亥春。其族人國林父依其臨絕遺言。賣狀錄北來。力申其請。余與之相對興嗟。遂不敢復辭。嗚呼。公諱燾。字明叟。後改諱景曾。字孝可。李氏始貫星州。自麗朝碧珍將軍諱念言。子孫別以碧珍爲氏。至山花公諱堅幹。於公爲十六世祖。及我朝判書諱建之。爲十二世祖。考諱柱廈。不仕。妣夏城成氏。以肅廟甲戌十二月日生公。爲族父諱楹廈贈參判公嗣。妣烏川鄭氏。贈貞夫人。祖諱重亨。贈參議。曾祖諱潭。贈軍資監正。公蓋以大耋受嘉善實職。貤恩三世。後屢陞秩至資憲。公幼有巨人志。器度宏偉。年十歲。讀史^P家幾畢。十五。就鄭先生學。始至。先生命作詩言志。爲五言八句。詞意不凡。先生奇愛之。因授以小學書。公沈潛玩繹。欲必體行于身。性至孝。事親無違志。奉先必以誠。一生行己處事。一依法度。甫踰弱

회병집(晦屏集) 신체인(申體仁)

冠。連遭本生考妣及參判公憂。送終無憾。喪祭如禮。有疑節。輒就質師門以行。庚子遭國恤。絕不與酒食遊嬉之場。以迄三年。後又當兩朝國恤。亦如之。公蓋自兩庭親歿。無意進取。棄學業。篤志問學。手抄朱子書。誦讀不輟。又以敬以直內。義以方外八字題扇面。常目在之。常語人曰。欲正其心。一敬字足矣。鄭先生嘗爲寫朱子答林熙之書。退溪^P先生題古鏡重磨方詩。及其所自述自警詩以貽之。公拜受莊誦。終身佩服不已。扁其室曰仁壽。爲記以自警。茅屋簞瓢。處之若命。未嘗有求於人。平居。氣象和厚。絕不作皺眉事。喜怒不形。嘗避暑樹下。遇暴雨。衆皆奔屏。公獨徐緩自持。不以遑遽失容。孝思至老不衰。以嘗於親瘠時思雉炙。未及用。沒身不食雉。祭必得用。友愛特摯。參判公嘗析其子女臧穫。公以妹家窮甚請益。不許。後乃以其所自主者私與之。處宗族鄉隣。各得其歡。周窮濟急。惟恐不逮。以至逆旅行過。無不款接以誠。壬癸大札。有流丐五六人當烈寒。投寄竈下。公乃設粥以饋^P之。給藁席經宿。或與之以衣。如是者五六朔。及其歸。乃立石中野以頌之。公所居里。有故楊巡察閭閣圯毀。公與里中人唱議更建。謀伐石以表之。爲立巖洞主。重修院堂。隨事致力。得有成績。嘗遣奴受糶。該吏錯認。換租授米。奴喜甚。冒受而歸。公卽訶還其米。受來本租。吏爲欽歎。居家節度。一以謹拙爲法。禁子弟勿敢笞箠村民。戒嗜酒。令必節飲。此雖日用細事。足以驗其所操。正宗三年己亥十一月日。考終于家。享年八十六。以明年二月日。葬于郡北儉丹村前午坐原。從先兆也。公凡三娶。瑞山柳氏。泰齋翁八世孫諱種仁女。水原金氏。八音^P八世孫諱漢儁女。瑞山柳氏。思菴文僖公十一世孫諱漢樞女。俱贈貞夫人。有一子國楨。金氏出也。國楨有二男。東穎東碩。一女權濟仁。東穎有一男。卽應洙是也。一女孫基永。應洙以三世遺孤。必欲闡揚先美。其臨歿。屬之國林。重言屢懇。於悒以逝。噫亦悲矣。有孺子年十三。就國林受學云。銘曰。

橫溪之上。師儒併作。墳箴相唱。講明絕學。維公及門。粵自成童。服膺師教。持敬飭躬。丁憂致哀。推至遏密。扇面八字。常目無忽。康寧好德。仁壽無疆。二品崇秩。三世恩光。堂斧峩峩。冠珮攸封。斲石鐫詩。永詔無窮。

晦屏先生文集卷之十一

行狀

故成均生員星巖朴公行狀

[]ITKMOXML | 복사 URL복사

朴氏始貫密陽。開國初。有諱碩輔。策勳封龜山。子孫因家焉。自是遂以龜山爲氏。歷五世而有諱惟寧。官正言。正言有孫參奉諱宗榮。於公爲祖。考諱詮。生員。有碩德懿行。鄉人立祠以享之。妣信川康氏。孝謹有婦德。公以萬曆甲戌正月十日生。諱文淹。字士中。幼而岐嶷異凡兒。比入學。聰敏強記。日誦數百餘言。十歲丁康氏憂。執喪如成人。甫踰成童。淹貫經史。通曉大義。聞惟一齋金^P先生彥璣講學于佳野之谷。與兄訓導公諱文潤。負笈往從之。金先生一見稱賞。許以大器。歲壬辰倭寇猝至。兵戈搶攘。時生員公年已七耋。遂負父入船巖山中。寄寓於冰發寺。築土室以安之。遂不避寒暑。出入溪谷。躬親漁釣。又得神鷹。獵雉以供甘軟。一日釣還。適值曠暮。大虎咆哮當徑。公不少動。從容諭之曰。爾雖冥頑。尚知所生。寧不恤我之有病親乎。遂舉魚串以示之。虎俯伏若聽。翻身以避之。倭兵蹂躪入山。雲霧忽起。白晝昏曠。不辨咫尺。倭錯愕相顧。遂引兵而退。亂甫定。奉親還故莊。里落蕩然成灰。蓬蒿滿目。惟明星洞水閣。此生員公^P所築。而公之所嘗釣漁處也。獨依舊自在。若有所相也。丁未。生員公下世。新經亂離。家室懸罄。公與諸兄惶惶叫叩。極力容辦。凡棺槨衣衾付身之物。欲必忤心無憾。送終諸節。一從朱文公家禮。不脫經帶以終三年。服既闋。忽忽無進取意。惟生員公嘗有遺命。故未敢自廢。黽勉應舉。中丁巳司馬。自是無意外慕。乃就明星洞水閣之側。結草屋數間。名之曰星巖精舍。充積書史。中容一榻以居之。日必晨起。盥櫛衣冠。入見家廟。退而焚香開卷。竟夕端坐。俯讀仰思。如是者十數年如一日。嘗有士友題其榻曰。泥塑坐。此可見其晚工之深而爲儕友所^P賞推重也。辛未。忽感疾危。遺書戒子孫。略曰。吾先君每語人先務。必稱孝經。小學。不肖雖未能服行。亦不敢放下。惟冀後孫爲學。必以此二書爲本。又曰。先君之喪。亂離纔定。不得致忤於心。先妣之喪。年尚幼。未能盡孝。此吾平生罪恨。我且死。勿用術家言。必耐葬先壙可也。以是年八月七日終。遂葬于舞劍洞先兆坤向原。享年五十八。公之生也。蓋以其資稟之雅。才性之敏。幼而承家庭之訓。長而遊函丈之門。墳箎齊唱。琢磨成就。修諸身而行之家者。不出日用彝倫之外。事親盡孝。始終無憾。居喪而有少連之行。當祭而致著存之心。其至誠感^P通之極。嘗令異物馴服。天神顧佑。猛虎低頭而避路。雲霧籠山而退賊。此固已奇矣。雖然。是亦有由焉。其學問之力。不可誣也。生員公既嘗以孝經。小學提授於家庭之間。則固已啓發其天衷。而及其長而從師也。生員公又有書貽人曰。某兒與其兄某。遠從賢師。存心實學。足爲老父之榮。死且何恨。金先生嘗語訓導公曰。卯君之資稟學識。求之儕流。不可易得。可見其服膺父師之訓。而未嘗不真實用力。隨事體行矣。故公之歿也。人有誄之者曰。公之學問。得之賢師而高明。公之誠孝。出於天性而動物。又有祭公文曰。嘗從先生長者遊。聽其評論^P則必曰君子哉。孝子哉。由是仰公如高山。此固爲公之實紀。而其言約而盡矣。雖然。公之嘗焚香端坐。白首潛究之工。或有蹊徑門路節度條理。可以垂示來後。得窺造詣。而家藏舊籍。并入煨燼。遺文若干篇。亦無一存者。至今百世之後。無由尋遡其遺蹟萬一。吁亦可恨也已。公娶金海許氏士人頤之女。賢孝宜家。有女史風焉。生一男二女。男慶後。女適士人李仁培主簿。洪昭。慶後有五男。允章。弘章。震章。來章。天章。允章三男。增華。長華。必華。弘章二男。履華。季華。震章三男。致華。就華。起

華。來章二男。信華，處華。天章一男元華。餘未盡錄。噫。公之歿今^P已百六十餘年。時代既久。遺蹟日遠。公之后孫相與慨然興嗟。恐遂湮晦。乃掇拾斷爛之餘。以公會孫增華氏所述行蹟一通。起華氏所錄遺事幾條。持而詣體仁。欲爲之撰次成狀。顧體仁。生也後。有不敢懸揣妄論。而慈孫之請。亦未忍終拒。乃据其行蹟遺事所載。而略加彙括以歸之。恐未足有槩於秉筆之財擇爾。上之十六年壬子孟春月日。鵝洲申體仁狀。

故處士活溪先生金公行狀

[I]ITKMOXML | 복사 URL복사

公諱震護。字古風。活溪其號也。金氏世居一善。因以爲氏。皆祖於高麗壁上功臣諱宣弓。入我朝。有諱完湜。^P開國功臣。義昌縣令。義昌有玄孫參奉諱壁。是爲公會祖。參奉有子引儀諱夢丁。是爲公祖。引儀有子生員諱蕃。號曰梅墩。娶商山金氏參奉諱蘭秀女。生二男。長曰震韶。號春庵。早卒。公其次也。梅墩公嘗從遊月川趙先生之門。得聞陶山之緒餘。學以主靜爲本。文以明理爲務。窮性命造化之源。則有天人二五之圖。寓修齊經綸之業。則有五箴八憂之著。敬義之說。又能發明存省之工。而沒身韜晦。養德林泉。研窮體驗。遂成家法。公以天賦之好。姿性之粹。固已不出門庭而服習至教。生甫十餘歲。能自志學。歷涉經史。通曉大義。嘗慨然言曰。人生^P世間。同賦性命。學不如孔顏。文不如韓柳。人而獸也。與兄春庵公攻苦家塾。晝粥忘食。如是者四五年矣。梅墩公慮其致疾。作書以戒之。及長。尤用力於主敬存省之工。言語以時。動止有則。雖當盛暑而必整飭冠帶。雖行庭戶而亦不以褻服。惰慢之氣。不設於身。淫哇之聲。不聽於耳。居家有禮。處鄉無怨。行之沒身如一日也。旁治學業。藻翰天成而屢試不得志。既又有病。遂決然謝棄曰。韓愈之窮。長卿之病。此命也。吾何庸憾憾焉。結屋南溪之上。取源頭活水之義而遂以爲號。怡然自得。講討經旨。時則有若崔石門，金陽灘，高樂齋，金浴潭，盧敬庵^P諸賢。皆以一鄉同志。來往從遊。琢磨成就。其趣尚之高。造詣之深。蓋有未易窺覷也。嘗謂敬者是一心之主宰。萬事之根本。聖學之所以成始成終。遂參之於大學而爲敬。爲大學宗旨圖。又係之以說。則其於三綱八條之無不貫之以敬。而爲知行體用之功者。可謂歷歷指諸掌矣。又謂誠者是天地自然底理。天地之所以爲天地。聖人之所以爲聖人。皆由於此。遂本之於中庸而爲誠。爲中庸樞紐圖。又係之以說。則其於達道達德九經之無不包之以誠。而極中和位育之功者。可謂燦然揭如日矣。又以繼述先志。發明家學爲己任。以先公所撰善^P州淵源錄。嘗見失於兵燹。而特爲之後贊以追述之。則如籠巖，冶老，丹溪，耕隱之高風大節。江湖佔畢兩堂之文章道學。無不表章歷叙。辭約義明。令人讀之。慨然有感發興起之志。以先公天人圖之有銘無解爲可恨。特爲之圖解五條。補其闕。其說蓋究極理氣之源。窮探造化之妙。以至性情之實。善惡之幾。未發已發。氣隨理乘之說。無不節約編揭。纖悉備具。以盡發其底蘊。又自以八樂之目。排列爲圖。而繼之以說。以附梅墩公八憂圖之下。而著相須并行之義。晚年尤邃於易學。本諸啓蒙。參以諸說。爲易象方圓圖。則其於二氣之闡關。五行之^P生克。象數之排布。節氣之運行。實總載一通而便於覽。又爲易卦參範疇圖。則其於圖書之相爲經緯。卦疇之相爲表裏。而爲對待迭運之妙者。實昭揭而無遺蘊。又爲掛扞過揲上中下三圖辨。而其排纂論著。最爲詳悉。則於陰陽老少奇偶策數之營變離合進退乘除之妙。可謂撮舉要旨。支分節解。而一覽即攷其所以殫心力闡微奧。而爲終有補於初學者然也。歲戊申。公又推爲一路疏儒之首。而自製其疏。以論覈湖南人高敬履之唱鼓邪說眩誣天聽。不并學李晦齋先生爲五賢。則其說又明白切實。辭理俱到。其略曰。臣等

以後生末學。孤陋蔑識。其於五賢。誠不知造詣之淺深。學問之高下。而使吾人知有君臣之義。父子之倫。不陷於夷狄禽獸者。無非我先正啓迪之功也。是故。無有遠邇。凡有血氣者。莫不仰之如青天白日。望之如泰山北斗。尊親之如七十子之服孔子。誰敢有異議於其間哉。近者湖南高敬履等四十人。敢以私臆。鼓爲邪說。乃於上章之際。只舉四臣而不及其一。初若不知有李彥迪者然。其心所在。固未可測也。臣等反復思之。其拈去李彥迪而不爲并稱者。祇是叔孫之毀日月。而又盛稱成渾。以繼四賢之後者。是特比惠卿於顏子耳。嗚呼。天之生大賢也不數。一千年之新羅。五百載之高麗。其間節義文章之士。可稱者非一。而能明性理之學。爲世儒宗者。獨鄭夢周一人而已。我朝人才之出。於斯爲盛。而其上遡濂洛之源。以續不傳之緒者。只有此五臣焉。若其著書立言。闡明斯道。開我後學。遺我準的者。惟李彥迪一人而已。故昔文純公臣李滉之狀其行也。有曰麗氏之末。以及本朝。非無豪傑之士有志此道。然攷之當世。實未盡明誠之實。稱之後世。又罔有淵源之徵。若五先生。自奮斯學。闡然日章而德符于身。炳然筆出而言垂于後。求之東方。鮮有其倫。此真不易之定論也。以五賢學問之精。道德之純。尙稽從祀之典。以孤士林之望。至使敬履之徒。得肆邪說於其間。以爲盛世之疵。或者天其欲喪斯文耶。何道之不行也云云。其後一路章甫。又請從祀五賢。而公又製其疏。其略曰。惟我東方。檀治已渺。箕範失傳。寥寥數千百年。未聞有真儒倡明道學。而幸賴皇天佑啓我朝。列聖相承。崇獎道學。人才之出。夙絕千古。卓卓然爲後人矜式者。有若文敬公臣金某。文獻公臣鄭某。文正公臣趙某。文元公臣李某。文純公臣李某。俱以間世之資。蔚然相繼而作。學究天人之精微。行全君子之純粹。非但爲一時弘儒。實百代之宗師也。臣等之必欲尊祀五賢者。非欲尊其人也。乃欲尊其道也。五賢之道。即孔孟程朱之道。而天地人物之所賴以全。叙秩命討之所賴以行者也。此道不傳則三綱淪九法斁。生民陷爲夷狄。而國不能國矣。所係豈不大哉。伏願斷自宸衷。謀及廟堂。講定縛禮。亟賜施行則斯文幸甚。治教幸甚。其所以別真僞抑邪私。而爲亦有功於斯文者然也。豈不偉哉。故當日遊從之人。莫不相與景仰欽服。極口稱頌。於其歿而葬也。各爲之詩文以誄之。有曰明珠出海底。皓月生雲端。此言其資質之美也。有曰主敬工愈篤。存誠德日新。此言其造詣之實也。有曰養心無累。反身不欺。此言其內省而無疚也。有曰萬古襟期。一身中和。此言其存中而著外也。有曰孝友今子騫也。氣節古邦衡也。固守之志。山岳如也。清素之操。冰月如也。又曰。桑樞無憫。簞瓢是樂。日八斗文章。三峽詞源。若此類不能盡舉。豈不足以傳信來世。垂示無窮乎。公之天性淳雅。不喜華靡。嘗以恭謹清儉四字教子弟曰。此吾家成法也。戒勿墜焉。此惟公之疏節。而亦不可不記也。公以隆慶辛未十二月二十七日生。萬曆乙卯五月二十六日卒。壽僅四十五歲。葬于善山府得益山庚坐之原。配驪州閔氏。生員宗孝女。事舅姑盡孝。享年八十一。生四男。曰培。以文學世其家。號玩睡。曰埤。曰堡。曰塾。培有六子。九夏，九成，九章，九叙，九功，九儀。埤有四子。九齡，九鼎，九容，九遷。堡有四子。九獻，九命，九就，九奏。塾有四子。九有，九牧，九澤，九河。九成又有季子善初。號慕華。亦繼家學。餘未盡記。嗚呼。世衰道廢。正學幾晦。陶山之徽躅已古。洛閩之旨訣難明。而惟公奮起遐隅。私淑自父。內受家庭之懿訓。外資朋遊之麗澤。慨然以斯文自任。而不求聞知於世。講究體驗。沒身不懈。迨其卒也。僅踰不惑之年。而學術文章。磊落可欽。有能上述先旨。下貽後昆。推其極。足以羽翼斯道而嘉惠後學。向使克有遐壽。得究大業。剛健篤實。輝光日新則其廣大精微之學。豈終止於是而已耶。公之歿。今既百八十年矣。時代已遠。聲蹟寢晦。陳編蠹簡。片片零落於箱篋之間。而莫肯有發揮之者。在公實德幽光。固若無所加損。而抑又係斯文之興廢。世教之隆替。有不得不爲之興吁。公之六世孫光滉。七世孫相發。賈公前後世稿幾冊。及公子玩睡翁所爲公行錄一通。謁體仁于錦淵之上。而托以紀行之狀。體仁以晚生末學。才識淺短。固無以影響公潛德萬一。而願以得窺古人爲學之規模。進修之節度爲幸。乃敢試取其

圖說。究之圈子。位置爛然星列。莫不各有祖述淵源。而抑其中不無一二可疑。然抑此恐出於後人傳寫之誤。而非盡公之手畢正本。此則必俟知道者。得有以訂正訛謬。而惟其大體已正。用心勤懇。令人奉玩。足以驗其力學覃思之至。非後人之所當法者耶。顧玩睡翁以公之親子。既嘗濡染觀感於家庭之間。而又克有文學。所自摭錄。必爲信筆無疑。遂一据遺稿及行錄所載。而略加敷演。序次以爲之說。世之秉文衡者。庶將有所攷信於斯文。而知所採矣。上之十八年歲甲寅正月下浣。後學鵝洲申體仁謹狀。

故通訓大夫鎮川縣監魯軒權公行狀

[]ITKMOXML | 복사 URL복사

公諱應生。字命世。安東人。魯軒其號也。安東之權。皆出高麗太師諱幸。世襲簪纓。及我朝。有諱輶。官判事。左議政文景公諱軫之弟也。始移居龍宮。有孫諱山海。號竹林。嘗以端廟戚里。同六臣謀事。事覺自盡。其弟司正諱壽海。收屍歸葬。全家坐徙延日。有子司直諱孝忠。又移居慶州安康里。是爲公五世祖。至三世有諱繼中。軍資監僉正。於公爲曾祖。是生諱德麟。文科郡守。號曰龜峯。早遊晦齋先生門。爲高第弟子。於公爲祖。是生諱士毅。參奉。配宜人雞林金氏。參奉諱熙之女。後配宜人廣陵安氏。慕濂堂諱胤祖之女。於公爲考妣。公安氏出也。公以隆慶辛未九月五日。生于密陽鎭浦里第。幼而岐嶷。不與羣兒遊戲。生七八歲時。能自劬書。不待課督日進。參奉公甚奇愛之。謂此兒他日。庶幾繼吾先人之業。吾可謂有子矣。長益軒豁峻整。儼然人望而畏之。平居待人接物。一出誠信。不以親疎或間。志節磊落。羞與流俗俯仰。逮壬辰倭亂。公年甫踰弱冠。聞鑾輿播越。與從叔梅窩公士諤。庶叔梅軒士敏共扼腕雪涕。謂吾家受國厚恩久矣。豈忍偷生。不肯死國事乎。遂倡義旅。往從郭忘憂于火旺山城。合陣討賊。其籌畫方略。蓋多公協贊。又與諸義將會盟公山。有火旺同苦錄。及公山會盟錄可攷。丙申。丁參奉公憂。避亂窟谷。不遑寧息。而殯葬祭奠。猶一依喪禮無憾。奉慈夫人極其誠孝。遂以命應舉。中乙巳進士。壬子。以剡薦始受寢郎。轉直長奉事。丙辰。除平丘道察訪。時昏朝政亂。彝倫敦絕。公赴任未幾。棄官歸家。無意仕進。乃與一道摺紳章甫。爲永昌聯名抗疏。極論力救。人皆踴之。及癸亥改玉。卽除北部主簿。遷司憲府監察。俄拜鎮川縣監。蒞縣一年。闔境稱治。自上特賜東醫寶鑑一帙以寵嘉之。公嘗於昏朝時。與承旨黃姓人爲姻戚同年。黃方當路登庸。一日以書來。要與同事。公遂草絕交書。并其書還之。爲黃心腹相附者。莫不嗾之。至是公以縣官。應別舉對策。論時弊。既登第。見拔。蓋以前日嗾公者掌其試也。公雅少宦情。遂解紱。歸凝川別墅。絕去名利。與聲漢孫公起陽。趣味相孚。契義甚密。且與一境同志。設爲鄉約。一依藍田遺法。條列成案。月朔興行。士友泠然信從。既又返安康舊庄。日以書史自娛。愛兄江水石之勝。臨湖築亭。名曰兄江精舍。來往垂綸。優遊取適。又自號以綸巖。與士友共議修鄉約。一如在凝川時。公嘗受業于旅軒張先生之門。篤志勵學。先生深加獎許。俾述東京誌。得徵古都文獻。又結爲孝悌忠信稷。要與共勛。先生之晚棲立巖也。公既送三子受學。及易簣也。特致力於編輯遺文。立院尸祝等事。惟恐不逮。又嘗往遊寒岡。愚伏諸賢門下。隨處觀感。得力益深。又與樂齋徐公來往質問。特見稱尙。其所與交。皆一時名勝。在鄉。與大庵朴公惺。守庵鄭公四震。雙峯鄭公克後。契分最厚。在洛。與東岳李公安訥。碧梧李公時發。白江李公敬輿。結爲知己。迭相往復。而於疎庵任公叔英。其相許特摯。至令其仲子受業焉。故其始終德義文學樹立可見之行。蓋自由尊賢樂道師友講劇之節。而得以成就。豈惟其生質之美。家學之正而已哉。故其居家則內外斬斬。必以敬章別爲務。其處族則敦睦怡悅。輒以勿墜先業相戒。奉先則一遵晦齋奉

先雜儀。謂吾先王考之所嘗受諸師門者。而惟恐或違。教子弟則必勉以餘力學文。而特戒慎言。雅性不喜芬華。嘗營仲子婚。疎庵爲媒。公以書遺之曰。京洛有資者。多尚世俗觀美。吾不願也。吾之素志。惟在古人云云。故凡前後男女嫁娶。不欲與勢家結姻。而惟取清素舊族。於此亦足以知其所守也。仁祖丁亥十月二十三日。以疾終于寢。享年七十七。始葬慶之杞溪縣駕川里山幕洞。後再移葬。末乃還窆于杞溪舊壙上負亥原。公平日所著詩章及師友答問往復文字。不幸^P并入灰燼。無以詳其從師問學規模大略。及心法精微。而惟一代諸賢所稱述傳誦。有足可據。任疎庵贈公詩。有曰惟有竹枝秋後色。可堪持贈別離時。此蓋許公志節也。蒙庵李公塚爲公精舍序若記。略曰。眠風櫺躡露鳥。頂岸華陽之巾。披荒逕理石田。手攜陶令之杖。銀萼玉膾。專管張翰之風流。白酒黃花。遠繼孟嘉之芳躅。又曰。主盟魚鳥。惟適之安。浴乎風乎而爲點也詠歸之樂。憑虛御風而爲蘇仙泛舟之遊。此蓋稱公晚年高致也。樂義齋李公訥倡義錄中送子書。云權某。嶺外道學之士也。臨亂制敵。必有籌策。往問術焉。鄭雙峯侑公文。云^P領袖儒院。士林肅穆。振舉頽風。一邑敬服。其他諸公書牘輓誄。舉以岳精奎彩。文章德業。立幟斯文。模範一世等語。更相推許。觀於此。蓋將彷彿公萬一。至今百載之下。足令人想像興起。知所欽尚。其一生全體影響。亦豈不當由是可尋耶。淑人驪江李氏。參奉謹齋諱慶弘女。承旨今是堂諱光軫孫。閩範夙著。先公六年以歿。與公合窆。公有三男。曰炆。通仕郎。曰炆。參奉。號退庵。曰燾。通德郎。有三女。適朴文起。金時顏。朴協。側室有二男。曰默。僉知。曰烈。通仕生三男。垓^邨。垓。參奉生五男。仲均。仲坦。仲屋。仲培。仲增。通德生三男。曰塾。武科。曰奎。曰壘。垓生^P慶昌。邨^邨生慶祉。慶錫。慶泰。垓生慶億。仲均無子。以慶祚爲嗣。仲坦生慶禧。慶祚。仲屋生慶徽。仲培生慶遇。仲增生慶鉉。慶銓。塾生慶欽。奎生慶命。壘生慶後。慶遠。慶昌一男瀾。以慶祉孫相宗爲后。餘不盡錄。公之六世孫達煥。訪余于錦洲之上。謂其先祖下世已經數百餘年。文蹟蕩然無存。狀行之作。尙未屬筆。願執事之惠一言也。自惟固陋蔑識。衰病沈淹。固無以堪承是役。而既辱謬懇有難終辭。謹据其所來文籍。而妄加彙括。略爲序次如右。後之秉筆君子。庶或有攷信裁擇於斯文。上之三年癸亥季秋月日。鵝洲申體仁謹狀。

[주-] 眠 : 眠

故朝散大夫司穰院參奉退庵權公行狀

[1]ITKMOXML | 복사 URL복사

公諱炆。字和叔。姓權氏。系出安東。高麗太師諱幸之後。至本朝有諱軫。官判事。判事有孫司正諱壽海。坐兄竹林公諱山海。爲莊陵辦節。全家并徙延日。有子司直諱孝忠。又移居東都。於公爲六世祖也。曾祖諱德麟。官郡守。以晦齋先生門人。學有淵源。後人立祠以享之。號龜峯。祖諱士毅。參奉。考諱應生。官縣監。號曰魯軒。師事旅軒張先生。風流志節。爲一世所推重。妣淑人驪江李氏。參奉諱弘慶之女。承旨諱光軫之孫。公以萬曆庚子九月十六日生。資稟清粹。氣象凝重。自知讀書。孜孜^P不怠。年甫志學。隨魯軒公遊宦。往在京邸。疎庵任公叔英與魯公心契最密。見公異之。欲爲之教訓成就。公遂往學焉。服膺師訓。奠信敬受。無敢或懈。時昏朝政亂。疎庵退居廣陵江上十餘年。與李東岳安訥。鄭玄谷百昌。李澤堂植諸名公。道義相孚。講論名理。公周旋其間。觀感興起。日有進就。及其南歸也

疎庵作序以贈之。特許公博學明辨。志行才氣之高。至以終接武於間世豪傑相期也。及疎庵卒而不幸無嗣。公行心喪之制。主其喪祭。哀集遺稿。就正具眼。校讎鋟梓。又立石表其墓。聞者多之。既終制。卷而歸鄉。益尊所聞。篤志勵學。事親盡孝。承顏順志。溫清甘旨。靡不用極。壬午冬。丁內艱。哀毀過人。既服闋。薦授司穉院參奉。未幾見遞。丁亥丁魯軒公墓。執禮致哀。一如前喪。自是絕意仕進。隱約自守。惟以退養爲務。扁其室曰退庵。以寓其志。居家日用可見之行。自有成法。處閨壺以禮。友兄弟盡歡。尤致謹於奉先之事。嘗謂今人多自處廣廈而奉先靈於僻陋小室。非人情所安。遂告伯氏。改立家廟。一遵家禮制度。又嘗營立累世墓碣。伐石既具而未及豎。後人藉而成其志。又特明於譜學。國中士大夫家族系派脈。無不洞曉。人稱肉譜。儀範儒林。扶植鄉風。多有所裨補。爲文章。平易明暢。自成一體。後生時嘗學爲舉子業。不待鍊琢。自中程式。儕流皆以爲不及也。以甲午九月十四日歿。享年五十五。葬于杞溪縣道洞壬坐之原。配令人全義李氏。儀賓都事贈左參贊諱考俊之女。文科節度使贈領議政諱濟臣之孫。貞謹得婦道無違。後公十二年歿。祔葬公墓。公有五男一女。男曰仲均，仲坦，仲垕，仲培，仲增。女適金世基。側室二男。曰胤李，仲址。仲均無子。以慶祚爲嗣。仲坦生慶禧，慶祚。仲垕生慶徽。仲培生慶遇。仲增生慶鉉，慶銓。金世基有四男。以鉉，以鉉，以鏡，以鈞。餘不盡錄。於乎。公以世德之懿。家學之正。胚胎前光。服習庭訓。既又樞衣於當世大匠之門。得以親切承誨。且如一時儕友如李海昌，姜與載，趙壽恒諸公。同門受學。切磋琢磨。天若假之以年。俾究其業則其志行文彩之所以表顯當時。垂示來後者。必不止此。而奄忽中途。壽未稱德。其平日所著文。又不幸見燒於回祿。無以得徵其影響萬一。爲后孫者。固將相與興嗟不已也。公之旁后孫達煥。嘗請魯翁行狀。而且以公實紀賈來。請并惠爲狀。自惟衰病。固無以輒應所懇。遂一依本家文字而略加刪潤。別無增益攬改。惟冀尚德者知所裁取焉。歲在癸亥季秋下澣。鵝洲申體仁狀。

故寢郎篋叟鄭先生行狀

[]ITKMOXML | 복사 URL복사

先生諱葵陽。字叔向。號曰篋叟。鄭氏系出烏川。鼻祖諱襲明。高麗樞密院知奏事。以毅宗師傅。直諫而死。事在麗乘。其後簪組相承。至諱仁彥。官判書。有子諱光厚。仕本朝至冬官卿。歷二世而有諱從韶。捷重試。文章節行。爲一世所重。又二世而有諱允良。參奉。遊退陶先生門。有學行。是生諱世雅。號曰江胡叟。壬辰倡義。讓功入山。後累贈至兵曹判書。諡剛義公。是生諱安藩。副司果。於先生爲高祖。曾祖諱好仁。文科帶方伯。祖諱時行。務功郎。考諱碩胄。成均生員。妣義城金氏。進士諱邦烈女。瓢隱先生諱是楹孫。以顯廟丁未四月二十九日某時。生先生于永川大田里第。先生生而天資英敏。儀容清秀。六歲始受學。凡有教授。輒能曉解文義。日夜誦讀不輟。未數歲。能屬文聯句。語輒驚人。歲丁巳。年十一。致書于再從祖主簿公曰。今國家多憂。願叔祖南伐倭寇。北擊匈奴。作萬古忠臣也。主簿公大異之。答書勉讀書。時叔祖鶴巖公隱居修行。先生與伯氏墳叟先生。共往受四子。鶴巖公見先生兄弟質美才高。每語之曰。近來俗學壞人。汝曹雖不免隨俗應舉。而惟先定趨向。整理本原可也。因著訓誡之說以貽之。先生常佩服自省。無敢少懈。既成童。遍讀諸經史。見解志業。日大以廣。傍治舉子業。爲詞賦論策。不待究思。操筆立就。丙寅赴別試鄉舉。考官以理氣發策條問甚夥。老師宿儒。皆愕然罔知攸對。先生援據古訓。歷歷論陳。考官覽之驚歎曰。此英材也。揀置異等。卒見屈南省。先生不以得失爲念。益專意向上。庚午夏。遭外艱。先生宿疾恣瀆。往往危劇。猶嚴謹持禮。不以疾病

少懈。壬申闕制。奉慈夫人入母子山中。卜居于小隱洞。爲攝養計。一日閱心經。忽覺汗出沾衣。遂作詩以自警曰。赤子初心堯舜如。皇天昔日降衷余。齊山久被牛羊牧。神舍還爲盜賊居。二十餘年長醉夢。三千儀禮卽籛條。如今始覺工夫在。晚向荒田強把鋤。常沈潛反復。未嘗釋手。人或誡之曰。積年病瘁。刑精書冊。無乃有傷損乎。先生曰。治心實爲養病之要。寧有損乎。族父涵溪公來訪信宿。與之談論。大悅曰。君之有志大業如此。疾病困厄。無乃庸玉汝于成乎。自是謝棄場屋。絕意名利。專精講討。望實漸隆。門內子弟及鄉間後生之問業請教者。稍稍來集。先生愛山中水石之勝。爲作小窩于溪上。名之曰觀物。日夕寢處其中。講究體驗。時葛庵李先生自愁州移配晞陽。先生特致長牋。質問性理書數十條。李先生見書稱歎。謂見解之博。當世所罕。逐條報答。往復辨論不已也。戊寅秋。挈家還大田故庄。己卯春。奉慈夫人避痘。先生忽發癩。未幾慈夫人又繼染。竟至不幸。先生椎擗仆地。絕而復甦。三年不脫經帶。辛巳。又挈家入尼南山下。卽橫溪也。一區林壑窈窕。水石特佳。乃作小齋于臥龍巖北。以溪名近於橫渠。取張先生遺語。扁之曰六有。因作六有圖。揭壁以自警。又築小窩于紅流潭上。爲其樸陋而名以太古。造小艇泛之。或月夜攜琴。或帶雨被箬。鼓柁上下。令冠童誦漁父詞。赤壁賦以聽之。塤叟先生亦以時來往留處。與共講討。丙戌。塤叟先生又挈家來會。與之日夕湛樂。聯床共被。於是取周雅常棣八章。爲伯仲倡和之資。次列塤箎新舊圖。而自述古體三章以係之。凡有所唱酬。次第收錄。名曰塤箎錄。其他記述及與知舊門人問答并附焉。因合手爲序以弁之。凡諸生來學者。亦輒遞誨分教。以小學家禮爲先。次及四子諸經。待其熟複而後令讀史傳。生徒日益多聚。溪舍不能容。遂與塤叟先生。扞高山社于高密谷中以處之。又營建玉磣亭。并手作小記十景諸詠。遠近士友爭相賡和。名之曰玉磣唱酬錄。且以高山陡絕。學子來往甚艱。遂更拓址於太古窩北。作數楹茅屋。扁曰進修齋。揭朱子白鹿洞規及十訓敬齋箴。又自著學規十數目。令生徒逐日展讀訖。行相揖禮。月朔齊會設講。以驗其志業勤慢。仍行鄉飲酒投壺儀。且依張南軒答謝夢得書意。作上醫治心丹。又爲敬學淵源圖。俱有小說。與塤叟先生。參攷禮書及諸賢文集。編成改葬備要一卷。又嘗謂古今疑文變節。枝分葉繁。曾子問一篇。不足以盡其變。與塤叟先生逐條論辨。以家禮爲綱而附以經傳註疏及宋儒東賢諸說。各以類編。名曰疑禮通攷。又作居家節目三十餘條。自識其下曰。凡人居家之節。自有司馬溫公書儀。而貧富堂室之異。古今時世之殊。不能無難行者。且自家身心上工夫。元未拈出。此正疎略處也。茲敢量宜裁節。爲家間日用之科。亦足爲治身正家之一助云。甲午秋。繡衣以隱居求志。博通經學。所見精深等語褒啓。及還朝。又特陳啓。極言先生學術之正。行誼之高。上特命收用。除顯陵參奉。洛中知舊多貽書勸起。先生笑曰。吾若有意於世。自當不廢應舉。况此鹵莽者。本無爲善之實。而聖朝誤聽而收錄。是欺君也。方此愧忸之不暇。尤何敢承當哉。遂辭疾不赴。後有京居一士人來訪留宿。勸之仕。先生笑不語。特以詩示意。詩曰。有人來訪我。無語坐溪濱。莫侑觀音肉。偏嫌老媪娠。蚊肩要海岳。蛛腹訝經綸。豈若吾天爵。修來自潤身。嘗聞中國有難。擬上疏請北伐。既又自解之曰。以范文正公責止橫渠上書擊遼之義推之。此非布衣所宜言。乃卽自止。戊申。逆變猝起。先生聞之。奮然垂涕。與塤叟先生議曰。吾輩雖隱伏草莽。不可坐視國難。况梟獍近出吾嶺。此嶺人之恥也。豈可與此賊頃刻俱生乎。遂共草檄文。其略曰。國家三百年休養之餘。逆豎忽起。稱兵犯順。震驚君父。危撓宗社。此實古今所未有之變。凡食毛含生之類。孰不沫血奮拳。思欲食其肉。寢其皮哉。不佞等。非但愛君憂國之心出於秉彝。壬丙之亂。吾先祖及鄉父老。相繼舉義。家庭之間。不無傳述興起之端。敢此不自量度。妄欲與同志者併力相議。爲國效義。伏願僉君子同聲相應。從速赴義。生爲烈士。死作忠魂。勉之勉之。入郡學。召集境內儒生。應募者幾至數百人。推先生爲義兵將。於是收兵聚糧。又通諭於道內列邑。將指日赴敵。尋聞賊奴已就擒。遂罷會而歸。作詩以寓志。詩曰。幾年林下戴儒冠。此日提戈擬討頑。休把

商山較出處。歸來故壑卻駢顏。大田里。有故李公諱甫欽。號大田。嘗與錦城大君謀復魯山。被極刑。墓在郡北。先生特爲文以祭之曰。後學鄭某以首陽枯蕨。栗里黃菊。敬祭于大田李公之墓。嗚呼。扶天大義。貫日精忠。一片青山。萬古冤血。永人尙相與傳誦不已也。庚戌夏。墳叟先生寢疾危劇。先生泣請曰。昔康節臨終。伊川有問答語。能記起否。墳翁答曰記得。仍與之訣曰。吾與君共理斯學。未究業而死。世道之責。君其勉之。先生泣曰。蚊何以負山乎。七月。墳翁易篋。先生號痛欲絕。殮殯諸節。皆準禮盡誠。既葬。收拾遺文。編摩繕寫。自是不復入玉礪亭曰。吾與先兄。數十年共被聯案于此。今則兄不在矣。吾何忍獨處。遂居宿于六有齋北小室。取衛武公抑戒之意。扁之曰懿齋。遂抄抑詩中要語。爲懿齋詩。仍著座右銘數十餘目。揭之壁上。朝夕觀省。先生嘗與墳翁致書于丁愚潭。論士君子出處大節。又共致長牋于明齋尹公。論性理禮家諸說。多有所相發。尹公欣然敬服。人或誡之曰。近世東西分黨之後。物色齟齬。今公之事。雖出於公心。而未俗諂諂。無乃招人唇舌乎。先生笑曰。後世朋黨之習。本非大君子中正之道。況此老屏跡山林。無與於世。吾輩亦山人。不談世事。只談義理。何傷也。晚年充養積久。德器渾然。士林望之如喬嶽。登門受業者百餘人。往來質問者。不可勝數。道伯嘗以朝命。書問戶布游布結布口錢便否。先生條舉以答之。略曰。我國所謂兩班。自殷太師以來已有之。國家之倚以爲元氣者。毋論未仕與已仕。閭閻之賴。以爲維持者。毋論不學與能學。居處之養。持身之節。與阜隸迥然不侔。一朝忽以良役之故。驅以爲正軍之保。則畢竟猾吏爲刀。士族爲肉。鞭朴狼藉。隣族不保則無知走卒。雖有些誦。而有識章甫之心。舉皆惶惑。將至於巷議街談。家騷戶屑。士族子弟。設或有不學浪遊者。何從而別之。若非士著者則朝來暮散之輩。又何以徵其布也。戶布口錢游布三者之不便。據此可驗。若夫結布則猶爲彼善於此。凡徭役之無名者。易致謗怨。而有名者雖或有過當。其怨不長。伏惟裁處幸甚。道伯趙公顯命。以書致問曰。適幸忝按茲道。近被休光。先將薄物。謹行古人執贄之禮。未幾。因巡到本郡。以單騎來訪。講質大學近思錄諸書。及歸。至中途寄詩曰。橫溪處士閒無事。莫笑塵埃役役人。不有皋夔經濟術。政難安頓瀨箕人。傍近守宰亦皆來訪。或留贈詩章。或講問經義。或遣子弟請學。先生率以禮相接。披心腹以應之。而至於干請之事。未嘗以絲毫相及。凡於辭受之節。特審禮義裁處。花山宰嘗聞先生患病。送藥物米斛以問之。先生曰。窮山跽伏之人。坐費公穀爲未安。遂辭米斛不受。而只受藥物。地主又爲先生特蠲減戶役。先生以書辭之曰。庶人在野。往役義也。若或寵而異之。則誦劣本無可取。或憫其窮窶。則四境皆窮民。安得人人而不役耶。乞速還寢。以安賤分。道伯卿相之前後薦擬。亦不謀相繼。始者繡衣旣薦。除寢郎不起。而越歲辛丑。銓曹又特擬璿源殿參奉。又擬咨議教官而未蒙批。道伯朴公文秀。銓長宋公寅明。右揆趙公文命。皆請超授六品。以慰士望。道伯趙公又陳疏特薦曰。永川人鄭某。勤經習禮。充養有素。忠信博厚。頗有德器。請檢用除職。使道臣守令敦勉勸起。時時召見。講問經旨詢訪治道。如明宣朝故事。則庶有旁招之實效云云。上溫批答之。書姓名於御壁。而令該曹檢議。至先生既沒未葬。而銓曹又陞擬冰庫別提。可見其德盛望重。秉彝同好也。先生蓋於壬子夏。避瘟在於谷。忽感疾危劇。道伯趙公致藥物問之。先生飭子弟。謂更勿煩公也。疾既革。精神猶不亂。口號自警箴題壁。遂於六月十五日戌時。使子一珪正席而終。享年六十六。門人鄭重祿，鄭榘，鄭梯，曹龍翰等。以先生平日所著深衣幅巾。襲斂如禮。題銘旌曰徵士篋叟鄭公之柩。從遺意也。既成服。遂奉柩殯于懿齋。道伯趙公聞之驚歎曰。此老存亡。實係嶺運盛衰。遣營吏護喪。致賻襚特優。遠近士友。亦多爲位聚哭。冬十月。葬于新寧縣東新村里負卯之原。操文致酌者。連日夜。未已。本品校院及隣鄉學宮奠儀。亦相續不絕。先生蓋以其才資之美。志業之大。勃興於叔季淆澗之時。伯仲同德。墳篋迭和。夙夜講討。卒成大儒。以倡明絕學。興起斯文爲己任。其門路趨向之正。未嘗不始自鶴巖公發之。而鶴翁之受於家庭者。實有所本於慕堂孫公。慕堂孫公實有

得於寒岡鄭先生門。其淵源所自。自有端的可驗。而又嘗講訂於海岳魯城。益聞大方之說。與李密庵，金霽山，曹屏厓諸賢。道義相磨。一時師友之助。於斯爲盛矣。故先生爲學。規模^P甚廣。節度甚密。未嘗不一循成法。主敬以立其本。窮理以致其知。力行以踐其實。蓋欲以一心而管萬物之衆。以一身而應萬事之煩。期於必究極推致。委曲周盡。不欲以一善一藝成名。而必要盡學全體得做。豈後學之所敢容易擬議者哉。先生之於墳叟先生。蓋與兩程相似。其工夫之嚴密。旨訣之精微。未始不相與發明。迭爲證左。而先生嘗撰墳叟先生行狀一通。有道之言。嚴謹切實。表裏精粗。備述無憾。若以此反隅於先生。而究其實。則乃亦莫非先生事也。雖把作先生實紀看。亦可也。先生不喜著述。其中年以前所嘗哦咏者則先生既自^P謂涉於詞章。不可示人。以筆抹去之。其餘所存書札詩文雜著。已合載爲墳篋錄。而共爲數十卷。所編有大學筭錄。改葬備要。疑禮通攷。二書實兩先生所共編輯。而通攷猶未卒業。心經質疑。啓蒙解疑。是墳翁所纔始手者。先生續而成之。配仁川李氏教官諱碩馥之女。察訪諱雲吉之孫。先生無子。以族弟重祿之子爲嗣。卽一珪也。一女適士人趙麟經。一珪生二男。曰東範。曰夏濂。出后本生家。二女適金學傳，張壽淵。趙麟經生二男。曰錫龍。文科承旨。曰錫鷹。二女適生員黃啓熙，李挺甲。東範有二男。台煥，台攝。二女適洪灑，李宗標。夏濂有二男。啓^P休，再休。一女適徐惟馨。台煥二男。龜齡，鶴齡。皆早夭。二女適李鼎九，金升教。台攝長男必虔。餘幼。啓休一男裕壽。一女適權致殷。再休一女適李聰發。先生歿後。至今經七十餘年。而狀行之作。尙未屬筆。日。先生之曾孫台攝。以體仁嘗僭校墳篋錄。獲悉先生始終。冒寒來訪。囑其必編述成狀。自惟末學毫荒。神思短乏。固不敢冒昧承當。而謬囑勤摯。有未得終辭者。乃敢以梅山令公所著行錄。及先生嗣子所編年譜爲原本。略加隱括相準。裁取僅成一篇如右。恐無以發揮實德萬一云爾。上之七年丁卯孟夏月日。後學鵝洲申體仁謹狀。

[주] 益 : 益

密城孫公行錄

[1]ITKMOXML | 복사 URL복사

公諱守曾。字聖一。世爲密城人。有諱順至孝載東京誌。是爲公鼻祖。有諱英濟蔚山府使。有德行載東城誌。是爲公六世祖。有婦人張氏。當壬辰之亂。抱二子投厓死。烈旌閭。載密城誌及續三綱行實。是爲公五世祖。妣。有諱昌祖。諱碩輔。是爲公會祖。有諱萬玉。孝友能文。屢發解。竟屈省試。人惜之。娶碧珍李氏。是爲公考妣。公以戊寅十二月八日生。幼有至性愛親異凡兒。年十六遭父喪。哀毀踰制。隣里見者。已目爲孝。公猶自謂幼未盡禮。有述懷文。辭意慘苦。有不忍讀者。竭誠事母。晝夜^P不離。出戶如廁。必扶持。滄滄甘毳之供。必親爲之。承順慰悅。靡不用極。母夫人年老無聊。惟喜聞古語。公每出。就人搜古語。得奇怪神警可聞者。一一歸誦。或作小兒戲以資權笑。如古人弄雖然。嘗侍疾。嘗糞甜苦。以驗差劇。湯藥必先嘗。憂慮過常。不甘眠食。一日雙鬢忽白。歲癸亥。母夫人以天年終。公時年五十有六。號慕如孺子。欲以其未得盡於前喪者盡於後喪。既葬。廬墓側。屏婢僕。獨許二子來炊。留弟守几筵。每於殷奠來哭。奠畢還廬。繞墓號泣。以終三年。風雨嘗掀。廬幾不免摧壓。公強二子歸村第。獨坐哀叫不已。風雨尋止。盜夜來穿廬。欲^P劫掠。公泣諭之曰。空廬無物。穿將何爲。盜愧而退。絕不復來。公嘗植松於墓。鬱然成林。樵人相戒不忍斫。既闋制久。猶不著華彩之衣。

平居對人臨食。往往觸感起慕。嗚咽流涕。夜夢譫嚙。或發聲叫泣。蓋不忍頃刻忘親也。歲戊寅十一月二十八日疾病。告家人曰。吾生已六十有一年。死無恨。卽易服就枕。悠然而逝。明年正月。葬于磨義禮之山。祔母夫人兆下。又遷公之弟墓窆其下。從公遺命也。公天性醇慤。不喜浮麗。治家有緒。待賓友甚款。於貨利不苟取。州倅嘗與公善。遺隱結。公正色曰。斯無義。亦非府所得私也。遂以券付諸吏。倅憮然稱賞曰。P不可及也。倅又濟人溺水。欲代薦公名。署活人階。公笑曰。吾寧假手取武科耳。倅不能勸。有逃奴八九口。冒驛案爭訟。當推者置不問。凡平日言行可觀。非獨於孝也。密人嘗服公之行。發書相告曰。卓然之行。不可使之無聞。遂詣府交請。以告方伯。必欲有以旌顯也。竟未上聞。密人至今恨之。公娶昌寧曹氏。生四男二女。男長克胤。爲公從兄后。次克孝，克明，克祥。孝與祥卽炊于廬者也。女長適申□□無后。次適朴燮後。公歿三年。公之諸胤既畢公之喪。草成行錄一通。并賈鄉人薦書。囑體仁爲狀。體仁竊惟公之事親。可謂養則致其誠。喪則致其P哀者矣。諸胤之必欲狀而傳之者。不亦宜哉。遂不敢辭。略加採次如右。後有君子。當覽而裁之。辛巳孟春下浣。鵝洲申體仁謹狀。

成均生員李公行錄

[1]ITKMOXML | 복사 URL복사

公諱臨厚。字兢如。全義人。高麗開國功臣大匡大師諱棹之後。朝鮮戶曹典書諱丘直之十二世孫。兵曹參議諱之華之玄孫。碧潼郡守諱時格之孫。考諱益馨。娶縣監洪萬規女。以己卯十一月七日生公。己酉中司馬。公生而風範秀偉。天資溫雅。與羣兒遊。同遊兒爪攫頰出血。公笑不怒。己以有量稱。長益忠信厚重。與物無畦畛。P孝友出於天賦。輕財好施與。務濟窮乏。知友愛悅敬憚。稱爲君子。九歲遭父喪。哀毀如成人。及葬。諸父憫孺病。不許隨輦。公椎骨頓足。母夫人命奴負詣墓。繞穴叫叩。有不忍目者。朝夕親監奠具。婢僕有不謹者。輒警之。事母夫人。晝夜侍傍不少離。出行必告歸。限前期反面。凡遇飲食。母夫人有未及嘗者。不自口。承順權養。靡不用極。隣嫗每戒其子不順曰。若不見李上舍乎。何獨違吾志也。母夫人嘗病痢屢月。公衣不解帶。湯藥嘗糞。洞洞屬屬。終始不懈。滄瀡滋味。極力求致。雖號爲富貴家。不能躡也。及遭變。殮終諸節。特致審慎。不以哀遽自亂。既P殯。冒寒守柩。霜露透體。不暫就溫室。祔葬考墓。先期啓舊墓。拚和號絕如始喪。設兩殯于山。叫泣守奠。時冬雨連旬。且山中豺虎晝嘯。人共危之。公不暫避。季父節度公握手哭曰。吾兄與吾嫂有靈。謂若何如也。吾寧共處此耳。公不得已隨入村第。坐經夜。雞鳴還次。葬時。躬起取土。塗穴填補空罅。役者感赴爭先。無敢懈者。居喪無違禮。三年不見婦人之面。盛暑鬱燠。不脫經帶。喪畢掃墓。血淚輒沾襟。臨祭沐浴齋戒。克致誠敬。公嘗祭墓還。婦許氏家送魚鮮。未及薦墓。公不忍食。許氏亦不食。盡以饋人。母夫人嘗嗜雉。祭必求薦。一日臨忌祭。恨未得P雉。忽有飛雉來入家廚。聞者異之。處兄弟。不私貨財。許氏家嘗遺公金三百。欲買宅。公盡爲兄宦遊資。臧獲器用無物我。內外上下化之。一惟其意。嘗與二兄共遘痘。二兄俱不救。公獨全。傷痛幾不保。以親在故或不形于外。而往往低首暗涕。跼縮含悲。頭容因偏欹。及葬二兄。適大侵。孤俱幼。公竭力營窆無遺憾。嘗有許氏家所遺錢。盡取爲二葬費。不問多少。後二兄家償以土。公歎曰。乃兄弟死生間事耳。豈宜言也。二家曰。此本許氏物也。與家財自異。且各不貧。足以償葬費。不必然爾。公不得已擇荒薄略受之。婦家亦聞而義之。嘗於母夫人不安P時。叔父母又病訊。公晝夜來往救視無間。叔父母既皆不幸。初終斂窆。主辦無憾。撫諸孤姪如己子。嘗捐財邀師教之。姊甥柳公沃。貧無以養親。公給土田俾資菽水。告乏輒周之。甥女適人貧甚。公捐

百金以助。有田在晉陽地。春秋船穀而至。公或躬往。遇親友窮乏者。輒散與之。到家必分濟族親。下及僕隸。公故友鶴洞李公師勛。文士也。貧不赴京試。公製衣具騎從資之。或出遇行乞寒餓。辦衣食救之。歲辛壬大饑。丐兒填街巷。公設粥賑之。如是者累日。奴有善盜竊者。一日公使之附鼎于竈。是夜失之。知奴必盜之。夜召密諭。翌朝奴還鼎。因不斥^P出之。任使如故。奴感其意。終爲良民。歲戊申。朝家討賊亂捕四出。朝野重足。公方坐語在家。忽有金吾卒急來升堂。問之曰。李上舍爲誰乎。坐者無人色。不敢指告。公坐不動。徐語之曰吾也。胡爲問。卒曰信然乎。公讓之曰。士夫有言。奈何不信。卒謝曰。聞公知名南州。欲一見之。果然爾。吾方押賊累去。顧穉幼寒無衣。恐道斃。知公有急義。遂欲乞衣也。公又嚴讓之曰。顧今何如時也。奈何驚擾里閭也。遂略施之。聞者偉其事。謂有定力難及也。公平生。不事生產業。一以信義爲務。家無留粟。身無餘衣。或爲公勸稍節之。公笑曰。吾不忍吝畜財穀爲守^P錢虜也。見士友有文雅行誼者。輒樂與之交。久而能敬。歲丙辰。公有處變合義者。知者嘗賢之。越四年己未十一月十八日歿。享年僅四十一。歿之時。全義氏一門內外老少。皆怛然泣下。謂蹶棟樑。姻親儕友相與悲曰。善人亡矣。豈不惜哉。許氏籍金海。父諱輔。家甚富厚。生長豪華。及歸公。漸就實約。篤於孝友。亦公導之也。後公幾年歿。祔葬公墓。墓在星州羅亭里某向原。公無子。以仲兄子柏臣嗣。一女適申宅仁。柏臣無子早歿。嗣曰楨。一女適朴某。申宅仁有二男二女。男長翼之。女長適李某。餘幼。公之從子松臣氏。乃楨本生父也。後公歿幾年。亦^P早歿。嘗哀公志行湮沒。及其病且革。伏枕草成行蹟一通。召申翼之付囑體仁曰。我且死。若必持是錄。誦吾臨絕語往懇之。得有所編述。使季父志行粗明。吾與若共無恨也。未幾死。翼之於體仁。從祖兄子也。一日。遂誦松臣氏之言。袖錄來請。體仁遂不揆愚妄。略加隱括以還之。恐無以發明萬一云爾。

大山先生言行總錄

[1]ITKMOXML | 복사 URL복사

先生生而天資穎悟。志尙超凡。生在叔季而慨然以斯道自任。起自科目而蔚然爲一時儒宗。世降教弛。聖學不明。務躬行者。或緩於致知。重文藝者。或忽於實工。又^P或過高徑約。艱險滯澁。殆涉異宗。而先生之學。獨得其正。知行交修。敬義夾持。究極精微而不離於日用。反驗親切而無間於內外。體用俱舉。本末兼該。平易明白。圓活流通。得深而存久則有本而不窮。養熟而積厚則闡然而日章。紹百年幾絕之緒而啓後學無窮之業。抱大人匡格之志而厲難進易退之節。不欲以辭爵自高。則陳情乞遞。自謂有病而難仕。未嘗以學成自足。則謙虛退讓。惟務取人而爲善。文章敘述固非所重。而發潛闡幽之功。亦有補於世教。書尺往復只酬日用。而開蒙警惰之語。莫非切於斯學。一生全體。始終無疵。求之近世。^P殆寡其倫。若此者。雖謂上繼陶山之統而得濂洛關閩之傳。恐非過語也。蓋先生自髫髻時。來往外氏。薰濡外王父密翁之訓。而聞存葛兩先生家傳之學。及長而隨俗應舉。自有向上之意。讀書做文。不出義理之說。又喜從先進長者遊。聽其議論而感發興起。纔踰弱冠。登第出入末班。少試下邑。旋自解歸。時象乖激。進塗久塞。先生不以爲意。優游林下。專精問學。乃以斯文湮晦。絕學難紹爲憂。而激勵奮勇之志。不欲以一善成名。聖賢義理之書。未嘗頃刻釋手。朋友來往。必以講明爲急。明牕靜几。斂襟端坐。潛心玩究。終晝竟夕。以至五十年之久^P而終始如一。蓋其工夫次第。先從大學入頭。以立規模。次讀語孟。填補問架。終又會極於中庸。邇得之源。一循成法。未嘗或違。讀書之法。必先究經文正義以立頭面。遂以章句集註相準發明。極其歸趣。而未嘗繳繞於小註。濂洛關閩之書。無不精究細

討。鉤發微蘊。條理極明。語類節要等書。其得力最深。蓋嘗終身服膺。須臾不捨。講究誦說。未嘗或輟。亦嘗篤信溪訓。攷覽遺集。据而爲準。蓋將心存而力體之。必要需用不已也。故其半生以前工夫。多在窮格得力。半生以後工夫。多在存養收功。窮格之方。必以讀書明理爲急。而存養之法。一以主敬爲本。自天人性命理氣之源。以至疑文變節。無不熟講深究。反復不已。體驗戒謹之工。無間於未發已發。嘗自謂靜時或有所存而動必難持。說時雖易而做時恐不如意。又嘗曰。古人所謂融釋脫落四字。此最爲好境界在。正須玩會。此其平日用工節度。而其說與學者。未嘗不以是眷眷也。故其存之中則靜一而虛明。著之色則端莊而溫厚。發爲言則簡約而精切。措諸行則安詳而恭謹。論事親則以養志爲至而不貴養口體。論事君則以純王爲準而不欲爲伯佐。學必以盡性知命爲極而不安於小成。業必以繼往開來爲大而不屑於曲藝。觀先生之行。聽先生之言。可以窺先生所志也。朋友講論。或以書札。或以面語。欲必極辨無隱。而不以己見爲主。學者執經請受。必提出肯綮。先要解說一番。聽其言或契於意。必欣然色喜。優加獎許。不合於義則亦不斷然斥非。必曰其說亦好矣。但如此如此未必然。須更思之云云。酬酢如響。從容不迫。必要各盡所見。終歸是當而後已。惟應接日煩。靜攝無暇。子弟深以爲憫。而先生未嘗或倦。必冠帶將迎。委曲酬酢。講授不輟。亦未嘗苟循情貌。輕與人從遊。少時遊宦在京。搢紳相知或有來往。而先生絕不往謝。閉館看書。跡不出門。或疑其苦隘。而不自爲悔。足以見先生平日所養也。一代先進。或各以所見解經。恐誤後學。先生輒著爲成說。極論力辨。溪門四七之說。公案已決。而後儒傳襲。各據一偏。分開渾淪。有難折衷。先生乃集格言爲說以證之。朱子敬齋箴。此最切於學者。而其用工地頭不一。先生乃摭古今名言。爲集說以明之。一心之體。動靜無間。而其工夫循環不已。乃排列爲圖。端的可据。而與心學圖爲表裏。退陶全集。編帙浩穰而其書札特切後學。乃裁節要約。別爲一書。而與朱子書節要爲一例。又嘗欲以周公事業文章著在經籍者。採爲一書。附以後聖後賢論周公之說。名曰周公全書。表章姬聖全體面目之真。而又欲編錄溪門諸子。各叙造詣事實于其下。一如伊洛淵源。理學通錄等書。使學者有所統一而不眩他歧。此雖未及成書。然而先生嘗丁寧說此。欲人之或卒成其事。可見其用意之勤而不輕於自任也。先生襟期蕭灑。韻格超邁。嘗聞有佳山水。或徒步往觀。賦詩題名。以寓其興。所居十里。有曰高山者。水石稍奇。先生嘗築書堂於其間。爲逍遙講學之所。自爲詩記圖誌以載其事。而終以來往不便。不復留處。增修學舍于宅傍。軒曰詠樂。齋曰晚玩觀善。而提攜同志。朝夕於斯。亦忘老孜孜之意也。望實日隆。四方雲趨。請學乞文。戶屢常滿。西北絕徼之人。亦有千里重趂。跋涉險阻。來留受業而歸。方伯守宰之過近境者。朝紳之奉命南來者。莫不造門請謁。或屏翽御。特致敬謹。亦有孺子在遠。聞風欽慕。恨未一拜。遠近之人。無論識與不識。語及先生。必曰大山。曰大山丈。未嘗以官爵稱之。非平日德義之重有以厭服人心。無間遠邇。豈能若是也。故當英宗末年。自上聞其名。屢對廷臣稱之曰。予聞李某賢者也。今上嗣位。特垂睿眷。欲必一見之。屢除兵刑禮佐貳之職。恩命輒下。催召日急。中外惶懼。勸起甚力。先生終不自撓。輒以疾辭。或中途徑還。或在家封章。其素計已定。而特以聖恩隆重。分義難安。有不敢一於請遞。故附古人以言事君之義。草上九條疏。以匡君救弊爲急。上批優獎。謂當替座右之銘。四方傳誦稱爲美事。其出處大節。無復可議。議者謂百年後一人也。卒以年七十一終于正寢。寢疾數朔。貼卧牀褥。日就奄奄。神思瞭然。無減平時。手腳運措。自有節度。賓親迭入診候。輒舉首致敬。未嘗晏然自卧。前易簣數日。呼子姪命筆改鄭龜翁碣文。遺戒子姪及門少。各以其道勉之。囑季氏小山公。勉唱導一門後生。加衣拖帶。延見門生。勸著實用工。且曰。這說只是平常。別無新異。然平常中自有妙處。欲必以百兩之多。車騎之衆求之。便不是。非憂道勸學之意炳然。至死不已者。豈能然也。蓋先生自始疾時。自分難起。不許邀遠醫曰。死生有定限。豈容人爲。顧我猥蒙國恩。爵位逾分。壽過七十。死無憾耳。自始至終。言

笑晏然。不以一毫憂惱見顏面。若以疾病死生一委造物。而無所用心於其間。醫生之侍疾在側者。亦察識及此。不勝欽歎。嘗屢爲門人言之。既發喪。遠近聞訃音。無不驚痛。或蒼黃來哭。或爲位而哭於家。隣近守宰之平日來往者。莫不致賻如禮。賓客門生。自初來侍疾者百餘人。至是皆痛哭失聲。開座設儀。分定諸執事。一依禮經治喪。成服之日。爲門人者。依先儒舊例。或加巾帶。或以弔服加麻。隨情制服者。多至屢十人。亦有負笈贏糧。足纔及門。而先生有疾。遂未受業者四人。及是雖不爲制服。然其痛泣自悼。悔晚莫逮。若無所依歸者。視受業無間焉。下至閭里走卒。皆嘖嘖嗟惜。必曰賢人亡矣。噫亦偉矣。門人既成服且歸。共請于小山公曰。明道之葬。伊川狀其行。今欲叙先生志行以求誌銘。匪公其誰。小山公流涕不敢辭。遂囑門人各有所記。又命體仁編錄成篇。以備參攷。體仁亦不敢辭。乃以平日之所嘗見而知之者。敢自叙述如右。豈敢曰有所發明哉。上之六年歲壬寅二月下浣。門人申體仁謹錄。

先祖高麗按廉使府君事蹟拾錄

[I]ITKMOXML | 복사 URL복사

先祖諱祐。姓申氏。系出鵝洲。高祖諱英美。權知戶長。曾祖諱晉升。散員同正。祖諱得昌。令同正。考諱允濡。仕高麗忠烈王朝。官版圖判書。清名直節。表顯當世。人比之唐介。元皇帝以東國表牋不敬。徵撰表人。人皆畏避不行。判書公挺身進啓曰。國事無可爲己。凡爲人臣者。不避夷險。以循王職。是固其分。今廷臣鼠畏狼顧。爭自謀免。思全身若千金之重。忘爲國如弊廬之賤。如是而國將何保。臣請斬輕國愛身之輩。以厲其餘。遣能事專對之人。使不生患。王嘉納。事在麗史。妣星州李氏。持平堰之女。先祖居尙州丹密縣館洞里。以孝廉進。官奉常大夫司憲府掌令全羅道按廉使。忠惠王二年辛巳。拜神虎衛保勝攝護軍。高麗故事。遣近侍于諸道。祭名山大川。糾察民風。專制一方黜陟幽明。是爲按廉使。如今御史觀察使。非清峻有重望者。未或應選也。先祖廉介正直。得自家庭。出入臺憲。僚寮震縮。按節宣化。貪污解印。及世季政亂。見時事日非。羞與俯仰。高蹈遠引。人之稱之者。或謂立朝而風采振一代之聲。或謂風霜灑塗棠映御史之節。或謂甘心韜晦。得行藏之道也。世傳公與吉治隱攜手同歸。而無顯籍可据。不敢直書。先祖事親至孝。出於天性。判書公卒。廬墓三年。朝夕號泣。血淚澈土。有雙竹生墓前。人謂孝感。事聞旌閭。名所居里曰孝子里。事在麗史及輿地勝覽。續三綱行實。今遺墟路傍有小石碑。刻孝子里三字。知是旌表時所建。過者加敬。孝子里西距數里。有洞名清慎。判書公墓嘗在是洞。而世代寢遠。誌碣無徵。不幸失其墓。至今密人相傳爲居廬洞云。先祖墓在孝子里東十里許蛇浦兌向之原。愚伏鄭先生表墓道曰。昏濁之世。能以皎潔持身。又曰。公之孝誠。感鬼神。幹造化。赫赫在人耳目。其後愚伏。蒼石。沙西諸先生。又議立景賢祠祀之。號曰涑水書院。鶴沙金先生撰奉安文曰。本立道生。至誠感神。湖西進士洪錫基作雙竹圖歌。略曰。湖節既化俗。柏臺曾飛英。至孝神亦知。地祇有所呈。乃知孝子心。與竹同其貞密。自先祖以後。號多孝子。至今閭里間。異蹟繼起。棹楔相望。論者謂自吾先祖發之也。配若木柳氏。崑山府院君益貞女。有二子。長曰光富。內府令。次曰光貴。知鳳州事。內府有子曰士贊。后孫居遺墟。曰士廉。彥陽縣監。彥陽有玄孫元福。參奉。以孝友稱。元祿贈參議。號悔堂。孝行趾公美。亦居廬三年。旌閭。享義城藏待書院。參奉有曾孫瑠。文科縣監。以清白稱。悔堂有子佖。監察。乞贈承旨。稱孝友。佖有子適道。察訪。丁卯丁丑倡義。達道脩撰。贈承旨。號晚悟。丁卯斥和。悅道正言。號懶齋。孝友有文章。晚悟有子在。泰仁縣監。

圭文科佐郎。泰仁有孫濂。以孝贈持平。鳳州有子曰希信。丹陽郡守。曰希忠。河東縣監。曰希敬。丹陽有曾孫介甫。司直。用甫果川縣監。命周扶餘縣監。有玄孫謙參奉。有子應祥。參奉。司直有子幹直長。翰贈判事。直長有子百齡。參奉。有孫格檢樞參奉。有曾孫之禮，之享。直長。之仁司宰監正。之益參奉。母病。炷掌祈天。之仁^P有子鈇。親病鶻擊雉。之益有子鐔。倭擊父。以身受刃。三人並以孝旌閭。判決有子應奎。參奉。贈參判。參判有子夢得。贈承旨。承旨有子之孝。有士望。載聞韶誌。死壬辰倭刃。臨絕。血書寄弟勉死國。之悌文科承旨。錄壬辰勳。贈參判。號梧峯。有德行文章。至孝廬墓。亦享藏待書院。之信以孝友稱。亦載聞韶誌。梧峯有子弘望。文科正言。號孤松。遊張旅軒門。見稱以春風和氣。果川有子椿年。參奉。參奉有子暹。龍宮縣監。其餘不能盡錄。今以鵝洲爲氏者。皆祖於按廉。嗚呼。我先祖以超世拔倫之操。雖未得致位卿相。究展所蘊。然歷敷清顯。追^P繼家聲。風裁凜然。有足動人。百行之源。垂範後世。子姓鄉黨。相繼興行。想平日至行懿德。不止如右所記者。其餘律身御家。立朝居官。前後事蹟。想多超偉可傳。而時代絕遠。無籍可據。至如表德履歷及生卒月日。并不可記。子孫之追恨固無窮。意昔修撰公嘗贊狀。求墓表於鄭先生。宜有遺草而逸不傳。諸宗父兄相與發歎。乃命體仁。俾修狀錄一通。體仁以寡聞末裔。何足以闡發潛光。而旁搜極攷。惟舊籍所顯載者是採。不敢附以無稽。謹俟裁取於來後云爾。

傳

白巖金先生傳

[1]ITKMOXML | 복사 URL복사

高麗氏之亡。節義輩出。一體忠貞。撐拄倫綱。肝膈共照而事蹟相殊。顯晦不齊。若鄭圃隱，金籠巖，吉冶隱，元耘谷，徐衿川。此其大彰明較著者也。以余所聞。張達山輔之剃髮入山。洪敬齋魯度國亡隨化。伶官林千石墜死巖厓。其迹亦卓絕可異也。獨湮沒無稱。識者蓋寡。况當日棹舟浮海。遐逃永遁。歷累百年絕無影響者。尙復何論哉。余嘗謂伯夷，叔齊。兄弟也。恥食周粟。共餓死首陽。山下人至于今稱之。白巖金公與籠巖亦兄弟也。伯叔雙節。亦無間也。籠巖入我朝。褒崇備至。廟食百世。白^P巖聲迹俱泯。鄉里後生。莫能記其名姓。余竊惑焉。嗟乎。魯仲連。齊之高士也。恥帝虎狼之秦。欲蹈東海以死。其義誠凜凜也。顧白巖公當聖祖龍興之日。乃反托跡蹈海。欲追躡魯連之風。國人之不敢言。以此耶。况籠巖嘗寄送朝衣。有巾烏之封。過者式其下。其視入海滅影。茫無憑聞者。果何如也。無怪其顯晦之相懸也。孔子曰。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謂無實可名也。苟有實焉。無名庸何傷乎。子又云。伯夷叔齊。求仁得仁。又何怨乎。若白巖公。可謂求仁得仁而無怨悔者矣。雖然。顯晦亦各有其時也。天理孔昭。豈終泯滅遂已耶。余於白巖公尤^P信。

其傳曰。白巖先生金公。麗季人。始名濟。世家一善之注兒里。尙書元老之子。籠巖先生兄也。公與籠巖道義相長。爲天倫知己。幼遊江上有聯句。公時年十一。籠巖八歲。公唱一句云巖磨水府千層白。籠巖對云錦落天機一段紅。識者謂二句各畫出平生難誣也。及長仕於朝。籠巖官至典書公。知平海郡事。一朝國革。籠巖嘗奉使上國未還。公在郡衙。義不事二姓。乃自托齊仲連蹈東海之義。改名齊海。題詩郡齋壁上曰。呼船東問魯連津。五百年今一介臣。假使孤魂能不死。願隨紅日照中垠。^P遂棄妻子。著

회병집(晦屏集) 신체인(申體仁)

蘆笠。乘扁舟入海。不知所終云。壁上詩。詞氣激烈。寄意深遠。上二句。直述蹈海之志。下二句。便以陸秀夫自擬。由此觀之。怨耶非耶。魯仲連不遂蹈。公實往蹈之。甘以身餌魚龍無悔。其難易又何如也。公既蹈海未幾。籠巖始歸到鴨綠。寄書家人。送朝服。逃之荊蠻不返。其日月差先後。我朝烈聖相承。褒崇前朝節義。籠巖已闡揚無憾。顧公未蒙顯褒。嘗以孫孝貞貴。例贈戶曹參議。非所以表章名節也。其後年代寢遠。文獻無徵。壁上詩且逸不傳。沒沒泯泯。已迄三百餘年。絕無人知之。至今上乙巳。一善章甫。重修籠巖院廟。得舊題六偉詞。詞曰。一曲墳音何處斷。千秋悵仰魯連風。於是始相顧驚嗟。就問籠巖后孫。有老人言。先祖蓋有兄諱某。嘗知平海郡。麗亡。托跡蹈海不返。此乃家庭口耳相傳。非有文蹟可攷也。越己酉秋。平海壁上詩。乃忽出於龜城士人家。實載在徐萬竹所編東國詩譜第一卷。而其題下。略錄姓名事實。於是山南人士相與播告。喜得其實。始謀及本孫。爲搆新祠。以白巖。籠巖聯享一堂。名之曰雙節廟。蓋公或嘗有號無可攷。至是多士合議。乃拈取公江上聯句中字。特稱之爲白巖先生。以此題祠牌。或問後人追號前輩。恐未安。應之者曰。古人有私諡貞曜者。程伯子卒。潞公文彥博。特追號爲明道先生。而伊川序之。此固可據矣。顧何疑哉。公夫人權氏。監察啓麟女。亦嘗失其姓氏不傳。既得公壁上詩之後。公之幾世孫聲國遊漢中。又因知友舊蹟。得知晦顯固若相須。權氏嘗教育二子。入我朝登顯。后孫散居江左。衣冠不少。有曰喜。當壬辰亂。仗義殉節。贈正郎。聲國欲爲公闡揚幽光。嘗號籲法駕。遍謁公相。歷屢年不止。朝夕當得遂所願。雙節廟在安東西界六十里申城里。墳篋脰食。風聲永樹。固將與孤竹二子廟比隆。而聞廟之後山。有名曰孤竹峯者。一區施設。適與相會。蓋亦不偶也。聲國云。

晦屏先生文集卷之十二

附錄

行狀[李秉遠]

[]ITKMOXML | 복사 URL복사

先生諱體仁。字子長。自號晦屏。本貫鵝洲人。

曾祖諱叔範。妣聞韶金氏。

祖諱賁龜。妣載監李氏。沃川全氏。

父諱道萬。妣聞韶金氏。河濱李氏。英陽南氏。

鵝洲之申。爲東方望族。自按廉使祐。始載族姓。累傳至梧峯先生諱之悌。官承旨贈吏曹參判。孤松先生諱弘望。官正言。於先生間六世五世。英廟七年^P辛亥四月二十五日。先生生于義城縣西龜尾里第。方娠。先處士得異夢。已而乃生。生而眉宇清粹。骨格俊偉。自未解語。已癖好書冊。指認文字。方三四歲。聞隣家讀書聲。因往赴焉。家人不知所在。窮搜乃得。問終日不食。得無飢乎。對曰。聞讀書聲。自不飢也。五歲。上十九史。未數月而畢一卷。七歲。長者令狎父字。卽應口曰。翩翩枝上鳥。知母不知父。一座驚異。聰詣絕倫。一覽便記。篤志厲業。不肅而藝成。八歲。丁母夫人憂。號哭如成人。拊其姊妹益篤。壬戌。繼妣李氏入門。潛入後園。涕泣被面。見者莫不收淚。未一年。李氏沒。^P哀毀如所生。庚午。聘柳氏。丙子丁外艱。繼喪柳氏。時厲氣彌天。喪威震疊。而躬親斂禭。戚易備至。君子以爲難。己卯。聘張氏。辛巳赴鄉解。考官李輝中擢置^茅一曰。非今世科儒也。甲申。樞衣於大山李先生之門。蓋自童子時從剛窩任先生學。後因往來祝室。質問於九思金先生。已知俗學之外有向上事業。而至是發憤刊落。一意內修。得師門剛明果勇之許。辛丑。遭山樑之痛。以斯文墜地。道學無傳爲憂。與同門老成互相質難。隱然有歲寒之期焉。壬寅。錦淵精舍成。名其室之左曰主敬。右曰集義。其無求自樂之意。備見^P於自撰詩及記。甲辰。遭夫人張氏喪。時家計日剝落。往往蔬糲不繼而莊盆再扣。幼稚滿膝。人不堪其憂而處之晏然。無一毫戚嗟之意。丙午。主冰溪教席。欲舉行通講禮。做朱子月朔會。約草定儀節。而因事遞。識者恨之。戊申。患司視之症。幾不能辨字。閉目靜坐。專精內視而存養之工益密焉。戊午。伯胤上舍公歿。蓋先生有四子。^茅二子有異才。人稱神童。而十四而夭。第三子才業已就。而十七而夭。至是而上舍有儕友重望。家庭之間。期擬遠大而又以青年辭庭。悲傷慄慄。殆非人理可堪。而能以理自遣。不以死生關心。^P乃曰。亡者好禮。今當以禮治喪。作壙銘。書棺面以瀉哀。己未。遭後妣南夫人喪。時年已七耄。疾病漸頓。身被兩麻。而瞿瞿梅梅。式禮莫愆。丁卯。縣侯金相任。以經術文章爲一方模楷登薦。自戊辰己巳。方伯尹侯光顏。鄭侯東觀相繼致禮。特加啓薦。壬申春。疾患連綿。日漸添劇。而手足運措。皆有節度。粥飲疏數。親自點檢。至四月初。已不能言語而精神猶不亂。初三日戌時啓手足。享年八十二。訃出。遠近學者爲位而哭。有斯文之痛焉。六月二十四日。葬涑洞坤坐之原。子鼎辰。前夫人出。卽上舍先卒。子灃辰。後夫人出。今^P嗣守錦淵精舍。有子祖楫。爲上舍後。次祖鶴。皆能世其家者也。先生才調出人。少留意於文章。甫成童。讀史漢唐宋以下。至皇明我東諸家。無不慣穿成誦。而酷慕韓子。著韓子文賦。嘗讀書于華藏山中。約五夜一假寐。非便

溺不出門。恐溫煖交睡。衣着單裕。房取涼令。所讀不滿千不止。每自七月以後至三月以前。窮日夜不暫休。如是者數歲。自是文詞大進。著述有作者軌範。公車之文。亦不遵程式。縱橫滂沛。所至輒居前列。童子時。赴縣校戰藝。筆翰如流。援引宏博。一場屬目。皆推爲先進。一日。本倅設樂。先生往觀之。P 歎正聲之微茫。述樂賦一篇。歷叙天人正變。上自黃帝顓頊以下。下至夷狄神仙之樂。鉤幽蹟微。張皇數千言。當世老師宿儒。莫不嘖嘖退一舍。工於詩學。往往逼古。其病苦吟一篇。九思堂以爲得退之骨髓。旁及外史雜記。如天文地理兵家筭數卜筮醫藥之流。無不涉獵究索。而中晚以後。文章專主理勝。觀書絕去雜駁。案上有數百卷書。皆洛閩心性淵藪。一時儕友。稱之爲程氏學云。素性簡亢。處人接物。無所假貸。發言持行。多尚峻厲。而自承師門指教。礪磨陶養。漸就和緩。橫逆之來。談笑而處之。嘗以意外事被誣於P人。禍將不測。子弟欲辯之。先生曰。相悉之間。只盡吾道而已。曲直不須論。親往罷之。其人愧服。事竟得已。平生窮約。四壁徒立。而安之若性。見兒曹有飢色則輒曰。曾子居衛。七日不舉火。曳履而歌商頌。聲滿天地。若出金石。人苟堅其志操。卽飢寒不能累耳。嘗答人書曰。殺年計活。與歲俱窮。惟將以窮當益堅。老當益壯。爲八字符。念唐之樊紹述慕古道能文章。妻子或告乏。輒顧笑曰。我道蓋是也。皆應日諾。無不意滿。可見其平日趣向爲家人信服。吾輩一不食。便不能泰然忘情。爲家人者。亦未免失其歡色。其不食非可P憂。惟不能使家人若樊子之妻孥者。爲可愧耳。江臯草閣。風日或不蔽而麻衣草履。蕭然孤坐。望之若枯鶴焉。謹於辭受之節。嘗作花山行。有數百泉文遺落路傍。從者欲取之。先生曰。汝不聞道不拾遺之語乎。遂使勿取。有一親友冠其子。屬先生以西階之位。及歸。見幣束中有錢物。卽還書卻之曰。恐有痕跡。然心所未安處。不容自己云。水溪舊例自別所製進洞主革鞋。先生卻之曰。吾平生不着革鞋。有族人以浦田屬之精舍。而隣畊者欲冒占。先生曰。本非我物。何足與較乎。門內子姪及學子之來往者。收聚如干財谷。P爲久遠之計。而時值凶荒。貲多不入。先生聞之。令焚其卷。窮日蓋甚而操日益勵。方伯守宰之贈遺。知舊姻族之調恤。必皆決於義。而不以一介之取與有所苟也。尤謹於行止。嘗赴南省。有綺紈子聞先生名。要與同事。先生以嫌疑之際不可不慎。嚴辭以拒之。赴夏課覆試。主試者令密探公券。覺之不呈券而歸。方伯以朝廷命。請道內名碩有會校之役。先生辭以疾。與金川沙論去就之義。其後尹方伯將行鄉飲酒禮。遣官吏致問要速。亦不往。少有四方之志。每當詞翰之場。秉羽先登。而既而約之於道德。雖隨衆應舉。P不欲爲表高揭己。而恬於進取。不以得失介意。棲遲錦谷山中。閒居養靜。與世相忘。花檠繞砌。牙籤滿案。兀兀終日。不知老之將至。嘗書古人名言。如顏子四勿。張子六有及心近要語。揭之四壁。作一小屏。模退陶聖學十圖。繞之座右。軒窓向東。朝旭方升。仍感提綴此心之義。集合古今名言。作窓銘十六句。爲圖以資觀省。每當風朝月夕。歌詠聖訓。或緩步徐行。平章水石。有考槃永矢之樂焉。自少喜從先輩長者游。早已發端於梧溪九思之門。而及得依歸。毅然以此學爲己任。嘗曰。昔年妄學文章。每覺胷中鬧熱。如水火P交戰。就正以後。漸覺義理平實。心界專一。而師門亦許以志意堅愜。思慮精審。朋友鮮有及云。李先生每有校書。或義理頭段。輒寄書招呼。與之商論。嘗因事往來洛下。歷訪順庵安公。安公稱之爲南州豪傑。出示所撰東史綱目。多所商確。嘗謁銘於蔡樊庵。樊庵歎曰。觀申某。吾輩不可謂讀書人。往謁數咎崔先生。多所請益。與后山李公。川沙金公。東巖柳公。晚谷趙公。結以道義。往復辨難。殆無虛歲。晚年疾病沉淹。兩眼全不辨而口誦心惟。未嘗或懈。如朱子書節要。易乾坤二卦。書洪範無逸。詩抑戒。禮記表記儒行。大學P誠正修章。中庸首章。論孟諸章。古今箴銘。濂洛詩諸篇。周而復始。如誦己言。嘗曰。衛武公。九十五猶箴警。人豈可以老廢自沮乎。其一心向上之意。炳然如丹。蓋其學以主敬爲基本。以靜坐爲要法。尤用力於整齊嚴肅。正衣冠。尊瞻視之工。乃曰。敬者聖學所以成始成終者也。自古聖賢論敬之說。持敬之工。昭在方冊而其言散出。學者未易通看。遂編崇敬錄

一篇。以論敬旨訣。持敬淵源。分作兩卷。係以誠敬說敬義說靜敬說。而以懲省錄附其下。凡聖賢言敬之旨。無不蒐羅剔決。指南於斯道矣。又嘗謂秦漢以來。功利之習成。而義理之心晦。專由於王伯之分未明耳。欲蒐輯古今王伯之辨爲成書。而未及下手。又謂東方邪學大肆。聰明之士。往往漸染。將至於倫彝滅而家國蒙禍。乃作天學宗旨圖辨而辭闢之意。偉然有障川之功矣。以獎進後學爲先務。其設教也。必本之於小學灑掃應對。而循序漸進於大學。嘗作勸學歌。雜以真諺。令學者誦之。爲激厲奮發之資。盖有感於程氏別欲作詩。令朝夕歌之義也。謹於禮節。日用應酬之間。雖細行疎節。必皆折之於禮。古今禮家之因訛襲謬者。多所釐改。祭以誠敬爲本。粢盛務致蠲潔。而豐約則稱家而已。不爲苟辦也。其主冰溪院也。舊有太乙壇。爲氓俗所信向。每當歲時。擊鼓祈禱。先生令毀其祠。痛禁之。淫祀遂息。人服其定力云。先生以卞急之性而濟之以寬和。以文章之手而返之於義理。講說則破固滯而歸平實。行己則去稜角而回坦夷。至其晚年。動作有節。行步有則。惰慢之氣。不設於身。鄙悖之語。不出於口。氣像從容。容色莊嚴。操履之密。存養之熟。儼然有靈光之望焉。秉遠自幼少時。每見先生至則同門長德。互相招邀。所言不出講說之外。或綿日夜不倦。使人欣然知所慕尚。今荏苒之間。七十子已喪矣。俛仰今昨。不勝斯道日孤之歎。日。其遺胤瀛辰甫。以遺事一通來示曰。先人平日立心本末。粗有可述。而記德之狀。未有所屬。知先人事行者。無如夫子家人子。盍爲之撰次。俾有所徵信。秉遠自惟藐然後生。何足以知先生之奧。則僭加記述。祇以重不韙之罪。再拜而辭而不獲。則仍竊惟念先生不以無似爲不可教。蒙平昔拊頂而提耳之者屢矣。雖愚蒙顛劣。白首無聞。以負先生之教。而竊私識於言行威儀之間則有之矣。今而相茲役。亦烏敢以不文辭。遂按據而序次之如右。

上之三十四年甲午清和節。後學韓山李秉遠謹狀。

[주-] 茅 : 第

[주-] 茅 : 第